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례모음

따뜻한 사람들의 복된 이야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이 시작합니다.

WHY?

사람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주위를 돌아 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이웃들이지만 멀게만 느껴집니다.
언제 부터인가 '우리' 모두가 힘든 일이 나 혼자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HOW?

따복공동체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주민이 함께하면 아이디어가 샘솟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복공동체는 우리가 사는 마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길입니다.

WHAT?

따복공동체는 사람과 마을의 협동이 중요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며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 사람이 변하고 마을이 바뀝니다.
주민이 만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을 통해 공동체를 가꿉니다.
따복공동체! 경기도의 따뜻한 미래입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례모음

따뜻한 사람들의 복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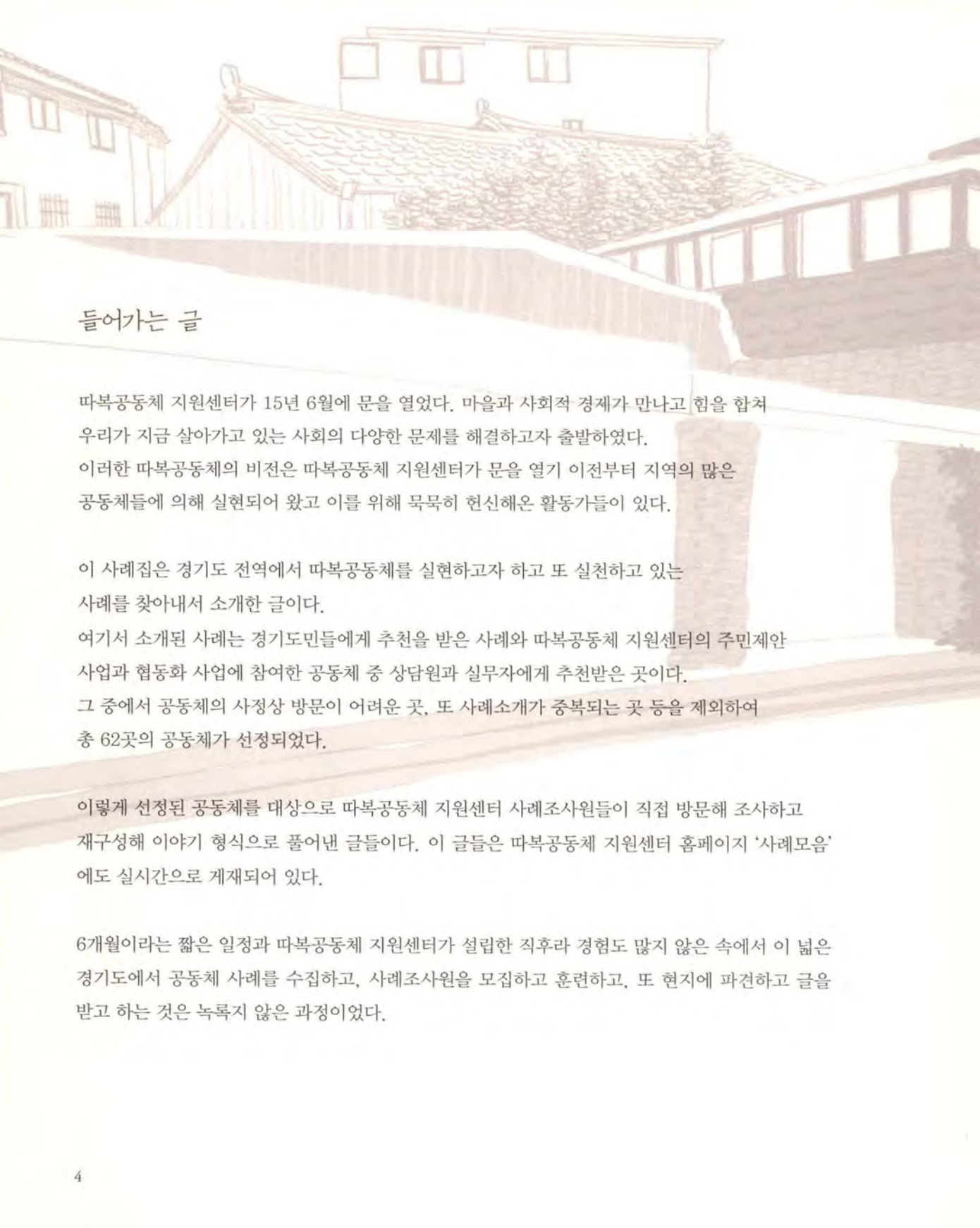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목차

들어가는 글	4	17. 뚝단지 마을	106
01. 가평읍내 3,4리 청년회 · 주민제안사업	6	18. 마을in, 멈추go! · 협동화사업	112
02. 감골주민회	12	19. 문화세상고리	118
03. 고기교회	20	20. 바른두레 생협 · 생협입점사업	126
04. 고양 · 파주아이쿱생협	26	21. 술대노리 협동조합	132
05. 과천품앗이 · 협동화사업	32	22. 숲속옹달샘 작은도서관 · 주민제안사업	138
06. 광암동 기지촌 상처, 치유, 공감 프로젝트 · 협동화사업	38	23.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 · 주민제안사업	144
07. 꿈너비작은도서관	44	24. 아이꿈터 장난감도서관	150
08. 느티나무 · 주민제안사업	52	25. 아홉색깔 농부 · 주민제안사업	156
09. 달나라토끼 협동조합	58	26. 안민사랑동지 · 주민제안사업	162
10. 대야미마을 협동조합 · 주민제안사업	64	27.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168
11. 더블어꿈 · 주민제안사업	70	28.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	176
12. 더블어 숲 페어라이프	76	29. 안양실버포럼 · 주민제안사업	184
13. 더페이퍼	82	30. 양주꿈의학교	190
14. 되살림가게웃는나무&북카페, 물푸레작은도서관	88	31. 에버그린에버블루 협동조합 · 꾸러미사업	196
15. 두레협동조합 · 협동화사업	94	32. 연현마을문화예술연구소 · 주민제안사업	200
16. 두루누리 어깨동무 · 주민제안사업	100	33. 영농조합법인 김포농식품가공	206

34. 오뚜기 마을 · 주민제안사업	214	51. 퇴촌토마토평화마을 · 협동화사업	316
35. 우리동네 협동조합 · 협동화사업	220	52. 파주 운정2동부녀회 · 주민제안사업	324
36. 울타리넘어 · 주민제안사업	226	53. 평택흙볼트학회 · 주민제안사업	330
37. 원당신협	232	54. 포천비둘기낭정보화마을	334
38. 위캔센터	238	55. 하남동화만들기모임 · 주민제안사업	340
39. 율곡영농조합	244	56.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	348
40. 의정부협동조합	250	57. 한신대 꿈틀거리 · 따복바람사업	356
41. 이천F4	256	58. 해바라기 마을	364
42. 인생나자 작업장	260	59. 해피트리 · 주민제안사업	368
43. 잔다리 마을공동체 · 생협입점사업	266	60. 행궁동 사랑방	374
44. 전나무골 사람들	272	61. 행복마을 추억제작소	380
45. 제팻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278	62.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	386
46. 좋은터	284	사례조사원 후기	395
47. 주민신협	290	에필로그	400
48. 참새방앗간 · 주민제안사업	296	색인	406
49. 칠보산 마을	304		
50. 콩나물신문 협동조합	310		



들어가는 글

따복공동체 지원센터가 15년 6월에 문을 열었다. 마을과 사회적 경제가 만나고 힘을 합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발하였다. 이러한 따복공동체의 비전은 따복공동체 지원센터가 문을 열기 이전부터 지역의 많은 공동체들에 의해 실현되어 왔고 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활동가들이 있다.

이 사례집은 경기도 전역에서 따복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내서 소개한 글이다.

여기서 소개된 사례는 경기도민들에게 추천을 받은 사례와 따복공동체 지원센터의 주민제안 사업과 협동화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중 상담원과 실무자에게 추천받은 곳이다.

그 중에서 공동체의 사정상 방문이 어려운 곳, 또 사례소개가 중복되는 곳 등을 제외하여 총 62곳의 공동체가 선정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사례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재구성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글들이다. 이 글들은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 '사례모음'에도 실시간으로 게재되어 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일정과 따복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한 직후라 경험도 많지 않은 속에서 이 넓은 경기도에서 공동체 사례를 수집하고, 사례조사원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또 현지에 파견하고 글을 받고 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다.

따라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례도 많고 또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사례를 골고루 신지도 못했다. 이점 활동가 분들과 해당 시군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를 구한다.

또한 경험의 부족으로 단순 소개에 그치고 심층적인 분석이나 공동체 활동의 역동성은 잘 나타내지 못한 한계를 느낀다. 하지만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음에 나올 사례집에서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다루어지길 바란다.

이 사례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고 도서관에서 하루종일 끙끙대며 글을 쓴 사례조사원들 덕분이다. 또한 조사원들을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준 황상운 선생님의 노고 때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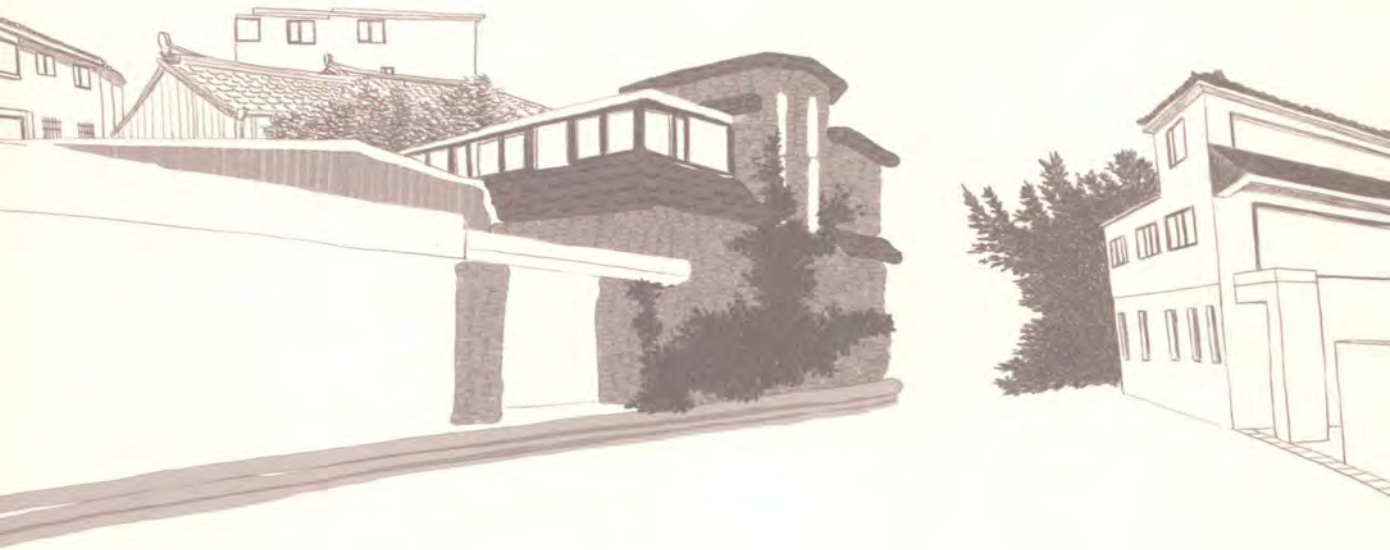
부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례집을 읽고 따복공동체 운동에 관심 갖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바란다.

2016.2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 이 사례집에 실린 사진은 사례조사원들이 공동체에 직접 받은 사진으로 화질이 다소 떨어짐을 양해바랍니다.



01

가평군 읍내 3리와 4리의 청년들이 시내 활성화를 위해
결성한 마을공동체로 작게 웃놀이부터 크게
도단위 사업까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인과 주민의
화합을 유도하고 있는 곳이다.



가평읍내 3, 4리 청년회

주소 |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주민 스스로의 행복 찾기와 더불어 마을 활성화까지 이루어낸 그들 가평읍내 3,4리 청년회

가평의 중촌 읍내리

가평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머지않아 도착한 가평읍. 그 중심에 있는 마을 읍내 3리.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에는 읍내 4리가 있다. 기존에 존재하던 읍내 3리의 청년회가 4리의 청년들과 시내 활성화를 위해 결성한 마을 공동체가 읍내 3,4리 청년회다. 청년회원들은 마을에서 작게는 옷놀이부터 크게는 도 단위의 사업까지 일이 있을 때마다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하면서 상인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애썼다.

첫 사업, 첫 삼을 뜨자

읍내리 근처에 있는 남이섬과 자라섬에선 평소 행사나 축제가 자주 열렸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축제를 즐기고 갔지만 정작 주민들은 오·폐수 처리 문제,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축제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3,4리 청년회는 '평상시 문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즐기며 행복을 찾자'라는 주제로 '자동차 없는 음악거리 사업'을 준비했다. 3리 이장과 4리 청년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주민자치위원, 노인회, 부녀회원들과 축제 위원회를 구성했다. 차가 다니지 않는 탁트인 공간에 무용, 다양한 악기 연주,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들을 채워 넣어 음악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동네 명품거리로 거듭나기

하지만 사업 준비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오로지 재능기부만 받아 프로그램 참가자를 구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청에 자문을 구하고



축제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주민들

같이 수소문을 해서 경기 팝스 앙상블, 사물놀이패, 태권무팀 등 동아리 활동가들을 섭외할 수 있었다.

또 축제 진행을 위해선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대로를 막아야만 했기 때문에 축제 위원회 구성원들은 대로 옆 50여 개 가게에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마땅한 장소도 없고 시간도 맞지 않아 상인회원들을 한곳에 모아 설명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행사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도움을 요청했다.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국화 모종 120개를 준비해 거리에 비치했는데, 때마침 축제 기간이라 꽃이 만개하는 시기와 맞물려 화사한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노인회원들과 거리를 청소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

읍에 있는 기존 기반시설도 적극 활용, 읍내의 은행나무에 LED 조명



행사 진행사진

차없는 거리축제

가평 꽃자리 잔치

10월 3(토) ~ 4(일)

프로그램 안내

10월 3일 (토)		10월 4일 (일)	
18:00~18:20	자라심 통기타	18:00~18:15	사물놀이 (소리지기)
18:20~19:00	주민자치한마당	18:15~18:30	앙골롱 연주
19:00~19:10	참작무용	18:30~18:45	난 타 (여우가락)
19:10~19:20	태권무 (유성체육관)	18:45~19:15	7080 통기타
19:20~21:00	희망콘서트	19:15~19:50	거리로 나온 예술 (마술)
		19:50~21:00	경기 팝스 앙상블

- ◆ 주 최 : 가평군
- ◆ 주 관 : 석봉축제추진위원회
- ◆ 장 소 : 석봉로 (가평군청~한림의원)

차없는 거리축제 홍보 포스터

을 설치해 거리의 미적 효과를 더했다. 은행나무 조명은 인기가 많아 요즘도 성탄절, 구정 등 특별한 날에는 전시해 주민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평상시의 문화에 대한 갈증도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 청소 후 아침 식사도 같이 하면서 평소에 자주 소통하지 못했던 이웃들과 친목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또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단기간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읍내리 상가의 매출이 늘고 활기가 도는 것을 보고 상인회도 만족해했다. 청년회 또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주민들이 행복해하고 마을에 보탬이 되고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아 뿌듯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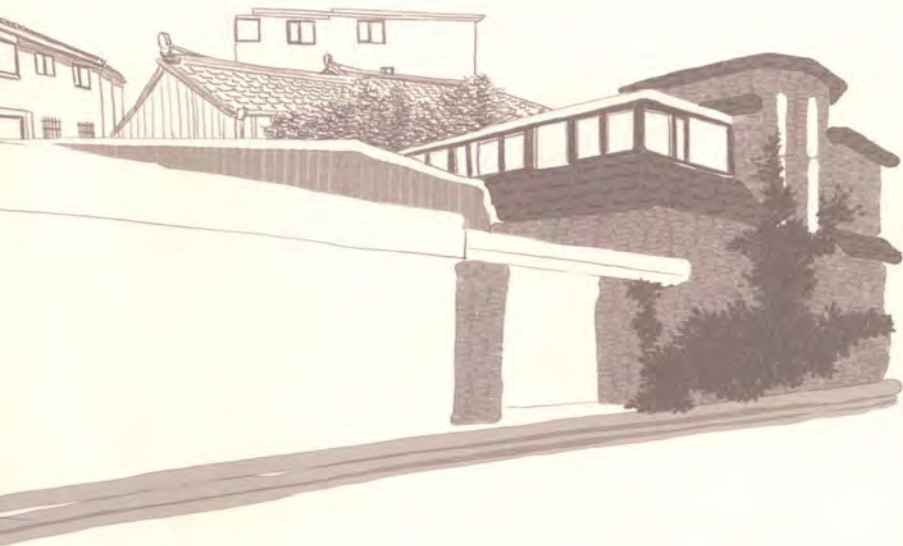


“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단기간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읍내리 상가의 매출이 늘고 활기가 도는 것을 보고 상인회도 만족해했다.
 청년회 또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주민들이 행복해하고
 마을에 보탬이 되고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아 뿌듯해했다. ”

마을 주민들과 힘을 모아 첫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읍내
 3, 4리 청년회. 다음 행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송댄스
 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교댄스를 지하에서 끌어올린
 프로그램 '댄스 페스티벌'을 기획 중이다. 주민들의 행복
 증진을 우선시하고 마을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
 인 이들 청년회의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글: 윤영욱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1. 19



02

행복하고 즐거운 동네,
사람들의 온정이 넘치는 동네,
그래서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 가는
안산 감골 주민회.



감골주민회

주소 |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95-7
전화 | 031-408-7601



멋쟁이 미즈들의 꿈터 감골주민회

쏟아지는 빗속에 피지는 메아리

2015년 12월 2일 감골주민회 답사동아리 역사 기행이 있었다.

사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출발하여 안산시 대부도 선감동에 위치한 경기도 기념물제194호 대부광산 퇴적암층에서 1999년 대부광산 암석채취 중 초식공룡 케리니키리움 발자국 1족 등 총 23족이 발견된 대부광산, 1923년 항일투쟁시기 일제의 대동아 전쟁 인적자원을 늘리기 위한 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사회적 청소년(8~18세)을 감화한다는 핑계로 만든 감화원으로 해방 이후에도 인권유린사태가 벌어졌던 아픈 역사를 지닌 곳 선감학원, 동부염전, 시화호 조력발전소 등, 외부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유적지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일정이었다. 청소년 역사 탐험대가 답사한 코스를 그대로 답습하는 지역사 중심 여정으로 진행된 탐방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듯이 겨울비가 여름폭우처럼 쏟아져 운동화가 모두 젖었는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듯 내 고장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뿌리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인솔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감골주민회 대표(이영임)가 설명하고 함께 한 회원들이 경청하는 태도는 사뭇 인상적이다. 회원들 간의 깊은 신뢰와 배려가 느껴지게 충분했다.

아이들의 학교에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다

감골주민회가 결성된 계기는 2006년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석호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여 봉사하는 여러 모임들 중 '도서관 도움 어머니회' 엄마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부



지역사학습동아리

터 시작되었다. 처음 마을사업에 대해 제안했을 때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속으로 들어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신나고 즐거운 마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로 뭉친 1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2010년 3월 설립하였다. 이후 학부모지원사업을 받아 저소득층의 학습지도와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책 축제와 아버지학교, 어머니 평화교실 등과 같은 공모사업에 참여하였다. 2012년에는 주민동아리활동, 주민자치학교 등과 '안산시 좋은 마을 지원센터'에서 '어린이날 축제 공모사업 제안이 들어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마을축제로서 숲속영화제, 마을음악회, 되살림장터, 마을송년회 등을 열고 있다.

이러한 활동엔 공간이 필요했다. 마침 시의원의 선거사무실이 밤에는 비어있는 점에 착안하여 협조를 구한 후, 낮에는 선거사무실로, 밤에는 아이들 학습장으로 활용하였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아이들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였지만 현재는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을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학년별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 1,2학년 대상인 '마을 숲이야기'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어울리고 배우며 나누는 과정을 통해 마을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활동을 하며, 초등 3,4학년 동아리 '다돌이'는 과학실험, 영어놀이, 도자기 만들기, 발도르 프수공예 수업을 체험한다. 초등 5,6학년 동아리



동네부엌 요리교실



목공방

리 역사 탐험대는 우리의 역사를 놀이와 게임 탐방형태로 진행해 즐겁게 역사를 배우도록 하고 있으며, 중학생 동아리 '1318세상과 소통하다'는 독서, 영화감상, 기행, 토론을 통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한다. 이외에도 성인 동아리로 '손질'과 '책모임'이 있다. '손질'은 퀼트, 뜨개, 요리 등 자신의 재주를 함께 나누고 배우는 모임이며, '책모임'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책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동아리다. 2013년에는 동아리가 어느 정도 정착된 후 동네사람들과 만나자는 취지로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카페 마을숲'을 오픈했다. 재원마련을 위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연계한 '마을디자인 대학'을 통해 회의를 거쳐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판, 의자 등을 직접 꾸밈

다. 매니저는 오전만 담당하기에 나머지 시간은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봉사를 한다. 봉사자들은 일하면서 사람도 만나며 즐겁게 놀자는 마음으로 나온다고 말한다. 주민들이 하나 하나 만들어 꾸밈기에 애착이 더 가고, 마을 사람들도 오가며 참새 방앗간처럼 들러 소식을 전해 듣는다.

또한 다양한 모임의 장이 되어주고 공동체의 활동 주무대가 되며, 아이들은 친구들과 사귀며 놀 수 있는 어울림의 장 '카페 마을숲'이다. 커피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 외에도 사무실로도 사용되고 있어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마을숲 행복학습센터'의 '작은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어린자녀로 인해 마을사업에 참여해오던 조합원들의 활동이 뜸



감골주민회 동아리 활동

해지고, 구직으로 인해 떠나기도 하여 봉사자들의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결속하고 함께 활동해갈 께리가 필요해지면서 공유경제개념으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공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2015년 하반기부터 지하공간을 임대해서 목공방을 운영한다. 현재는 배우는 단계이지만 원목을 직접 들여 놓고 자르고 다듬는 일들을 하며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 작업장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공동부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동부업에서는 요리교실도 운영되고 있으며, 고정 고객을 확보해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장벽, 그 장벽을 넘다

2015년 6월 27일에는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마을계획'이라는 주제로 '사1동 주민 3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주민 스스로 마을 비전을 생각하고, 마을 5개년 계획을 세워 실천가능한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반영되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사업기간이 짧거나 1회성인 마을 사업을 해오며, 감골주민회만이 아닌 사1동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마을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제안을 했다. 지원센터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구체화하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감골주민회와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1동주민센터, 주민자치, 통장 등이 참여한 마을계획기획회의를 구성하고,



300인 원탁회의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전체적인 기획을, 감골주민회는 마을계획실천단 모집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상은 사1동 중 다가구밀집지역이었다. 사1동 4만 명 중 만 명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주민들의 생활권도 하나로 뭉쳐져 있어 이 지역의 관심사를 함께 모여 고민해보고자 한 것이다. 준비를 하면서 관계된 일이 아니면 눈길을 주지 않는 요즘, 주민들이 원탁회의에 관심을 가져 줄지, 얼

마나 모여 자리를 채울지는 미지수였다. 그러나 뚜껑을 연 원탁회의는 관민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다. 참여를 희망한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한 것이다. 소극적일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며 경청하는 모습은 원탁회의를 준비한 이들에게 놀라움과 보람을 선사했다.

이는 주민의 공동 관심사를 공론화시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앞으로 안산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다.

“ 소극적일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며 경청하는 모습은
 원탁회의를 준비한 이들에게 놀라움과 보람을 선사했다.
 이는 주민의 공통 관심사를 공론화시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앞으로 안산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다.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한 행복한 동행, 그리고 희망

감골주민회는 '사1동 주민 3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채택된 33개의 의제를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해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연차계획을 세워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세대가 공감하는 복합문화센터는 문체부 사업으로 2016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다음 과제로 마을의 역사를 정리해 '사동실록'을 편찬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2018년 책 편찬을 목표로 지역사를 중심으로 탐방하고 지역사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들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반협동조합인 마을카페와 공동부엌, 목공방을 하나로 묶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사회공헌 활동을 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요하다 생각하고 서로 의견만 모아지면 곧바로 방법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

이것은 감골주민회의 원동력이자 행복한 마을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의 시작점이다.

희망을 품은 끊임없는 이들의 도전은 그래서 주목해볼 만하다.



글: 손광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13



03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고기교회는
6000여㎡ 숲과 습지 등을 활용해 마을주민들과 함께
생태교실, 작은 도서관, 목공방, 찻집, 장터 등을 운영하면서
낮은 자세로 마을과 소통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고기교회

주소 |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00번지



마을과 함께하는 고기교회

'처음자리'생태교실

고기교회가 마을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 10여 년 전 생태교실 '처음자리'이다. 6000여㎡ 부지 중 예배당 등 건물 300여㎡ 남짓을 빼고 나면 모두 생태 천국이다. 예배당 뒤편에 있는 작은논과 습지에서는 계절별로 반딧불이, 올챙이, 가재, 도롱뇽 등 다양한 생태계를 만나볼 수 있다. 왜가리와 청둥오리, 백로 등도 날아든다. 마을의 청소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곳을 찾아 도심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자연생태계와 하나가 된다. 그저, 와서 즐기고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생태해설 전문가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 생태교실 '처음자리'를 진행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작은 논에서는 모심기부터 추수하고 탈곡까지 쌀농사를 체험한다. 겨울에는 나무썰매를 직접 만들어도 보고 얼음썰매를 체험할 수도 있다.

'밤토실도서관'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공간

고기교회가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한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도심에서는 작은 도서관이 유행처럼 문을 열 때였지만 고기동에 사는 어린이들에게는 남의 동네 이야기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갈 곳이 마땅치 않던 어린이들은 교회 뒷산을 찾기가 일상이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안 목사는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운행하지 않던 시절, 아이들을 데리고 동천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활동이 알려지면서 의식 있는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도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의기투합한 주민들과 안 목사는 교회 담임목사 사택으로 쓰던 공간을 보수하고 지인들로부터 도서 300권을 기증받아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했다.



교회 입구에 서있는 활동공간 안내표지

도서관 이름은 밤나무가 지천에 널려있는 마을에서 착안해 동요 '산토끼'에 나오는 '토실토실 밤토실'의 밤토실로 지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지혜를 먹고 건강하게 쑥쑥 토실토실하게 자라라는 바람을 담았다.

2015년 현재 양서는 10,000여 권으로 늘었고 마을주민 등 20여 명이 도서관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그냥...가게' 주민들의 사랑방

'그냥...가게'는 말 그대로 그냥 와서 앉아 놀다가 차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공간이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만 운영하는데 무료로 차를 마실 수 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이라는 문상석 시인의 글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찻집이 '그냥...가게'의 전부는 아니다. '그냥...가게'는 생필품을 기증받아 서로 나누기도 한다. 주민들은 이곳을 찾아 차도 나누고 정도 나누면서 옷이나 생필품을 서로 교환하거나 매우 착한가격(500~1,000원?)으로 살 수 있다. 주민들도 비교적 깨끗하고 좋은 옷만 기부해 모두가 만족해한다. 운영비 문제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만 문을 여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생필품을 팔아 1년에 500여 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연말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눈다.



생태 체험 놀이 모습



밤토실 도서관 내부



'그냥가게' 안에 있는 재활용 의류매장



목공방 내부 모습

'아래'목공방

목공방 '아래'는 예전에 국화를 재배하던 하우스 시설이었다. 교회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비로 목공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 문을 열었다.

'죽어 천년 간다'는 나무를 만지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는 활동은 사람을 몰입하게 하는 힘이 있고 정신을 맑게 해 영혼을 치유한다. 세월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공방을 통해 아이들을 잃은 아픔을 잠시 잊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안산분향소에 있는 컨테이너 목공 방에 작업테이블을 설치해 주기도 했다.

목공방에서는 전통적인 장부 맞춤 방식의 목공 기술을 전수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수강생들은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매일 오전 7시

부터 밤 10시까지 공방을 개방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

고기교회 주민들과 함께 새 희망을 꿈꾼다

'자급자족, 마을 경제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표어를 걸고 '2015년 공공의 장터,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1회 장터를 연다. 집에서 만든 반찬 등 음식에서부터 빵, 쿠키 등 직접 만든 향초, 액세서리, 비즈 공예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만날 수 있다. 이 장터는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고기교회 마당에서 열리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이 밤하늘의 은하수를 못 보고 자라 꿈도 잃어버리고 우주적 비전도 갖지 못한다는 생각에 천문학 동아리도 만들었고 지금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떡외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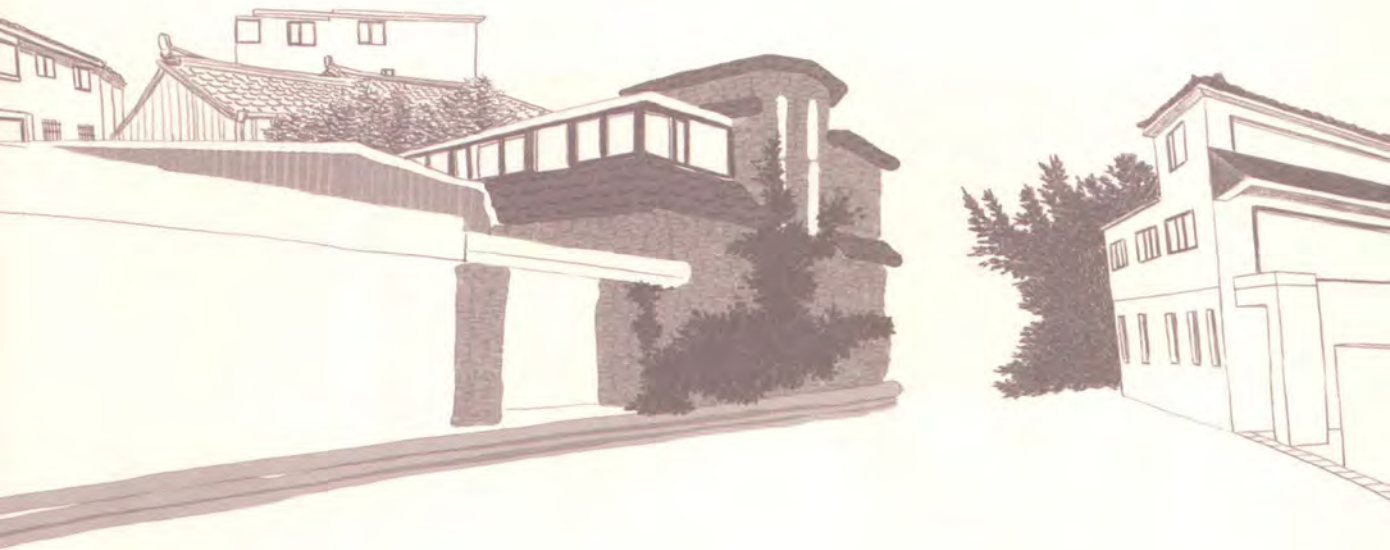
은 망원경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제대로 놀아 보기 위해 강녕탈춤 배우기에 푹 빠져 있다. 4~5년 전부터 강녕탈춤 전수자를 모시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일산호수공원에서 한바탕 놀아보기도 했다.

고기교회는 오늘도 그냥...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 마을과 소통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면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글: 정필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11



04

고양과주아이쿱생협은 이웃과의 협동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농협, 환경, 교육, 육아, 여성 등의 일상생활문제에 대해 조합원 스스로 대안을 만든다.



고양 · 파주아이쿱생협

주소 |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27 자연드림 탄현점 2층
전화 | 031-918-0620



사람 사이로, 마을 구석구석으로 스며들다

고양·파주아이쿱생협

고양파주아이쿱생협(이사장 허신주)은 이웃과의 협동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농업, 환경, 교육, 육아, 여성 등의 일상생활 문제에 관해 조합원 스스로 대안을 만든다. 어머니의 눈높이로 소비자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위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다는 것이 이들의 모토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윤소맘'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엄마(mom)'란 뜻이다.

고양파주아이쿱 생협의 어제와 오늘

고양파주아이쿱생협의 역사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애인과 함께'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장함교회의 '장함공동체' 활동이 바로 그 모태. 여기서 활동하던 교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먹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직거래하기 시작했는데, 이 활동이 이듬해 장함생활협동조합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후 교회와 분리됐고, 2000년에 '21세기생협연대(아이쿱생협의 옛 이름)'에 정식 조합으로 가입하면서 고양파주아이쿱생협으로 새 역사를 쓰게 되었다.

2006년 9월에는 조합원들이 한 푼 두 푼 출자금과 차입금을 모아 주엽에 '자연드림 베이커리 일산점'을 개업했다. 이곳은 고양파주아이쿱생협은 물론 아이쿱생협 전 지역조합을 통틀어 '자연드림 1호점'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조합원 가정으로 직접 물품을 배달하는 가정공급 사업만 해오던 아이쿱생협 역사상 처음으로 매장 사업의 물꼬를 튼 곳이다.

이렇게 '빵 가게'로 시작했던 고양파주아이쿱생협의 매장 사업은 '친환경 종합 매장 자연드림'으로 확장되었다. 2008년에는 주엽에 있던 자연드림 베이커리를 마두에 자연드림으로 확장, 이전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자연드림 탄현점, 2014년에는 운정점을 개업했다.



자연드림에서는 유기농 쌀, 우리 땅 잡곡, 자연 그대로 과일, 채소, 건강한 축산물, 간직한 수산물, 정직한 가공식품, 우리 밀 베이커리, 민고 쓰는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데, 조합원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친환경 먹거리·생필품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고양파주아이쿱생협이 운영하는 3개 자연드림 매장은 직원 25명, 매출액은 약 60억 원 규모(2015년 기준)로 성업 중이다.

설립 초기 100여 명에 불과했던 조합원 수는 매장이 생길 때마다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는 4,000여 명 규모에 이르렀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출자금 5만원(가입 시)과 조합비 월 11,000원이다.

사람, 사람, 사람이 재산이다

고양파주아이쿱생협 제1의 자산은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은 출자금을 주춧돌 삼아 '사람'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펼치는 그들의 동력이자 지향점이 바로 '사람'인 것은 어쩌면 당

연한 귀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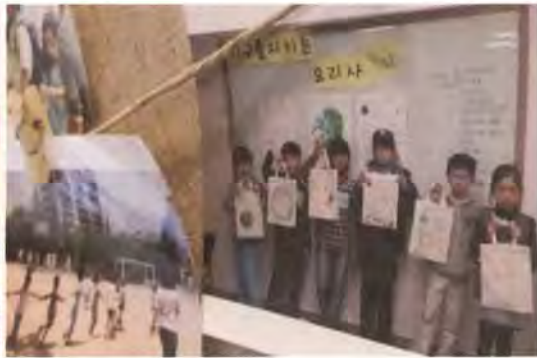
사람을 모으고 함께 하기 위해 고양파주아이쿱생협은 다양한 모임을 제안한다. 자연드림 탄현점 2층과 운정점 2층에 마련한 협동방, 나눔방, 요리방, 사랑방, 교육방 등 커뮤니티 공간은 조합원들의 '참새 방앗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은 마을별 모임과 '고전으로 수다떨기', '독서 모임', '민화 그리기 모임', '밀바다 기타 모임', '바늘과 실', '발도로프 인형', '사랑찬 반찬봉사', '사진 소모임', '지역아동센터 생일파티봉사 모임', '시골벽적 반찬모임', '옥상텃밭', '물품탐구생활', '풍물패 흥' 등 다양한 모임 활동을 펼친다.

모임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특성이 귀하고 쓸모 있게 다루어진다. 예를 들면, 조합원 가운데 '정리'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납정리를 주제로 한 작은 강좌를 열어 재능을 나누고 계발하는 식이다. 모임의 지향점이 '사람', 그 중에서도 '힘없고 소외된



판매장 전경



활동사진 모습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반찬봉사 모임에서는 사회복지관 노인 17명에게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10년째 해오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생일파티봉사 모임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준다. 케이크와 참치김밥, 치킨너겟, 떡볶이, 과일 등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으로 생일파티를 열어준다.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고민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고양파주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의 활동은 사람이 사람이므로, 마을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있다.

나, 너, 우리의 행복 충전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고 궁리하는 이웃들을 만나면서 울타리 너머 지역과 사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의 성장이라면, 생협 안에서 조합원들은 조금씩 성장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소소한 행복을 맛보았다고 털어 놓는다. 고양파주아이쿱생협은 고양시 가좌동에 있는

유휴 토지를 일귀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직접 경험하는 '논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다. 집안에서건 바깥에서건 도무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한 아빠가 모내기를 하고 피를 뺏고, 추수를 하면서 직접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노동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 논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계기로 자녀와 대화도 많아지면서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다. 변화된 남편의 모습과 화합하는 가족의 모습에 조합원인 엄마는 새롭게 행복을 경험했다.

방학 동안 열리는 어린이 대상 먹거리 교육, 식품 교육, 요리 수업에서도 행복이 전파된다. 직접 요리를 하고 그걸 나누는 아이들에게서도, 그 모습을 보는 엄마들에게서도 행복 바이러스가 샘솟는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행복하게 소통하고 공동체 안에서 협동하며 인성을 기른다. 이렇게 고양파주아이쿱생협은 사람이 가난한 삶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위로받으며 작은 행복을 얻어갈 수 있는 삶의 행복 충전소를 자임한다.

“고양파주아이쿱생협은 어머니의 눈높이로 소비자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위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다는 것이 이들의 모토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윤소맘’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경쟁 너머 협동조합의 시대가 온다

생협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밑천으로 삼는다.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구조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소비자이자 출자자인 조합원들이 지갑을 닫거나 탈퇴하는 경우 많아 더욱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고양파주아이쿱생협은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조합원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모든 사업에 정직을 담보로 투명하게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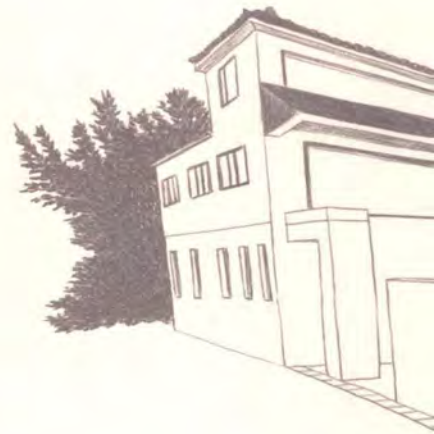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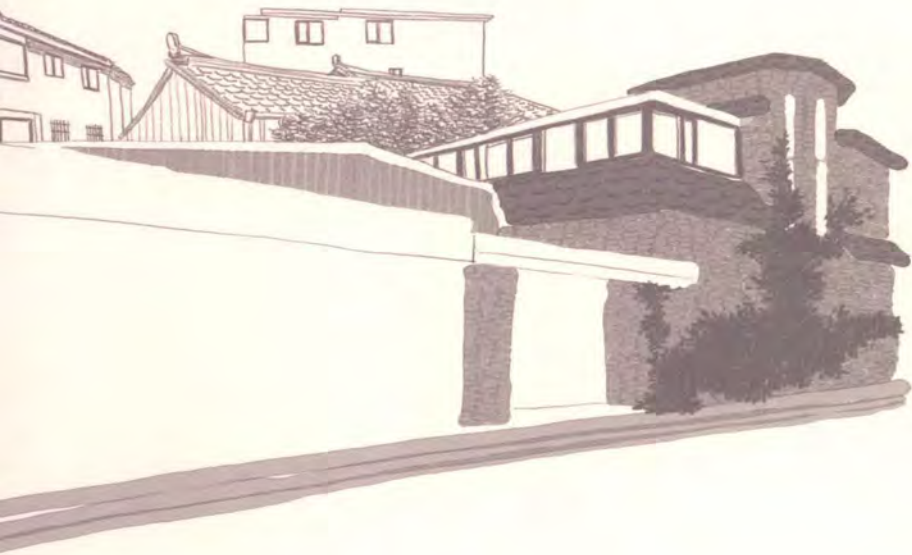
앞으로 고양파주아이쿱생협은 ‘협동조합’이라는 이 거대한 사업을 알려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양시민 100만 시대를 넘은 지금, 그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머지않아 협동조합의 시대가 만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미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들의 ‘초심’과도 같은 ‘안심 먹거리’를 지키고 알리는 일을 독심있게 펼쳐낼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교육에는 더욱 정성을 쏟을 예정이다. 그들이 성장기

에 필요한 영양을 안심 먹거리에서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장한 후에도 안전 먹거리를 선별해내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자연드림 매장이 있는 마두, 주엽, 운정 중간 지점에 조합원을 위한 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협동조합 강사를 양성하며, 공정무역 카페와 협동조합 서점 등 새로운 마을 기업을 일궈낼 계획도 갖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 어려운 사람도 함께 잘 살아야 행복하다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가치를 함께 누리게 되길, 사회적 경제영역 마을기업의 선두주자이자 생활공동체인 고양파주아이쿱생협, 그 책임의 무게가 크다.



글: 심수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20



05

과천지역주민들이 '아리'라는 지역 화폐를 이용하여 다자간에 노동력이나 물건 등의 자원을 교환, 함께하는 공동체



과천품앗이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대안이 되는 지역화폐 공동체 과천품앗이

과천품앗이는

과천품앗이는 과천품앗이 화폐 '아리'를 사용하여 노동력과 물품을 나누는 비영리 대안경제 단체이다.

과천 지역 주민들 중 몇몇은 지역화폐를 공부하면서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당시 과천에는 공동육아 소모임이 있었다.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싶은 지역 주민과 공동육아회원들이 모여 '과천품앗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다자간에 품을 교환할 수 있는 지역화폐 '아리'도 탄생되었다.

과천품앗이는 온라인 카페 'cafe.daum.net/poomasi'를 운영, 모든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과천에서 실질적으로 품을 나누는 회원들은 정회원이 된다. 카페에 회원들의 거래, 동정, 소모임 등 모든 내용이 기록되고, 오프라인 모임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러한 모든 운영을 위해 회원 중 자원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교육분과, 소식지분과, 아리분과, 행사분과, 회원분과, 회계, 카페지기 등의 분과 활동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2회 정기모임이 있고, 안전에 따른 임시모임도 있다.

운영위원회는 품앗이 운영 및 회원 관리 아리통계 회비보고 및 회원 고충과 외부 활동 등 운영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획한다.

모든 노동의 가치는 동등하다

과천품앗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체 화폐 '아리'는 과천시의 상징나무 밤나무의 밤 한 알을 의미한다.



과천품앗이 소식지



오프라인 소모임

‘아리’는 과천품앗이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단위로써 ‘아리통장’에 숫자로 존재한다. 회원 간 품(노동) 거래 후, 수기로 각각 통장에 기록하고 확인 서명을 통하여 인정된다. 개인별 통장의 내용은 온라인 카페에 보고하여 전체거래가 확인된다.

모든 품은 한 시간에 일만 아리를 받게 된다. 품의 종류에 차별은 없다. 이러한 거래는 ‘모든 노동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애초의 과천품앗이 정신에 따른 것이다.

일상의 모든 일들이 품이 될 수 있다. 심부름, 가사노동, 이미지용, 학습지도, 취미활동모임, 음식제공, 육아, 번역, 아나바다, 수공예품, 수공예지도 등 매우 다양하며 애완동물 맡아주기, 모임 장소 제공 등, 늘 새로운 품이 생겨나고 있다. 모든 일상의 일들이 품이 되며 모든 품이 동등한 가치로 환산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을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 과천 품앗이가 지향하는 가치이다. 서로의 재능을 알게 된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취

미활동 소모임을 만들었고, 지역 안에서 주민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과천품앗이에는 아리부자가 있고, 마이너스 아리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팔 수 있는 품이 많은 사람은 통장에 아리가 쌓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품을 살 때 일정 정도의 아리를 마이너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체화폐나 지역화폐는 대안경제의 하나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리’ 소유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운영위원회는 ‘아리’부자에게는 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이너스아리를 가지고 있는 회원에게는 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고민한다.

‘아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다. 품을 교환한다는 것은 필요한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지 않으면 어쩌면 나의 품



지역화폐 특강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지 않으면 어쩌면 나의 품은 아무 곳에도 사용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은 아무 곳에도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재능을 발견해 내고 그것을 품으로 교환하는 것. 아리가 많다고 그것이 권력이 되지 않으며, 아리가 적다고 그것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과천품앗이가 처음부터 꿈꾸어 온 것이다.

공동체화폐에서 지역화폐로 - 가맹점

과천품앗이는 '아리'사용의 확대를 위해 지역 안에서 '아리'가맹점을 찾고 있다. '아리'가맹점에서는 물품의 일정금액을 '아리'로 지불할 수 있다. 얼마를 '아리'로 지불할지는 가맹점에서 정한다. '아리'를 받은 가맹점에서는 또 다른 '아리'가맹점이나 필요한 품을 사는 데 '아리'를 사용하게 된다. 과천품앗이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아리'가맹점의 물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지역 안에서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공동체화폐가 현금으로 일정부분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은 '아리'가 좀 더 확장된 의미인 지역화폐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지역화폐 - 좀 별난 시장

지역화폐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고심하던 과천품앗이는 따복에서 공모하는 마을 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화사업의 지원금이 축진제가 되어 지역 협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몇 가지 일들을 진행했다.

10월 월례회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사용하고 있는 '아리'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공부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지역의 민간단체 및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8개 단체와 협력하여 협동화장터 '좀 별난 시장'도 열었다. 지역화폐사용을 체험해 보는 일일장터이다. 현금을 지역화폐인 '별'로 교환한 다음 별난 시장의 모든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별'은 장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든 종이화폐이며 '아리' 또한 '별'로 교환할 수 있었다. 간접적이거나 '아리'가 현금으로 교환되는 체험을 한 것이기도 하고, 지역화폐를 모르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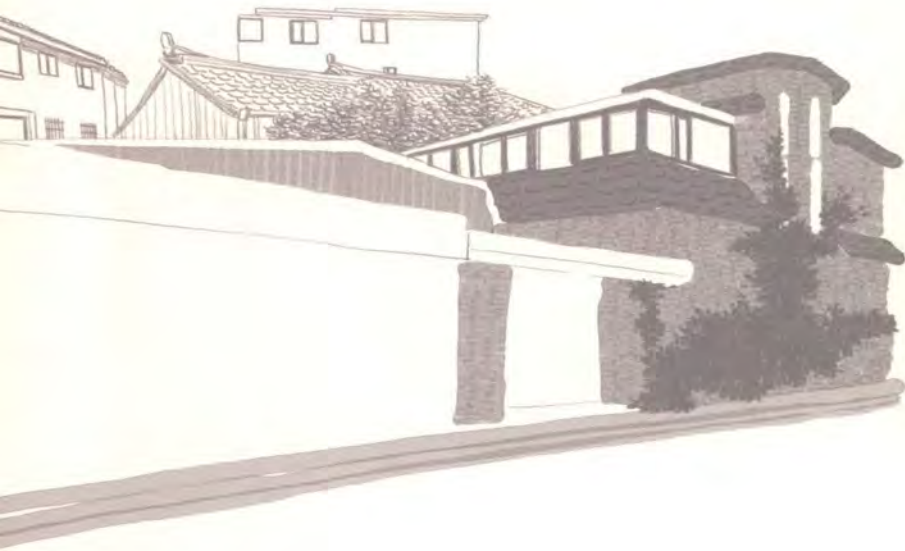


좀 별난 시장

주민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이 되기도 했다. 장터에는 사전에 신청한 지역민간 단체와 과천 시민 등이 참여하여 '별'을 받고 가지고 온 물품을 판매하였다. 먹는 것에서부터 체험, 또 공연까지 있는 다양한 장터는 참여한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품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는 과천 품앗이이기에 현금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않지만 큰 행사를 계획할 때면 인건비와 시설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따복의 지원은 '아리'만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만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공동체화폐를 넘어서 현금과 일부라도 교환될 수 있는 지역화폐로 가는 길은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 되겠지만, 지역공동체의 삶이 따뜻해지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지역화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별난 시장을 체험한 주민들과 민간단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15년 동안 '아리'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살아 온 과천품앗이는 대안경제로서, 공동체유지의 수단으로서의 지역화폐를 알리고 그 체험을 다른 지역, 다른 단체들과 나누고 공유하려고 한다.



글: 박은주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19



06

‘광암동 기지촌 상처, 치유, 공감 프로젝트’는
광암동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깊어진 주민간의 갈등을
치유하고자 사회적 경제조직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마을주민들이 잡으면서 탄생한 프로젝트다.



광암동 기지촌
상처, 치유, 공감, 프로젝트

주소 | 동두천시 광암동 일대



상처입은 마을, 광암동

광암동 기지촌 상처, 치유, 공감 프로젝트

상처입은 마을, 광암동

동두천시 광암동은 본래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80년대까지만 해도 기지촌으로서 호황을 누렸던 마을이다. 현재는 기지촌으로서의 경제활동이 쇠락하고 골목 곳곳에 7,80년대 미군기지촌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동두천 시내와는 조금 떨어져 있다. 칠봉산과 국사봉 산자락을 끼고 오목하게 둘러앉은 광암동 마을 곳곳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건 올 여름. 요 몇 년 사이 붙어닥친 벽화그리기 열풍으로 이제는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벽화그리이지만, 이곳 광암동의 벽화가 조금 다른 이유는 단순히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처'와 '치유'라는 키워드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 마을에 살다보면 어쩌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기도 하고, 때로는 잊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한 마을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마을에 들어선 화력발전소를 둘러싸고 반복과 갈등이 거듭된 몇 년 동안 광암동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은 매우기 어려울 정도로 허물어졌다. 기지촌이라는 이미지로 덧씌워진 데다 이제는 경제활동마저 어려운 주민들이 사는 외딴 곳이기에 이들의 상처에 진심으로 귀기울여주는 이는 많지 않았다. 상처 입은 광암동 주민들에게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해보자며 손길을 내민 건 다름 아닌 예술가들이었다.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뭉쳤다!

'광암동 기지촌 상처, 치유, 공감 프로젝트(이하 광암동 프로젝트)'는 광암동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깊어진 주민간의 갈등을 치유하고자 사회적 경제조직이 먼저 손을 내밀



마을 옹벽에 설치할 도자기를 빚는 중인 이담공방협동조합 소속 예술가



풍경을 주제로 마을 초입에 그려진 벽화

고, 그 손을 마을주민들이 잡으면서 탄생한 프로젝트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이담공방협동조합과 한문영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광암동, 탑동 주민애향회, 이렇게 세 단체가 함께 뭉쳤기에 가능했던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파복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광암동 프로젝트는 하나의 사업을 여러 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협동화 사업이기에 원활한 진행을 위한 책임과 실무를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했다. 전체적인 실무와 진행은 광암동 프로젝트를 맨 처음 구상했던 이담공방협동조합이, 주민들을 만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일은 광암동, 탑동 주민애향회가 맡았다. 한문영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은 광암동 주민의 자녀들 중 한문영고에 다니는 학생

들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가해서 타일그림 작업에 동참하도록 측면지원을 맡았다. 이담공방협동조합 소속 예술가들이 동선을 고려해 마을에 그림을 그릴만한 집을 물색하면 주민애향회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혹시 벽에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묻고 다니기를 수차례. 예상과 달리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 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프로젝트에 무덤덤한 주민들을 마을회관에 모아 설명회를 열고 마음을 모아내기까지 주민애향회의 힘이 컸다. 이 일을 주민애향회가 오롯이 맡아주었기에 이담공방협동조합이 실무와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사업설명에서부터 주민 동의를 거쳐 도안마련과 재료구입 후 실제로 작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무를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가 자신의 캔버스에 그리듯 완성해낸 마을벽화

우리 내년에도 계속 그리자!

의뭉스런 눈으로 작가들을 바라보던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진 건 마을 초입에 아름다운 벽화가 하나 둘 그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비어 있던 담벼락에 완성된 벽화를 본 주민들의 반응이 사뭇 달라진 것이다. 자신의 집 벽에 벽화가 그려진 주민들의 호응은 특히나 폭발적이었고 나중엔 “우리 집 벽에도 그려주면 안될까?” 물어오는 주민도 있을 정도였다. 이는 자신들의 작품이 갤러리나 공방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집터와 마을의 옹벽에 자리 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이담공방협동조합의 작가들 덕분이었다.

광암동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광암동 프로젝트의 시작은 예술가들이 먼저였지만, 주민들도 마을회관에 옹기종기 모여 옹벽을 장식할 타일을 그리면서 마음에 난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가는 중이다.

마을회관에서 첫 타일작업을 하던 날, 5명뿐이던 주민들이 다음엔 15명이나 나오는 걸 보고 함께 동참했던 예술가들도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60여 개의 타일 그림이 이미 완성되었지만, 예술가와 주민들은 타일 100개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회관에 모여 타일에 그림을 그리는 광암동 주민들

“
내년엔 우리 힘으로 마을에
계속 벽화를 그려나가자고
하는 광암동 주민들의
말 속에 이미 치유의 싹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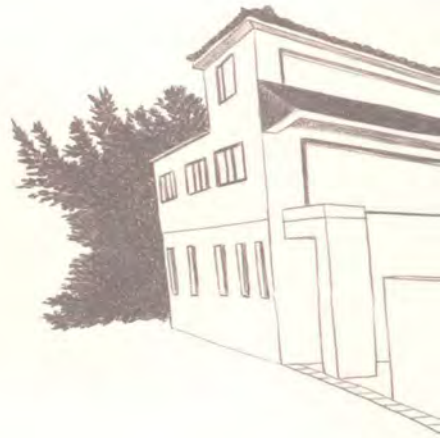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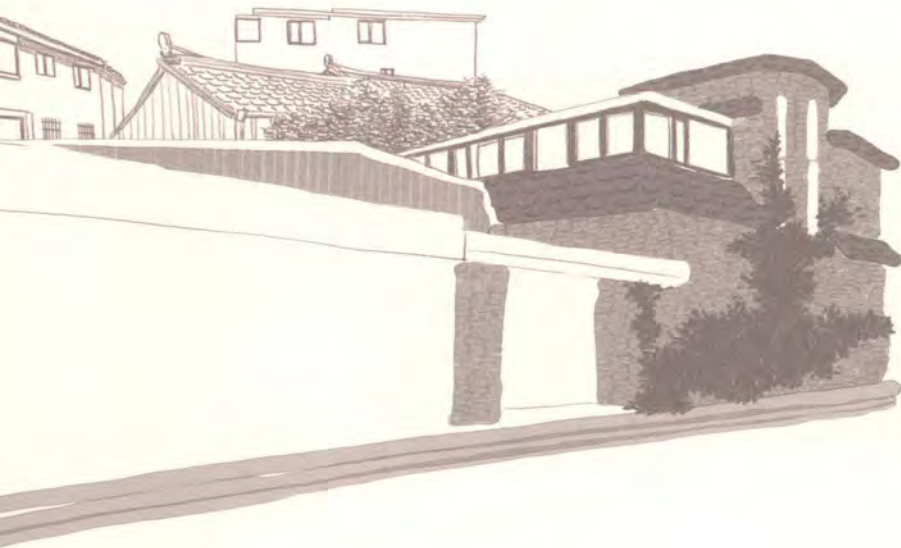
하나를 이미 완성한 주민들 중엔 집에 가져가서 더 그려오겠다
며 타일을 챙겨가는 분들도 있다. 벽화작업 끝나면 국수나 먹자
고 먼저 제안한 것도 함께 그림을 그린 주민들이었다.

주민들 사이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역의 여러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가 손잡고 함께
첫 발을 댄 광암동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성격과 구성원을 가진
모임이 마을 안에서 얼마나 멋진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내년엔 우리 힘으로 마을에 계속 벽화를 그려나가자고 하는 광암
동 주민들의 말 속에 이미 치유의 싹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마을 옹벽에 100개의 타일그림을 붙여서 완성하는
날, 다 같이 모여 소박한 국수잔치를 하겠다던 약속은 지켜졌을
까. 그랬다면, 마을에 모여 국수를 나눠먹는 모습이야말로 광암
동에 그려진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였음에 틀림없다.



글: 안은성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16



07

붓들마을 6단지의 마을도서관을 중심으로
주민교육프로그램과 마을축제 등을
운영하는 생활문화 공동체.



꿈너비작은도서관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동판교로 212 봇들마을 6단지
전화 | 070-7702-7280



성남시 봇들마을 6단지의 생활문화공동체

꿈너비작은도서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봇들마을 6단지는 유독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이 둘 이상인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입주 당시의 1순위 조건이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마을보다는 아이들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취약계층,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꽤 있다. 주변 환경도 매우 좋다. 계획도시로서의 공원, 공공시설, 편의시설이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어서 분당의 어떤 곳보다도 쾌적하다.

그러다 보니 마을 환경 개선이라는 문제보다 이웃 간의 소통,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부분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쏠린다.

2011년, 마을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입주 전부터 “봇들6사랑방”이라는 온라인카페를 만들어 주민들은 소통하게 된다. 아이들 문제, 집안꾸미기, 마을벼룩시장 같은 다양한 문제를 그곳에서 교류하고 해결하게 된다. 하다못해 새벽에 아이가 열이 올라 급하게 카페에 올리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해열제를 구할 수 있다. “봇들6사랑방”은 마을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허브역할을 충실히 해주게 된다.

그러던 중 LH공사(봇들6단지 시공사)가 주민을 위한 공용시설로 내어 준 공간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주민들은 이곳을 아이들과 어른들의 소통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많았다.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은 이곳을 “꿈너비작은도서관”이라고 이름 짓고 “봇들6사랑방”의 오프라인공간을 이곳에 만들게 된 것이다.

“꿈너비작은도서관”은 정통적인 도서관의 개념보다는 주민들의 문화센터의 역할과 아이들의 공부방 역할을 겸한 마을 사람들의 커뮤니티공간이 된 것이다. 이곳의 규모는 30평



벗들신문

정도로 큰 편이어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다.

마을의 소식통 - 〈벗들신문〉

2012년부터 발행한 마을신문 “벗들신문”은 마을의 소식통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처음에는 만들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적고 반응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던 중 출판업에 종사하는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재능을 마을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다.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것이다. 아이와 어른들로 구성된 마을기자단이 꾸러지고 그들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마을기자단들은 “관리보수를 잘합시다” “담배는 싫어요” 같은 마을주민의 불편사항을 취재하고 “외모는 실버 마음은 골드”라는 타이틀로 생

활공동체 프로그램 “실버풍물단”을 소개하기도 한다. 특별한 뉴스거리가 있으면 언제든 달려간다. 한발 더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마을소식을 손쉽게 볼 수 있는 “마을e-book 신문만들기”를 기획하게 된다. 신문이 나오지 않아도 언제나 마을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벗들신문”은 성장하게 되었다. 반응도 무척 뜨거워졌다. 마을기자를 하겠다는 지원자들도 많아졌고 “벗들신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소통의 첫 단계 마을 동아리를 만들자

“꿈너비작은도서관”은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꿈너비어린이합창단, 꿈너비성인중창단, 실버풍물단 등 세대별로 공감할 수 있는 그룹들이 모여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열정을 쏟



꿈너비 작은도서관 동아리활동

는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다양하다. 공연도 하고 마을축제는 물론 다른 마을행사에 초대 받아서 자리를 빛내주기도 하고 합창대회에 나가서 실력을 겨루기도 한다.

“꿈너비어린이합창단” 아이들은 노래를 하면서 친구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다.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목소리를 드높이면 안 된다는 것과 자신이 없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폐가 된다는 것,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마음을 조율해야만이 합창이 된다는 것을 배운다.

“꿈너비중창단”은 해마다 성장하여 활동3년차

에는 “통일합창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된 실력자들이다. 노래를 좋아하는 마을주민이 모여서 중창단을 만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실력들이었다. 퇴근 후 “꿈너비작은도서관”에 모여 연습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들은 어느샌가 성장해 있었다. 노래도 부르면 실력이 는다.

“실버풍물단”은 마을의 시니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보면 열정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팽과리와 장구를 치는 스텝은 아무도 따라 올 수 없다. 마을 축제 때 한자리 톡톡히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들이다.



운영시간과 수업들

시간을 잘 나누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꿈너비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아침9:30~오후5:00까지이다. 아침9:30~12:00까지는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오후1:00~5:00까지는 도서관으로 운영된다. 이 시간은 누구라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책을 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게 된다. 그 후의 시간은 대관을 하거나 동아리연습 room으로 쓰고 있다.

프로그램시간은 엄마 참여자들이 많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엄마들은 이곳으로 모인다. 오늘은 홈패션수업이 있는 날이다. 마을엄마의 재능기부로 진행하게 된 수업이다.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재봉틀 3대를 구입하였다. 재봉틀이 3대밖에 없는 관계로 8명의 참여자들을 모았는데 엄마들은 무려 18명이 모였다. 대략난감이다. 엄마들은 집에 묵혀둔 재봉틀이 있으니 가져 와서 배울 수 있게만 해달라는 것이다.

집에서 놓고 있는 재봉틀이 이렇게 많은지 미처 몰랐다.

어쩔 수 없이 18명의 엄마들이 둘러 앉아 수업을 받게 된다. 줌마들의 열정을 어찌 막겠는가. 공간은 충분했으나 선생님부족으로 재봉틀을 조금이라도 다룰 줄 아는 엄마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수업을 하게 되었다. 실력을 쌓게 된 엄마들은 다음 수업에는 좋은 선생님이로 자신의 재능을 나눌 것이다.

엄마들은 아이들 학습지도도 함께 한다.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아이들을 모아 놓고 시험준비를 도와준다. 내 아이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교육품앗이를 하는 것이다. 대관은 주로 아이들의 생일 파티를 많이 한다.

한 엄마가 찾아와서 아이의 생일 파티를 이곳에서 하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해왔다. 파티 후에 정리정돈을 하고 누가 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캠프여행 중

고 하는 거다. 아이들의 생일파티를 패밀리레스토랑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아이들 생일 때면 가계가 휘청한다. 이곳은 특히 아이들이 많은 마을이기도 하다. “꿈너비작은도서관”은 엄마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털어주고자 대관 후 정리정돈을 약속받고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게 되었다.

다 같이 하는 캠프여행은 우리를 꿈꾸게 한다.

2014년 “문화원연합회”의 마을 캠프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해마다 1박2일로 마을 캠프를 다녀오는데 올해는 이 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들 수 있게 되었다. 올해는 춘천의 “효자동낭만

골목”이다.

이곳은 “꿈너비작은도서관”과 같은 생활문화 공동체로 그들보다 3년 선배이다. 두루두루 구경하고 밥도 먹고 저녁시간에는 “효자동낭만골목”선배들의 3년간의 경험담과 향후 방향에 대한 진솔한 얘기가 오간다. 진지한 그들의 이야기에 묻고 답하고 의견을 내고, 밤새는 줄 모르고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간다. 지금까지 잘 해온 그들이 부럽고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그들의 모습이 든든하기만 하다.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은 “꿈너비작은도서관”이 더욱 성장하기를 꿈꾼다.

“꿈너비작은도서관은 정통적인 도서관의 개념보다는 주민들의 문화센터의 역할과 아이들의 공부방 역할을 겸한 마을 사람들의 커뮤니티공간이 되었다.”

“꿈너비작은도서관”은 지금까지 잘해왔다. “꿈너비작은도서관”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있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수행자들, 그리고 열심히 따라와 준 마을 참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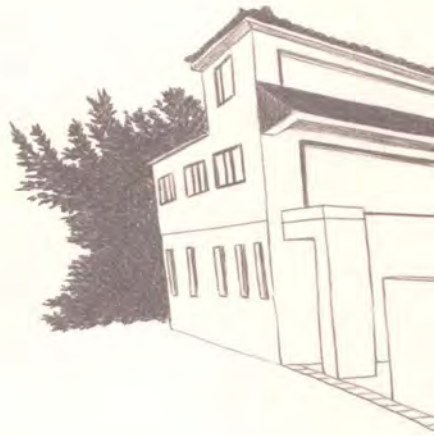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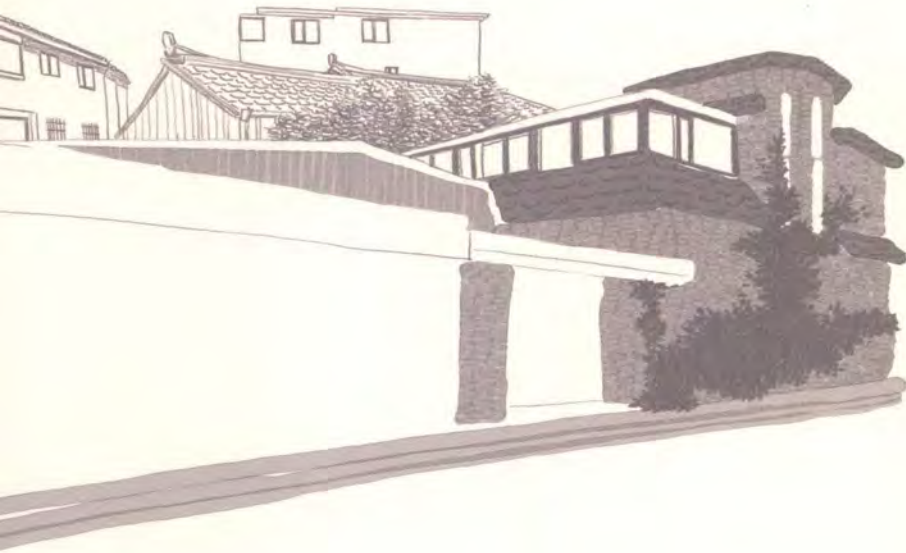
또한 여러 해 동안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후원해 주던 수원시, 경기도의 “공동체마을만들기”사업팀들과 문화관광부의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의 3년 동안의 후원, “분당청소년수련관”과의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지원과 재료비지원 등의 많은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꿈너비작은도서관”은 이제 자립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 마을공동체의 지속성과 주체성을 위해, 자립적인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를...

이는 생활문화공동체 “꿈너비작은도서관”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글: 이진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29



08

텃밭에서 만나 인연을 쌓아가는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네 아름다운 마실문화를
재창조하는 사람들의 모임 느티나무.



느티나무

주소 |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44-5



양주시 따복공동체

느티나무

‘느티나무’ 이름의 유래

공동체 근처에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사람들이 신목으로 여기는 550~600년된 느티나무가 있다. 이 느티나무는 동네 어귀나 마을 근처에 있어 오가는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자 친목도모의 장이며 소식을 주고받는 창구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사람들의 교류 양상도 변화시켜 역사의 뒷안길을 걷듯이 노고수로 철 구조물로 보호대상이 되어 버렸다. 동네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던 옛 향수를 되살려 공동체가 동네의 사랑방처럼 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다. 농촌이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며 옛 문화가 사라져 사랑방 구실을 해 줄 장소가 딱히 없는 것도 한몫을 한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

느티나무 공동체가 발족하게 된 계기는 그리 거창하지 않다.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소박한 것은 아닐까.

평소 배움을 좋아하는 주부로서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를 공부하던 정선정은 평생교육사 과정 중에 나오는 ‘마을 만들기’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마침 양주시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자신감이 생겨나 그동안 구상해 왔던 것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혼자서 교육을 받았던 정선정 간사는 백석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도화에게 ‘지역이 변하기 위해 누군가는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하게 되었다.

뜻이 있는 자에게 길은 열린다고 했다. 즐겨 이용하는 양주시홈페이지를 통해 서정대학에서 ‘평생교육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개설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정선정을 통



심목하여 키우고 있는 식물들

해 익히 마을 만들기에 대해 들어왔던 이도화도 교육에 참여했다. 이 교육은 정선정과 이도화로 하여금 더욱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를 선출(이도화)하며 공동체를 발족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니 말이다.

활동의 확장

처음 공동체에 대한 비전에 대해 주변에선 광범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시청 지역경제과에도 문의했지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과도기를 거치며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바로 '마스터 가드너' 통해 배운 도시농부다. '마스터 가드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설한 교육으로 주말농장을 활용한 '도시농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또한 도시의 버려진 공간이나 찌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어찌하면 그런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까 라는 취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그동안 구상해 왔던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에 이른 것이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의기투합하게 되었고, 정선정 간사는 남편이 운영하는 카센터 옆에 남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작은 사무실을 확보하여 활동의 근거지를 1년여에 걸쳐 만들었다. 회원들은 정선정 간사가 워낙 나누는 걸 좋아해 주변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대단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것은 '마스터가드너' 교육을 함께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사무실을 같이 쓰며 연대하는 것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서로 목적하는 바가 같은, 텃밭활동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이들과 공간을 공유하고 함께 나눈다. 텃밭활동을 통해 교류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어 갔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의례히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밴드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며 그리 큰 갈등이 없기에 텃밭을 가꾸는 일과 교육을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재능기부의 장을 열다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매주 화, 목요일에 근처의 빌라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화분만들기(가을꽃심기, 향기주머니, 잔디인형 등)는 원예복지사와 협력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곰두리 장애인협회 기타교육도 장소제공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주변의 은봉초등학교와 신지초등



느티나무 사무실 및 교육장

“느티나무는 동네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던
옛 향수를 되살려 공동체가 동네의 사랑방처럼 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다.”

학교에서는 원예치료로서의 아로마 비누를 만들기 수업이 진행됐다. 처음 학교 관계자들의 ‘좋은 프로그램이 맞나, 잘 선택한 것일까?’ 라는 의심의 눈초리는 넘어야 할 산이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지켜보며 신지초등학교 교장은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 갔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재정이 빈약하기도 하거니와 의존성이 강해 100% 재료를 가지고 가서 재능기부를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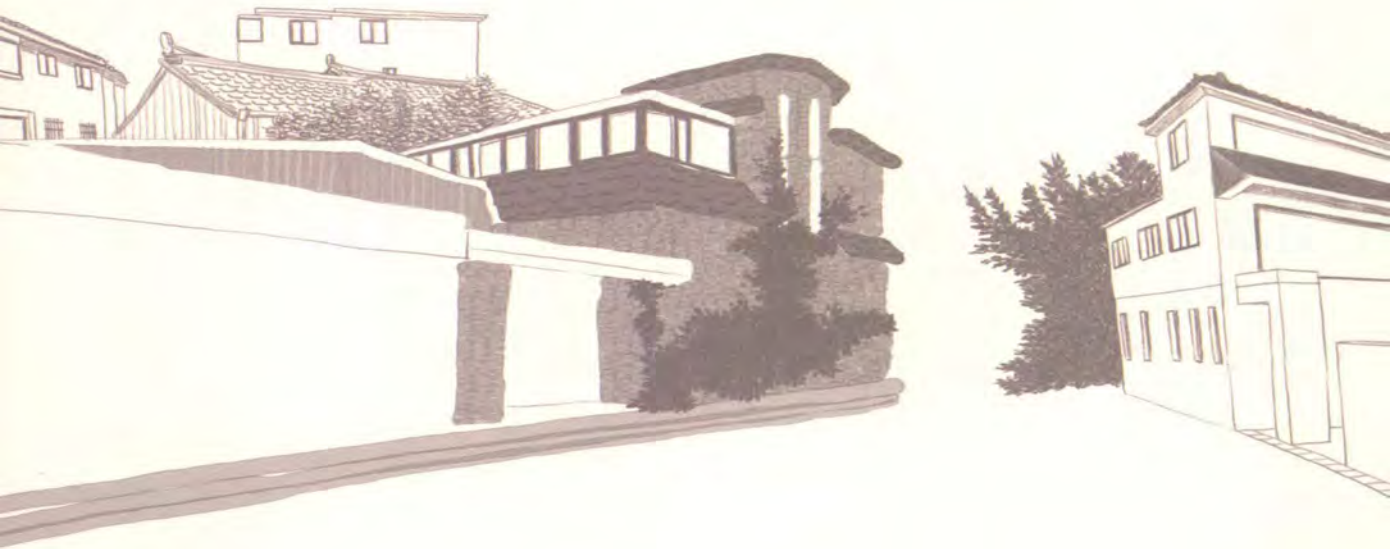
미래의 비전

재능기부를 하고 장소 제공을 하면서 고민도 쌓여 갔다. 현재 활동 이후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야하나, 무얼 할까 하는 향후의 상황이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필요함을 느끼며 소외계층(노인 등)이나 건강상 멀리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우면서 밥도 먹을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어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가꾸고 있는 텃밭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은 가격으로 분양할 생각이며, 주민자치센터와의 협력도 고려중에 있다. 처음에 생각하며 꿈꾸어 왔던 공동체의 모습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공모사업도 열심히 추진 중에 있어 향후 활동이 기대된다.



글: 손광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3



09

부천시 약대동에 위치한 달나라토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마을카페 달토는 떡을 중심으로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소통과 만남의 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달나라토끼 협동조합

주소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18-13 지하 달토떡방
전화 | 032-677-2933



마을카페 달토

달나라토끼 협동조합

약대동의 커뮤니티 센터- 마을카페 달토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21번지에 위치한 마을카페 '달토'는 달나라토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이다. 마을카페 달토에서는 건강한 먹거리인 떡을 생산하여 우리 전통의 맛과 멋을 되살리고 마을카페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달나라토끼 협동조합의 탄생

달나라토끼 협동조합의 탄생은 2012년 11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달나라토끼 협동조합은 2012년 부천에서 실시한 협동조합 교육 후 지역에서 뜻이 맞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공동체 달나라토끼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상시모집하고 있다.

달나라토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마을카페 달토는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부천 약대동에서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는 새롬교회의 이원돈 목사와 지역주민, 20년 이상 떡가게 운영의 경력이 있는 기술자가 함께 하며 시작되었다.

마을카페 달토의 탄생을 위한 첫 번째 모임은 2013년 4월 9일 담쟁이 문화원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8차례 이상의 정기 모임 외에 소소한 만남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모임의 형태는 협동조합 발기인의 모임이나 부천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다른 모임들과의 연합형태로 이루어졌다.

초기모임을 통해 협동조합이 단순한 경제적 공동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가치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정신을 공부하였다. 이후 사업에 대한 구



달나라토끼 카페 전경



떡방앗간이 있던 자리

체적인 구상을 통해 떡만들기와 카페운영에 대한 역할분담을 나누었다. 다른 회원은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며 달나라토끼의 사업계획서를 공유하였다.

정관과 규약에 관한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5차 모임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풍성한 의견과 정보 나눔을 공유할 수 있었다. 6차모임에서는 정관과 규약을 검토하였으며 정식명칭인 마을카페 달나라토끼협동조합으로 이름을 정하였으며, 카페 장소에 대한 의견도 거론되었다. 6월 16일에 마을카페 달나라토끼 창립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 5일에 카페가 오픈하였다.

지역 사랑방으로서의 달토카페

달나라토끼 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

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여러 조합원의 참여로 설립되었으며, 초기구성은 40여 명의 조합원과 7천만원의 출자금으로 시작되었다. 마을카페의 위치를 두고 접근성과 공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보다 건물의 노후화와 대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람들의 커뮤니티 연결이라는 공간에 중점을 두어 현재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마을카페 달토는 상근 매니저 1명, 아르바이트 2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판매 상품으로는 마을카페의 특성을 살려 각종 떡과 커피, 음료를 판매하나 이 외에도 지역 내외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과일 등 그 밖의 건전한 먹거리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녹차, 빵잎차 등의 각종 차를 판매하며 메뉴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커피원두 또한 공정무역을 통한 구입으로 우수

한 품질의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카페에 제공되는 떡은 20년 이상 떡가게를 운영한 전문 기술자가 제조를 하고 있다. 떡의 맛은 일반 대량으로 생산되는 떡과는 차별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재료부터 일반 오래된 정부미가 아닌 진주에서 농사를 짓는 양심 농부가 생산한 신선한 쌀과 재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덕분이다. 아울러 죽은 소포장으로 판매하며 인근 가까운 병원에 배달도 하고 있다. 또한 농촌과 연대하여 농수축산물을 직거래하고 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차 외 다양한 음료들은 조합원의 증원 및 이용확대를 위하여 할인을 하고 있으며, 카페의 공간은 각종모임, 스터디 등 사전예약을 통한 장소대여도 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대여 서비스는 약대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천에는 마을사업이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사업이 활발하다.

마을카페 안에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마을 활동들이 눈에 띄었다. 꿈이 마을방송국, 새롭은빛학교, 통기타&우쿨렐레 문화강좌, 카페 옆 작은 도서관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지난 8월 카페 내부에 대한 공간을 개편하며 카페의 내부를 확장했다. 이렇게 마련된 공간은 모임의 특성에 따라 회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공연장으로서의 변신이 가능한 무대가 되어 소규모 음악모임이 가능한 곳이 되었다.

제2의 도약을 위한 리모델링

협동조합 설립 초기에 카페의 위치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나누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떡방앗간의 소음에 관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상가로 구성된 현재 위치에 자리잡을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8월 카페 리모델링을 통해 떡방앗간은 인근 담쟁이 문화원이 위치한 건물 지하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떡방앗간이 있던 자리는 회의가 가능한 공간으로 변신하였으며, 이곳에서는 현재 마을회의나 축제 등을 계획하는 회의실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업의 교육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카페 달토가 지역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베희시장은 상생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경제적 지원 부분에 대한 차원이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담은 정서적 지원의 차원에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9월 1일 카페의 재오픈 이후 마을카페 안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9월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장소대여를 통해 일일카페로 장소대여도 하였다. 10월에는 세밀화와 똑딱똑딱 작품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지역주민의 솜씨를 볼 수 있었다. 12월에는 약대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연합하여 성탄잔치도 개최할 계획이다.

달나라토끼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인 떡



떡방앗간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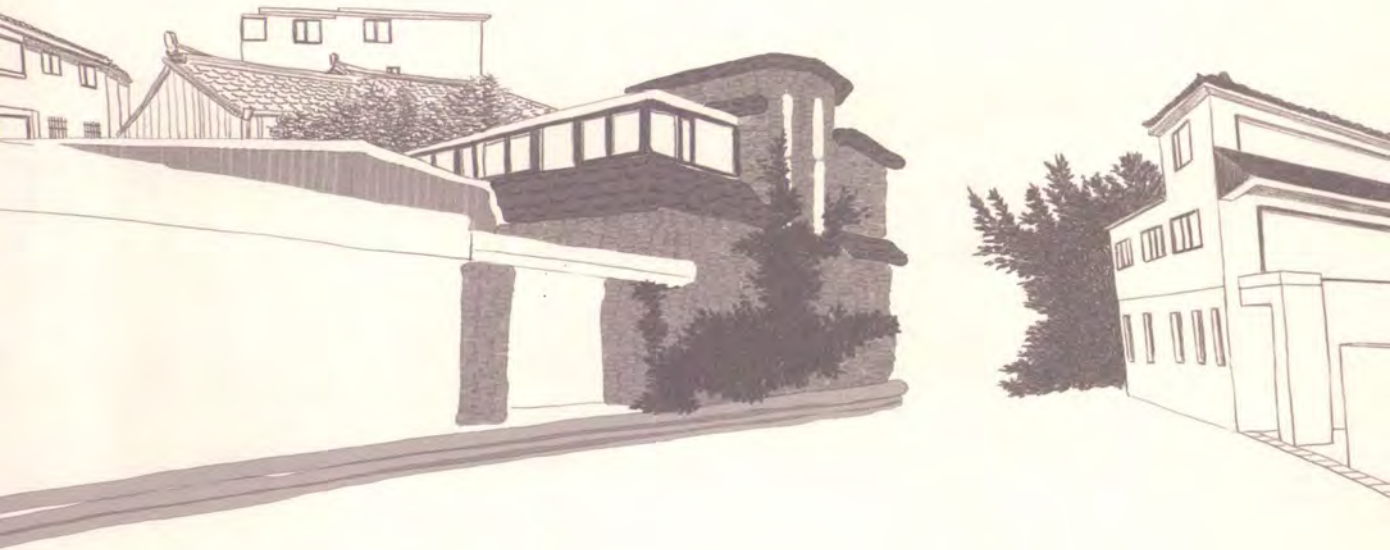
제조된 떡

의 현대적 맛의 개발과 보급, 둘째 지구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및 웰빙, 로하스, 디톡스 열풍과 맞물린 웰빙떡과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바른 먹거리 제공 및 선도, 셋째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복합 문화 나눔 공간인 '카페'를 통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경쟁만의 사회가 아닌 상호 교류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는 협동의 삶이다. 이러한 가치의 지향을 위하여 마을 카페 달토는 약대동 지역의 경제 공동체의 실체를 통한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마을카페 중심의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지도, 고용 불안 제거 및 고용 창출 기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달나라토끼 협동조합은 2016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자유학기제에 발맞추어 떡체험학교, 야외체험 학교 등 청소년의 진로 찾기를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떡이라는 신선한 먹거리와 달토라는 마을카페의 공간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과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소개할 예정이다.



글: 김선희
(경기도 따북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15



10

마을 협동조합으로 자발적 소모임을 갖고
어른들의 독서모임, 바느질모임 등, 아이들의 보드게임,
놀자 동아리 등 마을장터를 열고 아이들을 위한
오만가지 즐거운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대야미마을 협동조합

주소 | 군포시 대야1로 15번길 3 송천빌딩 201호
전화 | 031-502-0689



사람이 모여 마을을 만들고, 마을을 통해 사람을 만들어 간다

대야미마을 협동조합

대야미에 사람이 모여들다

대야미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면 서울역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린다. 대야미역에 내리면 마을의 중심부가 나타난다.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농토가 나온다. 중심부에 우뚝 자리 잡은 아파트 단지가 무색하다. 대야미는 수도권에 있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체 마을이다.

2010년 대야미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대야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파트생활은 편리하면서 대도시로 출퇴근하기 좋고,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교육받을 수 있는 곳,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대야미는 매력적인 곳이다.

대야미마을 협동조합과 꿀참나무

대야미에는 둔대 초등학교가 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단지 안에 새롭게 초등학교가 생겨났고, 아파트의 아이들이 새로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둔대 초등학교는 폐교의 위기에 처했다. 둔대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둔대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냈었거나 둔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운영위원회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학교가 폐교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동문회와 운영위원, 학교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의 오랜 노력으로 둔대 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로 지정받게 되었다.

둔대 초등학교를 폐교위기에서 구해내고 혁신학교로 만들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힘으로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자녀의 교육에 남다른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서로의 자녀를 공동으로 돌보고 있던 엄마들, 대안학교를 위해 애쓰던 사람, 미술작업실을 개방하고 사람들을 모아 함께 전시하



대야미 마을 협동조합 창립총회



협동조합의 첫 터전 꿀참나무

고 작업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서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마을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고자 뜻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2013년 대야미 마을 공동체에 대한 추진 모임이 발족되었다.

공동체를 위한 모임을 만든 후 마을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고, 강의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오랫동안 준비했다. 준비하는 동안 도 교육청에서 공모한 주민제안 사업에 선정되었고 지원금으로 협동조합을 창립, 둔대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지원하기 위한 터전도 마련하였다. 터전의 이름은 '꿀참나무'.

꿀참나무는 반찬가게로 문을 열었다. 조합원의 조합비로만 운영되는 것보다는 수익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법이라 여겨졌다. 반찬가게의 반찬은 마을에서 나는 원료로 만들고 마을에서 나지 않는 것은 생산지와 생산 방법을 확인하고 구매해 만든다. 둔대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교실의 아이들 저녁간식을 지원하고, 조합원들에게 한 달 기준으로 반찬을 예약 판매한다.

꿀참나무는 반찬가게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돌봄 교실이기도 하다. 재능이 있는 조합원들의 참여로 여러 가지 수업이 열린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소모임을 갖는다.

마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조합원들과 수익사업이 잘되어야 지속가능하다는 조합원들 사이에 작은 갈등은 늘 있었다. 갈등이 좀 버겁게 여겨질 무렵 '세월호'가 가라앉았다.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대야미마을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세월호 생존자 가족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렇게 9개월을 보냈다. 2014년이 갔다. 그러는 동안 작은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서 협동조합은 한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크로우즈아구클럽



자전거수업



별을찾아서



자연놀이터



숲속 생태교실



꿈의학교 발표회

“둔대 초등학교를 폐교위기에서 구해내고
 혁신학교로 만들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힘으로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마을뜨락과 오만가지 꿈의 학교

2015년 대야미마을협동조합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꿀참나무는 반찬가게 운영의 어려움도 있었고, 장소가 협소해 아이들을 위한 수업 진행에 불편함이 있었다. 조합원들은 다시 모여 오래 고민하고 의논한 끝에 조금 더 큰 터전을 마련하고 이름을 '마을 뜨락'이라 지었다. 조합원들이 여력이 되는 만큼 출자해서 마련된 터전이었다. 그곳을 어떻게 꾸미고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중 따복공동체 지원센터의 주민제안 사업 공모가 있었고, 공간조성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받게 된 것이다.

지원금으로 마을뜨락이 꾸며지고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오만가지 꿈의 학교가 열리게 된다. 정말이지 꿈의 학교에서는 오만가지 수업을 한다. 꿈꿔 오던 것들이 수업과목이 된다. 하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만 골라서 수업을 듣는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행복하다.

자립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꿈꾸다

대야미마을협동조합은 아이들을 위한 꿈의 학교를 만들고 오만가지 수업을 하며 꿈을 실현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다. 조합원들은 모두 각자의 생활이 있기에 '마을 뜨락'에 상주하며 운영하기도 어렵고, 꿈의 학교 교장선생님의 봉사를 언제까지고 바라기만 할 수도 없으며 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이사들의 봉사 또한 한계가 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지원에만 의지할 수도 없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오만가지 꿈을 꾸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과 열망이 있는 한 대야미마을협동조합은 지속될 것이다. 끊임없이 의논하고 대화하고 고민하다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길은 열리기 마련이니까.



글: 박은주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0. 19



11

‘더불어꿈 주민 모임(더불어꿈 협동조합)’은 동두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은 스무 명 남짓한 동두천 주민들이 손잡고 만들어 낸 모임이다.



더불어꿈

주소 | 동두천시 불현동



꿈꾸는 동두천, 더불어 동두천

더불어꿈

‘더불어꿈 주민모임(더불어꿈 협동조합)’은 스무 명 남짓한 동두천 주민들이 손잡고 만들어 낸 모임이다. 모임 자체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예전부터 동두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온 회원도 있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던 이들이 대부분이라 열정과 내공이 만만치 않다.

경기도 파북공동체지원센터의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새싹활동지원을 받아 진행된 ‘꿈꾸는 동두천, 더불어 동두천’ 사업은 ‘더불어꿈 주민모임’이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5강을 통해 13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동두천의 여러 마을을 탐방하며 동두천이 가진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해본 활동이다. 기존에 역사 탐방과 생태 탐방을 여러 차례 진행해오던 이들이 뭉친 모임이었기에 자연스럽게 활동의 방향은 탐방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지만, 기존의 탐방이 모두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졌었던 것과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곳곳에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들여다보자는데 회원들의 마음이 모아졌다.

마을 주민이 들려주는 마을이야기

마을 탐방을 앞두고 주민모임에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한 가지는 마을을 돌며 이야기를 해줄 강사를 찾는 것이었다. 조건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았다.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해설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며, 당연히 이 지역에 오래 살아온 주민으로 탐방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사람이어야만 했다. 이런 강사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답은 역시 여럿이 맞댄 머리에서 나왔다. 주민모임 구성원들 중에서 부탁해볼만한 사람이 있다는 의견이 하나 둘 나오더니 순식간에 강사 섭외 리스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섭외된 4명의 강사진은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지역의



동두천CCTV 관제센터에서 이루어진 역사탐방



'더불어꿈 주민모임' 회원들

보배들이었다. 퇴임 전 동두천 읍사무소에서 일했던 경력의 전직 공무원부터 동두천에서 나고 자란 현직 학교선생님과 한 마을에서 300년째 대를 이어 살아 온 전직 시의원까지 엄청난 이력의 소유자들이 마을탐방의 강사로 나섰다.

평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바빠 지나쳐가던 골목과 나무와 가게들의 옛 모습을 더듬어보고 유래를 들어보았던 4번의 탐방. “그게 왜 거기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나니 마을에 애정이 생겼다”는 의견부터 “내년에도 꼭 해달라”는 의견까지 참여자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무엇보다 탐방을 진행했던 강사들의 소감은 남달랐다. ‘더불어 꿈’ 주민모임에서 강사 섭외를 위해 전화통화를 할 때만 해도 “얘기해줄 것도 별로 없는데 뭘 보러 오려고 그래?”라며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던 강사들이 붓물터지듯 이야기를 쏟아낸 것이다. “이렇게 할 말이 많을 줄은 자신들도 몰랐다”며 마을이야기를 풀어낸

강사들이 실은 이번 사업에서 가장 기쁨과 보람을 느낀 장본인들인 셈이다.

시시콜콜 마을탐방, 한 번만 더

4강으로 마무리될 계획이었던 탐방은 참여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한 곳을 더 탐방하기로 결정되면서 총 5강으로 마무리되었다.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우리나라에 몇 곳 되지 않는 희귀한 단관극장인 동광극장이었다.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서 보는 요즘의 멀티플렉스 극장과 달리 스크린이 하나뿐인 이 극장에서는 틀어주는 영화를 무조건 봐야만 한다. 여러 영화를 골라 보는 재미는 없지만 1950년대에 지어진 극장에서 풍기는 오래된 향수를 즐기기에선 제격인 곳이다.

동광극장 탐방을 앞두고 섭외한 ‘더불어꿈 주민모임’에서 섭외한 강사는 다름 아닌 동광극장의 사장님이었다. 동광극장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



옛 정취가 남아 있는 동두천 동광극장의 모습

해줄 수 있는 강사로 이보다 훌륭한 강사는 없었다. 마침 동광극장 사장님도 강사로 나서는걸 흔쾌히 승낙했다. 이렇게 동광극장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 함께 영화를 보았던 마지막 탐방 이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모임 하나가 똑딱 만들어졌다. 이름하여 '동광극장에서 함께 영화 보는 모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퇴근 후 동광극장에 모여 함께 영화를 보는 모임인데, 어떤 영화를 보게 될지 모른다는 묘한 긴장과 설렘이 있는 모임이다. 특별한 사업이나 그럴듯한 결과물이 없으면 어떡랴. 한 잔의 커피든, 한 편의 영화든 그저 시시콜콜한 무언가를 함께 나누는게 좋아서 모이는 이런 모임을 통해 공동체감각은 더욱 단단해진다.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발맞춰 가는 ‘더불어꿈 주민모임’과 같은 모임이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지역동네 그림그리기



보산동 탐방 참여주민들



우리지역 역사문화탐방
'우리동네 그려볼까' 그림전시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에는 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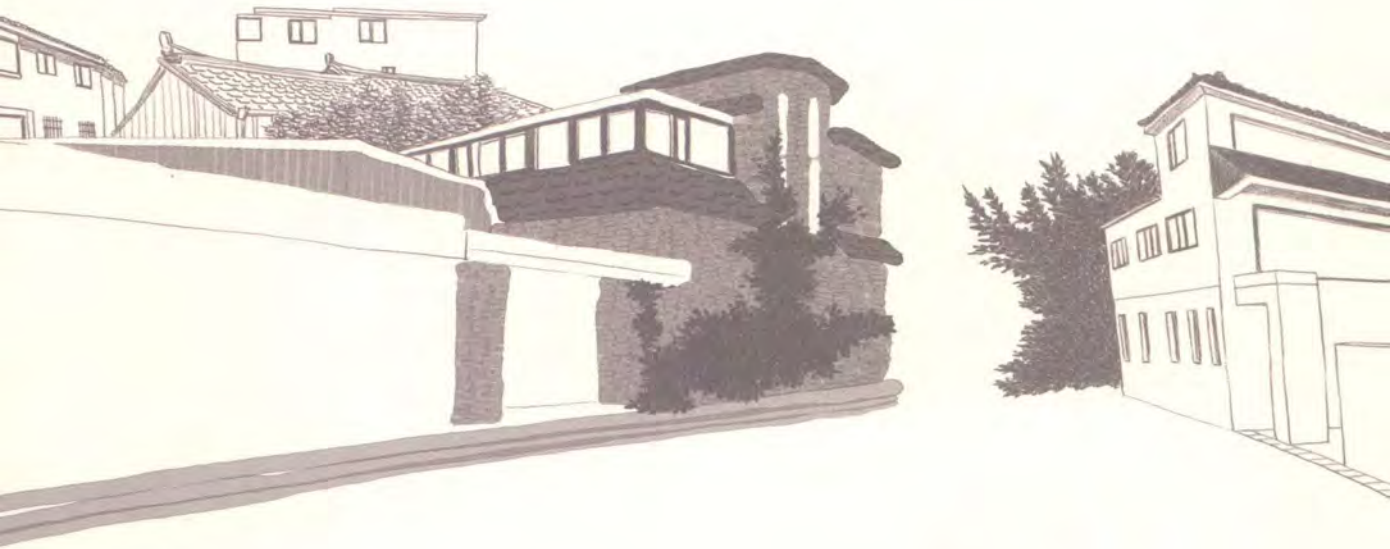
한동안 골목에서 이웃끼리 만나고 나누는 소박한 이야기로 전 국민을 울리고 웃겼던 드라마가 있다. 반찬도 나눠먹고 같이 시장을 다니거나 술 한 잔 기울이며 이웃끼리 살아가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 이 드라마의 인기는 그만큼 소통을 그리워하고 나누며 살고 싶다는 현대인의 열망을 보여준다.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발맞춰가는 '더불어꿈 주민모임'과 같은 모임이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불어꿈 주민모임'은 우리지역 역사탐방을 시작으로 동두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라는 꿈을 더욱 뿌리내리기 위해 얼마 전 북카페를 열었다. 여럿이 함께 꿈꾸는 저력으로 일구어낸 성과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겼지만, 마을탐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강사 리스트를 만들 때처럼 분명 고민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과연 가능할까 싶던 일들이,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나니 해볼 만한 일로 바뀌는 것을 이미 경험했듯이 말이다.



글: 안은성
(경기도 따북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2. 3



12

교회 내 자리잡은 공정무역카페 ‘더불어 숲 페어라이프 센터’는 작은마을 만들기를 키워드로 잡고 카페와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을뿐아니라 다양한 공연, 문화강좌등 작은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더불어 숲 페어라이프

주소 |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번지 이원타워빌딩 10층
전화 | 031-227-1771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 이야기

더불어 숲 페어라이프

경기도 화성 동화길 이원타워빌딩 10층에 위치한 더불어숲 동산교회(이도영 목사)이며, 카페 '맑은샘' 문을 열면 구조나 분위기가 여느 커피숍과는 사뭇 다르다. 벽면 가득한 책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원목 책꽂이에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은 천장까지 이어져 통나무집을 연상케 한다. 교회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카페에선 서너 명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와 함께 책을 읽는 어린이들도 있다.

공정무역카페 '더불어 숲 페어 라이프 센터(Fair Life Center)'다. 평일에는 교인보다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찾는다는 이 교회만의 풍경이다

주민들이 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들이 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2010년 개척 교회 당시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화성은 공단지역이며, 이주지역이라서 어린자녀를 둔 가정이 많았다. 하지만 도서관 하나 없는 지역이라 아이들 도서관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쇼핑하고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외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할 게 없었다. 함께 프로그램을 하며, 책도 보며, 아이들을 맡기고 부모들은 좀 편안하게 대화도 나누고 어른들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없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역하고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꿈을 꾸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했다.

한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옳은 길을 갈 수도 없으니까 더



더불어 숲 페어라이프 센터



벽면 가득한 책장

불어 숲을 만들어서 숲을 지켜내야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더불어숲이란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다.

용도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지는 방

원래 상가건물 3층에 있던 교회는 어린이도서관, 마을서재, 공정무역 카페로 이어진 공간으로 여느 교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3년 후 장소가 점차 협소해져서 협동조합으로 등록 후 10층으로 교회를 이전했다. 이전하면서 3층에서 사용했던 많은 사람들의 땀과 추억이 남은 문짝들, 유리, 벽장식, 컵보드를 그대로 떼어와서, 공간에 재배치하고 벽면은 쓰고 남은 조각 나무들을 패치워크로 디자인했다. 여기저기 버려진 자재들을 모아 온 교인이 힘을 모아 벽을 세우고, 페인트칠을 하고, 이삿짐을 날라 새로운 터전을 만들었다.

'리사이클이 아닌 업사이클'이라는 모토로 나무 조각들로 만든 테이블, 누군가의 여행 기념품 타일을 덧댄 탁자, 닦아내고 긁어내어 전교인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공간이다. 평일엔 이 지역

에 하나뿐인 공정무역 카페이자 북카페가 되고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인문학강연과 작은 공연들이 열리는 무대도 된다. 마을서재, 공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요리공방으로 이루어진 페어라이프센터, 일요일엔 교인들의 식당으로 이용되는 이 모든 공간은 교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고 용도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지는 방이기도 하다. 교인들만 일요일에 찾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 함께 쓰이는 곳으로 일요일엔 어린이부 예배공간이 되지만 토요일엔 청소년 예술학교 수업이 진행되고 마을학교 강연이 열린다. 개척교회여서 교인들도 있을 공간이 부족하지만 그 공간을 지역에 오픈해 우리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지역의 공유재산이라는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작은 마을 만들기'를 키워드로 잡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힘썼다. 2011년 말 작은 마을 만들기 NGO인 '더불어 숲 페어라이프 센터'를 정식 등록했다. 이 NGO를 통해 공정무역 카페, 작은 도서관, 마을학교 등 다양한 사업이 이뤄졌다.



마을서재 전경



공정무역 카페

2013년 1월 교인 등 30여 명과 출자금을 모아 공정무역 카페를 '더불어 숲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화성시 1호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작은 도서관, 마을서재

벽면 가득 책들이 있는 도서관은 3층의 교회였을 때부터 교인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책 기부로 시작되었다. 공간을 이전하며 교회공간의 50%를 지역주민을 위해 내어놓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마을 서재로 사용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책은 5,000여 권이다. 도서관에서는 대학생들이 재능기부로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린이들은 사서를 자청해 책을 정리하기도 한다. 복층으로 이어진 도서관과 놀이방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공간은 모두 오픈되어 부모들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도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창조하는 새로운 관계의 그물망, 서로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고 있다. 영어, 요리, 미술, 바느질에 소질 있는 학부모들은 신

청서에 만들기 강좌 등 자신 있는 분야를 적고, 수강생이 모이면 원하는 날짜에 재능을 기부하면 된다. 묵혀뒀던 재주들을 이웃과 나누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은 자신감을 되찾고, 주민들은 보람을 얻는다. 모든 프로그램이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은 동네 사람들이 언제든 들르는 쉼터이다.

공정무역카페

도서관 입구에 자리 잡은 카페에서 주민들은 커피를 마시며 공정무역 커피를 알게 되고, 공정무역 카페를 운영하며 착한 소비운동을 한다. 이곳은 공정무역 카페이자 공정무역을 통해 동네에서 세계를 경험하는 공간이다. 네팔 여성 노동자들이 수공으로 만든 인형, 손바느질로 만들어지는 파키스탄의 공정무역 축구공 등 선반 위에 진열되어있는 상품 대부분이 공정무역 상품이다. 다양한 장식품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정무역 상품을 이해하게 된다. 주민들도 나누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카페로 가져온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카페에서 베품시장

을 열거나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어 수익금을 전달하기도 한다.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커피를 잘 끓이는 분들은 이곳에서 바리스타로 봉사도 하며 수익금은 팔레스타인 등 분쟁지역에 도서관을 만드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카페를 찾는 주민들은 일회용 컵 대신 직접 가져온 개인 컵을 장식 선반에 올려두고 사용하며 장식효과를 내기도 한다.

다양한 공연과 문화강좌, 워크숍

이밖에도 교회 공간에선 주민들을 초청해 음악회, 인문학 콘서트 재능기부 강좌 등을 갖고 있다. 다양한 공연과 문화강좌, 워크숍이나 세미나, 작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준다. 문화광장 하나 없는 화성 지역은 문화 공연이나 영화 한편을 보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을 나가야 하는 문화소외 지역이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아무리 좋은 공연과 강좌가 있어도 이동하기가 힘들다. 이런 점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회는 공간을 내어주고 지역과 소통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토토 토요일만 예술학교'는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를 교육이 아닌 예술로 한정하고 예술학교를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애들이 작곡한 걸로 뮤지컬을 만들고 각본도 직접 쓰고, 공연을 통해 애들이 창작의 기쁨, 함께 어울리는 기쁨, 입시가 아닌 다른 어떤 세계도 가능하구나 하는 걸 알게 해준다.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뮤지컬 배우, 방송작



공연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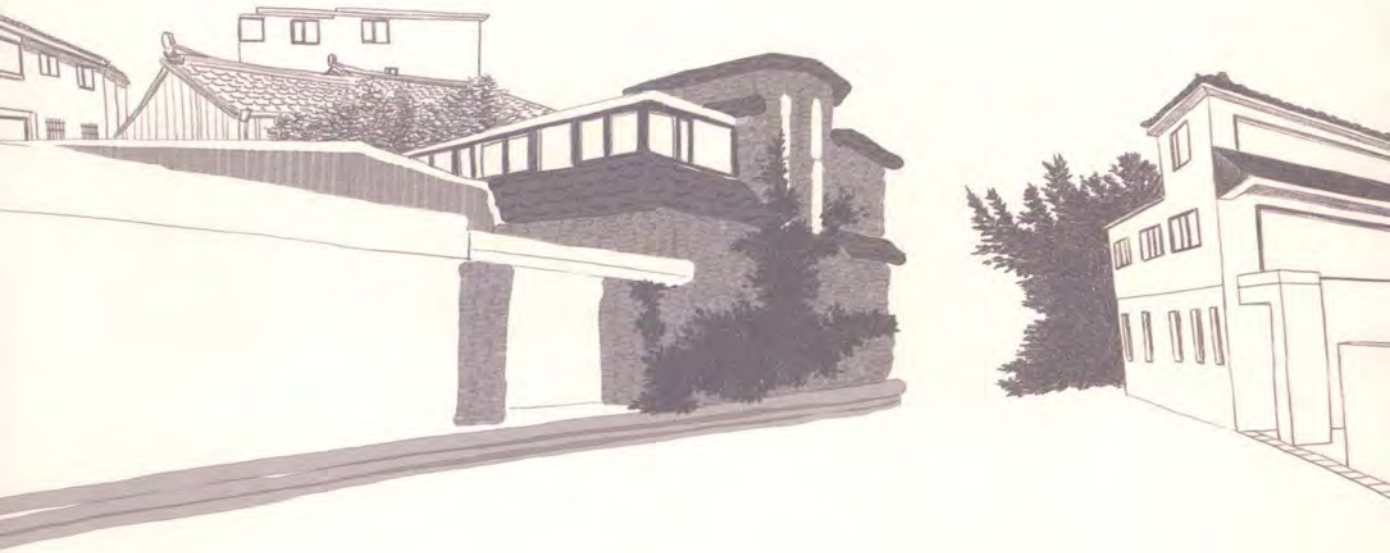
가 했던 분, 디자인 전문가가 디자인도 가르쳐주고, 가수가 노래도 가르쳐주며,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 교회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과 다른 지역의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소문을 듣고 와서 함께 활동하기도 한다.

처음 교회에서 키워드로 잡은 '작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교인들도 여러 교수님들을 초청해 여러 차례 강의를 들으며 점차 교인들의 가치가 변화되고 천천히 마인드를 공유하게 됐다. 이젠 교인들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을 풍요롭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회복하며 지역주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꿈을 교회를 통해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아직도 이해 못하는 교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해내고 있다.



글: 시경숙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19



13

수원시에 자리를 잡고 지역문화 활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출판사이다. 수원을 소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골목잡지 '사이다'를 발행하고 있다.



더페이퍼

주소 |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69
전화 | 031-255-8199



수원을 소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골목잡지 '사이다'를 발행하는 곳

더페이퍼

“저는 나이가 많습시다. 일을 안 한지는 몇 년 되었어요. 면접을 보러 가도 될까요?”라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이는 많지만 일을 너무 하고 싶어요’라고 들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녀는 마흔 살이 넘었고 일을 쉬는지는 5년쯤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열심히 할 거라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에서 묻어나오는 절박함으로 알 수 있었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면접 약속을 하였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그녀는 이곳 ‘더페이퍼’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더페이퍼’는 대표를 비롯하여 9명의 여성으로 꾸려진 팀이다. 평균연령이 40을 훌쩍 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많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편이다. 많은 이들이 같은 입장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일들을 조금씩 조율해 나간다. 하는 일이 책을 만드는 것인 만큼 감각적이어야 하지만, 이것들은 입사를 하고 성실함으로 메꾸어 나가고 있다. 성실히 배우며 키워나가는 것이다.

골목잡지 ‘사이다’

골목잡지 ‘사이다’12호가 발간되었다. 사이다는 ‘더페이퍼’에서 2012년부터 만들어진 지역 잡지이다. 수원의 이곳저곳을 사이사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와 발자취를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책으로,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던 우리네 이야기가 정겹게 묻어 있다. 근 4년 동안 수원시의 남수동, 장안동, 북수동, 남창동, 신평동, 교동, 매향동, 매산동, 고등동, 영화동, 서둔동까지만 가본 곳이 없을 정도이다. 창간호가 나오고 지금은 그때의 두 배가 넘는 두께



더페이퍼 전경



더페이퍼의 입간판

로 성장했다. 무가지로 발행되는 마을잡지가 200페이지가 훌쩍 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뜨거운 그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이다는 1년에 4번 나오는 정기 간행물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가받은 후, 2015년에 사회적기업 '더페이퍼'가 되었다. 무가지 '사이다'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안도와 의문이 교차한다. 공짜로 배포하는 책으로 어떻게? 계절마다 5,000부의 책을 은행과 시청, 도서관, 주민센터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런 질문에 씨익 웃는 최대표다. 그렇지 않단다. '사이다'로 묵묵히 '더페이퍼'를 홍보하고 있단다. '사이다'는 무가지이지만 그 역할은 돈을 내고 보는 잡지 그 이상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이다'의 에너지는 서서히 퍼져나간다. '광복70주년

기념백서'를 제작하게 된 것도 경기도 추진위원회의 누군가가 '사이다'를 보고 추천한 경우이다. '사이다'는 가볍지 않다. 200페이지가 넘는 책이 가벼울 수는 없을 것이다. '사이다'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다음호를 기대하게 된다. 지금은 '사이다'를 컬렉션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들의 작업을 도와주는 이들도 생겼다.

'수려선'을 아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시간이 흘러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를 잘 보존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더페이퍼'는 생각한다. 경기도 역사의 기록이 구전으로만 내려오고 기록물이 없어 시간이 지난 후 잊혀지는 것이 안타깝다. 더 늦기 전에 이것들을 수집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경기도나 수원시에서 나서서 우리의 문화를 보존해야 하겠지만 누가 하면 어떠랴, 제일 하



골목잡지 '사이다'



더페이퍼의 담벼락

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다. '더페이퍼'는 경기도에 이것들의 필요성을 제의하게 되었고 '경기도 메모리'와 협업하여 1년에 걸친 채록작업과 자료수집을 통해 '경기도민 이야기' 1,2를 2년에 걸쳐 발간하게 된다.

'수려선'은 개통당시만 해도 수원에서 여주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장거리 교통수단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 몸을 실었고 각각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수려선'을 타고 학교를 통학했던 학생은 기차표가 비싸서 무임승차를 했다가 표 검사를 할 때면 옆 칸으로 도망가곤 했다. 아버지와 껌스레 같은 기차에 타게 되면 쑥스러워 아버지와 떨어져 한곳에서 책만 들여다보곤 했다는 지루했던 시간의 이야기와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언을 듣고 바로 기차에 몸을 실었지만, 기차가 너무 느려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담담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경기도민 이야기'의 한 부분인 '수려

선'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만약 '더페이퍼'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의 소소한 역사의 기록들은 없었을 것이다. 1972년 '수려선'은 폐선되어 기록으로만 남아 있다.

젊음의 상상공간 '평상'

젊은이들을 모아서 공간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 참 당혹스러운 제안이다. '무엇을 할 것이냐'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 제안은 젊은이들을 생각하게 만든다. 젊은이들은 이 공간 '평상'에 모여 앉아 자유



평상

“더페이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밖으로 나선다.
 오늘은 어느 골목을 찾아가야 할지, 새로운 마을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발길을 재촉해 본다.”

로운 상상을 하게 된다.
 ‘평상’은 젊은이들의 소통을 위해서 ‘더페이퍼’가 ‘경기문화재단’과 손잡고 만든 공간이다. 이 프로젝트는 무언가를 완성한다기보다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행해지는 행위과정에 중점을 둔 것이다.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지역 젊은이들을 모집하였고 모인 이들은 특별한 주제도 없고 룰도 없는 이곳에서 알아서 노는 것이다. 처음 해보는 과제에 난감하지만 이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건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정해지면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아무도 모른다. 서로의 유기적 관계가 어떤 반응을 할지는 그들의 몫인 것이다.
 1기 ‘평상’이 졸업하고 나면, 2기 ‘평상’은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더페이퍼’는 행궁동의 고즈넉한 1층짜리 한옥을 사옥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다. 한옥의 멋스러움과 현대의 감성이 어우러진 분위기는 ‘더페이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지금의 이런 모습을 갖추기까지 그

들의 노력은 쉽지가 않았다. 쓰러져가는 음식점을 여기저기 손보고 손수 마당에 타일도 깔았다. 구석구석 고집스럽게 가꾸고 다듬어진 곳이다. 그래서인지 그대로의 정성이 묻어나는 공간이다. 마당의 잘 다듬어진 공간은 젊은이들이 모여 공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의 소통 공간으로도 사용한다.

‘더페이퍼’의 외벽유리창에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협력자들의 이름이 수놓아져있다. 그들은 골목잡지 ‘사이다’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이들도이다. ‘더페이퍼’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작은 선물이기도 하다. 협력자들이 늘어 갈수록 유리창에 새겨지는 이름들 또한 길어질 것이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이름에는 뿌듯함이 배어있다. ‘더페이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밖으로 나선다. 오늘은 어느 골목을 찾아가야 할지, 새로운 마을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발길을 재촉해 본다.



글: 이진아
 (경기도 따북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2. 15



14

성남시의 금빛평생학습마을공동체에 속해 있어
마을도서관운영과 평생교육거점공간으로써 주민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마을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다.



되살림가게웃는나무&
북카페, 물푸레작은도서관

주소 |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00번지 48
전화 | 031-736-5659



성남시 금빛평생마을학습공동체

되살림가게웃는나무&북카페, 물푸레작은도서관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의 언덕길 사이사이에 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곳의 굽이굽이 춤추는 듯한 길을 따라서 한참을 올라가다보면 언덕꼭대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집들 사이에서 조금 색다른 분위기의 예쁜 가게가 보인다.

이곳이 바로 “되살림가게웃는나무&북카페, 물푸레작은도서관”이다.

가게 앞에 매대가 설치되어있고 생활 잡화들이 즐비하게 놓여있다. 옷이며 가방, 지갑, 우산 등 평소에 우리가 쓰던 것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한쪽에 바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와 음료 그리고 간단한 분식 정도를 판매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테이블 몇 개와 의자들, 손님들 몇몇이 앉아 독서중이다. 바 넘어에는 아주머니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거나 서빙을 하거나 매대의 물건을 흥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북카페나 도서관의 모습보다는 여러 가지를 함께하는 멀티공간이다. 간판에 “되살림가게웃는나무&북카페, 물푸레작은도서관”이라는 긴 이름의 이유이다.

규모보다는 내실을 다지자

처음부터 이 두 사업장이 같이 위치한 것은 아니다. “물푸레작은도서관”은 2007년 상대원동에서 시작되었고, “되살림가게웃는나무&북카페”는 2011년부터 금광1동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둘 다 성남여성회가 주관하는 곳이다. 하지만 공간이 다른 두 곳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거점공간이 달라서 관리하는 인력이나 월세 등의 자금운영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그래서 2011년에 지금 위치한 금광1동으로 옮기게 된다. 1,2층으로 운영하고 1층은 “되살림가게웃는나무&북카페”가 2층은 “물푸레작은도서관”이 사용하게 된 것이다.



가게 앞

그래도 문제였다. 2층 월세 50만원, 1층 월세 80만원 합이 130만원... 감당하기 힘들었다. 여성회가 주관은 하고 있지만 금광1동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한 지원은 가능하지 않다. 프로그램지원이나 인력비, 감사비는 지원 받지만 월세는 다른 문제였다.

2015년 8월에 다시 공간을 합치게 되었고 이 공간을 좀 더 내실 있게 사용하는 게 더 나으리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1층만을 사용하고 있다. 25명 정도의 공간 안에 오롯이 도서관으로 쓸 룸 1개와 파티션으로 분리된 공간 둘, 부엌까지, 두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언덕 위에 아기자기한 마을사랑방

“퇴살림가게웃는나무&북카페, 물푸레작은도서관”은 일년내내 분주하다. 한 주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14개다 보니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쁘다. 아이들이 안쪽 룸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밖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기다리다가

벽에 꽂혀있는 책도 보다가 차도 한 잔 마시다가 옆에 있는 이웃과 얘기가 시작된다. 이야기는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다. 시작은 했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모르는 사람도 이곳에 오면 가까운 이웃사촌이 되어서 다음을 약속한다. 아이들 손을 잡고 이곳을 향하게 되고 다시 모이게 된다. 이렇다보니 엄마들은 수다로 만족스럽지 않게 된다. 한 엄마가 인형만들기를 해보자고 제안한다. 다음에 만날 때는 재료를 준비해서 만나기로.

인형을 잘 만드는 엄마가 알려주기로 한다. 엄마는 인형만들기 선생님이 되어 몇몇 모인 마을 엄마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마을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졌다. 그들은 “퇴살림가게웃는나무&북카페, 물푸레작은도서관”의 마을회원이 되었고 회비를 내고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이곳의 운영을 돕는다.

우리수업은 우리가 정해요.

한쪽 벽면에 메모보드가 걸려 있는데 이곳은 누구나 원하는 수업이나 보고 싶은 책, 가고 싶은 곳, 축제 때 하고 싶은 것들, 벼룩시장 등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 이것들을 적극 반영하여 “퇴살림가게웃는나무&북카페, 물푸레작은도서관”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선택하고 선택된 의견으로 연간 계획을 짜게 된다. 바이올린, 종이접기, 도덕경, 기타배우기, 마을탐방, 역사탐방 같은 인기



엄마들 일하는 중



프로그램 수업 중

프로그램은 몇 년씩 지속되기도 하고 반응이 좋지 않은 것들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진행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다각도에서 이루어진다. 일부는 마을 회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이를 둔 엄마들이 모여 교육 품앗이가 이루어진다. 일부는 참가자들에게 수업료를 받고 진행하기도 한다. 1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면 10명의 참가자들의 수업료를 강사에게 지급한다. 강사는 10%의 후원금을 물푸레도서관에 환원하는 형식이다. 간혹 경기도나 수원시에서 공모하는 마을사업에 도전해보기도 한다. 수원여성회는 물론 경기도 작은도서관과나 수원시의 마을공동체기금사업에 지원요청을 하기도 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좋은 것이고, 선정이 안됐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딱히 지원 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마을 회원들과 의논하여 다른 방법들을 모색한다.

회비를 걷거나 공간이 있으니 벼룩시장, 일일차집 같은 것들도 좋다. 이것은 9년동안 마을학습공동체를 꾸려 나갈 수 있었던 “되살림가게웃는

나무&북카페, 물푸레작은도서관”만의 노하우이다. 그러다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마을사랑방이 “금빛평생마을학습공동체”로 날개를 달다. 2012년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 “금빛평생마을학습공동체”를 시작하게 된다. 수원시에서 몇몇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선정 후 다양한 직업교육과 마을선생님 교육을 지원하고 그들이 다시 그 마을의 인력자원으로 환원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이다.

게릴라가드닝으로 아름다운 마을을!

“게릴라가드닝”이란 정해진 일시에 모여 삭막한 공간을 아름다운 가든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마을의 유휴한 공간을 공동의 작업으로 공동의 가든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누구라도 내가 사는 마을이 아름답기를 원할 것이다. 힘을 좀 들이더라도 주변경관이 아름다운 것을 싫어 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이웃사람과 꽃을 심자고 한다면 좋다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서먹함은 힘든 일 중의 하나이다.

“게릴라가드닝”을 하려면 이웃을 모르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꽃을 심기 전에 서로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암묵적으로 이웃을 위해 나를 위해 꽃을 심을 준비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소통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해왔다.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가꾸기에 동참하였다.

마을축제로 소통하다

2015년 10월 24일 “되살림가게웃는나무&북카페, 물푸레작은도서관”의 주축으로 2번째 금광동마을축제가 열렸다. 축제의 슬로건은 “대문밖 가족”으로 마을공동체를 의미한다.

경기도 마을 공동체사업에 공모하여 축제 진행비를 후원받고 부족한 경비는 마을사람들이 조금씩 나눠서 부담하게 되었다. 1회 때는 “되살림가게웃는나무&북카페, 물푸레작은도서관”이 나서서 하나부터 열까지 축제의 개최자로서 참여를 했다면 이번엔 다르다. 마을 사람들이 주최자이며 동시에 참가자인 것이다.

처음부터 마을사람들이 모이기란 쉽지 않았다. 주변부터 공략해보기로 했다.

“게릴라가드닝”으로 돈독해진 한국유통 슈퍼 사장님께 마을축제를 같이해보자고 했다. 사장님은 펄쩍 뛰신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찾아가길 몇 번, 설득하고 또 하고 끝내 사장님은 승낙하게 된다. 사장님은 또 아는 사람을 끌어 들인다. 앞집 정선생수학교실의 수학선생님도 마찬가지다. 처음 반응은 비슷하지만 나중에는 다들 적극적으로 축제준비에 동참하게 된다.

이들을 위주로 축제준비위원회가 꾸려졌고 가까운 이웃부터 조금씩 참여자가 늘어났다.

아빠들은 모여서 연주회준비로 악기연습에 여념이 없다. 엄마들은 장구를 열심히 두들겨대고, 초등학생은 꼬깔모자를 쓰고 우쿨렐레 연습이 한창이다. 이들은 모두 정신없이 바빴다. 소품들도 제작하고 의상체크도 해야 하고 장소 섭외도 해야 한다. 마을이 온통 바쁘다.

2015년 10월 24일 오후 1시 금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마침내 축제가 시작되었고 그날 하루 마을주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마을 축제의 리더이자 참여자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하자

“되살림가게웃는나무&북카페, 물푸레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로서의 소임을 지금까지 잘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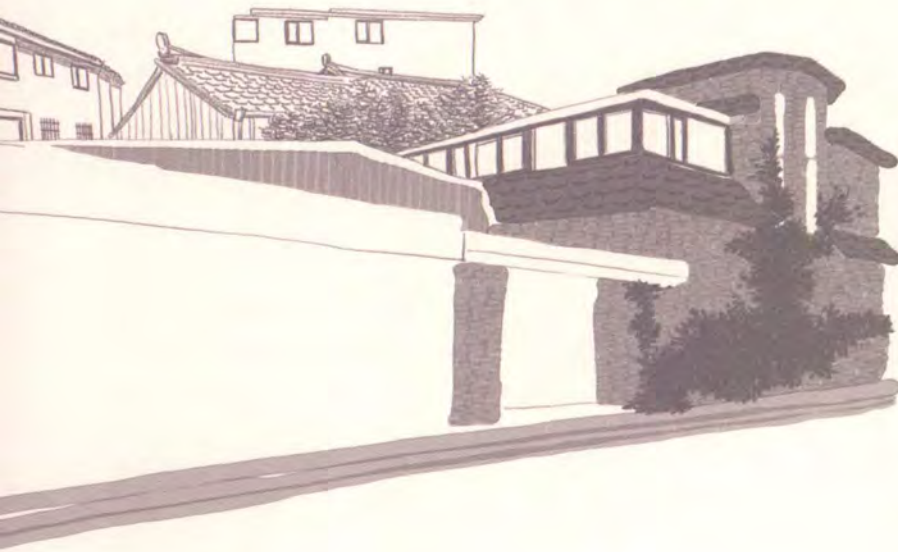
앞으로의 계획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하자” 라는 것이다.

마을사람들과 같이 배우고 배운 것을 다시 나누고, 봄가을 별이 좋을 때 아이들과 같이 역사탐방도가고 10월이 오면 마을 축제도 하고 꽃도 심고, 이렇게 말이다.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서둘러서 무리하지도 말고 천천히 쭈욱 지금처럼만 이라고...



글: 이진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22



15

착한 물건, 착한 가격으로 함께하는 가게,
그리고 청바지 업사이클링 등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해 나가는 두레협동조합



두레협동조합

주소 |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70 동부 썬프라자 B동110호
전화 | 1600-7221



함께하는 가게

두레협동조합

뜻있는 일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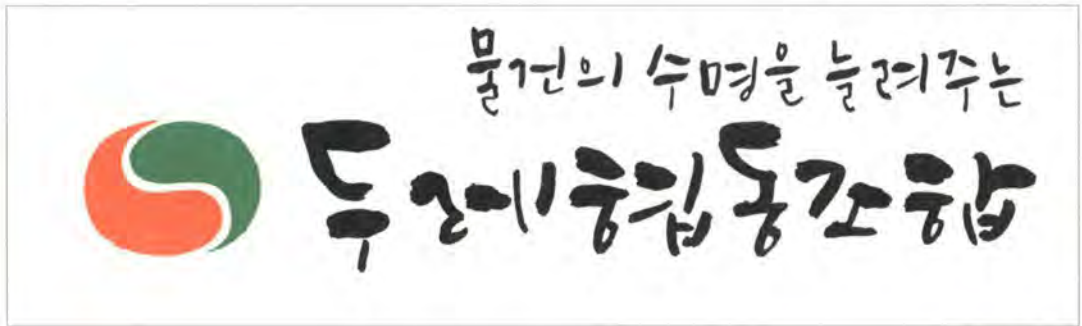
지인들끼리 지역 활동을 해오던 모임이 있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느 모임처럼 식사하며 친목을 다지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뜻있는 일을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때마침 협동조합법 개정은 2013년 2월 두레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차에 장애인 한 사람이 동네에서 헌옷 등을 모아 구제사업 하는 것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이 아닌 직군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분류하고 선별하는 등의 단순한 봉사 위주였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에 비해 수익성이 없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힘을 모아 재활용 가게를 열어보자는 중론이 모아졌다. 부족한 재정은 16명의 조합원들로부터 1구좌 1만원의 출자를 받아 16만원으로 인건비 없이 시작했다.

이후 여력이 되는 조합원들의 출자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다.

녹색가게 남들이 안하는 일 해보자 ‘교복물려주기’

이듬해 재활용을 모티브로 한 녹색가게를 준비하며 ‘아름다운 가게’, ‘밀알복지재단’ 등을 벤치마킹했다. 이 과정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며 찾은 것이 ‘교복물려주기’의 일환인 교복상설매장이다. 진학하는 아이들에게 새 교복을 입히고자 하는 부모들은 많아도 중고교복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아 교복상설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복상설매장을 열었다. 이유는 이렇다. 학교에서 ‘교복물려주기’ 캠페인을 하고 날을 정해 행사를 하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워킹맘들은 학교에 가서 살 시간이 없다. 더구나 이주를 앞둔 전학 학생이 있



두레협동조합 로고

는 경우 얼마 입지 못할 교복을 비싼 값에 사기란 여간 아깝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을 위해 비싼 교복 값 대신 1~2만원에 해결이 가능한 교복상설매장은 가뭍에 단비 내리듯 반가운 일이다. 상설매장을 찾아 교복을 구입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교복상설매장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부심을 갖게 한다.

녹색가게 착한물건, 착한가격, 착한가게
 두레협동조합은 '교복상설매장' 이외에도 함께 하는 가게를 운영한다. 들고나는 문도 앞문, 뒷문이 있어 어느 곳으로 들어가든 가게가 한눈에 들어온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각양각색의 물건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물건이든 깨끗하고 쓸 만한 물건이면 된다. 씻고 다림질하고 닦는 과정을 거쳐 새 제품인양 가판대에 전시되어 새로운 주인이 오기를 기다린다. 개중에는 유행이 지나 조금 촌티가 흐르는 물건도 있지만 자신의 쓸모를 알리기라도 하

듯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인다. 가격도 착하다. 큰 돈 들이지 않아도 한 살림 장만이 가능하기에 가벼운 지갑으로도 부담이 없는 착한가게다.

업사이클링 세계에 발을 내딛다

두레협동조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리사이클이 아닌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했다.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물건을 새로이 재탄생시켜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업사이클을 활성화 시켜보자고 한 것이다. 이들이 업사이클링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청바지다. 중고물품으로 들어오는 물품 중 청바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착안했다. 모두 지나간 패션스타일로 통이 넓은 것들이 주류를 이루기에 청바지를 그대로 구입하려는 사람은 없다. 더구나 폐기비용도 8배나 더 든다. 환경적으로도 부담인 청바지를 잘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며 노력한 결과 2014년 청바



박람회 참여 모습

지의 변신을 꾀한 앞치마, 솔더백 등 시제품을 만들어 선보였다. 시제품은 성공적이었다. 노동복지나눔센터에서 청바지 업사이클링을 통하여 일자리창출을 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제안을 받아들여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업사이클링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 여성들이 참여하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찾아가는 장터로 카페 장터 등을 열고 행사에 참여하는 등 '프리마켓'을 진행했다. 생협에도 입점하였다. 그러나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브랜드'화였다. 브랜드화하면 상품의 가치도 높일 수 있고 구매자도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이때 만든 브랜드가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에코 진'이다. 이후 청바지를 기본 소재로 하여 가죽과 자투리 원단을 결합시켜 만드는 '진플러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즉 새 원단과 진(재활용)을 함께 사용한다. 진만 쓰면 칙칙한 느낌이 있기

에 밝은 새 원단을 입힘으로써 신뜻하고 예쁜 제품들을 만든다. 이들의 진화하는 업사이클링은 착한가게 한쪽 코너에 자리 잡고 전시되어 있어 가게를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경력단절여성들이 모여 배우고 익힌 기술들을 수줍게 선보이는 가게 한켠에 마련된 오픈작업장에서는 재봉 소리가 희망의 울림이 되어 퍼진다.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핸드메이드

또 하나의 사업 땀땀이는 하나하나 개성이 담긴 특별한 제품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핸드메이드 브랜드다. 핸드메이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물건을 말한다.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톡톡 튀는 개성이 살아있는 제품을 만들어 제공한다. 독특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생활 소품은 땀땀이 제품의 특색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주문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땀땀이 공방에서는 업사이클링 체험 및 교육을 진행하는데 초, 중, 고교 학생들 및 성인 동아리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한다. 다양한 천을 이용하여 세상의 단 하나뿐인 인형, 팔찌나, 목걸이, 코사지 등 악세서리 소품, 파우치, 앞치마, 노트북가방, 백팩, 쿨트가방 등을 만든다. 이러한 체험교육은 자신만의 소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다.



진플러스 가방



에코백과 카드홀더



핸드메이드 고깔세트

“경력단절여성들이 모여 배우고 익힌 기술들을 수줍게 선보이는 가게 한켠에 마련된 오픈작업장에서는 재봉 소리가 희망의 울림이 되어 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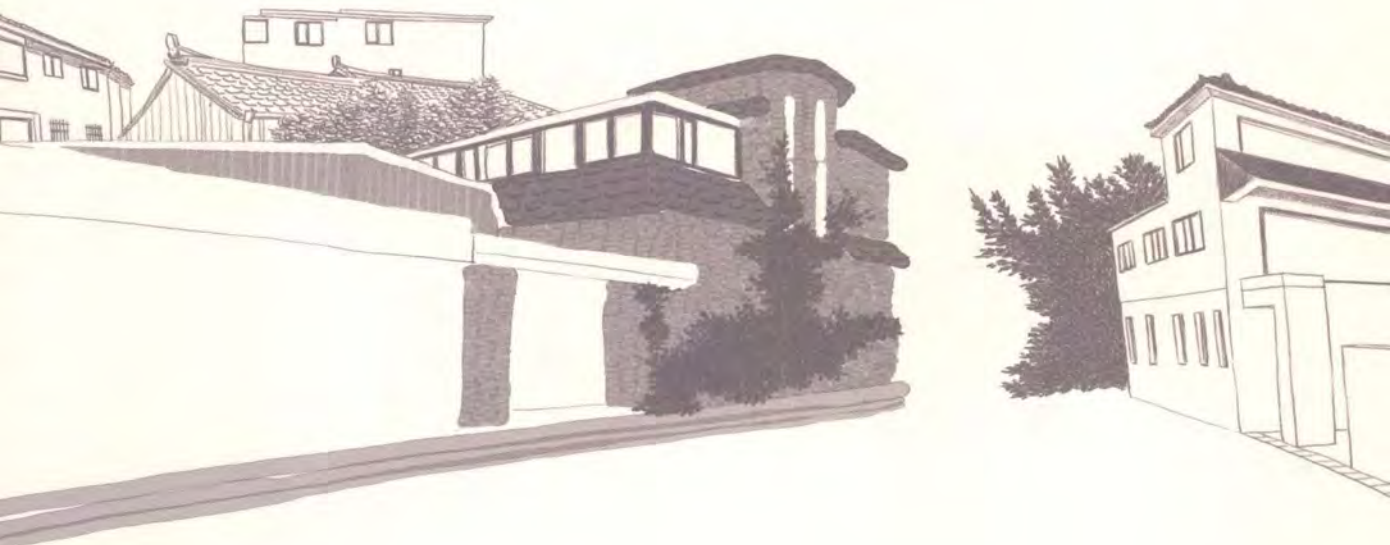
함께하는 미래를 위하여

고민도 늘어간다. 물물교환을 원하는 거나 싸게 내놓은 물건 가격을 더 깎으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가게 와서 물건을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려해 행여 지인을 만나면 구경삼아 온 것처럼 보이려 하기도 한다. 중고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너그럽지 않다고 여겨, 문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가게는 버틸 힘을 잃어간다. 업사이클링이나 팜팜이도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담보되지 않으면 조합원들도 꾸준히 참여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일을 해야 할지 다른 일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갈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도중에 떠나는 사람도 생겨나고 취미생활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중이다. 2015년 5월 농곡에 '함께하는 가게'를 열었으며, 2016년에는 파주에도 가게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으로 만든 다용도 앞치마를 개발 중에 있으며 핸드메이드 부분을 분리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다.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조합원들의 노력이 쌓여가다 보면 멋진 미래가 눈앞에 다가올 것을 기대해 본다.



글: 손광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1. 13



16

‘두루누리 어깨동무’는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이 만든 모임으로 주로 지역내 사회복지대상에서 기회가 적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청소년, 치매예방에 대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두루누리 어깨동무

주소 | 의정부시 녹양동
전화 | 031-971-8500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 상담서비스

두루누리 어깨동무

마을과 통일의 유비쿼터스

‘두루누리 어깨동무’는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이 만든 모임으로 주로 지역내 사회복지대상에서 기회가 적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청소년, 치매예방에 대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두루누리’란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나 자유롭게 통신망에 접속하여 자료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뜻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가르키는 순화된 우리말로, ‘두루누리어깨동무’는 사람들 간의 만남과 소통의 매개자로서 북한이탈주민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실체적 만남에 주목했다.

‘두루누리 어깨동무’ 회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모임을 꾸리고 상담공부를 한 건 지금까지 의정부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이 민통선 방문사업뿐이라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인근 지역인 포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상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상담원도 3명뿐이라 기본적인 서비스는 고사하고 이탈주민끼리의 교감이나 소통을 위한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라는 것도 큰 이유였다.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 상담서비스”는 파북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중 새싹활동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통일과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룰 법한 이 활동이 마을공동체라는 주제와 부합할 수 있었던 것은 의정부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00여 명이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아픔을 ‘두루누리어깨동무’는 마을 안에서 풀어보고자 했



두루누리 어깨동무 회원들과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이 숲체험

다. 이들의 어려움을 그저 통일이라는 의제 안에서만 바라보기보다 지역의 문제, 마을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깨동무하기까지, 산 넘어 산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 상담서비스”는 처음부터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우선은 참여자 모집부터가 쉽지 않았다. 참여 대상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점이나 불규칙적인 직업들로 인해서 처음 계획했던 15명을 모으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여러 단체와 지자체의 도움을 얻어 어렵게 주민들이 모인 후엔 모임 장소를 두고 또 어려움이 나셨다. 상담 장소로 빌린 주민자치센터 복지상담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신청자들이 대거 취소를 한 것이다. 버스로 몇 정거장도 안 되는 거리지만 남한의 교통이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겐 주거지를 벗어나는 일이 현실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예상치 못한 탓이었다. 참여의사를 밝혔던 주민들이 멀어서 못나오겠다고 했을 때, 사업진행을 맡은 ‘두루누리어깨동무’ 회원들은 적잖이 당황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진 회원들 앞에 나타난 구원투수는 다름 아닌 같은 모임의 회원이었다. 마침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비어 있는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방이 3개인 아파트로 장소가 해결되고 난 뒤 드디어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주민자치센터의 복지상담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주민들을 만나게 된 것은 나중에 보니 일종의 전화위복이었다. 상담이나 교육이라면 손사레를 치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집은 덜 위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고, 이는 ‘두루누리 어깨동무’ 회원들과 주민들이 울며 웃으며 소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숲체험 소감나누기



담대한 명장의 떡케이크 강의

뒤바뀐 멘토와 멘티

얼핏 보면 '두루누리어깨동무' 회원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주민들은 그저 참여만 했을법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처음부터 '두루누리어깨동무' 회원들은 자신들이 무조건 이야기하는 멘토의 역할을 자처하기보다 이탈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멘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별상담에서도 그런 태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주민들은 맨날 질문만 당하다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며 좋아했다.

사패산으로 다함께 숲 체험을 간 날이었다. 두루누리어깨동무 회원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 한 명에게 격의 없이 물었다. "이 나무를 북에서는 뭐라고 부르니? 우리는 이것 '쥐똥나무'라고 불러". '쥐똥나무'라는 이름 때문인지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 속에서 깔깔깔 웃음보가 터

졌다. 소통은 한 쪽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상대를 알려는 노력과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모두가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숲 체험 이후에는 '폭력 없는 행복한 삶'을 주제로 한 강의를 이어졌고, 남북한 음식 이야기를 주제로 한 '떡 케이크 만들기'를 끝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다. 수료식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던 날, 모든 참가자들이 빼놓지 않고 한 말은 "북에 있는 가족들과 먹고 싶다"는 것이었다. 변변한 일자리도 없이, 친한 이웃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외롭게 버텨 온 이들에게 가족은 늘 그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가족은 되어줄 수 없어도 힘들 때 기댈 어깨쯤은 내어줄 수 있다고 믿는 '두루누리어깨동무' 회원들은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북한이탈주민들과 후속모임을 가지며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하고 싶은 거 없느냐는 질문



떡케이크 만들기

에 “카페 가서 커피마시고 싶어요”, “햄버거 먹
는거요” 라며 스스럼없이 답한 것도 그렇고, 그
말에 당장 카페로, 햄버거가게로 함께 손잡고
달려간 것만 보아도 이들의 관계가 단순히 프로
그램 제공자와 참여자의 관계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어디서 접속하지?

스스로를 이방인이라고 느끼던 북한이탈주민
들이 그저 함께 차를 마시고, 음식을 나눠 먹는
소박한 일상을 통해 외롭고 삭막하게만 느껴지
던 이곳이 조금은 살만한 곳이라고, 상처를 털
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참 고맙

다고 느끼게 된 일.

‘두루누리어깨동무’는 그야말로 새싹과도 같은
이 작은 신뢰를 거름삼아 내년에는 마을에 이들
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볼 계획이다. 집 밖으로
나서는 일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
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
는걸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어깨동무’가 마련하려는 공간이 북한이탈주민들
이 사는 마을을 외로운 섬이 아닌 따뜻한 공동체
로 탈바꿈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안은성
(경기도 따북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29



17

2013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풍단지 마을은
돼지감자를 이용한 다양한 농산물 체험프로그램과
다양한 제품(돼지감자 떡, 차, 과자, 짬아찌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똥단지 마을

주소 | 양평군 강상면 학곡 양지말길 35-10
전화 | 031-775-6655



양평 농촌나드리

뚱단지 마을

뚱단지는 다른말로 돼지감자라고 불리는 식물이다. 높이 1~2m의 기다란 줄기에 노란 꽃이 예쁘게 피고 있는 뚱단지는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덩이가 감자를 닮은 것이 뚱단지 같다고 하여 뚱단지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길쭉한 것에서 울퉁불퉁한 것까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뚱단지(돼지감자)에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에 당뇨치료 성분이 있어서 유명해졌다. 게다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폴리페놀, 비타민, 칼륨, 식이섬유까지 갖추고 있는 기특한 식물이다.

여기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송학리에 위치하고 있는 뚱단지 마을은 예전부터 이러한 뚱단지를 재배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013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뚱단지마을은 돼지감자를 이용한 다양한 농산물 체험프로그램과 다양한 제품(돼지감자 떡, 돼지감자 차, 돼지감자 장아찌 등)을 생산하고 있다. 돼지감자는 매년 8월에서 10월에 개화하지만 겨우내 얼지 않아 땅이 녹은 후 봄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늦은 겨울까지 체험마을연계가 가능하다.

이 마을은 처음 돼지감자를 이용한 감자 캐기, 감자떡 만들기 등으로 체험마을을 시작하였다. 체험마을은 홍보율이 낮기 때문에 재방문객이 6~70%이며 그 외 대다수는 방문객의 입소문과 소개로 이어진다. 재방문객이 절반 넘게 차지하는 만큼 방문객의 요구와 만족도는 빠르게 급변했고, 수요에 맞추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중 무엇이 가능한지 논의하여, 친환경 딸기 체험농장, 버들치 잡기, 스키썰매타기 등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동단지 마을 이영환 대표



동단지 마을 체험모습

최고의 해답은 열정

동단지 마을이 처음부터 잘 되었던 것은 아니다. 체험마을 첫 회 수익이 남지 않아 고민하였고, 그 대안 중 하나로 마을식당을 오픈하여 손님을 받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동단지마을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오폐수가 나가면 처리비용을 지급해야 했고 그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약 30평의 허가를 받으려면 3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오폐수 처리비용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관 내 담당자 및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주민들은 20평까지는 오폐수 면제를 받을 수 있었고 총 25평의 공간 중 20평은 식당으로, 5평은 농산물 판매장으로 운영하여 또다시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

식당을 운영할 때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체험마을을 벤치마킹하기로 하였다. 양평과 인근 가평지역에는 체험마을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동단지 주민은 인근 체험마을 중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며 묻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중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과 운영이 중단된 곳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장 큰 점은 식당이 잘 될 것이란 기대감과 그 기대만으로 인건비를 먼저 책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은 전문 외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외 들어가는 재료비, 운영비 등 적자가 났을 때 대안이 없게 된다. 마을주민들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회의를 시작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믿고 따르며,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선 운영 후 남는 수익금을 조금씩 나누어 인건비를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메뉴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마을 내 콩 재배가 활발하여 수확물로 두부요리를 시작하였지만 콩을 가는 작은 기계 하나로 평균연령이 높은 마을의 일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동사무소, 군청 등을 찾아다니며 관심을 기울이고 요청하여 식당 장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로인해 고령화된 일손이 빠르고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열정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식당에 외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인근

지역의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인기식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현재 똥단지마을 동네식당은 점심시간에만 6~70명의 외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다.

마을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똥단지마을은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부가까지 증진과 도농교류 및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정에서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체험관, 숙박동 등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총 건축비를 맞출 수 없어 동네분들이 십시일반 6천만원의 자부담금을 모아 2014년 10월 396㎡의 300명의 체험객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체험관을 준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넘어 산이라 했던가? 이제는 준공 후 아무런 내부 시설이 없었다. 그 방편으로 기부목록을 만들어 기부 가능한 물품들을 골라 해결했다. 기부할 물품들은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여지는 것이기에 개인 상황에 맞는 물품들을 선택하여 흔쾌히 기부하였고, 이로 인해 공동사업은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 같이 가는 길을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주민들은 배우게 되었다.

마을사업에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불화를 애초에 단절하기 위하여 한 달의 매출과 지출을 모두 세세하게 공개하여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체험마을 수익금은 2014년 3억5천, 2015년 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그 중 인건비, 원료비, 각종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남는 1천만원을 매년 동네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있다. 매출이 좋아질수록 마을주민들의 인건비를 챙겨줄 수 있으나,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재 돈보다 인간관계로 얽혀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연령대가 높은 마을에서 다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본인의 일처럼 관심 갖고 지속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 자립하자!

제품을 가공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마을 내에서 제품 만들기부터 디자인, 개별포장까지 처음 진행하였을 때 판매원 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물을 판매하다 신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마을 주민들은 공



똥단지 마을 동네식당

완공된 체험관 모습



동단지마을 농산물 가공장과 가공품

장을 운영하는 가공품 전문가와 함께 원료와 제품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미숙한 마을 주민들에게 제품유통과정에서부터 품질향상까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가공품은 돼지감자와 장아찌이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돼지감자는 기존 말린 감자만을 알알이 담아 차로 파는 방식에서 사용이 간편한 티백 개발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12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동단지마을은 매년 20가구 이상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었다. 대다수의 마을은 외부인이 들어오면 배타적이기 마련인데, 주민 스스로 어느 동네보다 가장 텃세가 없는 동네라 자신하며 함께 모이고, 일귀나가려는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인근에서 가장 살아보고 싶은 동네가 아닐까? 하는 자부심이 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같이 공동사업을 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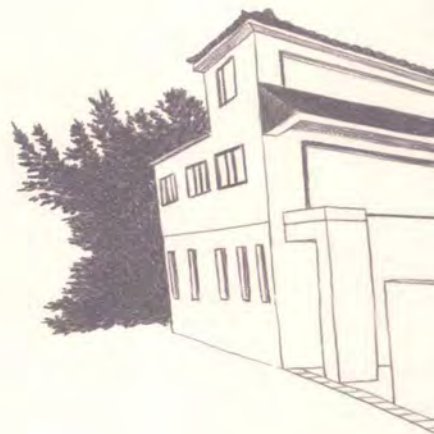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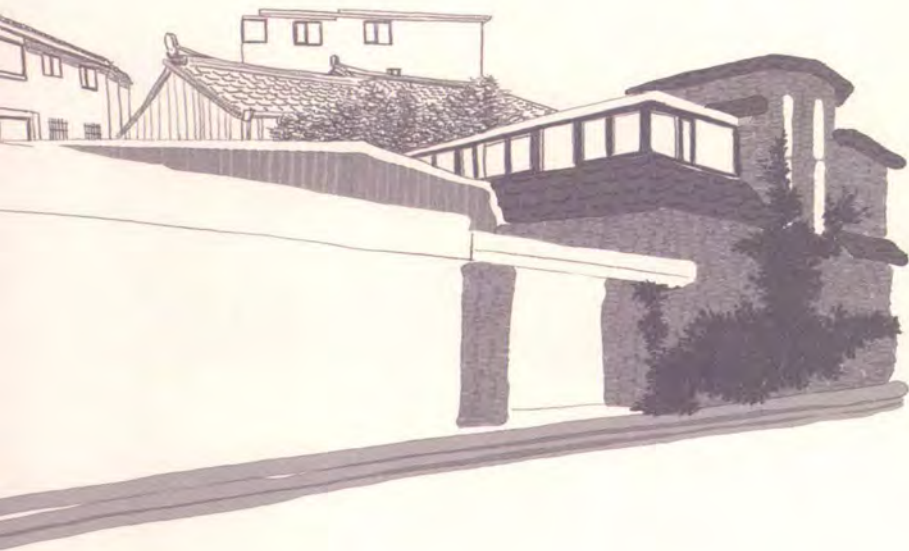
마을 주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

문에 장점과 단점을 잘 가꿔나가며 잦은 소통과 만남이 마을의 단합과 마을사업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체험마을 콘텐츠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과 개발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농사나 체험을 빨리 접목시킬 계획이다.

올해 자립하는 마을로 가는 것이 목표였으나 아직 쉽지 않다. 앞으로 농촌의 특성을 살려 농산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 유통하고 지역자원을 이용한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그로인한 수익으로 마을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자립하기 위한 동단지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믿고 도우며 나아가고 있다. 1, 2, 3차 산업을 더해도 곱해도 6이 되는 구조의 성공적인 6차산업! 동단지 마을을 기대해 본다.



글: 김혜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7. 28



18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열린 머내마을축제 “마을in, 멈추go!”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17개 단체가 동천마을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문화로 바꾸고
가꾸기 위해 만든 마을축제이다.



마을in, 멈추go!

주소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동 머내마을축제

마을in, 멈추go!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열린 머내마을축제 “마을in, 멈추go!”는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17개 단체가 동천마을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아파트 문화로 개인화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척박한 생활문화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문화로 바꾸고 가꾸기 위해 만든 마을축제이다. 경기따복공동체지원센터 ‘2015년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동화지원 사업’으로 추진했다.

“마을in, 멈추go!”

왜 “마을in, 멈추go!”인가.

마을 안에서 살자고 마을in이다. 수지구 동천동 마을도 여느 위성도시와 다르지 않게 주민들이 낮에는 대도시로 일하러 다니고 밤에는 자려고 들어오는 베드타운화 된지 오래다.

그럼 왜 “멈추go!”일까?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걸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만나서, 자연스런 속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한번쯤 빠른 삶의 속도를 멈추고 내가 사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영화도 보고 노래도 하고 음악도 듣고 동네사람 사는 모습도 보고 물건도 나누고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오롯이 우리 것으로 누리보자 그래서 “멈추go!”다.

2015년 5월 동천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우리에게 마을이 있다는 모토로 “마을엔 장터”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던 각 단체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모아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합치기로 의견을 모으고 경기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모한 ‘2015년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동화지원사업’에 도전하게 된다.



머내마을축제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걸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만나는, 자연스런 속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한번 쯤 빠른 삶의 속도를 멈추고 내가 사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영화도 보고 노래도 하고 음악도 듣고 동네사람 사는 모습도 보고 물건도 나누고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오롯이 우리 것으로 누려보자 그래서 “멈추go!”다.”

연대하고 함께 축제를 기획하다

‘2015년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동화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마을에서 활동하던 17개 단체는 동천마을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제1회 머내마을축제를 기획한다. 그동안 마을에 있었지만 정작 마을주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단체들은 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공유하면서 함께 마을축제를 준비했다. 마을축제는 공동행사와 각 단체행사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고, 공연마당 올림과 장터 해도두리 그리고 동천영화제 번짐으로 꾸미기로 했다.

공연마당 “올림”

우리 마을의 역사를 듣고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무대를 만들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한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기획했다. 공연에는 어린이 · 중 · 고등학생 · 청년 · 장년 · 노년층



장터에서 탈핵 평화 행진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문화마당 전경

등 다양한 연령층을 초대하여 세대가 함께하는 잔치가 되게 하고 세대 간의 단절을 넘어설 수 있도록 했다.

울림 앞마당은 '마을풍물패'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손곡초교', '솔개초교', '산의초교' 학생들의 밴드공연과 '문탁네트워크', '굿모닝작은도서관', '용인아이쿱생협' 회원들로 구성된 우쿨렐레 어머니 합주단이 열었다.

중간마당에서는 마을해설사 김창희 선생이 들려주는 '우리 마을 옛이야기'와 '우리 마을 자랑듣기'로 진행했다.

뒷마당에서는 '수지꿈학교'의 어린이 난타공연, '이우고'와 '풍덕고'의 청소년밴드공연, '한빛중'의 댄스동아리공연, '이우학교 학부모동아리'의 노래로 나누는 세상 공연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장터 "해도두리"

해도두리는 좋은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는 뜻이다.

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만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소박한 마을경제 개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문화장터로 꾸몄다.

장터화폐를 사용하고 주민들이 손수 재배한 농산물과 가죽공예와 같은 수공예품, 생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마당,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물건을 갖고 나와 서로 주고받는 마당, 재미있는 놀이와 문화마당 등으로 꾸며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있는 장터로 기획했다.

궁금한 마을여행을 열어 물질과 소비 권력과 부의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경험의 공간 가치를 재생하고 있는 마을의 공간을 여행했다.

동천영화제 "번짐"

마을축제가 열리는 동안 요일을 정해 느티나무도서관, 동네서점 우주소년, 자연드림 아이



컵 등 세 곳의 공간을 이용해 공동체 영화를 상영했다. 아이들과 친구들, 가족과 동네사람들이 함께 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들을 선정하여, 함께 감상하고 영화를 본 사람들과 함께 영화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영화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주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천마을네트워크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얻은 게 많다.

그동안 같은 마을 안에서 활동해 왔지만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지내던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을축제를 준비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협

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하니 혼자 마을축제를 준비할 때보다 프로그램도 상상 그 이상으로 풍성해지고 주민들의 참여도와 호응이 몰라보게 좋아진 것도 큰 성과이다.

마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궁극적 목표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과 자기계발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 각각의 단체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마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글: 정필원
(경기도 따북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2. 23



19

다양한 세계의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 편견 없이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다문화 세상을 위해
연결 고리가 되어주는 문화세상고리.



문화세상고리

주소 |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9 (선부동) 상가 106호
전화 | 031-411-1150



원곡동의 다문화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세상고리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안산시 원곡동 아파트 숲속 상가 2층에 자리 잡은 문화세상고리 사무실에는 책상과 컴퓨터 교육자재들 등이 작은 공간에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다.

수업이 제각기 있어 서로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지만 일정이 일찍 끝나는 수요일은 예외다. 사무실로 모여 그동안 수업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손놀림이 분주한 날이다.

주고받는 대화가 정겹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리말 억양이~' 하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곳, 바로 각기 다른 일곱 개 국가 사람들 10명이 모여 형성한 다문화 교육 공동체 '문화세상고리'다.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살리고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라는 커다란 끼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에 남들이 갖지 못한 특징과 재능을 잘 살려 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안산시에서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들은 2009년 외국인 주민센터를 통해 만났다. 3년여 강사로서 활동을 해오면서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를 보완해 줄 한국인 강사도 함께 했다. 하지만 2013년에 계약이 종료되어 다문화 강사활동이 중지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그동안 쌓인 신뢰와 유대감, 끈끈한 우정의 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뭉치게 했고 이들로 하여금 새롭게 태동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다문화 체험 활동

“주고받는 대화가 정겹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리말 억양이~’ 하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곳, 바로 각기 다른 일곱 개 국가 사람들 10명이 모여 형성한 다문화 교육 공동체 ‘문화세상고리’다.”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 보자

세상의 문화를 하나로 엮어 서로 어울리도록 고리가 되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세상고리는 아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 교문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아이들에게 몸으로 배우는 다문화를 소개하기 위함이다. 또한 격년마다 열리는 학교축제에도 참여한다. 각국의 의상들을 입어볼 수 있는 의상방과 자신이 입은 옷의 맵시를 뽑내는 의상패션쇼 등을 체험도 하고, 베트남의 월남쌈이나, 중국의 볶음면, 만두 등 각국의 대표음식 만들기 위주의 감각적인 요



다문화 체험활동

리체험을 통해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문화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선입견을 바꾸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러나 처음엔 쉽지 않았다. 서로 '다름'에 대한 아이들의 거부감과 회피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수업에 참여하며 재미있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다문화체험이기에 의상이나 놀잇감 등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수고를 잊게 하기에 충분했다.

문고리(문화세상고리협동조합 약칭)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축제 속으로 들어갔다. 학교의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에도 존재하는 문화의 벽을 낮춰보기 위함이다. 작은 축제부터 큰 축제까지 모여드는 사람들도 제각각인 안산시의 축제는 대부도틀립축제, 송끄란 태국축제, 원데이 인도네시아축제, 안산 거리극 축제,

다문화 도서대전, 대부 포도축제, 세계인의 날, 페달로 자전거축제 등 다양하다.

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다양한물품(놀잇감, 악기, 인형, 유물, 의상 등)을 전시 및 설명하고 직접 만지고 체험(해나체험, 아프리카인 우정 팔찌 만들기, 레게머리 땅기 등)하는 등 자국의 문화를 알리며 홍보하는 이들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축제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목이 쉬도록 설명하고, 정리하기까지 힘들고 피곤하지만 마음을 꽉 채우는 뿌듯함으로 참여하는 것이리라.





다문화 축제 현장에서

문고리 회원들은 또한 안산시 원곡동이 가장 많은 외국 이주민이 살고 있기에 다양한 먹거리가 즐비한 것에 착안해 '마을 만들기'에 나섰다. 다양한 국가의 상점들이 밀집된 원곡동 특구내 시장 특징을 살려 미션지를 수행, 다문화 홍보 학습관 방문, 음식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곡동 거리를 누비게 함으로써 마을속으로 들어가 마을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현재의 날개가 작아 여러 번의 날개짓이 필요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것은 어미새의 포부를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행복엔 힘이 있고 희망이 있다.



다문화 축제 현장에서

환하게 미소 짓다

처음 다문화강사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초등학교에 수업을 나가면 아이들이 피부색이 다른 강사들을 보고 피하거나 울기도 하여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아이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음 한 칸을 아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면 차츰 나아지리라, 마음 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반겨 주리라는 기대로 아이들을 만났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해, 두 해 지나갔다. 드디어 마음이 열려 쇼핑이나 식당을 가면 아이들이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 싸인해 달라고 하기도 한다.

버지니아(콩고민주공화국) 경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아이들이 친구 맺기를 하고, 댓글로 응원해줘, '내가 연예인이 되었나?' 하며 보람을 느낀다. 선생님이로 알아봐주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옷차림에도 신경 쓴다. 강사교육을 받고 강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편견을 버리고 어울릴 수 있는데 일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콩고에서는 자연스러운 자신의 피부색에

“ 문고리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원곡동 거리를 누비게 함으로써 마을속으로 들어가 마을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비록 현재의 날개가 작아 여러 번의 날개짓이 필요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것은 어미새의 포부를 품고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해 한국의 한 엄마가 아이에게 씻지 않아서 검다고 알려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어도 열심히 배워 좀 더 세계의 아이들로 나아가 다른 나라 문화도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다문화강사가 된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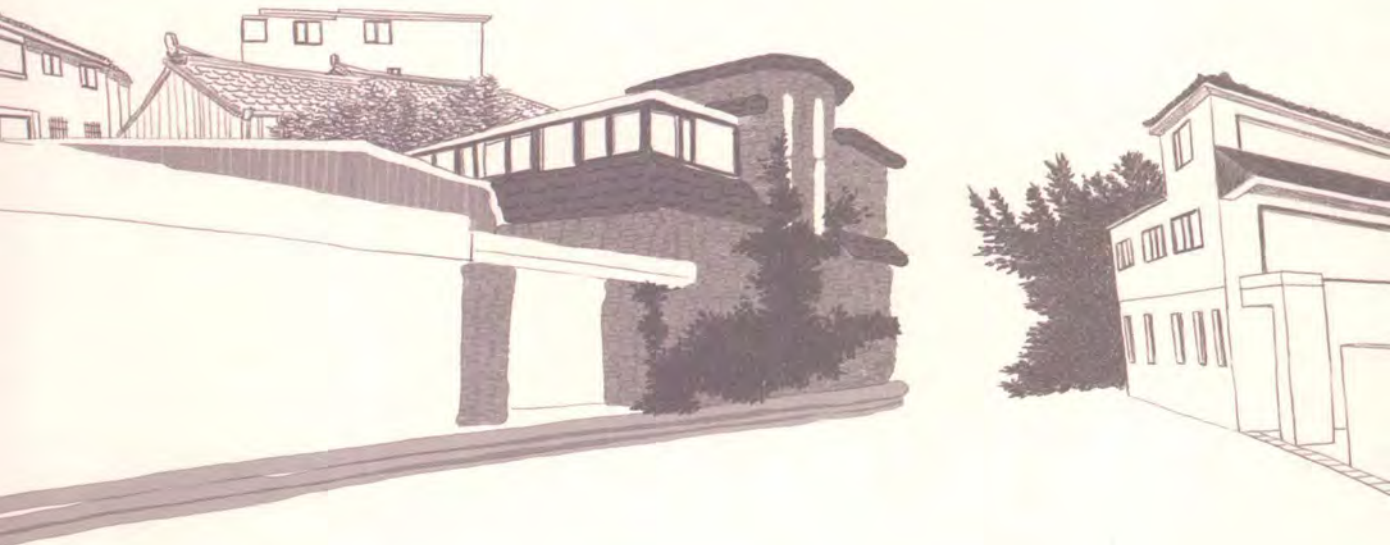
문고리의 미래를 위하여

문화세상고리협동조합은 작지만 크게, 탄탄하게 도약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전환이 큰 목표이며,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교육장소 확보와 조합원들의 역량강화, 수업에 소용되는 무거운 짐을 신고 다니거나, 다문화의 축제느낌으로 차량의 문을 열면 다채로운 물건이 같이 열리는 차량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교재 개발 등을 그 다음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의 보수체제도 생활자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활동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안산시와 협의하여 원곡동에 다문화 이해 교육 센터를 설립,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은 다문화 이해교육의 거점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글: 손광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1. 13



20

안전한 먹을거리 공동구입 사업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오염된 땅을 살리고
농민의 생산과 생활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한다.



바른두레생협

주소 |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1-7(안양동)
전화 | 031-444-6665



우리나라 최초 공동구매방식의 생활협동조합

바른두레생협

협동조합을 꿈꾸다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최초의 협동조합인 신협운동과 농민운동을 함께 해오던 활동가들은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생활협동조합 '생활클럽'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클럽을 견학하고 공부하면서 활동가들은 신협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모아 56명의 조합원을 시작으로 1985년 5월 22일에 바른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사회는 기계화되고, 닭들은 규격화된 우리에게 간혀 온종일 알을 낳던 시절, 그것이 선진화이고 과학화라고 믿던 시절이었다.

바른생협이 선택한 첫 번째 생활재는 '유정란'이었다. 당시 화성 향남에는 함께 일하고 함께 수확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품을 뜬으며 살아가는 닭들이 낳은 달걀은 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바른생협의 뜻과도 맞았기에 유정란 7판으로 첫 구매를 시작했다.

공동구매한 생활재를 조합원들에게 배달하는 일, 생활재를 선정하고 구매하는 일, 구매한 생활재를 포장하는 일,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공부는 모두 이사들의 몫이었다. 유정란에서 시작한 바른생협의 생활재는 각 지역의 특산품들로 차츰 그 종류가 늘어났다. 그러는 사이 주변에서도 생활협동조합이 작게나마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역모임들이 연결되어 있던 성당교우 중심으로 생활재를 판매하고 생협을 알리며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하던 바른생협은 1991년 즈음 성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좀더 넓은 공간을 갖게 된 바른생협은 비록 그곳이 사무실이며 창고이며 동시에 매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작은 생협들의 물류창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며 조합원들의 확대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생산지 견학 모습

단협들의 연합 - 두레

1997년, 각각 운영되어 오던 7개의 단협들이 모여 두레연합회를 만들었다. 연합회가 운영되면서 바른생협은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활재에 대한 검토도 더 철저해지고, 새로운 상품개발도 신속해졌다. 생활재의 종류가 다양해져 소비자인 조합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생산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었다. 연합회에서 생산자를 만나고 생활재를 선정하게 되면서 매장에서 판매되는 생활재의 생산자에 대한 생각이 멀어졌다. 생산자와의 거리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가치를 흐리게 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가기 위해 시작된 바른생협의 고민이 많아지는 지점이다.

바른생협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을 위해 일년에 두 번씩 조합원들과 함께 생산지를 방문, 견학한다. 생산자와 함께 생활재를 만들고 맛보면서, 매장에서 구입하는 생활재에 대한 애정과 생산자에 대한 믿음을 키운다.

생산지에서 자연재해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준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때 생산자는 생활재로 다시 조합원들에게 돌려준다.

안양에서 1개의 매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바른생협은 차차 매장이 늘어나 안양에 4곳, 수원에 5곳이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에서 매장의 의미는 지역에서 매장을 중심으로 조합원이 모이고 생협을 알리고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매장이 늘어나고 조합원이 많아지면서 처음에 가졌던 바른생협의 마음이 온전히 남아서 지속되기는 힘들어진다. 바른생협의 많은 뜻있는 일들을 조합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각 매장별로 작은 소모임을 만들어 지역내 조합원들끼리 만나고 나누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돕는다.

수원에 있는 바른생협 영통점에서는 바로미도서관을 운영한다. 바로미도서관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자녀들이 모여 소통하고 함께 한다. 우리보다 앞서 생협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생활클럽과 계속 교류하면서 그들도 해보았을 우리의 고민에 대해 조언을 얻기도 한다. 매장이 늘어나고 조합원이 확대되고, 생산자와 멀어지면서 생겨난 고민들을 바른생협은 위에서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미도서관



일본 생활클럽과 교류모습

가난한 나라의 농민들을 바라보는 시선

첫 번째 생활재인 유정란이 그랬던 것처럼 바른생협의 생활재는 지역내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사회적기업인 짜로두부가 그렇고, 화성의 한과를 비롯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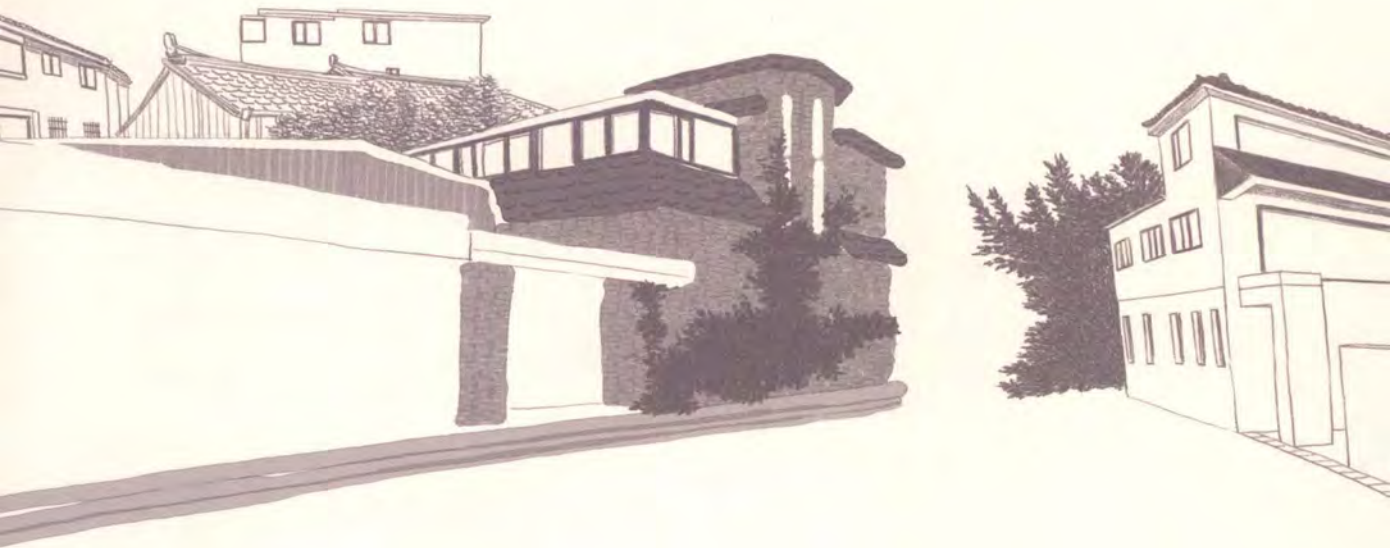
바른생협은 따복공동체와도 손을 잡고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생산되는 생활재를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따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곡물이나 야채, 과일들을 기본으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생활재들을 판매하고 있는 바른생협은 우리나라 농민들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생협 매장에 가면 설탕이 있고 카카오가 있으며 올리브유가 판매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생협들이 이미 하고 있고, 국제 연

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민중교역에 대해서 바른생협도 참여한다. 가난한 나라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활재를 구매하고, 판매가의 일부로 기금을 만든다. 생산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금을 빌려준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생활재는 민중교역으로 그나라 농민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교역하지 않는 또다른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아시아민중기금도 후원한다. 지역 안에서 시작한 공동구매방식의 생협이 국제연대차원으로 확대되면서 활동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바른생협매장에서 조합원들은 필리핀의 마스코바도 설탕과 팔레스타인의 올리브유, 인도의 캐슈넛과 공정무역원료로 가공한 초콜릿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21

마을의 순수 학부모 모임이 만들어낸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서 협동조합으로 성장하면서
학습을 놀이처럼 지역주민과 나누며
청소년들도 함께 나누는 재능 나눔터이다



술대노리 협동조합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71번길 2
전화 | 070-4062-8413



순수 학부모모임이 만든 솔대노리 협동조합 & 청소년카페노리

솔대노리 협동조합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이상한 현실

요즘 아이들은 방학 때도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밖에 나가 놀라고 해도 놀 곳도 없고 놀 줄도 모르는 요즘 아이들이다. 어쩌다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학원에 안 다니고 이 시간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냐'고 하며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본다. 보통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하면 선생님의 어떠한 질문에도 모두들 손을 번쩍 들고 '저요 저요' 하며 생기발랄하던 모습이 점차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동적으로 변해간다. 줄 세우기 입시 교육과 일률적인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마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의 순수 학부모 모임이 만들어 낸 공간이 있다. 수원시 송죽동의 솔대마을 지명을 딴 '솔대노리 협동조합&청소년카페노리'이다.

독서모임에서 재능나눔으로

송죽동(솔대마을)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지,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는지 학부모들은 굉장히 궁금했다. 혁신학교에는 부모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학부모 소모임을 만들었다.

학부모와 선생님의 소통창구로 책만큼 좋은 게 없겠다 싶어 독서모임의 형태로 소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6개월간 진행이 되면서 점차 선생님의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독서모임의 지루함을 느낀 모임원들의 참여도 한계가 왔을 때, 재능 나눔을 해보자는 어느 학부모의 솔직한 제안은 모임의 전환점이 됐다. 모임원 중 커피애호가들의 제안으로 커피를 집에서 간단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첫 번째 재능 나눔을 시작했다.



식생활 교육용 놀이교구



카페 내부

순수한 학부모 모임에서 협동조합이 탄생
모임공간이 없어 매년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과 소모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을 때, 마을에 있던 정부기관 건물이 이사를 가면서 건물 1층을 마을주민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내어주어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활동하게 되었다. 그 무렵 정부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발효하면서 소모임을 협동조합 형태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어느 학부모의 제안으로 지금의 '술대노리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술'과 '대'에 놀이를 더해 학습을 놀이처럼 지역주민과 나누며 청소년들도 함께하는 재능 나눔 체험은 '도예노리' '사찰노리' '땃발노리' '전래노리'에 이어 '보드노리'에 이르게 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식생활교육도 즐겁게 강의식교육에서 벗어난 참여형 교육 놀이교육을 응용한 식생활 교육용 놀이교구(보드게임)를 개발해 식생활놀이교육 보드게임 '푸드 플레이'(FOOD PLAY)를 만들게 됐다.

청소년의 꿈을 가꾸는 공간 카페노리

'술대노리협동조합' 조합원 중에는 청소년 조합원도 있다. 협동조합설립과 동시에 청소년 카페도 오픈했다.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놀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청소년카페노리'는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놀고, 함께하며 놀이로 배우고 서로를 공감하는 공간, 꿈꾸는 공간이다. 카페운영은 조합원 중심으로 4~5명이 운영한다. 카페 수익금의 일부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진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엄마, 어른의 힘으로 만든 지역 내 첫 청소년카페이다.

오픈행사로 합동제기차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북적대는 걸 보고 이후로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도 부담 없이 카페를 찾아왔다. 언제든지 와서 보드게임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카페에서 친구, 누나, 형들과 어울리는 공간이다.

멘토링을 토대로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창작



텃밭의 배추로 직접 김치를 담그는 아이들

해 활동하며, 건전한 놀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스스로 맘 흘러 활동비를 벌어보겠다고 '아나바다' 행사를 기획했다. 자신들이 직접 음식도 만들고 물품을 카페 앞에서 지역주민에게 판매하여 나온 수익금으로 영화 관람, 아이스링크장 방문, 대학탐방 등을 방문하는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다.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으로 '푸드플레이'라는 보드게임을 제작하여 식생활 놀이교육도 한다. 카페 앞 텃밭에 배추를 아이들이 직접 재배해 조합원들과

함께 김장을 해서 마을의 독거노인분들께 제공하기도 한다. 학습을 놀이처럼 놀이에 대한 열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놀이를 통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어가야 하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배우며 터득하게 한다. 청소년들이 진학이 아닌 진로를 고민하며, 이곳에서 바리스타도 되어보고, 직접 운영도 해보면서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게 할 생각이다. 여름방학엔 협동조합의 의미를 알리는 협동조합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솔대노리 협동조합 & 청소년카페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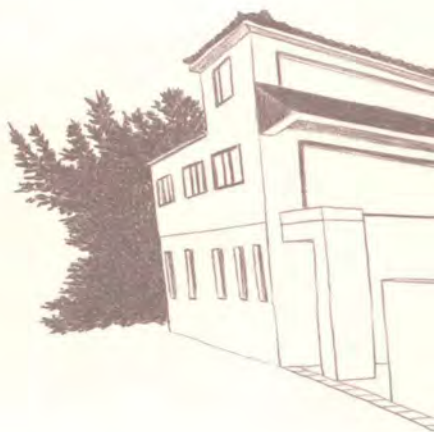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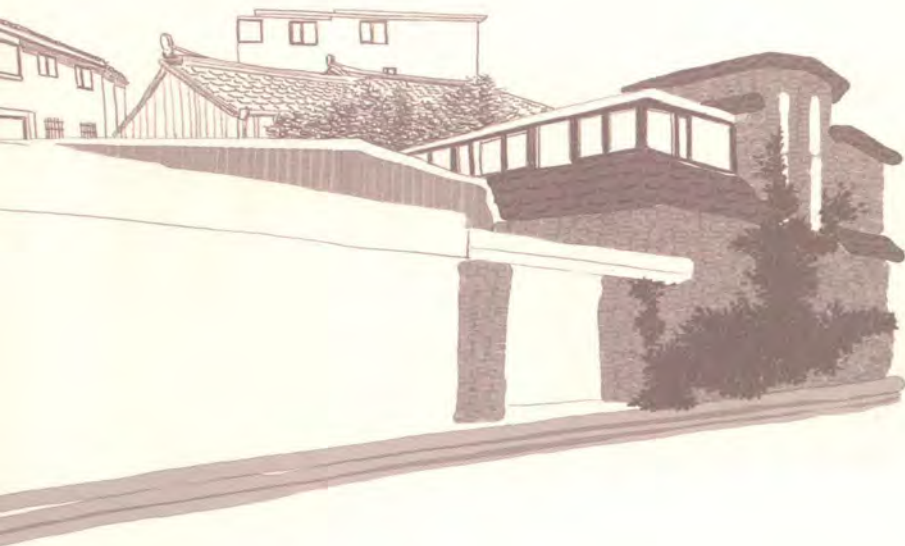
아나바다 장터

협동조합의 힘 '사람'

'학부모들이 만든 협동조합,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상대방을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성장을 꿈꿀 수 없다. 13명으로 시작한 협동조합은 현재 조합원 60여 명으로 늘어났다. 조합원들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키고, 배운 것을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펼칠 수 있게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솔대놀이의 역할"이다. '청소년카페노리'를 통해 활동하며 성장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찾아올 수 있는 공간,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조합원들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한다. 마을 공동체 내에서 다 함께 삶을 공유하며 아이들이 교육과 학습이 즐겁고 놀이의 시간이라는 것을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솔대노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글: 시경숙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21



22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 마을 주민들과 자녀들을 위해 여러 가지 강좌가 열리고 함께 체험 여행을 떠나며 공동육아의 장으로 활용되는, 소통 가능한 따뜻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다.



숲속옹달샘 작은도서관

주소 | 의왕시 포일동 이미로 17
전화 | 031-423-4991



숲속 작은 옹달샘은 누가 와서 먹을까?

숲속옹달샘 작은도서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숲속마을 아파트는 아파트 이름과 잘 어울리는 곳이다. 의왕시의 중심가와와는 조금 떨어져 있고, 주변이 산과 자연으로 이루어져있다. 그곳까지 오는 마을 버스나 일반버스는 서너 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곳에서 살려면 자가용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다.

숲속마을 아파트는 1단지과 2단지가 국민임대이다. 임대아파트의 조건에 맞는 주민들이 입주하다보니 계층이 다양하다. 자녀가 여럿인 가정, 다문화 가정, 신혼부부세대, 홀로 사시는 어른 분들 등 일반 아파트가 단지별로 특성을 가진 것과는 다르게 한 단지 안에 여러 특성의 세대들이 어우러져 있다.

간혹 임대아파트 단지를 차별하는 일반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생기기도 한다. 텔레비전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들, 임대아파트단지의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꺼려하는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간간히 들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견딜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의왕시 지속발전 협의회에서 실시한 '마을 만들기'강의를 듣고 공부해오던 2단지 아파트 주민 김미경씨는 차별이 아니라 소통하는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2단지 통장선거에 도전, 통장이 되었다. 통장을 중심으로 2단지 주민들은 소통하고 이해하는 마을 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숲속에 작은 옹달샘이 생기다

2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요즘의 도서관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공사전-사각책상이 놓여있는 도서관 내부



공사후-모서리가 없는 책상과 둥근형태의 강화마루공간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숲속마을 아파트 단지의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이나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소통공간이 필요하다.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다양한 세대를 대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은 나이대별로 골고루 구성되었다. 젊은 세대들은 몸으로 움직이는 활발한 동력이 있고, 나이든 세대들은 살아온 현명함이 있다. 통장이 도서관장이 되고 주민들 중 세대 간 대표들이 운영위원이 되어 도서관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아파트 복지관 1층은 탁구장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2단지로 들어오는 입구에 둥근 벽을 따라 작은 창문들이 놓여있는 곳, 창마다 빛이 잘 들고 양옆으로는 작은 공간이 두 개 딸려 있는 복지관 1층은 탁구장보다는 도서관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의 동 대표들과 반장들을 만나 설득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탁구장이 되려던 곳은 작은 도서관이 되었다. 운영위원회

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의 힘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세대들만의 일이 아니라 아이를 다 키우신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숲속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그 속에 둥근 모양의 작은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 이름은 '숲속옹달샘 작은도서관'. 옹달샘은 세수하러 찾아온 토끼가 물만 먹고 가는 맑은 곳이다. 허투루 사용되지 않는 생명유지를 위한 곳이다. 마르지 않는 곳. 숲속의 생명들에게 몸과 마음을 비춰주는 곳이다. 마을 주민들에게 '숲속옹달샘'도서관은 그런 곳이다.

발품을 팔아 완성된 숲속옹달샘 작은도서관

공간을 마련했으니 채우고 꾸미는 일이 남았다. 개인 사업도 아니고, 도서관 운영위가 수익 사업을 하는 단체도 아니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오로지 발품이었다. 후원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자녀를 다 키우고 필요 없게



학교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

된, 주민들의 도서를 기증받았다. 내손 도서관 축제 뒤에 처분하는 책들을 받아오고, PC를 지원받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배포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LH에서 책 천권을 기증 받았다. 심지어는 은행장들과 연예인, 제과점사장, 개인들도 찾아다니며 물품 지원을 받았다. 그렇게 채워진 '숲속옹달샘'은 2단지 아파트의 소통공간이 되었다. 후원과 지원으로 만들어진 곳이더라도 그런 후원과 지원을 받기 위해 누군가 땀 흘리며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있는 2단지 주민들에게 '숲속옹달샘'은 소중하다.

도서관 관장도 운영위원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다. 도서관에 상주할 인원은 늘 부족하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1365자원 봉사 수요처로 지정받는 일이었다. 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관리처로 지정받으면서 부족한 인력을 채워나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일들은 도서관 관장, 운영위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봉사하고 있다.

'숲속옹달샘'작은 도서관에서는 공공기관의 공

모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주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육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의왕시에서 공모한 '온(溫)마을 만들기'사업에 지원, 그 후원금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 어설프게 꾸며진 '숲속옹달샘'도서관은 따복의 공간조성 주민제안 사업 공모에 지원, 좀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수 있게 되었다.

'숲속옹달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 있을까

'숲속옹달샘'에서는 공동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숲속마을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숲속옹달샘'은 마을 공동체간의 소통과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육아프로그램으로 반딧불이 미술이 있다. 처음 입주했을 때 보았던 반딧불이를 잊지 못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다. 미술에 재능 있는 주민의 도움으로 아이들의 수업이 진행된다. 책 읽는 맹꽂이라는 독서 논술 수업도 있다. 숲속마을에 살고 있는 수많은 맹꽂이들을 생각하며 지은 이름이다. 오랫동안 논술 수업을 해온 선생님이 지도한다. 황유순 할머니와 함께하는 동화구연도 있다. '숲속옹달샘'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함께 보는 영화상영이 있다. 두 달에 한번 숲속마을 주민들을 위한 벼룩 시장도 열린다. 벼룩 시장은 마을 주민들이 만나 이야기 나누고 이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엄마와함께 체험학습

하는 곳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경제와 절약, 환경 사랑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 엄마와 자녀가 함께 체험학습을 간다. 육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선배들의 경험을 배우며 마을 안에서 각각의 가정이 힘을 합쳐 아이를 키워나가는 그 중심에 '숲속옹달샘'작은 도서관이 있다.

온 마을이 온(溫)마을이 되다

'숲속옹달샘'작은 도서관은 숲속마을아파트 2단지 복지관에 만들어지고, 2단지 주민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숲속마을 전체에 열려있다. 도서관을 기획하고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애쓴 처음의 마음이 그러했다. 마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꿈꾸며 함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음식을 나눠먹고, 아이를 함께 키우고, 힘들 때 서로 돕고 힘이 돼주는 마을이 되길 바라는 마음. 한사람의 바램이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고, 두 사람의 마음이 합쳐져 힘이 되고, 그 힘들이 모여 '숲속옹달샘'이

만들어지고 마을 모두의 마음이 모여 마르지 않는 샘이 된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형제자매가 많은 아이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 보통의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어찌보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계층들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를 이해하며 마을 공동체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숲속마을. 그 중심에 서 있는 '숲속옹달샘'작은 도서관. 그리고 그 뒤에 맘 홀리며 오늘도 달리고 있는 따뜻한 사람들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옹달샘처럼 맑고, 반딧불이처럼 밝으며, 맹꽁이 노래만큼이나 씩씩하게 여문 씨앗하나 심겨질 것이다.



글: 박은주
(경기도 따북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2. 2



23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는 2008년 대한민국대표축제 대상을 받았다. 지난 6년 동안 방치되었던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를 통하여 주민들과 상가번영회가 화합하는 마을을 만들고 과거 화려했던 꽃마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다.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

주소 | 파주시 서패동



일랑일랑 꽃대결

심학산 돌꽃이 꽃마을 되살리기

파주시 서패동 돌꽃마을(추진위원장 최은호)에서 열렸던 심학산 돌꽃이 꽃축제는 2008년 대한민국대표축제 대상을 받았다. 지난 6년 동안 방치되었던 '심학산 돌꽃이 꽃마을 되살리기'(추진위원장 최은호)를 통하여 주민들과 상가번영회가 화합하는 마을을 만들고 과거 화려했던 꽃마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했으며 2015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시재생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고이 잠들다

심학산 돌꽃이 꽃축제는 심학산과 돌꽃마을, 파주북시티(출판도시)를 아우르는 15만여 평에 150여 종의 야생화와 초화류를 꽃피워 '꽃, 책,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2007년 6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처음 개최되었다.

개막행사인 꽃차퍼레이드에만 2만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필리핀 등 13개국 주한외교사절단과 파주시 자매도시인 호주 투움바시와 칠레 랑카과시에서도 축하인사가 방문하는 등 40만 명이 다녀갔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대표축제 대상을 받기도 했지만 2009년 지자체장이 바뀌어서인지, 환경이 바뀌어서인지 소문만 무성한 채 심학산 돌꽃이 꽃축제는 조용히 풀숲에 잠들어 버렸다.

주민들과 상가번영회가 손잡다

2007년 꽃축제가 시작되던 당시 2곳이던 상가는 마을꽃축제와 심학산에 둘레길이 조성되면서 하나 둘씩 늘어나더니 지금은 40여 개로 늘어났다, 상가가 늘어나면서 조용하던



2015 미니페스타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마을은 밤늦게까지 시끄러웠고 마을안길은 상가를 찾는 차량으로 붐볐다. 심지어 주민들이 심어 놓은 고추며 애호박, 무, 배추 등 농작물을 방문객(?)들이 몰래 훔쳐가는 일까지 생기면서 주민들과 상가는 반목하기 시작했다.

2015년 마을주민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사업으로 그동안 방치되었던 꽃밭을 다시 가꾸기로 하면서 상가변영회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상가에서도 흔쾌히 함께하기로 한다.

마을주민들과 상가변영회는 꽃마을 되살리기 사업으로 그동안 심화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마을자생력을 키워 주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로 하고 손을 잡았다.

꽃마을 잠에서 깨어나다

‘관이 주도한 사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결론지은 주민들과 상가변영회는 꽃마을 되살리기사업을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주민스스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사계절별로 특색 있는 꽃마을을 만들어야 경쟁력과 자생력이 생긴다는 데 의견일치를 본다.

2014년 8월 파주시 공무원과 주민대표, 상인대표 등이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이 출선수범해 마을가꾸기를 한다면’ 시에서도 필요한 꽃씨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견을 나누고 마침내 11월 지역주민 26세대와 지역상가 40가구 등 66가구는 꽃마을 되살리기 위원회를 구성한다.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국화 축제 현장을 찾았다.

6년 만에 꽃마을로 다시 피어나다

본격적으로 꽃마을을 만들기로 한 주민들과 상인연합회는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 마을가꾸기 지원팀 서영대 마을가꾸기 지원팀의 자문과 전국의 꽃마을을 벤치마킹한 후 마을안길 1.6km에 꽃길을 조성했다. 마을주민들과 상인들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고 방치된 마을 텃밭을 활용해 양귀비 꽃밭과 개인정원도 만들고 상인들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는 등 상가정원을 조성했다. 모자이크 가든과 락 가든 등 공원도 조성해 예전의 꽃마을을 완벽하게 재탄생시켰다. 마을은 온통 꽃대월로 바뀌었다.

개인정원과 상가정원은 콘테스트 시상식을 열어 대상과 금·은·동상을 가렸다.

돌곶이 마을 정원투어링을 진행하고 작은공원

음악회도 열었으며 마을과 인접해 있는 파주출판도시 롯데아울렛 심학산과 연계한 축제도 개최하고 걷기대회도 했다.

최창호 통장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만 당장 좋아진 것은 없다. 다만 꽃마을을 가꾸면서 자주 다투곤 하던 원주민들과 이주상인들 사이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다.



돌곶이 마을 주민이 가꾼 정원 모습



주민들이 가꾼 화초 앙귀비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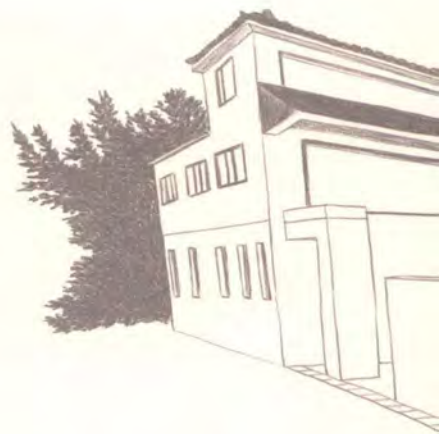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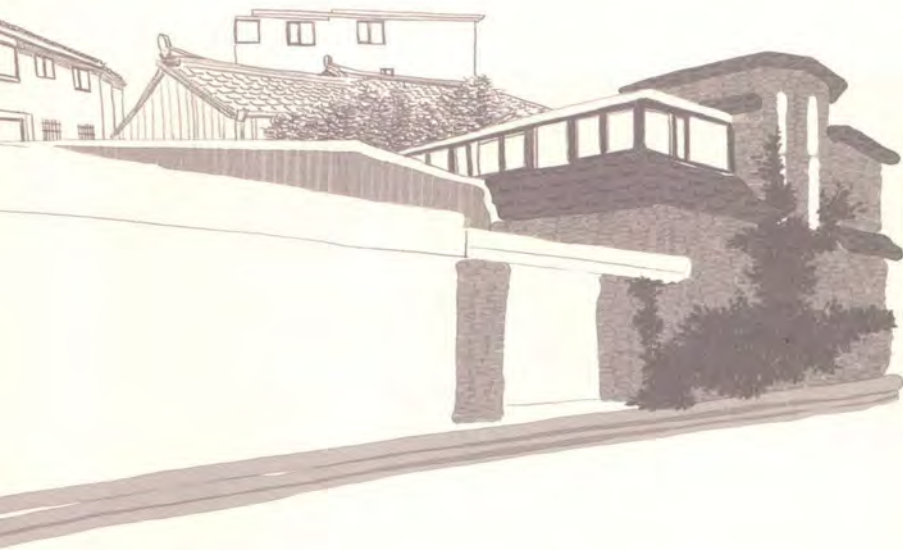
“마을주민들과 상가번영회는 꽃마을 되살리기 사업으로 그동안 심화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 노인 일자리창출과 마을자생력을 키워 주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로 하고 손을 잡았다.”

돌곶이 꽃마을만들기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15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시재생 분야에서 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돌곶이 꽃마을의 옛 명성을 되찾았다.

또한, 돌곶이 꽃마을만들기사업은 '파주시 2016년 정원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주민들이 주민들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당당히 부활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글: 정필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24



24

아이꿈터는 안전한 아이들의 놀이공간이자
엄마들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강좌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다.



아이꿈터 장난감도서관

주소 | 양주시 광사동 655-1 그린프라자 401호



아이들의 꿈을 열어주고 싶어요

아이꿈터 장난감도서관

고읍 신도시

양주시는 도·농 복합도시다. 백석과 남면지역은 아직도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논농사와 밭농사를 생업으로 하시며, 양주에 특산물인 호박, 부추, 딸기 등이 사계절 생산이 되고 있다. 양주에 자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고읍 신도시가 생기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났다.

양주는 연령층도 다양하다. 농사를 짓는 지역은 중·장년층이 많이 살고 신도시로는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다. 고읍 신도시에는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세대가 많아 유모차부대라 말하는 젊은 엄마들이 많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카페와 키즈 놀이방, 플레이방 등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생겨났다.

카페엔 엄마들의 만남의 장소로 놀이방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조금씩 무언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바로 저렴하면서 안전한 아이들만의 놀이 공간, 엄마들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강좌도 들을 수 있는 공간.

장난감도서관 “아이꿈터”

양주 여성회(정지영 전회장)에서는 꾸러미(좋은 먹거리)사업과 역사체험학습, 인문학 강좌, 놀이터 등 다양한 사업으로 주민들과 함께해온 사회단체이다.

자이신도시가 생기면서 젊은 엄마들의 회원이 늘어났으며 고읍신도시가 생기면서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에 많은 관심과 고액의 장난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한다. 여성회에서는 구리, 성남의 장난감도서관을 보면서 양주에도 장난감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다.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마을기업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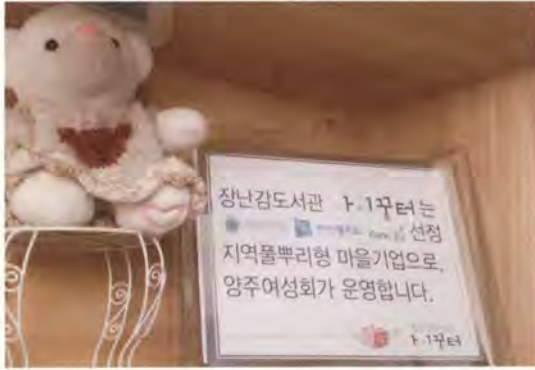
준비과정은 타 지역의 사례를 잘 보고 잘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과 잘 운영이 안 되는 장난감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양주에 맞는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양주시 시의원님의 도움도 받았고 드디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처음 시작은 여성회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졌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장난감도서관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인테리어도 친환경 나무를 사용했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손수 색도 칠했다. 작은 장난감부터 큰 미끄럼틀까지 몇백 가지의 장난감을 일일이 직인을 찍고 홈페이지에 사진과 설명자료 등을 올리고~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을 준비하

는 것에 쏟았다. 이렇게 긴 준비기간을 갖고 장난감도서관이 개관식을 했다.





“차를 마시면서 엄마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논다. 몇 번 만난 아이들은 금방 친구가 되고 엄마들도 그렇게 친구가 된다.”

아이들의 놀이터, 엄마들의 수다방

9시가 되면 유모차 몇 대가 먼저 문을 연다. 돌이 아직 안 된 아이부터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3세, 4세 아이까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신이 난다.

우선 오면 양말을 벗는다. 미끄러워서 넘어 질까봐 몇 번 와본 엄마들은 신발을 벗으면서 바로 양말을 벗긴다. 아이들은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탄다. 엄마들은 모여서 싸운 아이들 간식을 내놓고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꿈터에 카페를 만들어서 질 좋고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유기농 아이들 간식도 판매를 한다. 함께 나누는 아이꿈터의 먹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저렴하고 질이 좋다. 엄마들은 그걸 알기에 믿고 소비를 한다.

차를 마시면서 엄마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논다. 몇 번 만난 아이들은 금방 친구가 되고 엄마들도 그렇게 친구가 된다. 이렇게 몇 번 얼굴을 알고 몇 번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몇몇의 엄마들의 모임이 생긴다. 시

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모여서 고구마도 싸오고 과일도 싸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다 간다. 간혹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부분들, 아이가 아플 때 어디 병원이 잘 보는지, 어떤 걸 먹여야 잘 크는지 등 매번 만나면 끝임 없이 이야기하고 서로 정보도 나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듣고 싶은 강좌나 프로그램이 생겼고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유아프로그램-오르다는 현재 강좌수가 많이 늘어났다. 리본아트는 초급부터 고급반까지 엄마들의 만족도 높았고 지역행사~ 아미장터에도 직접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 엄마도 있다. 아이꿈터는 착한 수다방이다.

엄마와 아이의 감동 “오르다”

유아프로그램이 없던 양주에 “오르다” 유아프로그램이 생겼다. “오르다”하면 수업료도 비싸고 교구도 비싸서 아직 양주에는 없는 프로그램이다.

아이꿈터에 “오르다”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엄



마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다.

장난감도서관에 있는 “오르다” 교구를 사용하니 우선 교구 구입비가 없다. 감사비도 장난감도서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시고 재능기부차원으로 저렴하게 받는다. 지금은 10회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와 엄마들의 만족은 높다.

마치며...

장난감도서관은 만남의 장소이자 소통의 장소이다.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고 엄마들이 아이키우는 각자의 노하우를 듣고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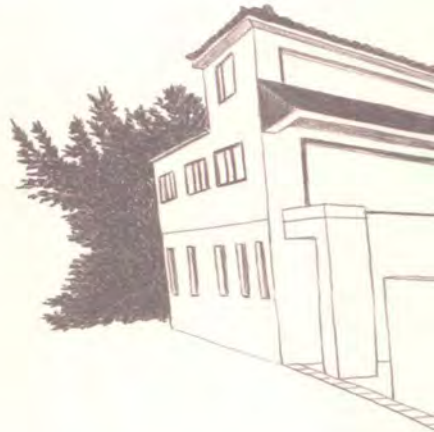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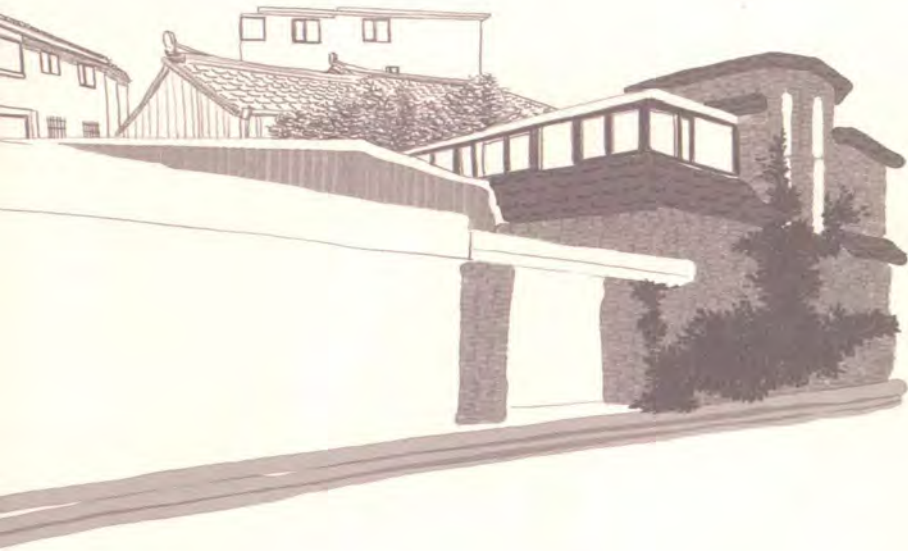
장난감도서관은 돈이 없어 사주고 싶었던 장난감을 언제든 와서 가지고 놀 수 있고 빌려가서 집에서도 놀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배로 얻어가는 곳이다.

양주 장난감도서관 “아이꿈터”에서 엄마의 품은 따뜻함이 있다.



글: 오옥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24



25

아홉색갈 농부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식품을 매주 목요일 아침 수확해 용인, 수원, 분당 일산 등 수도권에 당일 배송하는 제철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다.



아홉색깔 농부

주소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분전리 266-1
전화 | 010-3107-5861



알록달록 다양한 농부들

아홉색깔 농부

아홉색깔 농부 협동조합(대표 장정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266번지)은 조합원들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식품을 매주 목요일 아침 수확해 용인, 수원, 분당, 일산 등 수도권에 당일 배송하는 제철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공간조성사업으로 주1일밖에 사용하지 않는 조합 컨테이너 사무실을 마을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색깔 있는 아홉 농부가 의기투합하다

한 색깔하는 농부 9명이 있었다. 적어도 2012년 용인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의 전문 농업기술과 농업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그린대학 강좌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린대학과 e비즈니스 과정 등을 수료한 농부 9명은 인구 100만 명의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시에 농업인이 시민의 2%에도 못 미치는 1800여 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지역농민이 재배한 농산물이 가락공판장의 경매를 통해 중간도매업자를 거쳐 다시 지역의 대형 마트에 진열되고 지역주민은 이를 구매하는 매우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리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 식탁에 직접 공급하겠다는 일념에서 2년 여 준비 끝에 2014년 4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꾸러미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색깔있는 농부가 전해주는 건강한 선물

처음 시작할 때는 오미자 농장을 운영하는 장정근 대표를 비롯해 젊은 귀농인 조명동씨



아홉색깔 농부들이 생산한 꾸러미



아홉색깔 농부 협동조합 대표 장정근님 모습

“장정근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해 제공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평가와 개선해야 할 점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직접 배달을 고집한다.”

등 9명이었으나 이제는 뜻을 함께하는 진실한 농부가 13명으로 늘었다. 당연히 생산품목도 오미자, 꿀, 상추, 토마토, 쌀, 잡곡,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유정란 장아찌, 아이비, 순대, 다육이, 전통용기 등 60~70여 품목으로 다양해졌다.

팜파티(Farm Party)로 소비자에 다가가다

지난해 4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매주 대여섯 개에 불과했던 꾸러미가 조합원들의 노력과 도시 소비자들의 믿음으로 2015년 11월 현재 600여 개로 늘었다. 또 잠재적 고객이 될 인터넷카페의 소비자 회원도 700여 가정에 이른다. 장정근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해 제공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평가와 개선해야 할 점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직접 배달을 고집한다. 그리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꾸러미 회원을 농장으로



초대해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기는 팜파티(Farm party)와 번개팅도 수시로 열고 있다. 또한, 바쁜 중에도 전국에서 열리는 농산물 판매 및 홍보 부스도 빠뜨리지 않고 참가하고 있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5슬로푸드 국제페스티벌'에도 참여해 조합을 알리고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장정근 대표는 “처음보다는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고객들이 새로운 품목을 꾸준히 원하는 등 소비자 니즈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도 힘들다.

조합원들의 생산품목이 겹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이 수고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대표로서 늘 마음에 걸린다.

아홉색깔 농부, 그래도 희망은 있다

장 대표는 “우리 아홉색깔 농부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려면 그들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을 마련하려고 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에 로컬푸드 판매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에 차 있다.



킨텍스에서 열린 2015슬로푸드 페스티벌 용인관의 판매대

따복공동체 공간조성사업으로 조합사무실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지역의 소외계층을 돌보고, 잉여 농산물을 푸드
 뱅크에 기부하는 등 지역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던 아홉색깔 농부들은 사무실 공
 간을 주민들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꾸러미 포장과 배송을
 위해서 주 1회만 조합 사무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6일은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2015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으로 컨테이너 사무실은 주민들의 커
 뮤니티 공간으로 말끔히 새 단장했다. 사업 특성상 의자와 테이블, 간단한 조리
 기구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어떻게든 장만해 볼 생각이다.
 장정근 대표와 용인의 한 색깔하는 농부들은 지역의 건강한 흙에서 농부들이 정
 성으로 가꾼 착한 로컬푸드가 수도권 전체 도시민들의 밥상에 오르는 그날까지
 두뼉두뼉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글: 정필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24



26

안민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카페라는 공간을 조성하여 소외계층에게 식사제공과 지역아동들의 돌봄이 역할, 마을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안민사랑동지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누구나 쉬어가세요. 빈 의자입니다.

안민사랑동지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살을 예는 듯한 추위가 몸속에 스며들지 않게 옷깃을 세우고, 잔뜩 몸을 웅크린채 쨌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빨리 걸어본다. 속이 비어 더 추운 듯하다. 유리창 너머에는 벌써 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보인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반가운 이들이 정겨운 시선으로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안내해준다. 마치 특별한 날인 듯 귀하게 맞아주는 그들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예의 바르게 밥 한상을 차려준다.

따뜻한 밥과 국, 맛난 반찬에 식사를 맛있게 하고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식탁을 정갈하게 치워준다. 후식으로 달달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니 조금 후 예쁜 찻잔에 담긴 차 한 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 순간 마치 대접받아 마땅한 귀한 사람이 된다.

이곳은 너무나 따뜻해서 언제라도 찾아오고 싶어진다. 특히 이렇게 추운 날에는 친구들과 모여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종일토록 얘기하고 싶어지지만 툭툭 털고 일어난다. 밥도 든든하게 먹었으니 따뜻한 온기가 가시기 전에 고마운 그들과 눈인사를 건네고 밖에 세워둔 손수레를 끌고 일터로 출발한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점심 한 끼를 해결하러 모여든 사람들에게 친절함 솜씨로 밥을 대접하고 손수 끓인 커피며 차를 후식으로 내놓고 있다. 공짜라 해서 허술함은 없다. 돈을 내고 먹는 누구보다도 이 순간만큼은 귀한 손님이다.

'안민사랑동지'가 만든 마을카페 '웃음꽃 피는 안민공동체'

40평 남짓한 5층 건물의 1층에는 마을카페 '웃음꽃 피는 안민공동체'가 자리하고 2,3층은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4,5층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



'웃음꽃 피는 안민 공동체' 마을카페



'웃음꽃 피는 안민공동체' 마을카페의 점심풍경

'안민사랑동지'는 안민교회가 주축이 되어 안양에서 30년 동안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한 곳이다. '안민사랑동지'가 좋아서 후원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다가 안민교회의 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스님이 이들의 사업을 후원하는 경우도 생긴다. '안민사랑동지'는 종교를 초월한다.

'웃음꽃 피는 안민공동체' 마을카페는 '따복공동체 지원센터'의 공간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만들어낸 곳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동안 10평 남짓한 열악한 공간에서 식사만 제공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 얼른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워 이왕이면 한 끼라도 대접받는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점심이 지난 나머지 시간에는 카페로 운영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와서 차 한 잔하기에도 참 좋다. 나무로 된 의자와 테이블, 벽도 나무로 되어 있고 선반들도 나무로 되어 있다. 곳곳

에 초록의 화분들이 생기를 더하고 나무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과 인형들, 따뜻한 조명과 벽에 장식된 가랜드, 아기자기한 액자소품, 그날도 다정해 보인다.

소소한 소모임도 가능해서 마을 엄마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만들기를 하거나 아이들 문제를 의논하기도 한다. 파티션으로 나지막이 분리되어 있는 공간은 공부하기도 좋고 독서하기도 매우 좋다. 카페 한편에는 피아노가 놓여있고 때로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기도 한다.

2천원을 내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머그잔에 담아내준다. 싼 가격이지만 커피 맛은 고급지다. 전문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는 아니지만 맛은 좋다. 공정거래를 통한 착한커피로 마진을 줄이고 마을사람들에게 질 좋은 원두를 사용한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몇몇이 커피 내리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커피상식은 필요하



카페 내부

다는 생각이다. 배워두면 어디선가 써먹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1석2조인 셈이다.

아이들은 2층으로 오세요

건물 2,3층은 지역아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환경의 아이들의 식사와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곳이다. 아이들은 주로 한 부모가정이거나 다문화 가정의 소외된 계층이 대부분이다. 이것도 오랫동안 해온 사업 중의 하나로 처음엔 방과 후에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방 형태로 모아서 놀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치료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던 것이, 규모 있는 공간이 생기고 시설도 갖춰진 지금은 좀 더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제2의 가정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50명 남짓한 아이들이 이곳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일방적인 것은 마을공동체가 아니다

건물앞마당은 별이 좋은 날에는 테이블을 밖으로 내어 따스함을 즐기기도 하고 바람이 좋은



지역아동센터의 수업시간들

날은 경치를 즐기며 커피 한 잔하기 딱 좋다. 앞마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겨울을 제외하고는 예쁜 꽃이 피기도 한다. 지나가는 이들은 이 예쁜 모습에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러 들어오기도 한다.

누군가 마당모퉁이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다. 손수레가 옆에 놓인걸 보니 폐지를 주우러 온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오랜 시간 같은 장소에서 꾸물거리는 걸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다가가 본다. 그는 시멘트를 으깨어 마당 한켠에 부서진 바닥을 정리하고 있다. 차림새가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자세히 보니 이곳에서 늘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부서진 바닥이 마음에 걸렸단다. 사람들이 늘 지나는 그곳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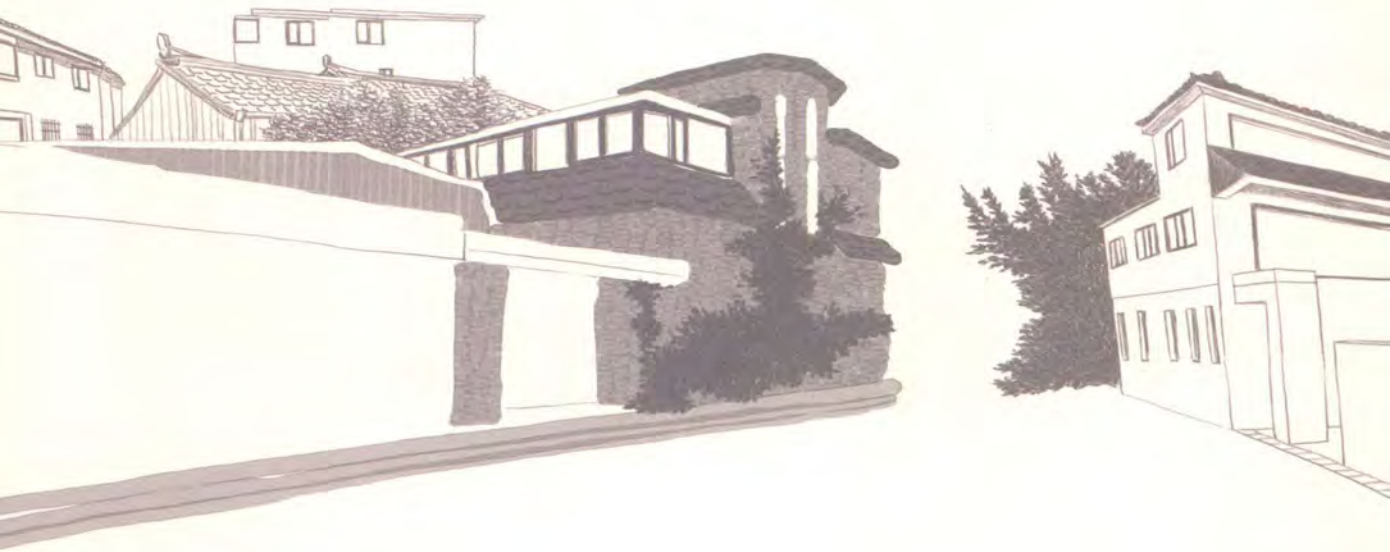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의 일부를 내어준 그에게 새삼 고맙고 다시 한 번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다.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살아보자 라는 것이라면 한쪽의 일방적인 도움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소통을 하고 있다.



글: 이진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23



27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병원으로 우리 동네에도 있으면
참 좋을 병원이다.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주소 |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 1로 46, 3층
전화 | 031-401-2208



주민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병원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면 약을 한가득 받아온 경험이 누구나에게 있다. “감기는 병원가면 일주일, 집에서 치료하면 7일”이라는 농담이 있듯이 특별한 치료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에는 항생제가 들어있고 이는 곧 항생제 남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항생제 남용의 문제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생기게 해 정작 폐렴 등 중대한 병이 걸렸을 때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의사의 권위적인 태도, 길게 늘어져 있는 줄, 복잡한 절차 등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생기게 할 지경이다.

그렇지만 병원은 꼭 필요한 곳, 이런 병원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모습일까? 여기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안산의료사협)이 주민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병원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 동네에도 있으면 참 좋을 병원

안산의료사협은 2000년도에 지역의 시민운동, 노동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는데 치료중심보다 예방 중심의 의료, 의사나 의료인의 공급자 중심의 병원에서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고자 했다. 그 당시는 89년의 민주화 이후로 생활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시민들 자치적으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도 한몫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99년도부터 지역의 20~30명이 1년 정도 공부 모임을 통해 뜻을 모으고 이어 설립동의자 300명을 모아 2000년 4월에 창립했다. 그해 7월에 새안산의원과 우리한의원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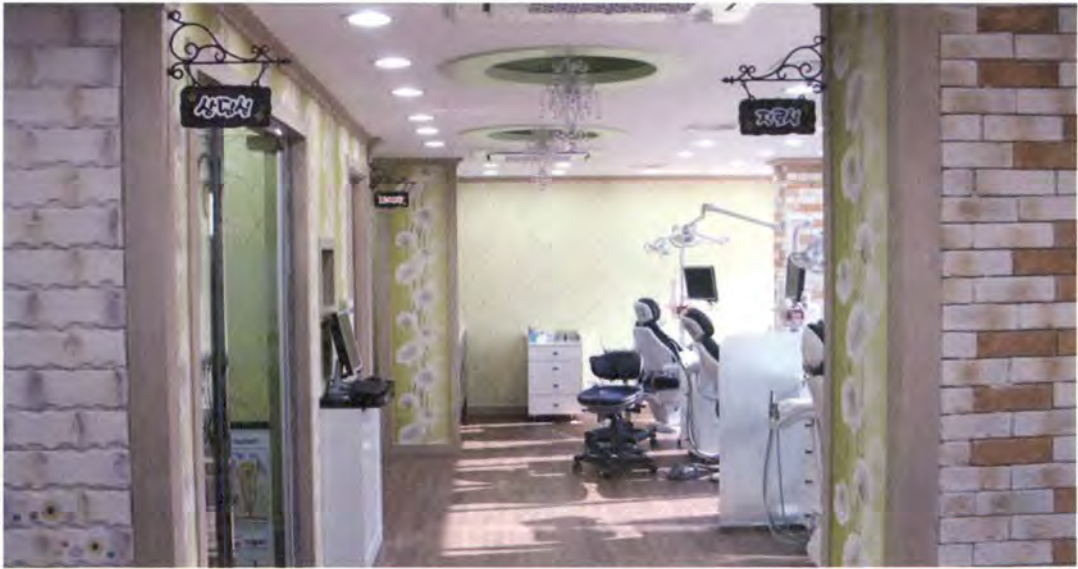
안산 단원구 대의원 모임 모습

시작부터 의원과 한의원을 동시에 문 열 수 있는 저력은 어디 있었을까? 발기인들이 모은 출자금 3천 5백만 원뿐 아니라 1년 정도 함께 공부모임을 했던 의료진들과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인테리어나 병원에서 필요한 기계들은 직접 조달하는 등 비용을 최대한 줄였으니 말이다.

현재 안산의료사협은 하루에 150여 명이 이용하는 일반 의원이 2곳, 30~40명씩 찾아오는 한의원과 치과, 40여 명이 서비스를 받는 요양병원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요양사를 파견하는 재가복지센터, 간호사를 파견하는 가정간호 사업소와 건강검진센터가 있다. 직원 수만 100명이 넘고 요양병원은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안산의료사협은 튼실한 병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안산의료사협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믿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점이다. 조합원들을 위한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의 개인의 수익을 위해 과잉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안산의료사협이 조합원들에게 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어떤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아픈 이와 앞뒤의 이를 3개나 뽑았다. 하지만 이런 경우 안산의료사협의 우리생협 치과에서는 아픈 이 하나만 뽑아도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한 경우도 있었다.

안산의료사협은 진료비도 조합원의 참여로 투명하게 정해진다. 우리나라 의료수가체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해 줄 수 없다. 하지만 한약, 치과의 보철, 임플란트 등 보험이 안되는 경우는 병원임의대로 결정



우리생협 치과 전경

한다. 안산의료사협은 이 경우 '원가 경영'이라고 해서 적절한 진료비를 전문의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터무니없이 비싸지도 않고 터무니없이 싸지도 않다. 터무니없이 쌀 경우 A/S를 못 받거나 아예 병원 문을 닫고 떠나버려서 이상이 생기면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안산 의료사업은 이곳에서 10년, 20년, 30년 운영해야 하므로 적절한 진료와 적절한 가격을 조합원과 함께 결정한다.

의료사협에 일하는 의사들은 치료보다 예방 중심, 환자 중심의 진료에 만족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과잉진료를 안하고 양심과 배운바 대로 진료를 한다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참여했던 이재광 원장의 경

우는 초창기에 급여가 일반 병원의 1/2밖에 안 되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의사들의 급여도 다른 병원에 비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조합을 넘어 지역으로

지역사회의 의료부문 전체에서 안산의료사협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되겠지만 안산의료사협의 존재는 보이지 않게 안산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독감 예방 주사철에는 안산의료사협의 경영위원회에서 2만원으로 책정하면 시중에서는 2만 5천원 하다가도 가격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의사들이 담합했을 때 그냥 당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 보험이 안 되는 수면내시경과 초음파 등도 마찬가지로 가지이다.



새안산의원/한의원 개원 10주년 기념

“주민들이 안산의료사협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믿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점이다. 조합원들을 위한 병원이기에 의사 개인의 수익을 위해 과잉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밖에 아이쿱생협의 씨앗기금을 3천만원 받아서 취약계층 등 치과를 이용을 못하는 사정이 딱한 사람들을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경우도 있다. 치통으로 인해 일을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꽤나 고마운 일이었다. 또한 안산시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제도를 촉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함께 한다. 협동조합간 협동도 활발해서 2009년에 치과를 만들 때 화랑신협이 건물을 빌려주고 아이쿱생협, 두레생협이 기관출자를 했다. 지금도 그때 협력했던 조합의 조합원들은 치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안산의료사협을 이용하는 조합원,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 의료사협이 속해있는 지역사회는 안산의료사협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와 같은 의료사협은 안산뿐 아니라 안성, 인천 등에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우리 동네에도 꼭 있었으면 하는 병원들이다.



우리가 스스로 운영한다

이렇듯 안산의료사협이 성장하고 사랑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안산의료사협의 경창수 이사장은 “조합원이 의사결정하는 협동조합의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병원이지만 협동조합이므로 가장 큰 결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각 지역별로 조합원 수에 비례해 뽑힌 대의원 총회가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 것이다. 그밖에 조직교육 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와 기초 소통단위인 마을모임, 소모임, 자원봉사 모임 등 수많은 조합원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총회는 2008년까지는 전체 총회를 했지만 조합원 수가 3천 명이 넘어가면서 현재는 대의원을 뽑아서 총회를 하는데 직접 대의원 선출 모임을 통해 뽑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뽑기도 한다. 2주 정도를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참여율은 20~30%이다. 아직은 참여율이 미비하지

만 마을모임이나 소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참여율을 50%까지 올리려고 한다.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조합원의 뜻이 실현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실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마을모임은 기초 모임이므로 주로 의료사협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특별 프로그램으로 의료사협의 의사가 참여할 때 인기가 가장 좋다. 30~40대가 주력인 조합원의 상황을 고려해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는 마을모임에 의사나 실무자들이 참여하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10년 뒤를 내다보고 마을모임을 강화하는 게 사업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렇듯 마을모임, 소모임, 자원봉사 모임을 통해 조합원과 만남을 늘리고 위원회,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 거대한 현대의 의료체계를 바꾸려는 작은거인 안산의료사협의 힘이다.

의료사협의 꿈과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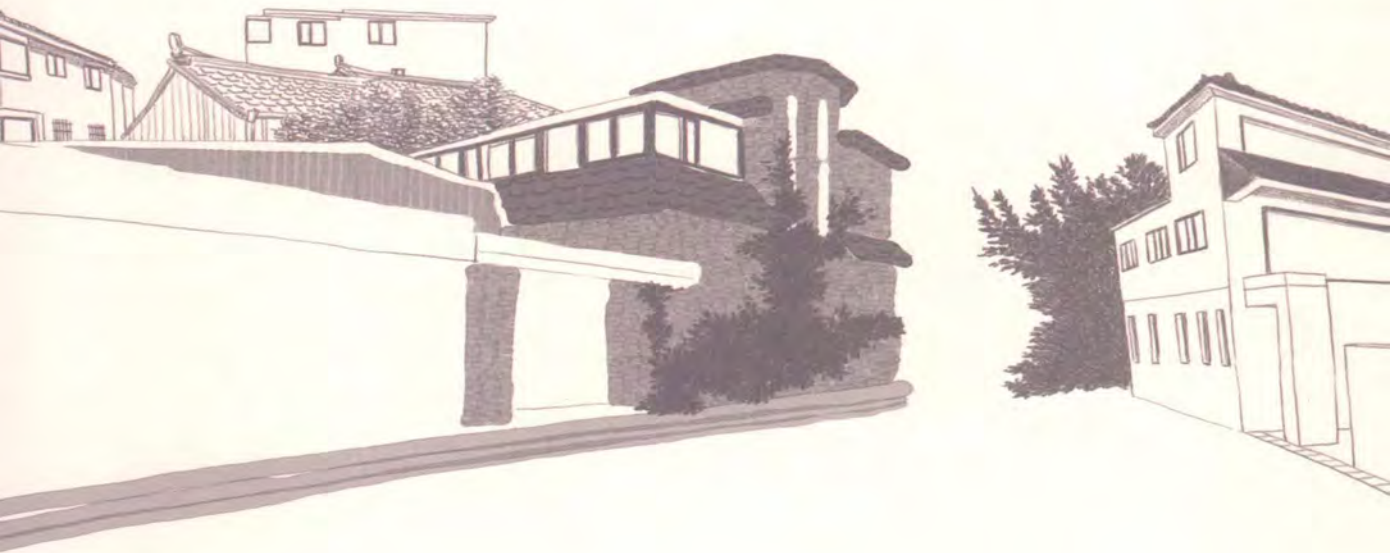
의료사협은 따복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싶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있지만 아이들의 양육, 늙어가는 노인 부양 등 가족이 해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것을 국가 혹은 대규모의 사회 시스템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작은 마을단위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안산의료사협은 현대에 맞게 마을이 재구성되기 위해 의료, 돌봄, 복지 분야의 한 주체로서 마을의 다양한 세력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한다.

그 꿈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총 3년 동안 30억의 지원을 받아 '건강, 복지, 돌봄 네트워킹'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합원뿐 아니라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1천 명의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산의료사협, 안산시,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와 컨소시엄을 통해 복지와 돌봄 사업을 펼쳐나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뿐 아니라 마을모임과 대의원 활동을 통해 성장된 조합원들이 자원봉사 영역으로 활발하게 참여시키고 노인 주치의 사업, 지역 사랑방 조성 등 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를 거쳐 민주적으로 합의하기 보다는 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안산 의료사협도 10년이 넘으니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듯이 다른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이것을 활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한다. 선배로서 갖은 시행착오를 거친 안산의료사협의 바람이다.



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2016. 1. 26



28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매일같이 농민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가지고 나오는 직거래 시장이다.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

주소 | 안성시 아양로
전화 | 031-676-1470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안성시는 예로부터 곡창 지대로서 농경문화가 발달해 왔다. 삼남 지방을 잇는 군사, 교통의 요충지이며 조선시대 삼대 시장의 하나였던 만큼 상권도 발달했다. 70년대 급속한 근대화로 인해 도시화가 진행되어 수가 많이 줄었지만 현재도 농업 인구가 60프로에 이르는 도농 복합 도시이다. 지금도 '안성맞춤'이라는 명사를 탄생시킨 안성유기와 쌀, 한우, 포도, 배, 인삼이 안성지역의 5대 특산물로 유명하다.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은 이런 안성지역의 특색을 잘 살린 곳이라 할 수 있다.

안성농업인 새벽시장(이하 안성새벽시장)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일 새벽 4시 30분부터 8시까지 아양 주공아파트 뒤편 아양로변에서 운영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매일같이 농민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가지고 나오는 직거래 시장이다.

참여 농가는 평일에는 평균 50농가, 주말에는 평균 90농가이다. 모두 안성지역농민들로 새벽시장 운영협의회 소속 농민들이다. 이런 농민들의 정성이 통했을까? 현재 안성 새벽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일평균 400여 명에 이른다. 주말이면 안성지역뿐 아니라 인근 수도권에서도 소비자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

작년 한해 새벽시장에서 팔린 농산물 매출은 21억원이다. 한농가당 평균적으로 매일 18만원 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한 꼴이다. 물론, 대형마트 사장님이나 5만평 이상 농사를 짓는 대농(大農)가에게는 푼돈일지 모르지만 중소농, 부녀농, 고령농, 귀농자들에게는 내가 생산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소중한 판로다. 물론 수수료나 월세도 없으니 말이다.



새벽시장에 나온 농민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새벽시장이 생기기 전에는 농민들은 주로 자기 먹을 것을 농사지었다. 하지만 텃밭을 키워본 사람은 경험해 보지 않았는가? 농산물은 철이 되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그럴 때마다 농민들은 남은 농산물을 아는 사람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택배비를 물면서까지 보내곤 했다. 하지만 새벽시장이 생기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들이 지은 농산물을 들고 나와 팔 수 있었고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손자들에게 용돈까지 줄 수 있었다. 처음에 이 새벽시장이 될까 하며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아침에 장터를 지

킨 농민들에게 돌아온 작은 보답이다.

여기서 시간 농산물은 일주일이 지나도 싱싱함이 유지된다. 농민들이 그날 수확한 것을 그날 들고 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일반 유통 경로를 통하면 농가가 작업해서 2일이 지나 서울에서 경매하고 마트에서 또 2~3일 지나고 소비자 집에서 또 2~3일 지난다. 아무리 냉장고가 좋아도 소비자의 집에서 2일만 지나도 시들한 이유다. 이런 점이 입소문이 나서 안성지역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소비자가 찾는 시장이 되었다.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바로 소비하는 이른바 로컬 푸드 직거래이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새벽시장에 나온 농산물

“ 새벽시장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로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여 농민뿐 아니라 안성시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 안성 새벽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안성시의 의지가 컸다.”

민관 협력의 모델이 되다

이렇듯 새벽시장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로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여 농민뿐 아니라 안성시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 안성 새벽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안성시의 의지가 컸다. 안성시는 12년도에 로컬푸드를 안성지역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회등과 협의하면서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해 11월에 1주일간 김장시장을 시범적으로 개최하였다. 그 다음해는 각 읍면동의 농정과에 이장을 통해 새벽시장의 회원을 모집하고 5월 18일 새벽시장을 정식으로 문을 여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당시는 농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월 5회 이상 참여한 농민들에게는 대덕면에 있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기도 했다.

안성시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보다도 장소를 제공해준 것. 지금 새벽시장 자리를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지금은 시장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안성새벽시장 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민간에게 전적으로 위임했지만 지금도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안성 새벽시장에서 식당 재료를 월 40만원 이상 사가는 식당에는 로컬푸드 등을 달아주는 등 행정기관을 이용한 홍보 등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매일 열리는 시장의 특성상 안성시 담당 공무원은 휴가갈 새도 없지만 지자체가 개설해서 민간주도형으로 발전한 모델을 세종시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민관협력의 모델이 되고 있다.

비결을 공개합니다

이렇듯 안성새벽시장의 성공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안성새벽시장이 로컬푸드 시장으로 자리 매김 하기위해 시장으로서 구색 갖추기를 시도 하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했다. 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농산물뿐 아니라 수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안성새벽시장은 회나 수산물 등 안성에서 나지 않는 것은 취급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안성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시장으로서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

둘째, 안성새벽시장 운영위원회에서는 매주 안성지역의 대형마트 가격을 조사해서 새벽시장



새벽 이른 시간에도 북적거리는 새벽시장

참가자들에게 가격을 알려주고 그 이하로 책정하게 한다. 직거래 시장
이므로 유통마진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자기 농산물이 마냥
소중한 농민들은 불만이기도 하지만 가격이 싸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이 늘게 되었다.

셋째, 농산물 품질 관리원과 MOU를 맺어 새벽시장에 나온 농산물에
대해 수시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친환경 인증까지는 아니라도
출하 후에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농산물이 새벽시장에서 팔리
도록 한다.

넷째는 꾸준한 교육이다. 새벽시장 참가 농민들은 연 4회의 교육을
꼭 참여해야 한다. 교육의 내용은 새벽시장의 성격과 정책 방향부터
친절교육까지. 이와 같은 교육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와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이 끝나고 뒷정리도 자발적으
로 깨끗이 하는 등 소속감도 생긴다.

이외에도 안성새벽시장 운영협의회 임원들의 수고가 곳곳에 배어있다. 연 40회 이상 새벽시장에 나와야 임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임원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에 가장 먼저 나와 사무실 문을 열어주어 이름표와 조끼, 비닐 봉투 등을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새벽시장에서 팔리는 농산물이 농민 스스로 재배한 농산물임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인 200여 농가를 일일이 방문해 조사하고 현장 사진을 밴드에 올리는 일, 매일 매일 모든 참가자들의 매출을 기록하여 새벽시장의 성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런 모든 활동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

이런 모든 수고가 결실을 맺는가 보다, 안성 새벽시장이 모태가 되어 농업인 공도 도서관 옆 공원에서 열리는 '공도주말장터', 진사도서관에서 열리는 '공도 진사 금요장터' 등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환경과 건강뿐 아니라 농민도 살리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가 안성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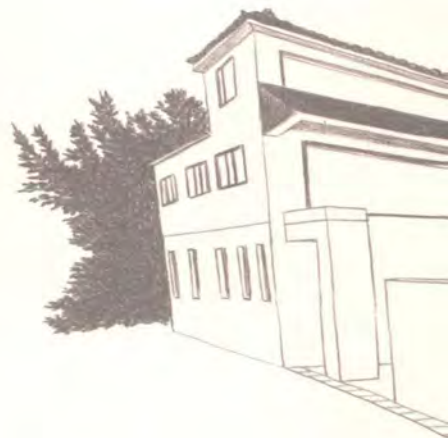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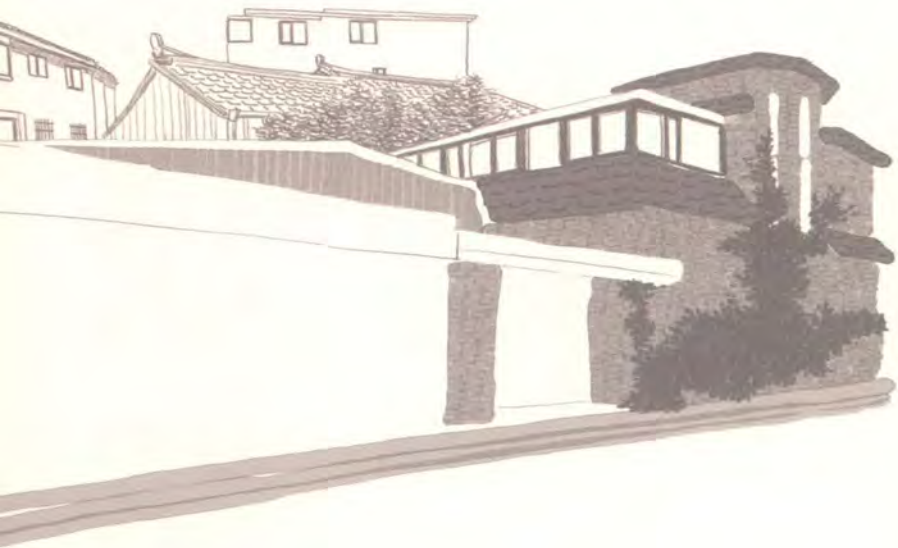
다음세대에도 지속되길 바라며

안성 새벽시장은 첫해인 2013년에는 8억원, 14년에는 13억, 15년도는 21억원의 농산물이 팔리는 등 순조로운 성장을 해왔다.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가 지속되 16년에는 25억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안성새벽시장 운영진들은 안성새벽시장이 초심을 잃지 않고 환경과 사람에게 이로운 로컬푸드 정신을 살려 안성에 오면 꼭 한번 들르는 장소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다음세대까지 지속되어 점점 어려워지는 농가들과 지구환경을 지키는 현장이길 바란다.



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2016. 1. 15



29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300명 이상이 안양을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장학금지원 사업,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실버포럼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주민센터 4층
전화 | 031-466-6688



노인문화혁명

안양실버포럼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동년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오면, 그리고 정겨운 목소리에 전화 받는 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식사는 하셨어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것 좀 드시지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잘하셨어요. 집에만 계시면 안 좋아요. 그럼 됐지요 뭐. 하하하…. 잘하셨네. 잘하셨어. 아, 싱크대가 말짱이에요? 그럼 조금만 기다리셔. 내일 가서 한번 봐드릴게.”

20분 가량 주저리주저리 기분 좋은 잔소리가 오간 후 다시 전화할 것을 약속하고, 통화를 끝낸다. 아쉬움이 묻어나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군포에 사는 독거노인 김씨의 안부를 확인했으니 오늘도 다행이다 싶다. 내일 수도정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알아보고 필요한 거 몇 가지를 챙겨서 방문해 볼 생각이다.

“안양실버포럼”에서 7년 동안 해온 “노(老)/노(老)지킴이” 활동의 하나로, 100명의 안양 주변의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친구처럼 살피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내일 김씨를 방문하면, 다음 달에 전화갈 예정인 광릉수목원 얘기도 해보려 한다.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눈을 맞추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겨우리라.

60세 이상이면 환영합니다!

“안양실버포럼”은 안양 주변의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구성되어있는 비영리단체이다. 자격조건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2005년 ‘안양실버포럼’을 시작할 당시는 35명으로 출발했지만 10년 사이 점차 활동가들이 늘어나 현재 3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회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노(老)/노(老)지킴이활동

실버에너지를 보여주자

이들의 활동영역은 다양하다. 연성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교육을 받는다. '자기개발과 재능을 나누자' 라는 취지로 여기서 배운 것들은 다시 지역 곳곳에 환원된다. 아이들과 수업할 종이접지, 풍선아트, nie 교육 등을 이수하고 아이들 방과 후 활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같은 연배의 지역민들이 힘들어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교육을 수료 후에는 지역민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역할도 한다. 할머니들은 주로 아이들 방과 후 돌봄이 활동을 많이 한다. 아이들 다루는 솜씨는 30년 이상의

경력으로 프로 중의 프로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아이들은 이 시간을 무척 좋아한다. 안양예술공원 지킴이 자원봉사도 하고 있다. 안양예술공원은 군데군데 예술 공간과 조형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멋스러운 곳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만큼 관리도 중요하다. '안양실버포럼'이 활동을 시작한다. 쓰레기부터 시설관리까지 쓸고 닦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한다.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은 운동이라 생각한다. '사랑의 우산나누기' 활동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한 활동으로 버려진 우산이나 못쓰게 된 우산 등을 수거해서 말끔히 고친 후 학교나 관공서에



장학금 수여



사랑의 우산나누기

기부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일이다. 재활용이라는 면에서도 우산 이상의 값진 의미이다.

간지 나는 인생

한 달 회비는 1만원, 30명쯤 되는 위원들은 2만원을 각출하고 있다. 또한 매 행사가 있을 때면 꽤 많은 찬조금을 내고 있다. 찬조금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늘 행사가 진행될 때는 넉넉한 행사비가 모인다. 일 년을 모으면 많은 돈이 모이게 되는데, 이 돈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 정도다. 안양시청에 전화를 걸어 이번 장학생은 형편이 어려운 한 부모자녀 10명 정도의 추천을 부탁한다. 안양시청은 이들을 도와 각 학교에 자격이 될 만한 아이들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전달한다. 매해 벌써 9차례가 넘게 진행한 사업이다. 200만원을 후원했던 장학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지금은 1000만원을 후원하는 만만치 않은 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란 다.

자비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점점 커지는 것이 너무 부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들은 ‘언제까지가 받을 때이고, 언제부터가 줄 때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진다. 젊다는 이유로 베풀며 살아야하고 노인이라서 받기만



연성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원봉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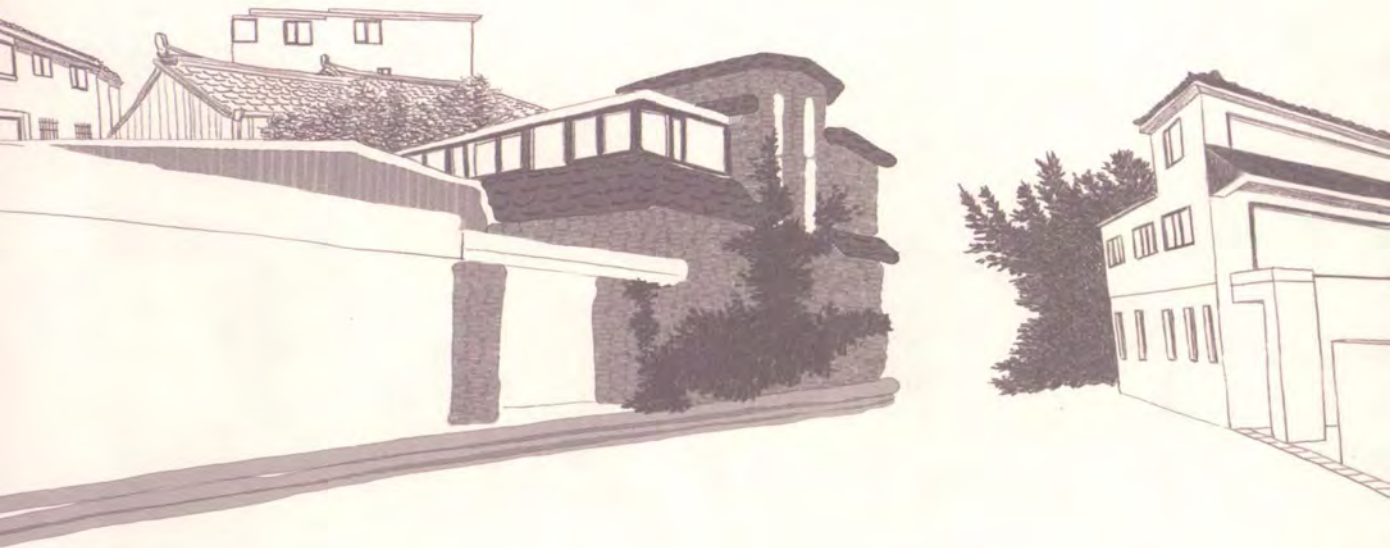
“나이가 들수록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맙시다. 나누면서 멋들어지게, 간지나게 늙어봅시다.”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란다. 그들은 받기를 거부한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이 딱 제격인 더없이 좋은 때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큰 재산이고 베풀 수 있는 자원이라 생각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살아온 삶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남을 도와 줄 수 있을 때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한다. ‘나이가 들수록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맙시다. 나누면서 멋들어지게, 간지나게 늙어봅시다.’ 라고. 이들은 지금 그들만의 신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글: 이진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16



30

양주시 고읍동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무한한 미래를 향한 꿈을 찾는
아이들의 학교



양주꿈의학교

주소 | 양주시 고읍동



높은 곳에 날아올라 세상 넓게 꿈을 펼치는 아이들

양주꿈의학교

나를 찾는 여행 꿈의학교

토요일 아침 10시 양주시 고읍동 삼승리에 위치한 양주 희망도서관 희망극장의 문을 들어서 아이들 있다. 희망도서관은 양주와 포천 경계의 아파트단지에 있기에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한두 시간이 족히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모이는 스물아홉 명의 아이들, 이들은 동두천·양주 전역에서 모여든다. 강제로 모이라고 하면 모이지 않았을 아이들이 토요일 아침에 잠의 유혹을 뿌리치며 눈 비비고 일어나 조금은 부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얼굴엔 반가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스트레칭으로 온몸 풀기, 둘이 서로 마주보며 얼굴근육 풀기, 입 근육 풀기, 혀 근육 풀기, 발성연습 순으로 사전 훈련을 하고 본격적인 연극수업이 진행되었다.

4~5명씩 그룹을 지어 즉석에서 극본을 만들고 짧은 시간 배역을 정하여 맹연습을 한다. 연습이 끝나면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친다. 다른 그룹이 공연할 때는 객석의 관객이 되어 공연을 관람하며 울고 웃는다. 다른 친구들의 공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만 자신들의 차례에선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등, 퇴장의 타이밍을 고려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연이 끝나면 평론가가 되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이와 연결되어 진행되는 연극놀이는 노래로 하는 놀이, 몸짓으로 하는 놀이, 전통놀이 등이 있다. 특히 노래로 하는 놀이는 '나를 표현하는 놀이', '같이 소통하는 놀이'를 통해 잘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을 드러내도록 돕는다.

또한, 직접 극장에 가서 공연 관람도 하고 출연진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 경험담을 듣기도 한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공연 제작도 해보며 자체적인 평가와 수업과의 연계성을



연극공연



꿈의학교 학생들 - 소담예술제 중

찾는다. 이처럼 서툴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찾아내고 이를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양주 꿈의학교'다.

소중한 인연들이 모이다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아보던 엄마들이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싶지만 지역 여건이 따라주지 않기에 초·중·고 학교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뭉쳤다. 학교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내오다 서로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양주를 탐하다, 즉 내 마을을 탐내서 내 마을화 하자'는 의미를 가진 문화예술교육공동체 '탐'을 결성한 것이다. 2013년 말 결성된 '탐'은 극단 대표, 전래놀이 강사, 환경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직군의 경험

자가 다수 있어 공동체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듯이 이들에게도 기회가 왔다. 2014년 4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꿈의학교'에 대한 공지가 있었다. '탐'은 문화예술공동체로서의 특성을 살려 문예체중심의 연극, 놀이, 미디어, 예술제, 공연관람, 공연제작 등 문화예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중·고등학교 청소년 아이들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여 선정되었다.

하지만 연극과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공연할 공간이 필요했다. 마침 개관한 지 오래지 않은 양주 희망도서관에서 희망극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는 제도가 있어 가뭄을 헤갈하듯 단비가 되어 주었고, 아이들에게 테마가 있는 놀이터, 꿈을 키워나가는 꿈터로서 '꿈의학교' 활동무대가 되어 주었다.



소담예술제 거리홍보



소담예술제

작은 축제(소담예술제)의 소박함으로 감동을 준다

'꿈의학교' 아이들은 자신들의 작은 축제의 장을 만들어 냈다. 기획, 홍보, 공연을 직접 해내며 '소담예술제'를 연 것이다. 자기의 관심분야, 또는 재능들을 살려 댄스, 음악밴드, 마술, 역사퀴즈 등 다양한 끼리를 만들어 냈다. 평상시 별 반응 없이 소극적이던 아이들도 예술제 때는 기존의 모습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었고, 각자 맡은 역할을 열심히 연습하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고 지냈던 재능들을 발견하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양주에 많은 산성의 역사를 이해하고 마을

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한 '키즈퀴즈'는 참여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그 중 '상자로 만드는 마을지도'는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하는 톡톡 튀는 청소년들만의 아이디어가 돋보인 좋은 예다.

소소한 행복이 희망으로 자란다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하는 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건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꿈의학교'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가 있다. 이 아이가 이곳에 와서 아이들과 잘 어우러져 지내며, 소담예술제 때는 열심히 연습에 연습을 거

“서툴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찾아내고 이를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양주 꿈의학교’다.”

듣하여 미술을 선보이는 등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은 바라보는 이들을 뿌듯하게 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도와주려는 배려가 힘들게 다가서는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돈으로 사야만 하는 것이 아닌 폐현수막을 활용해 새로운 현수막을 만들어가며 뿌듯해하고, 공연제작 때는 나서지 못하다가 서서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이해하는 아이들로 변화시키고 있다.

‘탐’이 탐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다

문화예술교육공동체 ‘탐’은 2016년에도 ‘꿈의학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끊임없이 아이들과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교육협동조합으로 등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 중에 있으며,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에 준비하지 못한 수업공간과 앞으로 함께할 회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축제 등도 지속해나가며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완성도 높은 축제로 만들어 갈 계획을

하고 있다. 특히 전통과 어우러진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축제를 홍보할 때 홍보물을 나눠주거나 현수막을 이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깃발을 들고 사물을 앞세워 나가며 길놀이해 해볼 생각인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만의 행사가 아닌 우리들의 축제를 만들어 모두가 어우러져 하나가 될 수 있는 커다란 장을 만들려 한다.

태동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탐’이 갖고 있는 매력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면 즐거울 수 있는지를 탐색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데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하는 전달자, 또는 조력자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 앞으로 마을공동체로서의 좋은 모델로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 손광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2. 23



에버그린에버블루 협동조합

주소 | 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19
전화 | 031-772-0189



저온착유 생들기름으로 오메가3를 책임진다

에버그린에버블루 협동조합

양평군 운심리에 위치한 에버그린에버블루 협동조합은 2014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아 설립되었으며,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강하면 특산물인 들깨를 매입해 생들기름을 제조·가공·판매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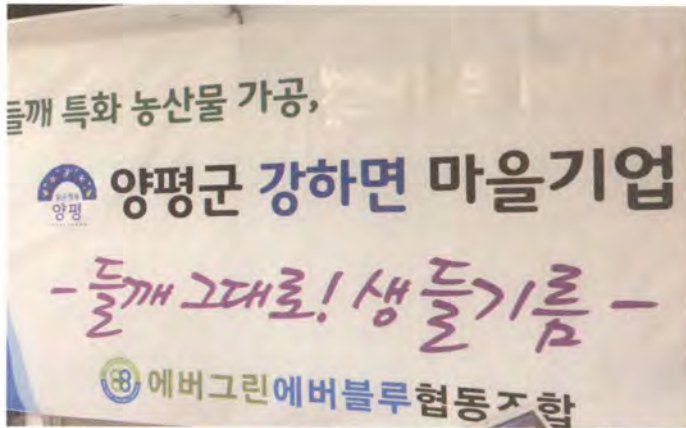
지역 농산물인 들깨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략화하여 운영 중이며, 방법은 여지껏 들기름 제조공법상 가열 처리되어 인체에 해로운 물질 생성과 산패가 우려 중인 약점을 보완하고자 냉압착 착유기를 사용하여 생들기름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50~80세 장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은 현재 30명 중 10명의 작목반과 10명의 출하조직으로 가공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1,2,3차 산업이 잘 어우러져 있다.

마을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첫째, 들깨 재배하는 강하면 영세농에게 판로 보장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한다. 둘째, 현지인과 이주민과의 갈등을 동지애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들깨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이 점을 이용해 유향 농지를 소득 농지화 한다.

유통 판로는 양평 하나로마트, 양평 로컬푸드, 세미원, 온라인 박람회 공모사업에서 지마켓, 옥션 등에 낮은 수수료로 입점





에버그린에버블루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록증 및 검사서 등

해 있다. 또한 같은 마을 내 떡 방앗간 마을기업에 고정적으로 들기름 매출을 올리고 있다.

1인당 출자금 60만원으로 세워진 에버그린에버블루 협동조합은 매달 80만원 가량이 총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걱정과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이사장님께 조합원들의 반응을 여쭙 봤을 때 “조합원들의 애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해 올 수 있었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지탱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셨다. “생들기름

은 장기간 보관시 산화되기 때문에 주문 후 가공·판매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원재료인 들깨는 주민들에게 형성된 가격에 시가로 쳐주고 있으면, 원재료 값을 많이 낮춰서 구매할 생각은 없습니다”고 하셨다.

들깨는 11월에 수매가 되는데 작년 물량은 이미 다 소비가 되었고, 손익분기점을 500만원 선으로 잡았을 때 2015년 명절이 있는 2월 13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그 후 꾸준히 손익분기점을 웃돌며 현재까지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다.

식물성 기름 중 오메가3 수치가 높은 것을 강점으로 뽑고 있는 이 마을기업은 향후 들기름 외에 들깨가루, 들깨비누 등 상품 다각화와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온착유 방식의 들기름 작업실



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2015. 7. 28



32

연현마을의 주민들을 위해 예술수업과 전시회를 열고,
연현마을에 있는 습지를 이용, 생태수업을 진행하며
마을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



연현마을 문화예술연구소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462 (연현중 솔개마루도서관)
전화 | 031-474-1184



섬 같았던 아파트단지가 문화예술 공동체 마을이 되다

연현마을문화예술연구소

섬처럼 도시의 모퉁이에 놓여있는 연현마을

연현마을은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해 있다. 안양과 서울의 경계, 석수동의 끝자락. 도로에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기에 안양에 오래도록 사는 사람들 중에는 연현마을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오래전 농경지가 대부분이었던 지역에 공장이 생기고, 공장 부지였던 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연현 마을은 오랫동안 마을을 지키며 살아왔다던가 하는 고향개념이 아니다.

서울과 가까운 교통의 편리성, 아파트 단지라는 생활의 편리성, 조금은 저렴한 아파트시세. 이런 저런 이유로 이런 저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사해 왔다. 그렇기에 도시이면서 도시에서 깊이 들어간 자리에 섬처럼 놓여있고,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기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조건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연현마을에는 연현 초등학교와 연현 중학교, 두 개의 학교가 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머무르며 학교와 집을 오간다는 것, 마을이 도시이면서 동시에 조용하고 시골 같은 편안함이 있다는 것이 좋았다.

어른들은 연현마을에 살면서 서울로 혹은 다른 곳으로 출퇴근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공동체로서의 삶을 가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학생들은 마을 안에서 학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6년 혹은 9년을 친구로 선배로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학교 활동을 하는 학부모들 또한 학생들과 함께 공동체로써의 삶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는 일에 만족했지만, 어떤 목마름이 있었다. 연현마을 안에는 공공기관이 없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에



연현마을 알리기 전시



연현 플라마켓

참여하기 위해서는 늘 마을 밖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했다. 연현마을까지 운행하는 수련관버스는 없었다.

이런 목마름은 학교를 중심으로 모인 학부모와 교사, 교장선생님에게 물을 찾는 노력을 하게 만들었다.

작은 목마름으로 시작된 연현마을문화예술연구소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연현마을, 그런 연현마을을 사랑하는 학부모와 교사, 교장이 고민을 시작했다.

학교 교육 이외의 배움을 위해 마을 밖으로 나가는 불편함을 계속 견디기만 해야 하는 걸까? 마을 안에서 재미있고 보람찬 문화 활동을 할 수는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같은 고민을 하다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알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그랬다. 연현 마을에 예술 활동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을 안에서 문화 활동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인적자원이었다. 연현초등학교 교장의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이 있고, 여러 학부모들의 도움이 있다. 주민 전시회를 여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의견도 모아졌다. 일을 추진하고 진행할 몇몇 사람이 모여 '연현마을 문화예술 연구소'를 만들고 비영리 단체로 등록했다.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다. 전시회의 제목을 정하고 팜플릿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전시장소를 마련하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작품을 함께 준비했다.

2013년 12월 연현마을 문화예술 연구소의 주민 전시회가 첫 문을 열었다. 연현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일에 기쁨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안겨 주었고, 연현 마을에 산다는 것에 별다른 감흥이 없었던 주민들에게는 마을을 다시 돌아보고 애정을 갖게 하는 첫 발걸음이 되어 주었다.

솔개, 연현에서 나래를 펴다

연현이라는 마을 이름은 솔개가 날개를 편 형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주민전시회의 제목은



연현 팜플릿



연현 주민 전시회

‘술개, 연현에서 나래를 펴다’

2013년 제1회, 2014년 제2회, 2015년 제3회 주민 전시회가 있었다. 학생들과 주민들이 작품을 준비하고 전시했다. 모든 일은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다 할 공공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연현마을 문화예술 연구소와 연현마을은 장소를 섭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도와가며 해결하고 마련했다. 일 년에 한 번씩 멈추지 않고 주민 전시회를 열면서 참여주민을 늘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동체로 조금씩 나아가다

2013년 주민 전시회로 첫 발걸음을 댄 연현 마을 문화예술 연구소는 좀 더 힘을 냈다. 첫 발걸음이 용기를 주었다. 전시뿐만 아니라 좀 더

실용적이고 친숙한 작품들을 가지고 플리마켓을 열었다. 플리마켓은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은 재능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마을 주민 모두가 판매자로 혹은 소비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

플리마켓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연현마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아가는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다.

2014년 ‘술개, 연현에서 나래를 펴다’ 행사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플리마켓과 힐링 락공연을 하면서 좀 더 확장되었다.

연현 마을 안에는 습지가 있다. 지나치며 바라보면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생각은 그곳에 무언가 쓸모 있는 건물이라도 지어야 한다고 여기게 된다. 연현마을 문화예술 연구소는 마을 안의 습지를 알리고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4년 안양시 생태 이야기관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과 함께 생태교실을 열었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민들에게 습지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 산다는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자연에 대한 사랑과 필요성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 따복 공동체 지원 센터의 공모사업에 '연현마을을 이야기하다'와 '플리마켓'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비영리 단체인 연현 마을 문화예술 연구소로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공모사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들의 지원은 언제나 마중물이 되어주었다.

경기도 마을 공동체 동아리 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된 '연현 마을 습지 지킴이' 활동을 비롯해 이런 사업들은 학교와 주민이 만나고 주민과 주민이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지키는 마을 공동체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2015년 마을 축제는 이제껏 해 왔던 전시회, 플리마켓, 공연, 마을 알리기, 생태교실이 만나 있는 곳이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연현마을 안에서 즐거운 문화 예술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작은 물음에서 시작한 연현 마을 문화 예술 연구소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일이 커지는 만큼 필요한 것들도 많아지고 있다. 연구소 소장이 주축이 되고, 운영위 몇 사람과 연현 초등학교 교장의 도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영리 단체

인 만큼 어떤 수익사업도 하고 있지 않고 모든 일들은 봉사로 이루어진다, 사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의 고민도 깊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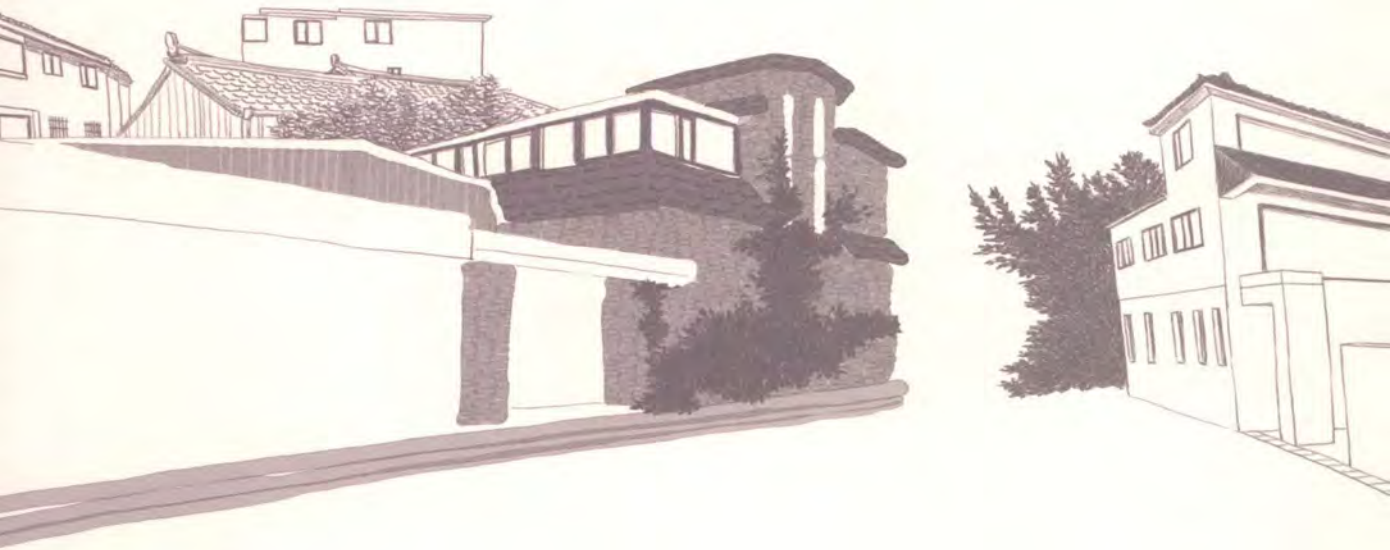
연현마을문화예술연구소에서는 지속 가능한 작은 방안으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마음이 모아지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게 된 연현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로써 다른 많은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다. 일은 나누는 만큼 가벼워지고 서로 돕는 만큼 힘이 된다. 장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연현마을에 있는 시 소유의 유휴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본다.

첫걸음을 떼고 3년, 멈출 수는 없다.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지점에 와 있다.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마을 공동체로 함께 간다는 마음을 안고 이런 저런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가며 연현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 '연현 마을 문화예술 연구소'는 오늘도 마을을 둘러 본다.



글: 박은주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1. 20



33

김포에서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들이 뜻을 모아
농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직접 판로 개척까지 해가면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 일부를
지역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과 나누는 곳이다.



영농조합법인
김포농식품가공

주소 |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전화 | 070-4406-7974



엄마의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영농조합법인 김포농식품가공

김포에서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들이 뜻을 모아 세운 작은 회사가 있다. 지역 농업인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직접 판로 개척까지 해 가며 판매한다. 그렇게 얻은 수익금 일부는 지역의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해 나눈다. 원재료 수급부터 임직원 채용, 수익금 환원 등으로 김포 지역 경제에 작지만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이 회사의 이름은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대표 배효원). 김포시 1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2013년)이자 경기도 우수사회적기업 빅10에 빛나는 스타기업(2014년)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자식 잘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써 키른 농작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에로부터 논밭을 일구는 농부들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대표 배효원)은 바로 이런 농부들의 마음이 모여 시작됐다. 2010년 설립 당시 창업멤버는 8명.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설한 농업인대학 농산가공학과에서 동문수학하던 사이로, 배효원 대표를 비롯한 6명이 여성 농업인이었다. 사무실과 공장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마련했다.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은 김포금쌀, 도라지, 홍삼, 각종 약초 등 김포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만든다. 대표 브랜드인 '마미스트'는 '최고의 엄마들이 만드는 최고의 먹거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내 가족에게 믿고 먹일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려는 엄마의 마음이다. 그렇게 친환경쌀, 친환경건강시리얼, 설탕 대신 쌀조청으로 단맛을 낸 잼, 홍삼·칠곡·뽕잎·초석잠 등을 섞은 미숫가루, 쌀과자, 한



김포농식품영농조합법인 배효원 대표와 임직원들

과, 울금약초분말·도라지청 등 약초가공품 등을 생산한다.

초창기엔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창립멤버 일부가 도중하차하기도 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조금씩 성장해 지금은 조합원 7명을 포함해 1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회사로 자리 잡았다. 2011년 5800만원이던 매출액은 2015년 현재 3억3400만원으로 늘었다.

지역 농업인들과 취약계층 지원도 꾸준히

김포농식품가공영농법인은 조합원뿐 아니라 김포지역 농업인들 모두에게 희망이 되기를 자처한다. 때문에 비조합원인 농업인들을 위해서도 농산물 위탁가공을 해주고 있다. 많은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고 싶어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은 제조업체가 아니면 식품가공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조합에서 이를 대신해주는 것이다. 가공공정 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행정 절차까지 모두 대신해



생산공정과 제품

생산자 이름으로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돕고 있다.

노인과 아동 등 김포지역 취약계층에 수익금 일부를 환원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김포시 자원봉사 센터 '사랑의 밥차'와 함께 매주 지역 어르신들 급식지원에 나서는가 하면, 김포에 있는 지역아동 센터를 돌며 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과체험봉사'도 실시한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김포에 있는 아동센터 17곳에 한과 재료를 싣고 가서 어린이들이 직접 한과를 만들어 보게 하고, 이를 집에 가져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다. 한과를 처음 접해본 아이들이 즐겁게 만들고,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조합 구성원들도 함께 기쁨을 누린 시간이었다.

초심 지키며 배우고 또 배우니 길이 보이더라

평생 농사만 알던 농업인들이 제품을 개발과 홍보, 판로 개척까지 스스로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주목받는 회사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은 소비자들과의 신뢰를 지켜내자는 자신들과의 약속, 초심을 지켰던 까닭이다.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견과류처럼 수입산



지역아동센터에 한과세트 전달식



사회적기업인증

을 쓰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원재료를 국산 100%로 쓰고 있다. 가끔 중국산 재료를 섞어 단가를 낮춰 만들어 달라는 OEM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거절했다. 회사 살림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신뢰를 중시하자는 초심을 버릴 수 없다는 '고집'때문이었다.

모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가며 공부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점도 유효했다. 배효원 대표를 비롯해 조합 관계자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김포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중앙대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등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이란 교육은 모두 찾아다니면서 배웠다. 그제야 뭐가 뭔지 눈이 트이기 시작했다. 교육 과정에서 만난 강사·교우들과의 네트워킹도 크게 도움이 됐다. 모르는 것, 막히는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서슴지 않고 손을 내밀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경기도 중소기업센터, 파북공동체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됐다. 노무·인사·회계 등 경영지원에서부터 포장디자인, 판로 개척까지 이들 기관의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김포의 농특산물 미숫가루

주식회사로 전환 준비... 해외 시장 공략도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은 올해 조직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영농조합법인을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회사로 거듭날 계획이다. 그러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출자해서 조합원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조합원들이 같이 일하는 일터를 만들려는 것이 목표다. 이를 계기로 조합원 규모가 늘어나고 젊은 조합원들이 함께 하면서 조직에 생기를 더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을 공략할 준비도 차곡차곡 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인데, 이슬람 국가가 많은 동남아 진출을 대비해 이슬람교도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임을 인증하는 '할람인증'을 받는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농업인들, 마을기업 김포로컬푸드판매장과 함께 생산-가공-유통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농업인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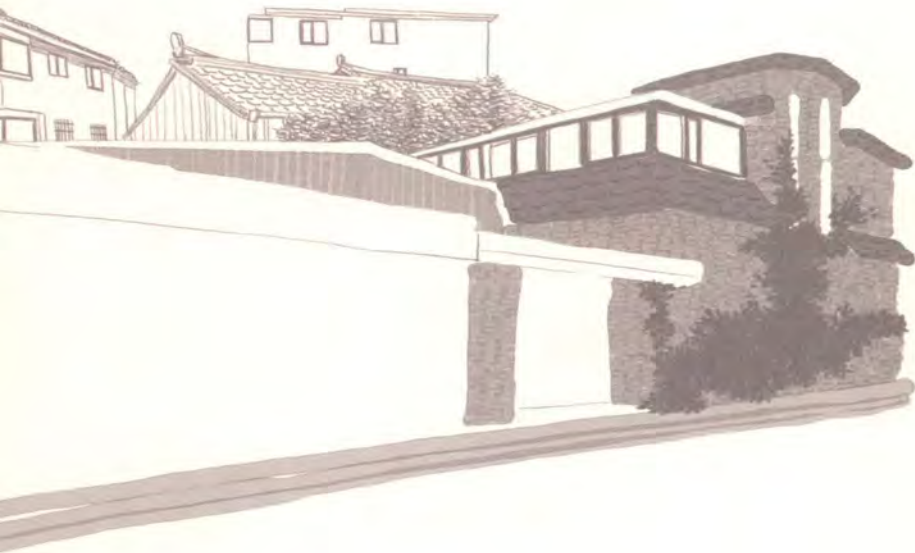
“첫째, 꿈을 가졌으면 포기하지 말라.
 둘째,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공부하고 발로 뛰어라.
 셋째, 혼자서는 안 된다. 함께 힘을 받고 서로를 위해 일하라.
 스스로도 늘 곱씹고 잊지 않으려는 원칙들이다.
 그들이 그리는, 올바른 먹거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정직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원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이 가공하고, 로컬푸드판매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김포시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센터 내 조리실을 학생들에게 개방, 자유학기제를 맞는 중학생들에게 한과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포농식품가공영농법인은 올해로 6년차다. 아직 성공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앞서 도전했던 선배 입장에서 이들이 차세대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후발자들을 만날 때마다 당부하는 원칙이 있다. 첫째, 꿈을 가졌으면 포기하지 말라. 둘째,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공부하고 발로 뛰어라. 셋째, 혼자서는 안 된다. 함께 힘을 받고 서로를 위해 일하라. 스스로도 늘 곱씹고 잊지 않으려는 원칙들이다. 그들이 그리는, 올바른 먹거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정직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글: 심수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2. 12



34

불편한 몸으로 인해 장애인이라 불리지만
기회와 꿈은 평등한 사회를 선도하는
우리들의 이웃 오투기 마을



오뚜기 마을



희망을 나눠드립니다~~ 따뜻한 미소로 한가득 담아가세요

오뚜기 마을

이웃과 이웃이 만나는 그곳

구리시 경춘로 20번길을 따라 골목을 지나면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건물을 만나게 된다. 작업장이 함께 있는 건물이라 지체장애인들이 작업 앞치마를 두르고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건물을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본 건물보다 작은 벽화가 예쁘게 그려져 있는 건물을 만나게 된다. 같은 건물에 체력 단련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정보를 주고받는 참세방앗간 같은 곳, 사회복지사들의 정감 있는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이곳이 바로 오뚜기마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지회다.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회와 경찰과 연계한 '안심지킴회' 발족을 앞두고 있어 분주했다. 왁자지껄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엔 몸의 일부가 불편하여 장애인이라 불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이들의 얼굴엔 요즘 말하는 해피바이러스가 넘쳐흐른다.

작은 마음이 모여 큰 바다 이루다

이들은 비장애인과 싸우면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는 등 오랜 세월 살아오며 받아온 편견과 냉대로 인한 상처는 꽤 깊다고 여긴다.

또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다보니 학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기도 해 대부분 가방끈이 짧다고 말한다. 이는 지체장애와 겹쳐 일하고 싶지만 학력이 걸림돌이 되는 등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되어 소외된 계층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뭉쳐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한다.



프리저브드 플라워 완성



교육 중

서로 머리를 맞대며 어려운 일, 힘든 일 등을 의논하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고민들이 쌓이며 1987년 8월 가칭 '구리시 장애인 모임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후 1994년 6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 지회의 설립인준을 받았다.

구리 장애인협회의회는 1,000여 명의 회원이 있다. 월 회비 1,000원, 1년 연회비로 12,000원을 낸다. 커피 한 잔 값도 식사 값에 비견될 만큼 비싼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월 1,000원은 피식 웃어버릴 수 있는 금액일 수 있으나 하루 종일 리어커를 끌며 폐지를 줍는 사람들에게겐 아주 큰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마음이 담긴 돈이기에 소중한 한 푼 한 푼이 모여 이들을 지탱해주고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

나에겐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어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지

건기 힘든 다리를 가졌지만 두 손은 멀쩡하고 오른팔에 장애가 있으면 왼팔로도 얼마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오뚜기마을로 현실화되었다. 파복 공동체에 시들지 않는 꽃 '프리저브드 플라워'라는 사업명으로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된 것이다. '프리저브드 플라워'란 생화에 보존액(알파용액, 베타용액)처리를 해서 생화 같은 느낌을 오래 감상할 수 있는 꽃으로 알파용액으로는 수분과



축제행사 참여 중



프리저브드 꽃 교육 종강식

색을 빼고 베타용액으로는 수분과 색을 공급해 주어 생화의 느낌을 오래도록 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회원들에게 교육이 필요했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12회기 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이때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강의장이 따로 없어 그리 크지 않은 지회장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배우고자 하는 열기는 한없이 뜨거웠다.

생화를 보존처리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로워 이제 막 시작하는 회원들이 하기엔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보존 처리된 프리저브드 플라워 재료들을 구입하여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차츰 배움의 재미가 더해짐에 따라 창업을 생각하고 보존처리 과정을 배우는 사람도 생겨났다.

이들이 만든 작은 꽃병에 꽂힌 꽃들에선 온 방안을 향기로 가득 채울 싱싱함이 있고, 아름다운 신부에게 건네줄 꽃처럼 수줍음도 있다. 서

로의 주름진 손을 만져주며 눈빛으로 모든 것을 주고받는 오뚜기마을 사람들의 애환도 서려 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간직한 이 작품들은 구리시의 축제인 코스모스축제, 유채꽃 축제 등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작은 지회장실은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아름다운 의지의 힘, 슈퍼파워!

이곳에 오는 지체 장애인 중에는 건강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뇌졸중 등으로 인해 반쪽 불수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굳는다. 따라서 끊임없이 부자연스러워진 자신의 몸과 싸우며 운동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집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사업의 또 다른 숨은 목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한 팔로 글루건을 사용하고 장식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부단한 노력 끝에 작품을 완



허브아일랜드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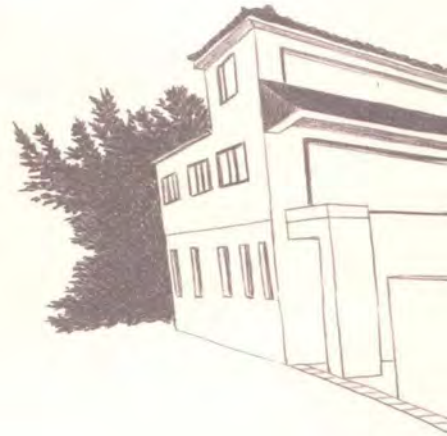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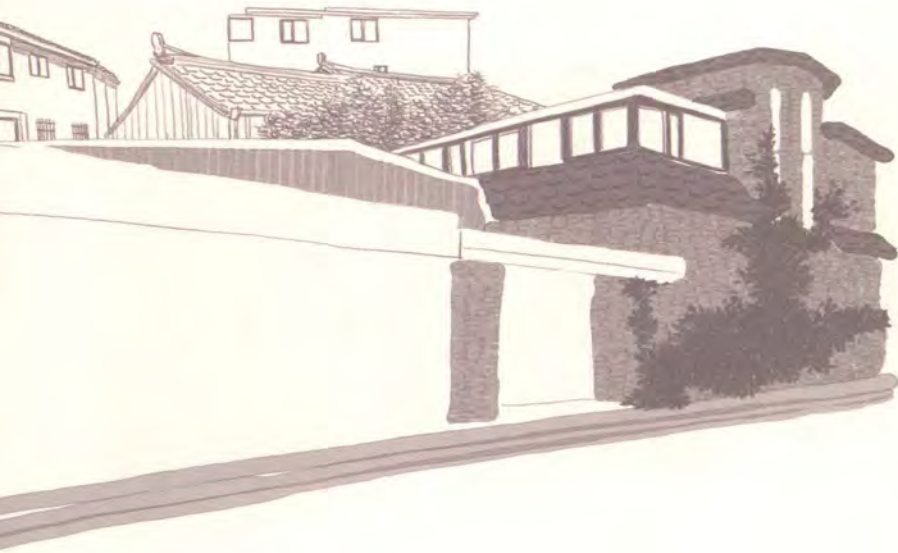
성하고 나면 스스로 대견스러워하고 뿌듯해 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구나 지인에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을 선물할 때의 감회는 더 없는 행복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꿈은 이루어진다

아직은 비싼 재료이기에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브로치 등 크기가 작은 액세서리 등을 만들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판대를 설치하는 등 점차 판로를 개척해나갈 생각이다. 물론 자금 여력이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폐지를 줍는 일 등 위축되기만 하는 삶에 성취감, 자신감을 주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바리스타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받기 어렵다는 '장애인 직접생산확인증'도 받기 위해 다각도로 강구 중이다. 이것은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기에 수익증대와도 직접 연결이 된다. 또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어 이들의 미래는 그래서 이루어질 꿈이다.



글: 손광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2. 4



35

우리동네 협동조합은 뉴타운 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모여서 지역주민의 발전과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우리동네 협동조합

주소 | 의정부시 의정로 132번길 9
전화 | 031-852-4333



정감과 나눔이 꽃피는 마을공동체 우리동네 협동조합

으샤, 으샤!!! 우리 한 번 뭉쳐볼까?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만남은 결국 주민들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함께 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여기 뉴타운 반대운동으로 위기에 빠진 마을을 구하고 그 후 스스로 함께 모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뭉친 사람들이 있다.

'우리동네 협동조합'은 의정부시 가능 2동 마을 안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서두에 언급한 뉴타운 반대운동의 주역들이 이후 함께 모여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십시일반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목영대 대표는 의정부시의 시민활동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빈민가나 약자 등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의정부시가 지역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던 곳이나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서 마을은 그저 어른들만 사는 곳이 되어버린 곳이다. 목영대 대표는 평생을 시민활동가로서 역할을 하며 만나온 지역주민들과 마을을 조금이나마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하여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지역운동을 하던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마을을 걱정하였는데 그 중 한 분인, 현재 협동조합이 위치한 건물의 주인께서 선뜻 제안한 곳이 떡방앗간이다. 협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한 건물주는 몇 년 동안 뉴타운 활동을 성공리에 마친 목대표 내외에게 20년 넘게 방앗간을 운영하며 떡 등 방앗간에서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셨으며, 건물의 세 또한 헐값에 가까운 금액에 내 주셨다.



우리동네협동조합 최혜영님



우리동네협동조합 개소식

그 곳에 가면 마을향기가 난다

고소한 향기와 톡 쏘는 고춧가루 냄새가 함께 어우러진 곳, 우리동네 협동조합은 골목경제를 살리고 친환경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함과, 우리쌀의 소비증진과 바른 먹거리 정착을 통해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우리동네 협동조합은 7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2015년 1월 9일 문을 열었으며 총 출자금 규모는 8,430천원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시작되었다. 사무실의 규모는 12명으로 떡방앗간을 반으로 나눈 사무실은 한겨레 두레 상조합 동조합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동네 사랑방으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떡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작 초기와 달리 떡방앗간의 운영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떡방앗간의 운영이 현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이고, 떡의 판매증진과 더불어 우리동네 협동조합이 진정한 지역주민의 구심체 역할인

동네 사랑방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우리동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우리동네 떡방앗간에서 생산되는 연천농민회에서 쌀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떡에 들어가는 소금 또한 용기토판염이라는 일반 천일염보다 우수한 품질의 소금을 원료로 하고 있으며, 떡모양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화학 색소가 아닌 천연 가루를 이용하여 떡을 제조하며 당일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떡의 종류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떡을 만들어 제조하고 있으며, 그 외 각종 잔치떡, 답례떡을 비롯해 친환경 떡 및 떡케이크 등을 주문판매하고 있다. 방앗간에서는 고소하고 향이 짙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직접 추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고춧가루, 미숫가루 등의 가공도 함께 하고 있다. 우리동네 떡방앗간은 지역농민과 생산자단체, 마을주민, 협동조합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로컬푸드 골목장터를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해 지역주



떡방앗간 앞에서 판매 중인 상품

민과 함께 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매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떡방앗간이 위치한 골목에서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두부, 김치, 묵 등을 판매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6월에는 인근 의정부 여자 중학교와 함께 골목장터를 진행하며, 세움 공동체, 풍물패 살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신나고 건강한 먹거리와 여흥으로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현재 우리동네협동조합은 한걸음씩 발걸음을 떼어가는 진행형이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해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판매부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현재는 해결이 된 상태이다. 우리동네협동조합은 이제 마을공동체의 문제를 넘어 보육원, 노인정 등 이웃에 대한 기부를 통해 지역공헌을 위한 발걸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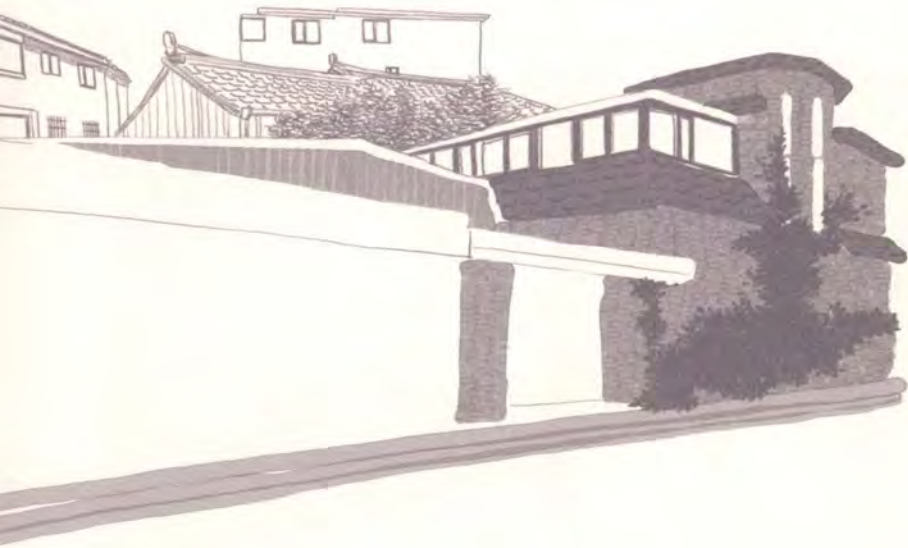
우리동네 협동조합 전경

떼기 시작했다.

향후 우리동네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떡방앗간에서는 떡체험 강습 및 전통음식 나누기 체험, 동네 소모임 활성화, 현재 준비 중인 떡카페 등을 통해 동네 사랑방으로서 공간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도 진행 중이나 골목장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내 타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할을 토대로 현재 하고 있는 기부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글: 김선희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3



36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와 협동조합 카페를 운영.
지역의 아동을 함께 돌보고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강좌를 열며,
마을의 일을 해결해 가는 마을 공동체이다.



울타리넘어

주소 | 안산시 상록구 일동 572-2(카페 마실)
전화 | 031-415-1225



울타리를 넘어 함께 손잡고 가는 마을 공동체

울타리넘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고민에서 시작된 일

2005년 8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여섯 가구 엄마들이 모였다. 또래 자녀를 둔 엄마들의 자연스러운 모임이었고, 공통의 고민을 가진 이웃의 만남이었다.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 방과 후의 아이들에게 돌봄이 필요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학원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고 또 학원비를 감당할 만큼의 여력도 없었다.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마음이 모여져 모임을 만들었다. 이름은 '울타리 넘어'

내 울타리 안에서 머물지 말고 울타리 밖으로도 손 내밀어 잡고 가자는 바람이다. 학원에 보내지 않고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과 후에도 아이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려면,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으려면, 돈이 많지 않아도 내 아이들이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으려면,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3월이 다가왔다. 다급해진 엄마들은 급하게 장소를 얻었다.

지하 단칸방, 공부방 이름은 '우리 동네 방과 후'

필요한 비용을 먼저 계산한다. 각자 능력만큼 지불한다. 누구는 더 많이 내고 누구는 더 적게 낸다. 그도 안 되면 무료. 성공하기 힘든, 하지만 꼭 해보고 싶은 공동체. 능력만큼 지불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울타리 넘어'는 지금까지도 잘 실천하고 있는 일이다.

당시 재취업 준비를 하며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던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았다. 초창기에는 학교를 마치고 오는 아이들에게 숙제와 학습지를 하게 했다. 하지만 그 일은 오래 가지 못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



울타리 넘어



의논하는 '울타리 넘어' 회원들

에서 돌아오면 무조건 놀 수 있게 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더욱 현명하고 총명하게 자라났다. 학습을 시키지 않아서 염려되었던 마음은 사라졌다. 경험을 통해 놀이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즐거운 공부방이 된 것이다. '울타리 넘어'라는 지역 공동체가 처음으로 만든 사업이었다. '우리 동네 방과 후'는 오랜 시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동네 아이들을 잘 키워냈다.

내 아이를 사랑하는 일에서 마을 주민을 사랑하게 되기까지

많은 아이들이 드나들다 보면 이웃에서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다.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라도 이웃과 잘 지내야 한다. 한 번 더 인사하고,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며, 동네 어르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일. 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내 아이를 위해서 시작했던 일들이 이웃을 알게 해주고, 이웃을 알게 되면서 살고 있는 마을에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

'우리 동네 방과 후'는 운영하는 동안 여러 번 이사를 해야 했다. 집 주인의 사정이 생기기도 했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올라 감당하기 어려워질 때도 있었다. 이웃과 많이 친해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이사를 해야 했고, 다시 친해지는 노력을 하고 또 이사하고, 힘들었다.

공간을 매입하고 싶었다. 그동안 '우리 동네 방과 후'에 다니던 아이들의 부모들 모두가 모여 의논했다. '울타리 넘어' 회원들이 각자 능력만큼 출자를 하고 대출도 받았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로 등록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지역 아동센터 '우리 동네 방과 후'가 자리 잡았다. 보증금 없는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울타리 넘어'의 첫 사업은 4년이 지나 자신들만의 공간을 갖고 좀 더 많은 지역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과 연결된 주민들과 좀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렇게 마을의 공동체로 커가고 있었다.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

함께여서 다행이야,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2014년 4월,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다. '세월호' 온 국민이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었던 날들, 눈만 마주쳐도 눈물이 나던 시간들,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었기에 모두들 지쳐 있었다. 너무나 가까워서 지켜봐야 했던 '울타리 넘어'의 가족들은 뭐라도 해야 했다. 함께 촛불을 들었다. 함께 울었다. 함께 행동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가슴에 커다란 흔적이 남았다. 공동체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왜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지,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 단단해졌고, 마을 공동체로 굳건히 자리 잡기 위해 절대로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울타리 넘어'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힘으로 2015년 7월 '울타리 넘어'는 창립총회를 열었고, 마을 활동가를 뽑고, 본격

적인 마을 공동체로써의 활동을 시작했다. '울타리 넘어'는 마을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어르신들을 함께 살피는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이어 두 번째 사업, 어른들의 직장 후 교실 '마을 카페' 만들기를 계획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

'울타리 넘어'의 두 번째 사업 '마을 카페 만들기'는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소를 정하는 일부부터 시작했다. '우리 동네 방과 후' 지역 아동 센터 가까운 곳에 있는 장소를 찾고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

이번에는 규모가 컸다. 상가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차례 만나고 의논했다. 그리고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협동조합으로 시작하게 된 마을 카페는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이사가 되어 출자를 하고 모자란



울타리넘어 서로를 이어주는 길



카페 개업식 포스터

돈은 대출을 받았다. 대출이자와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를 계산해서 결정한 일이다. 혼자라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다. 함께여서 낼 수 있는 용기였다. 카페 이름을 공모하고 시음회를 열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카페 이름은 '마실'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고민할 때 '따북공동체 지원센터'를 알게 되고 지원금 공모에 당선되었다. 지원금은 큰 공사를 전문 업체카페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소소한 일들은 지역 주민들 손으로 직접 작업했다.

'울타리 넘어'의 취지와 의미를 가득 담은 마을 카페 '마실'이 생김으로써 주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은 더 깊어졌다. '마실'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유익하거나,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열린다. 인문학 강의도 이루어진다. '마실'의 조합원이 되려면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내면 된다. 조합원이 되면 이곳에서 판매되는 음료를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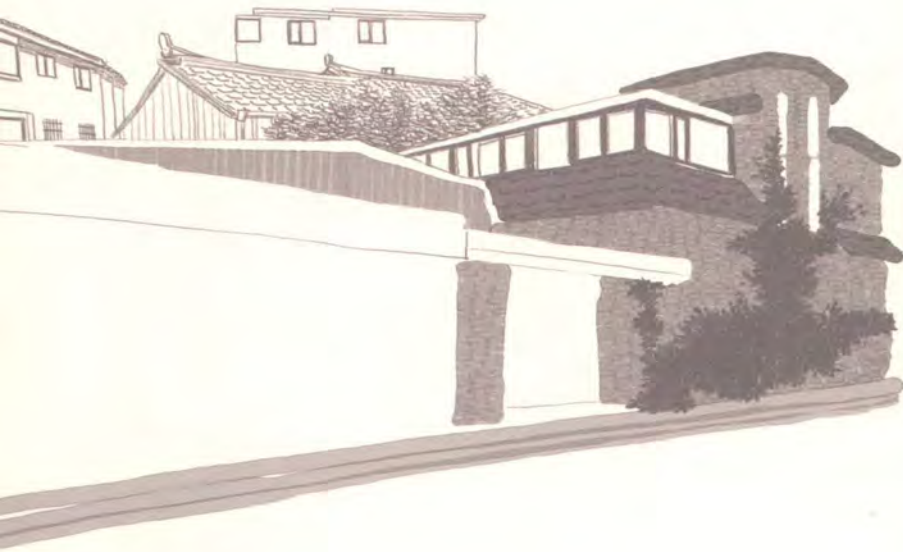
받고, 필요할 때 공간을 대여 받을 수도 있으며 소식지를 받아 본다. 강좌를 열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다.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마을 카페가 지속되게 하는 일원이 된다는 것, 지역 주민으로서 보람을 느끼게 한다. 마을 주민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 건물 전체를 마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울타리넘어'회원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함께여서 할 수 있었던 지난 십여년을 돌아본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연다.

울타리 넘어 손을 내밀고 함께 기대며 이웃을 돌아보는 마을, 더불어 사는 일동을 보듬어 안는, 함께 일동을 받치는 기둥이 되기 위하여,



글: 박은주
(경기도 따북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22



37

원당신협은 신용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에 다양한 나눔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원당신협

주소 |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86번지
전화 | 031-965-4748



한결같은 신뢰로 고객의 마음을 두드리다

원당신협

‘고양시’라고 하면 흔히들 ‘일산신도시’부터 떠올린다. 서울의 위성도시로 개발된 계획 도시, 넓은 인공호수가 조성된 호수공원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리고 잘 정돈된 도로……. 그러나 고양시, 이 고장의 중심지는 원래 ‘원당’이었다. 오래 전부터 고양시청과 보건소, 재래시장이 있던 곳이다. 하지만 오늘날 원당은 지난날의 영화를 일산에 내어주고 난 구시가지의 흔적이 짙게 남았다.

원당신용협동조합은 이런 원당의 성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 중산층들이 일산 신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원당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던 무렵이었다. 1991년, 기존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금융 약자를 구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당신협은 고양시 덕양구 원당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오랜 유대관계로 가족적인 분위기 돋보여

원당신협은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고양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이용할 수 있는 금융협동조합이다. 조합원 314명에 출자금 5000만원으로 시작해 25년이 지난 지금 조합원 1만1200여 명에 출자금 2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 사이 원당신협은 원당에 위치한 본점 외에 화정에 지점을 내고 두 개의 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20명이다. 원당신협은 매년 조합원들에게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게 배당을 해 왔다. 원당신협의 2015년 조합원 출자금 배당률은 2.16%.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1.5%보다 높다.

설립 초기, 원당신협은 신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발로 뛰며 사업을 시작했다. 일수를 쓰던 사람들을 저리의 대출로 껴안으면서 어렵게 마음을 얻었다. 그러던 원당



원당신협전경

“ 한결같음으로 조합원과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은 점도 유효했다. 한결같이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환원사업을 펼쳐왔던 것들이다. '신뢰'라는 것은 한 번 이벤트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한결같음에서 비롯된다는 명백한 진리를 원당신협은 실천하고 있었다.”

신협은 빠르게 성장해 창립 6년만인 1997년에 신협중앙회 경기연합회 경영우수조합으로 선정되고, 2013년까지 신협중앙회장 표창을 네 차례나 수상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원당신협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오랜 유대관계로 가족적인 분위기가 돋보인다. 신협 창구에 방문한 조합원들에게는 거리가 느껴지지 않는 친밀감으로 응대하고, 창구에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는 조합원들은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서비스로 감동을 준다. 실제로 원당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조합원이 새벽부터 빵을 굽고 가게 일을 돌보느라 신협에 들를 짬이 나지 않자 원당신협의 직원 두 명이 매일 아침마다 조합원의 가게를 찾아가 금융 업무를 봐준다. 그날 쓰일 동전과 수표를 교환해주고 예금할 돈도 받아가 입금해주는 것이다. 한결같음으로 조합원과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은 점도 유효했다. 매년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출자금 배당으로 조합원들의 금전적 이익을 챙겼던 일이나, 이익이 날 때나 나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소외된



찾아가는 신협



원당신협 창구

이웃을 보듬는 환원사업을 펼쳐왔던 것들이다. '신뢰'라는 것은 한 번 이벤트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한결같음에서 비롯된다는 명백한 진리를 원당신협은 실천하고 있었다.

지역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

원당신협은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지역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는 향토 어르신공경지원사업을 펼친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쥐어드리듯, 많진 않지만 용돈처럼 쓰시라고 현금으로 지원금을 전해드린다. 겨울철에는 경로당 난방비도 매년 지원해드리고, 경로잔치 등 행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찬조한다. 올 겨울에는 연탄 6000장을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배달하는 연탄봉사도 직접 했다. 또 조합원 자녀들과 지역의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한다. 붓글씨 쓰거나 요가

등 취미교실을 개설해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합원이 되고,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을 못 하던 고객들이 원당신협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아 어려움을 극복해서 다시 신협에 예금을 하는 경우도 많다. 원당신협은 이런 선순환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하는 일에 보탬을 주고 있다.

이렇게 원당신협은 모든 에너지를 지역에 쏟아 붓고 있지만 아직도 신협이 무얼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를 몰라 신협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알면 사랑하게 된다'고 했다. 원당신협이 앞으로 더 꾸준히, 더 넓고 깊숙이 지역사회로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원당신협은 일산에도 지점을 개설해 원당뿐 아니라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연탄릴레이

신협 중심으로 협동조합 상생하는 미래 꿈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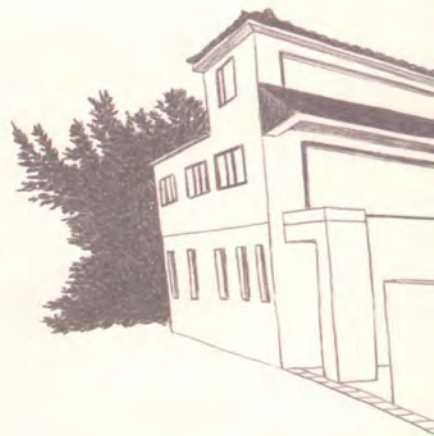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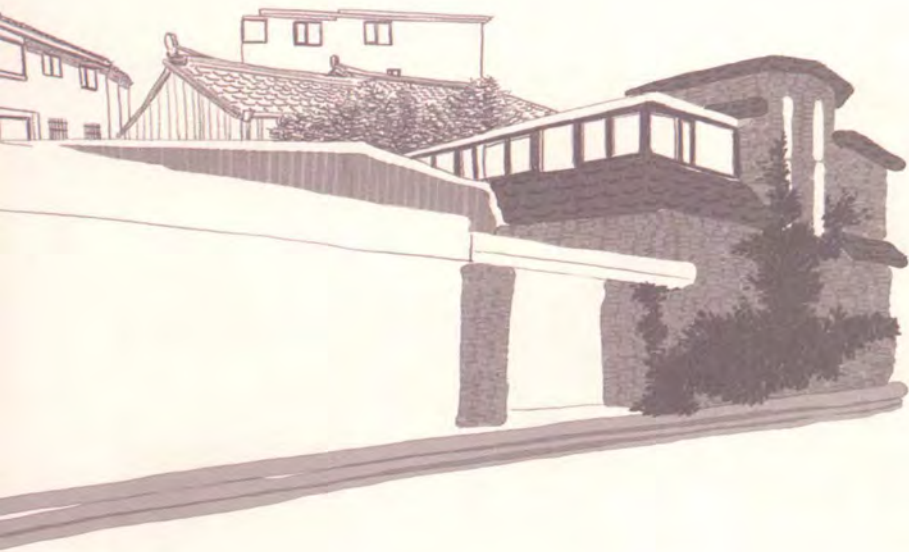
원당신협은 특별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인 신협이 고양시의 여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궁리하는 것이다. 지난해 성남 주민신협에서 '지역의 협동조합들을 신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제안을 받고 단위 신협 이사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던 것이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그려본 밑그림은 이렇다. 신협에서 여러 협동조합을 지원해주고, 그 회원들을 신협 조합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러면 협동조합 조합

원들은 신협의 우량 조합원이 될 것이고, 개별 협동조합도 단체 자격으로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 이 제안을 했던 신협과 생협, 협동조합과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함께 지역사회 기여와 상생을 모색할 수만 있다면, 그 상생의 미래는 모두가 잘 사는 장밋빛으로 물들지 않을까? 원당신협이 그리는 고양시 사회적 경제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글: 심수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1. 25



38

장애인들이 우리밀, 우리쌀로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회사가 있다.



위캔센터

주소 |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76
전화 | 031-969-3535



장애인들의 꿈을 담은 쿠키 위캔센터

장애인들이 우리밀, 우리쌀로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회사가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담아 이름도 '위캔(WE CAN)'으로 지었다. 착한 쿠키 '위캔쿠키'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위캔센터'의 이야기이다.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위캔센터(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소재, 시설장 김영렬 아가다 릿다 수녀)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쿠키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다.

'우리는 쿠키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쿠키를 만듭니다.' 위캔센터 사무실 한 쪽 벽에는 그들의 모토가 쓰여있다. 위캔센터는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이 가장 어려운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을 채용해 쿠키를 만든다. 판매 수익은 오롯이 그들의 자립을 위해 쓰인다. 위캔센터 장애인들이 만드는 위캔쿠키는 착한 재료로도 유명하다. 우리밀·우리쌀·국산버터·친환경 유정란·유기농 설탕 등 엄선된 국산재료를 활용해 빛는 수제쿠키다. 우리밀쿠키·만나쌀쿠키·마들렌·머핀 등 종류도 다양하다.

위캔센터는 2001년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관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처음 문을 열었다. 2006년에는 수녀회에서 독립해 사회복지법인 위캔으로 전환했으며 이듬해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사회적 기업으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2001년 설립 당시 장애근로인 5명으로 시작했던 위캔센터는 2015년 현재 근로장애인 40명, 비장애인 직원 20명 등 직원 수 60명에 연 매출 14억 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다.



제품 생산 과정



우리밀·우리쌀·친환경 유정란 등
엄선된 국산재료로 만든 위캔쿠키

장애인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회사

대졸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 하는 회사가 삼성이라던가? 위캔센터는 장애인들 사이에 삼성이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인기가 좋다. 설립 멤버였던 5명의 근로인(위캔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을 ‘근로인’이라고 부른다)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근로인들이 장기근속 하고 있다. 위캔센터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많지만 도통 자리가 나지 않을 정도다.

위캔센터는 근로인들에게 쿠키 생산 라인에서의 직업훈련 외에 다양한 자기훈련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매일 ‘모닝미팅’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훈련 등을 꾸준히 해 온 결과, 위캔의 근로인들은 일반의 장애인들에 비해 자기표현에 조금 더 능숙해지고, 마음과 표정이 밝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때문인지 위캔의 근로인들은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모습이 한결 자연스러워 보였다. 위캔센터의 40명의 근로인들은 모두가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 일산, 서울, 인천 등 각지에서

모이는 근로인들 가운데는 출퇴근만 4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지각 한 번, 결석 한 번이 없었다. 이 중 부모님이 안 계신 관계로 독립해 홀로 살고 있는 근로인이 4명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1주일에 한 번씩 회사 관계자들이 방문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준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없는지, 집에 고장 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한다.

매출 높지만 순이익 제로에 가까워

위캔센터는 위캔쿠키 판매로 지난해 1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사회적 기업들 사이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하지만 순이익은 거의 없다. 설립 취지대로 수익의 대부분을 근로인들의 자립을 위해 급여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우리밀·우리쌀·유기농 계란과 국산버터 등 착한 재료를 고집하는 만큼 원재료 값의 비중도 높다. 수년 전 우리밀과 국내산 버터 가격이 급등했을 때에도 쿠키 가격을 올리지 않고 경영난을 감내했다. 위캔쿠키를 믿고 구입해주는 소비자



위캔센터 위캔쿠기



위캔 사무실 벽 한 쪽에 걸려 있는 생활다짐

- WE CAN 생활다짐**
1. 나는 장려되었습니다.
 2. 나는 내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3. 나는 내 일 좀 더 하였습니다.
 4. 나는 말보다 주의를 먼저 하였습니다.
 5. 나는 내가 한 일을 믿는다는 것을 기뻐 하였습니다.
 6. 나는 모든 것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여 행복 하였습니다.
 7. 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왔습니다.
 8. 나는 내주위환경을 발전시켰습니다.
 9. 나는 감사함을 중요시 하였습니다.
 10. 나는 내가 믿는 것들을 고맙게 여기었습니다.
 11.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배려하여 사랑 하였습니다.
 12. 나는 이해할기보다 이해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13. 나는 요말할 때 한번 더 생각하고 하였습니다.
 14. 내가 앞서 받았듯이 나도 앞서 하였습니다.

들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 위캔센터의 철학이었기 때문이다. 위캔센터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면서 사회적 기업이다. 이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위캔의 근로인들은 중증장애인이라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다. 비장애인들이 3시간이면 할 일을 8시간에 걸쳐야 해내는 경우도 있다. 일반 기업은 물론, 다른 사회적 기업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업'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이유로 일반 기업과 같은 잣대로 움직여야할 때는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HACCP(해썹·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는 것이 위캔의 가장 큰 이슈다. HACCP 인증 의무적용 품목에 쿠키가 포함되면서 위캔센터도 올해 안으로 식약처에서 HACCP 인증을 받아야한다. 사실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될 비용도 크고, 서류 작업 등 행정 절차를 따라가는 일만해도 복잡해서 지원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위캔에게는 다소 버거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활을 걸고 매달릴 각오다.

안정적인 회사로 지속가능한 성장 꿈꿔

위캔센터는 '한국형 직업재활시설 모형 구축',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사회적 기업 모형 구축', '학습조직문화 구축', '위캔쿠기의 대중화'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전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2008년에는 우수사회적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2013년에는 전국장애인직업 재활시설평가 최우수(A) 등급 인증을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으며 비전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위생 관리에 철저한 쿠키 공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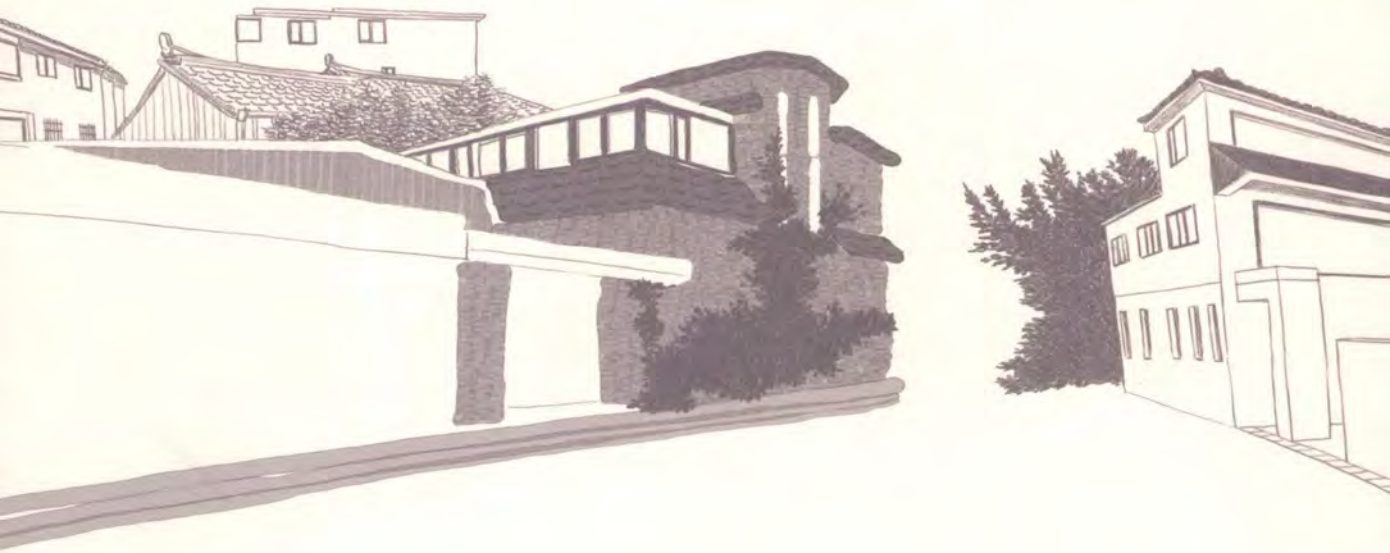
“ 좋은 재료로 만드는 착하고 맛있는 최고의 쿠키. 그래서 소비자들이 위캔쿠키를 먹으면 정말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 그게 목표다.”

위캔센터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위캔쿠키를 통해 쿠키 이상의 가치를 공유하게 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단지 쿠키에 담긴 의미와 가치만 봐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그랬듯 쿠키 자체만으로도 손색없이 만들 것이다. 좋은 재료로 만드는 착하고 맛있는 최고의 쿠키. 그래서 소비자들이 위캔쿠키를 먹으면 정말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 그게 목표다.



글: 심수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1. 4



39

울곡영농조합법인은 2014년 마을주민과 함께 설립해 마을자원 인연을 활용해 연잎밥과 연꽃차 연근 등을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을곡영농조합



파주시 율곡리 연꽃마을

율곡영농조합

파주가 낳은 율곡 이이의 고향 율곡리

두류산(頭流山 : 1,323m) 남쪽 계곡에서 발원해 휴전선을 지나 파주시로 흐르다가 문산천(文山川)과 사천(沙川)을 합친 뒤 파주시 탄현면에서 한강에 흘러드는 강이 임진강이다. 그 임진강변 파주가 낳은 대성현 율곡 이이 선생의 생가터와 선조대왕의 신의주 몽진 길 칠혹 같은 어둠을 흰히 밝혀주었다는 화석정이 내려다보는 마을이 있다. 그 곳이 바로 파주시 파평면 율곡2리 연꽃마을이다.

마을에는 500년은 족히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마을을 지켜주고 있으며 얼마 전 율곡리 연꽃마을 전경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주민들의 생명수이었던 약수터가 있다. 10월 중순 45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마을 뒷산은 벌써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었다.

이석관 조합장, 연꽃과 사랑에 빠지다

이석관 조합장은 적지 않은 나이인 66세에 율곡리 이장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봉사하면서 파주시와 함께 마을에 연 밭을 조성하면서 연꽃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젊은 지도자에게 마을일을 맡기고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화두로 2014년 3월 율곡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조합장이 된다.

이장을 하면서 연을 맺은 동네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한 몫을 했다. 그들의 도움으로 1천5백만 원을 투자해 건조기와 저온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길로 나선다. 연잎으로 이름 난 시흥연꽃축제장이며 양평 세미원 등도 조합원들과 함께 꼼꼼히 벤치마킹했다. 밤을 새워 연잎밥도 개발하고 연잎차도 뒤었다. 연잎가루도, 연근도 상품화를 시도했다.



올곡리 연꽃마을 전경

“이석관 조합장은 필요한 곳에 연못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석관 조합장은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함께 가기 위해 영농조합을 만들어 가꾸어가고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파주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장과 파평면에서 열리는 파평코스모스 축제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연잎밥을 판매하고 홍보하기도 했지만 생각한대로 매출은 일어나지 않아 실망도 컸지만 다시 일어나 더 큰 희망을 꿈꾼다.

올해에는 파평코스모스 축제장에 새로이 조성된 연못에 각종 연을 분양하기도 했으며 관내 고등학교에서도 연못조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뿌듯하다. 이석관 조합장은 파주시 관내 이곳저곳에서 연꽃 단지를 조성하고 가꾸는 일로 바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내년이 기다려진다.



연꽃

파주도시대학에서 배우다

2014년에는 서울의 유명대학교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찾아와 연구용으로 연꽃과 연잎들을 채취해 가기도 했으며, 파주시와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서 주최한 2015 파주도시대학(마을만들기 최고만들고지도자 과정)에도 참가해 “꿈꾸는 연꽃마을”을 주제로 마을공동체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해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중간에서 그만 두려면 시작도 안했다

지난해 파주시에서 마을 뒷산에 수목원과 도토리 둘레길을 만들었다. 주말이면 이곳 둘레길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것도 희망이라면 희망이다.



연씨



이석관 조합장



KBS1TV 드라마 '오! 할매' 현수막

얼마 전 끝난 KBS1TV 연속극 할매 등 심심치 않게 드라마 촬영이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큰 힘이 된다.

내년에는 마을 앞을 지나는 자유로와 연결된 56번 도로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파주시 아파트 거주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자캐기, 모내기 체험, 파평코스모스축제와 연계한 연꽃마을축제 등 계절별 축제도 꿈꾸고 있다.

“중간에서 그만 두려면 시작도 안했다”는 이석관 연꽃마을 율곡영농조합장의 자신만만함에서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연꽃마을, 희망찬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본다.



글: 정필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3



40

편빵을 매개로 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봉사와 기부의 나눔 확산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협동조합

주소 | 의정부시 신곡동 금신로 323 304호 (신곡동 대형플라자)
전화 | 031-846-4242



나눔문화 공작소

의정부협동조합

6cm로 나누는 사랑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 "찜빵"을 매개로 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협동조합이 있다. 찜빵 하나의 크기는 작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한다. 의정부협동조합은 2013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같은 해에 의정부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의정부협동조합은 건강을 위한 빵류를 생산 판매하며, 전국 마을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좋은 상품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판매망을 구축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이다. 의정부협동조합은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사업으로는 빵나눔 봉사활동과 체험학습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유통사업도 하고 있다. 의정부협동조합의 브랜드는 빵만들기 체험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굿프렌즈가 있다. 다음으로 만들어진 찜빵을 전달해주는 자원봉사단체인 명성 사랑의 봉사단이 있다. 그리고 미나미푸드에서는 각종 다양한 찜빵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보완관계로 유기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미나미나누미에서는 지역사회 저소득층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후원자인 개인, 기업, 단체 등이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는 역할을 한다.

간식과 한끼의 식사를 위하여

나눔사업의 시작은 노숙인들을 위한 밥을 주는 봉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식사시간이 지난 사람들에게 간식과 요기가 될 수 있는 빵을 생각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으며 이 사업

“ 의정부협동조합은 건강을 위한 빵류를 생산 판매하며, 좋은 상품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판매망을 구축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이다. ”



의정부역 빵나누기

은 6년째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이면 의정부역 앞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노숙인들 외에도 빵이 필요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오고 있으며 의정부협동조합에서는 1회 120~130인분의 찐빵과 더불어 지역의 제빵회사로부터 롤케이크 일부를 기부받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빵나누기 1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4~5명이 투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체험학습을 통한 이웃사랑 빵만들기

체험학습을 통한 이웃사랑 빵만들기는 유치부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1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10명 이상이나 명수에 상관없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유치부, 초등부는 6천원이며, 중학교 이상부터는 1만원이다. 참가자들은 빵만들기 체험과 인성교육 그리고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체험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찐빵을 만들 수 있으며 빵이 익는 동안 유치부는 재미있는 구연동화를 듣고, 초등학생에게는 효교육(촌수따지기, 안마하기 등)과 생활예절교육(배례법, 애경사예절 등)을 교육한다. 찐빵이 완성되면 자신이 만든 빵은 즉석에서 맛을 보게 된다. 또한 만든 빵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시간을 갖는 사랑의 빵 기부시간을 갖는다. 빵나눔을 위하여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을 방문하는데 직접 가고자 하는 곳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의정부협동조합에서 선정하여 방문하기도 한다. 대개 어린이들의 경우 부모님과 동행을 하여 방문한 어르신께 안마와 말벗을 해드린다. 교육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



의정부협동조합 김미남 대표 캐리커처



나눔문화 확산

며 단순한 체험학습에서 벗어나 재미있게 만들고 먹고 놀고 배우는 동안 나눔봉사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시간이 되고 있다. 모든 빵만들기 과정은 CD로 만들어 참가자 전원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또한 좋은 추억만들기가 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학교를 방문하여 빵만들기 체험학습을 병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학습으로도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WE CLASS에도 월 1회 빵만들기교실을 운영한다. 참여 학생들은 빵만들기를 통해 자신감과 자신이 만든 빵을 이웃에게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배운다. 빵만들기체험은 봉사, 나눔, 행복, 소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지역과 함께 하는 빵나눔 사업

의정부협동조합에서는 미나미 나누미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간식으로 찐빵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에 시작되었는데

의정부역에서 빵나누기 사업을 하던 중 직접 빵을 제공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시작하게 되었다. 빵나눔사업은 의정부시 15개동에 월1회 제공되고 있다. 빵나눔사업은 각 동의 복지위원을 통해 전달되며 빵을 받는 어르신들은 한끼의 식사대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사람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반응이 좋다.

빵나눔 문화확산

2015년 1월부터는 사랑의 열매와 협약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기부할 사람이 의정부협동조합을 통해 기부의사를 밝히면 그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사랑의 열매에서 발급하고, 의정부협동조합은 기부금만큼 해당하는 빵을 만들고 후원 대상자를 찾아 빵을 전달하는 것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눔협약서를 통해 약정을 체결하며 여러 기부자가 모였을 때 금액만큼의 빵이 만들어지면 지역사회 및 빵이 필요한 곳에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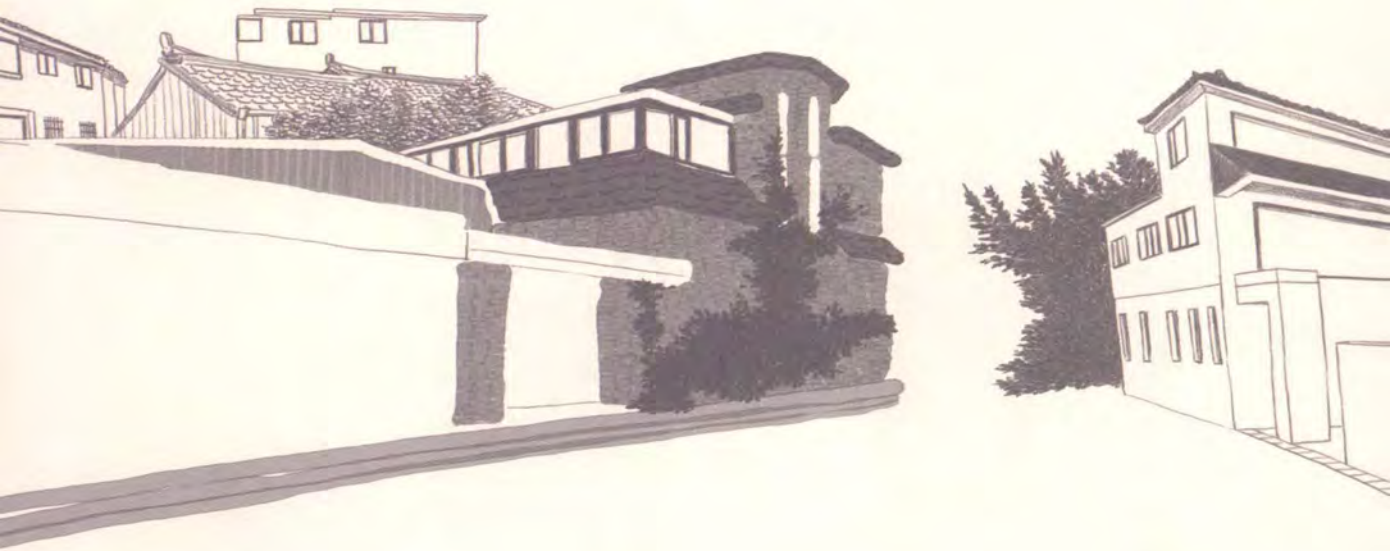
빵나눔을 통해 전달되는 빵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현재 미나미빵은 농협, 마을기업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이베이 코리아와 공동으로 빵나눔봉사를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활발한 온라인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기부와 봉사자를 모집하여 빵만들기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활동 중이다. 또한 현재보다 더 많은 곳에 미나미 행복한 빵이 전달되어 빵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빵나눔문화를 확산하려 노력 중이다.



글: 김선희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1. 10



41

영어교육을 통해 이천의 향토교육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의 지속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천을 방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통역을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모임단체이다.



이천F4



외국인들의 의사소통을 도와 마음을 여는 이들

이천F4

(Friendly Icheoners For Foreign Friends)

외국인 친구들을 위한 다정한 이천 시민들

2010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었고 문화와 자연환경이 보기 좋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도시, 이천. 이천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민속공예부문에서 많은 도자 예술인 및 관련 산업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자 전문도시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도자비엔날레 및 도자기 축제, 도자 관련 전문적인 도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도 그 이유이다.

이러한 이천에서는 2년에 한 번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열리는데 이 때 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국적의 도예가들이 이천을 방문한다. 이들의 의사소통을 도울 통역사들이 행사 현장에 배치되지만 매 행사 때마다 수요에 비해 인원이 부족했다. 이렇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도예가들을 위해 2013년부터 도자 비엔날레 행사장에서 영어 통역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F4다.

F4는 이천 방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를 공유하며, 나아가 이천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이천 시민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현재 F4 구성원 중 가장 많은 연령층은 고등학생과 20,30대이다.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부터 70대에 이르는 노인까지 이천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 만큼 영어 실력도 제각각이라 통역을 할 만큼 회화가 잘 되지 않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들이 통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꼭 영어 실력이 유창할 필요는 없다. 이천을 찾는 외국인 도예가들과 짧은 대화라도 마음을 나누며 이들이 행사가 끝나 자국으로 돌아갈 때 까지 아프지 않고 즐거워 할 수 있게 소통한다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F4 활동가들은 자기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축제에서 찍은 사진



F4가 맡은 인터로컬 워크샵 부스



이천 쌀축제의 외국인 안내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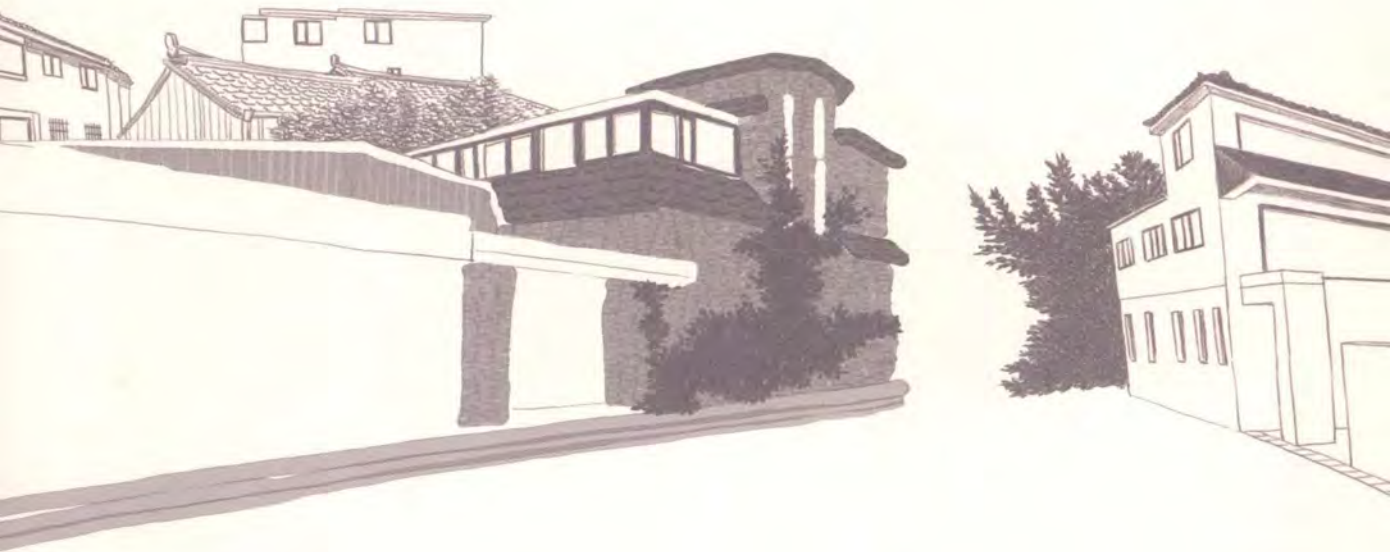
개발과 외국인 도예가들에게 더 나은 편의제공을 위해 평상시에 영어공부를 꾸준히 한다. F4는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강사로부터 영어수업을 듣는다. 또한 이를 통해 이천 주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서로 소통하고 친목을 나눈다. 이들은 2013년 도자 비엔날레 때 인터로컬 워크샵 부스를 맡았다. 중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4개국의 도예가들이 현장에서 도자를 빚으며 각국 도자문화의 현재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장이었다. 이 때 F4는 도예가들과 관광객 사이에서 소통을 돕고 행사를 이끌어 나갔다. 이탈리아에서 온 한 도예가는 F4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 이듬해 이천 도자기 축제에 재방문하는 등 지금까지도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도자 비엔날레를 마치고 참여한 ‘2013년이천 쌀축제’의 통역봉사에서는 방문객인 체코 외교관에게 좋은 인상을 줘 계속 연락이 닿고 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F4에 연락을 하고 한국에서의 체코 행사 때마다 초청을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F4 구성원들도 통역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설렘과 재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도우면서 한국의 이미지를 더 좋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통역 일에 임하고 있다.

F4는 앞으로 통역 지도자들을 육성을 통한 예비 통역가 양성에 힘 쓸 계획이다. 그리고 이천시 자원봉사 협의회에서 기초 영어학습을 지원받아 은퇴한 70,80대들이 F4와 함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글: 윤영욱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2. 18



42

적게 벌어도 행복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고,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해 함께 콧노래 부르면서
살 수 있는 마을, 못 생명들과 공존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달팽이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곳이다.



인생나자 작업장

주소 | 군포시 군포로 565번길 8 (1층 5호)
전화 | 031-458-7972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자립공간

인생나자 작업장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

군포시 당동은 7-8년 동안 뉴타운 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주민 간 갈등이 잦았고,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서성이는 청소년들이 많은 곳이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공공시설에서 노력하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예산에 묶이기도 하고, 정해진 근무시간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놓을 수는 없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함께 일하던 김지수 이사와 손윤경 팀장은 마을에 아이들이 마음껏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작은 공간 하나가 쇼셜 편딩으로 마련되었다. 지역주민들과 전국에서 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 140여 분들의 도움이었다. 무료로 집 고쳐주기 활동을 하는 단체 '나눔 군포'에서는 공간의 모든 인테리어를 담당해주었다.

문화의 집에서 인연이 되었던 청소년들이 한 명, 두 명 놀러 온다. 청소년이었지만 자라서 청년이 된 친구들도 온다. 친구의 친구들이 손잡고 오고, 궁금한 어린 초등학생들이 온다. 자유다. 오는 것도 마음대로 가는 것도 마음대로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유롭게 계획하고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곳. 결과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곳. 그렇게 생겨난 곳이 '인생나자 작업장'이다.

인생나자 작업장의 자유로움은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인권옹호, 생태적인 삶, 나눔의 실천, 자립의 다양성. 나아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지만 방법은 다양하고 다양성은 인정되며 모든 결정은 청소년들 스스로 한다.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들도 소중히 여기는, 적게 벌어도 행복한 세상,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인생나자



인생나자 작업장 모습

작업장은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었다. 작업장의 주인인 청소년들은 조합원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방식으로 묶여있지 않다. 조합원들은 모두 어른이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었다. 100명이 되지 않는다. 100명을 넘기지 않을 생각이다. 인생나자 작업장은 모든 조합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의논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같이 밥 먹자

인생나자 작업장은 청소년들의 공간이다. 조합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조합원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후원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과 청소년들이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작업장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토요일마다 '배

불러' 카페를 열기로 했다. 토요일은 학교도 문을 닫고 공공기관도 문을 닫는다. 토요일에도 일하러 가는 부모의 아이들은 굶거나 군것질로 때우거나 라면을 먹는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시간여유가 되는 조합원들은 아이들과 만나 함께 밥 먹을 기회가 생긴다.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 중 어떤 분은 텃밭에서 수확한 재료들을 보내주기도 한다. 그 외의 재료는 마을에 있는 생협에서 일부 후원받고 일부 구매한다. 지역 안에서 작지만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함께 먹는 밥은 언제나 맛있다. 함께 밥을 먹다는 것은 한식구가 된다는 것이다.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며 청소년들과 조합원들의 마음이 전해질 때 청소년들은 인생나자 작업장의 의미와 가치가 마음에 담기고, 조합원들은 청



창립총회



작업장모습

소년들의 하고자하는 일들에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다. 이주민사업을 7년간 지역에서 해온 '아시아의 창'과 함께 50평 정도의 사무실로 이사하게 된 인생나자 작업장은 청년들을 위한 계획도 있다. 넓은 사무실을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고 카페를 이용하듯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숙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는 '배불러' 카페도 매주 한 번씩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엔 어디로 갈까

인생나자 작업장에는 청소년만 오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이 있다. 문화의 집에서 인연이 되었던 청년들은 늦은 시간이나 필요할 때 작업장에 나와 이사와 팀장을 돕기도 한다. 청년들은 모임을 만들었다.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는 청년들은 모여서 꼭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모여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돕고, 그렇게 연대한다. 중요한 것은 지역 안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작업장에 놀러 오는 청소년들은 할 일이 많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실이 있으니 숙제를 하기도 하고,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매트 깔린 방에서는 쉬기도 하며,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가득하니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든다. 그러다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면 작은 행사를 계획한다. 더운 여름에는 부채를 만들고 시장 상인들을 만나러 간다. 부채를 나눠드리고 기뻐하시는 상인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지역 안의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낯선 사람들과 말을 나누고 인사를 주고받은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다. 청소년들은 인생나자 작업장을 알리고 그 의미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아웃리치를 한다. 아웃리치의 이름은 '움직이는 놀이 카페' 장소는 어디든지 가능하다. 정기적인 개인 후원이 있기는 하지만 작업장을 위한 바자회도 연다. 청소년들 스스로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

한다. 그 또한 새로운 경험이다. 일 년에 한 번 씩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잔치도 연다. 놀이도 하고 재능 나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것, 지역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의무도 아니고 회원도 아니며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일들, 우린 살면서 이럴 수 있었나?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 둘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해 본적이 있었나? 그 안에서 깨닫고 알게 된 책임과 약속은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깊이 공감하며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인생나자 작업장은 그렇게 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고 그 속에서 스스로 많은 것을 알아가게 하고 싶다.

또 다른 지속 가능성

인생나자 작업장은 비영리 단체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과 김지수 이사의 강의로(학교나 청소년 단체를 찾아가 나눔 교육과 노동 인권 교육, 민주 시민 교육 등을 한다.) 티브로드 노동조합의 후원으로, 배블러 카페를 운영하고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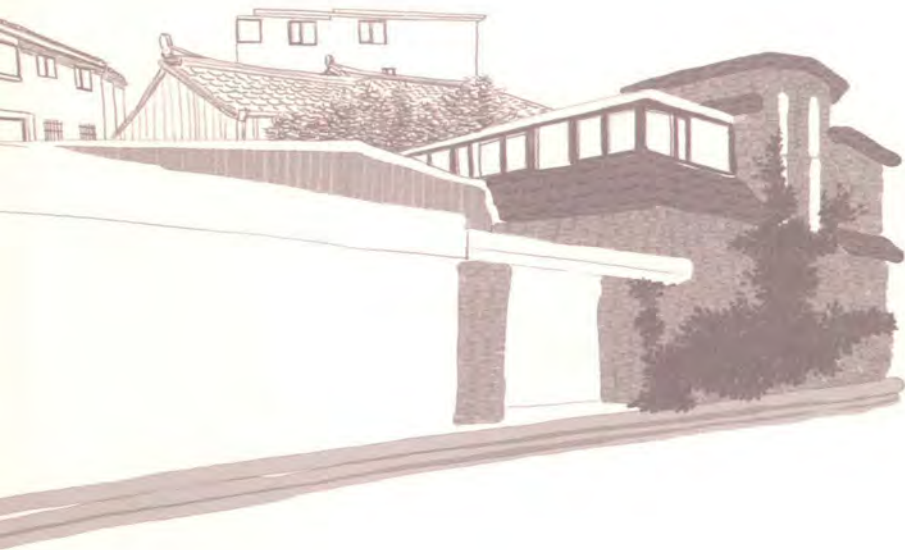
을 지원해주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적은 금액이지만 학업수당 형태로 제공하는 씨앗머니를 운영하고, 직원의 활동비, 임대료 등 모든 지출을 해결하고 있다. 많이 부족하다. 김지수 이사는 제안서를 만들어 일반 중소기업들을 찾아다니며 후원재단을 만들어 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수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주변사람들의 염려가 있지만 인생나자 작업장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은 좀 다르다. 운영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작업장이 문을 닫게 된다 해도, 이곳을 거쳐 간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마음에 새겨진 가치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들에 의해 다른 곳에 인생나자 작업장이 생길 수도 있으며 그 한 명 한 명의 삶이 변화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나자 작업장이 꿈꾸는 지속 가능성이다.



글: 박은주
(경기도 따북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25





43

100% 국내산 대두로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않은
전두부와 두유를 만들어 판매하며, 도·농도시인 오산시의
콩매입과 사회환원 활동을 하는 마을기업.



잔다리 마을공동체

주소 | 오산시 세교동 60-1번지
전화 | 031-377-5866



행복한 공동체

잔다리 마을공동체

지금은 없어졌지만 마을 앞 냇가에 작은 다리가 있었다고 해, 우리말로 부르던 잔다리는 오산시 세교동의 옛 명칭이다.

오산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익숙한 잔다리 마을공동체 홍진이 대표는 마을에서 지어진 것을 토대로 마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2011년 행정자치부에서 진행하는 마을기업 사업을 보고 마을공동체와 함께 공모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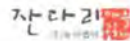
www.jandari.co.kr



NAVER

착한두유

네이버에서 '착한두유'를 검색해주세요



잔다리 마을공동체



잔다리 마시는 콩 두유

처음에는 단순하게 마을에서 재배하는 콩을 원료로 두부를 만들려고 하다가, 기존과 다른 두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 전두부와 무침가 두유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전두부와 무침가 두유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전두부란 콩을 삶거나 물에 불리지 않고 생콩을 껍질만 벗긴 채 분말화하여 만든 두부를 말한다. 기존의 물에 불리고 삶고 하는 과정보다 콩 본래의 맛이나 풍미를 살리고, 비지를 빼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100% 콩을 담아낼 수 있다.

고집쟁이!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가 하는 고민은 품질은 좋다고 자부하지만 지역자원을 활용하다보니 원가는 높고, 대량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자체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경제제품은 높은 판매로 이어지기 힘들며, 그에 따른 매출창출이나 원재료 구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

잔다리 마을공동체도 설립 후 2013년까지 적자가 계속 되었다. 2011년 기존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전두부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기존 두부나 두유를 만드는 방식과 다른 방식의 먹거리 인식을 바꾸는 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적자가 계속되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잔다리 마을공동체는 포기하지 않고 설립초기 신념인 지역에서 재배하거나 자라난 100% 국내산 대두 사용과 소포제, 유화제, 방부제 등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은 상품을 만들었다. 이것은 잔다리 전두부와 두유의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야기의 전제조건이 된다. 전두부와 두유의 유통기한은 15일이며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잔다리는 눈앞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고, 홍보를 위해 인터넷과 SNS활동에 전념했다.

SNS활동에 전념한 뒤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이라



잔다리 제품 제조과정



잔다리 마시는 콩 두유

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잔다리 두유가 전파되는 일이 생겼다. '착한두유'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준비부터 생산까지의 과정을 접한 시청자들의 주문이 폭주하였다. 그동안의 신념이 통하기 시작한 것이다.

멈추지 않는다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정기적으로 우유처럼 주문하시는 분은 월 1,500명이나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시, 군에서 잔다리 기업의 2호점, 3호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15일이라는 짧은 유통기한의 제약상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장비와 인력의 규모가 소비자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현재 잔다리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2호점, 3호점을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잔다리는 먼저 공장과 회사를 신축해야겠다

고 결심했고 2015년 45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2016년 이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안에 잔다리 두유를 애용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여 팜파티(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직접 농촌을 방문해 농산물을 맛보고 문화를 즐기는 파티)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잔다리 제품을 똑같이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마을과 농가레스토랑 사업도 진행할 것이며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체인화할 계획이다.

착한 나눔활동

잔다리 마을공동체는 사회적 경제에 맞는 이익을 나누는 활동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간호사들을 통해 10가정씩 매일 두부와 두유를 지원하고 있다. 오산시와 방문 간호사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었다. 지금은 잔다리 제품을 제일 많이 기



우수마을기업 잔다리 마을공동체

다리고 계신다는 행복한 소식을 간호사의 전언으로 들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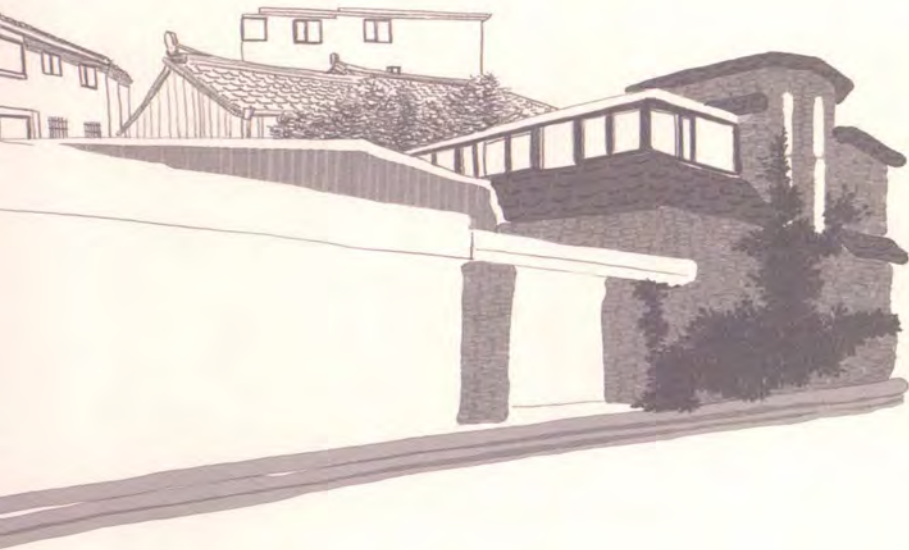
또한 도, 농 복합도시임에도 농업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오산시의 콩매입을 주도하며 콩을 심어도 마땅히 판매할 곳이 없어 줄어들었던 농업인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오산시에서 재배한 콩만으로 부족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과 사람이 더 많은 연천군에 원재료 계약재배를 하였다.

잔다리는 처음 사회적경제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시작하고 있는 기업을 위하여 “지금 또는 앞으로 진행할 사업이 수익을 내기에 타당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며, 봉사로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탄탄한 준비와 사전정보 없이 시작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은 아니나, 기

업이기에 이익창출이 되지 않고 쌓이다 보면 지탱하고 견디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 분야에 깊은 애정과 정확한 정보로 더 착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가 풍성하게 이어졌으면 한다.



글: 김혜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1. 27



44

2013년 민·관·군·산·학이 협력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시작해
마을개선사업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다.



전나무골 사람들

주소 |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162 (봉천5리 마을회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전나무골 사람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5리(이장 전원규)는 2013년 민·관·군·산·학이 협력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시작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업사이클링 체험교실, 노후주택단열사업 등 마을개선사업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다.

봉일천5리 전나무골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5리는 한때 전나무가 많아 전나무골로도 불리었으며 사적제205호 세계문화유산 파주삼릉(공릉, 영릉, 순릉) 가는 길목에 있다. 목포에서 신의주를 잇는 국도1호선인 통일로변에 위치해 있지만 1970년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고령화되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마을이다.

전나무골 사람들 마을에 눈뜨다

2013년 마을에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해 보자며 손을 먼저 내민 것은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이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일자리와 마을소득도 창출하고 단순 소각 처리해 낭비하는 자원을 줄이면 환경보전도 되니 이거야말로 1거4득이 아니겠냐는 제안에 일 좋아하는 이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전나무골 사람들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푸른경기21에서 공모한 초록마을대학사업에 참여해 마을안길을 청소하고 꽃길을 가꾸는 한편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마을 곳곳에 설치했다.

주민들은 40년만에 마을담장을 물청소하고 흰색 페인트칠을 했으며 그 위에 관내에 있는 세경고, 봉일천고교, 서영대학교, 군부대 등의 재능기부로 환경벽화를 그렸다.



전나무골에 날아든 호랑나비 포토존

폐현수막 재활용을 꿈꾸다

폐현수막으로 무언가를 만든 것조차 보지 못한 마을주민들과 함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와 대전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녔다. 주민들은 재봉틀 높이며, 재단대 길이와 폭을 자로 재고, 사용하고 있는 재단칼 규격까지도 꼼꼼히 챙겼다. 선진지 견학 후 푸른파주21과 봉일천5리는 업무협약을 맺고 봉일천5리는 마을의 폐창고를 수리하고 푸른파주21은 사업비 600만 원으로 공업용 재봉틀 4대와 대형 세탁기, 재단칼, 다리미, 가위, 실 등 부자재 일체를 구입했다. 작업장 인테리어는 관내 가구공장에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해결했다. 부녀회원들은 지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장을 초빙해 틈틈이 재봉기술을 익혔다.

지속가능 위해 민·관·군·산·학이 함께하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재활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장 고민한 것이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할 것인가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서영대학교, 조인디자인(주), 푸른파주21, 봉일천5리, 조리읍, 농협중앙회파주지회, 군부대 등 민·관·군·산·학 7개 기관이 함께하기로 하고 제품디자인, 마케팅, 판매, 컨설팅, 축제준비 등 각 단체의 역할을 담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4년 벽화 그리기 대회작품



재능기부로 벽화를 그리고 있는 군인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장 전경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장 실내모습

폐현수막으로 재봉틀을 돌리다

드디어 2014년 3월 3일 오전 10시 마을부녀회원 4명이 재봉틀 앞에 앉아 폐현수막으로 재봉틀을 돌렸다.

파주시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마을주민 4명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했기에 가능했다. 이는 지자체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도입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파주시 안전총괄과에는 방재용 모래주머니를, 파주시시설관리공단과는 녹색생활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낙엽수거용 마대를 납품했다.

한때 파주시 폐현수막이 모자라 인접한 고양시에서 급하게 공수해 오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지만 사업을 시작한 첫해 1,2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세금을 공제한 전액은 부자재구입과 수리비, 마을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에 쓰였다.

할 일 많은 전나무골 사람들

2013년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노력이 알려지면서 파주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사용하지 않는 낡은 어린이공원은 개조해 체육시설도 설치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업무협약을 맺다



폐현수막으로 만든 봉숭아꽃 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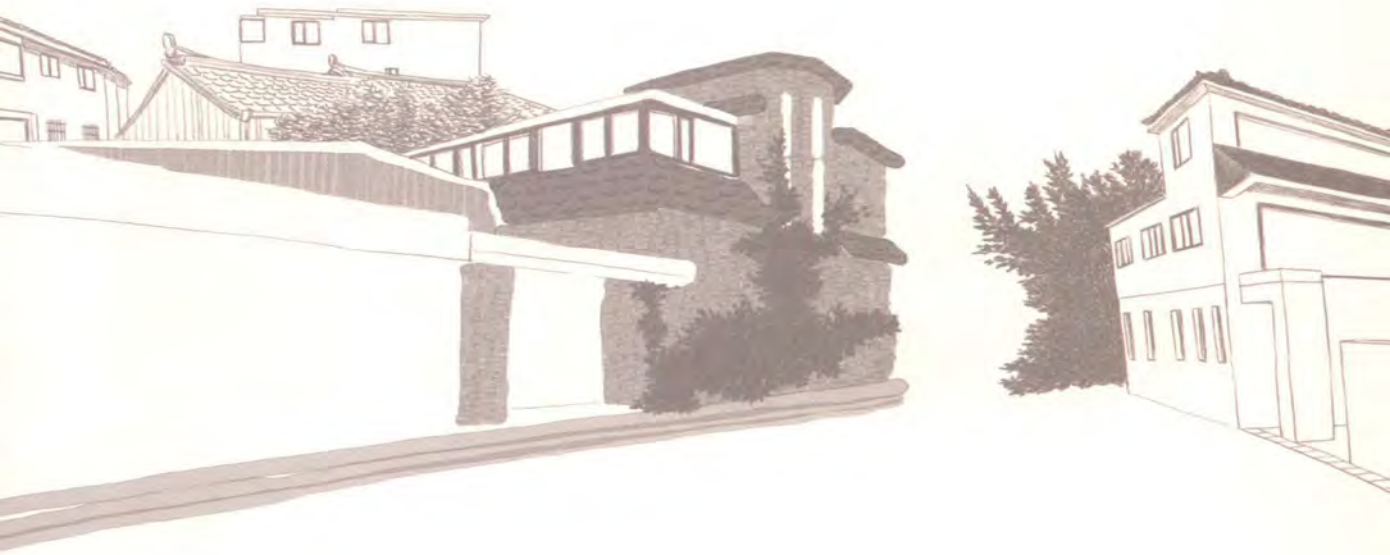
2014년에는 푸른파주21과 함께 지구사랑과 마을이야기를 주제로 초·중·고·대학·일반인들의 벽화그리기 대회도 열었다.

마을의 폐 가옥을 수리해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나스튜디오'도 유치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2014년 4명이었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015년 6명으로 늘었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 봉숭아꽃 마을축제를 열어 손톱에 봉숭아꽃 물들이기체험을 위해 폐현수막으로 화분 700여 개 만들어 봉숭아꽃을 심고 가꾸었지만 때를 놓치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축제를 열지 못했다.

전나무골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닌 선진지 견학에서 깨달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2015년에 못다 한 일들을 2016년에는 성취하기 위해 오늘도 마을회관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다.



글: 정필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29



45

웹디자인, 2D, 3D 및 게임 제작을 통해 콘텐츠 제작 분야
일자리 창출, 숙련기술인력 양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교육의
기회 균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마을기업이다.



제팻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주소 |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06 2층
전화 | 070-7561-6527



마을 기업을 위한 마을 기업

제팻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들의 만남

부천에서 살고 있으며, 십년 이상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일하던 전문가들이 모였다. 그들의 전문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였다. 부천은 '애니메이션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다. 지역의 육성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2014년 4월 다섯 명의 전문가들이 이사가 되어 주식회사로 창립한 제팻 스튜디오는 영화 '뽀로로'의 특수효과를 맡고, 부천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홍보영상과 교육용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주식회사로 출발했지만 제팻 스튜디오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에도 뜻이 있었기에 2014년 6월, 기술 기반형 마을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제팻 스튜디오는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한다. 그 중에는 기업의 CI, BI 등 각종 디자인 작업이 있다. 지역의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도 꼭 필요한 전문 분야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이끌고 가는 어려움 또한 잘 이해하고 있는 제팻 스튜디오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위한 마을 기업이 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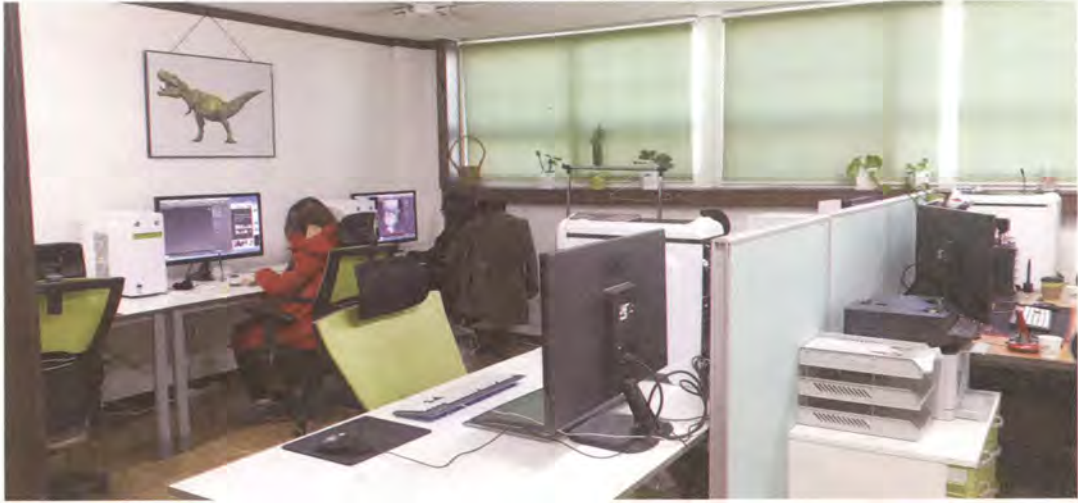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실무교육

제팻 스튜디오는 마을 기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할지 고민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봉사는 재능 기부이다. 지역의 노동센터, 자활센터, 복지관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 중 컴퓨터 그래픽분야에 관심과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영상 제작과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한 달 과정의 무료 교육을



제팻 스튜디오

실시했다. 지역주민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부천 공업고등학교에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동아리가 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만든 동아리이지만, 학생들끼리 고민하고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곳에도 제팻 스튜디오는 관심을 갖고 접근했다. 동아리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제팻 스튜디오에 와서 한 시간 반 동안 교육을 받았다. 4개월간의 교육이었다. 취미에서 전문역량을 갖게 되는 기간이었다.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제팻 스튜디오는 2016년부터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직업 체험처가 많이 필요한 중학교 학생들의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업체험처가 되어 주었다. 주식회사로 출발한 제팻 스튜디오는 다섯 명의 이사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소소하게 작업할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 부천지역의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겐 너무나 좋은 실무 경험이 된다. 청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분야의 마을 기업인 제팻 스튜디오가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열고 있는 부분이다.



제팻 스튜디오2

마을기업 '제팻'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제팻 스튜디오는 문화도시 부천에 잘 어울리는 마을 기업이다. 마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전문 기술을 가진 컴퓨터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위해 기업홍보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한다.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전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훌륭한 가치를 지닌 일이지만 수익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많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갖는 고민이다. 이런 가치 있는 사업을 오래 지속하려면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수익 창출에 마음을 쏟다보면,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다. 제팻 스튜디오가 처음부터 고민하던 일이다. 제팻 스튜디오가 주식회사로 먼저 창업하고, 뒤에 마을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제팻 스튜디오가 주식회사로서는 전문분야의 일들(영화의 영상제작 참여, 특

수효과, 애니메이션 제작, 홍보영상 제작, 기업의 이미지 디자인, 홍보책자 디자인 등)을 프로젝트로 진행한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 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부에서 많은 일감을 가져온다. 외부에서 가져온 일감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홍보책자를 출판할 때 지역의 출판사를 활용하고,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 애쓴다. 마을 기업 제팻 스튜디오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제팻은 열심히 일한다. 주식회사 제팻이 자부심을 갖고 씩씩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을 기업 제팻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다. 제팻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주식회사로 창립한 뒤 마을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둘 같은 하나로써 열심히 달리고 있다.



마을기업으로서의 재능기부 활동



제팻 스튜디오3

마을 기업을 위한 디자인 마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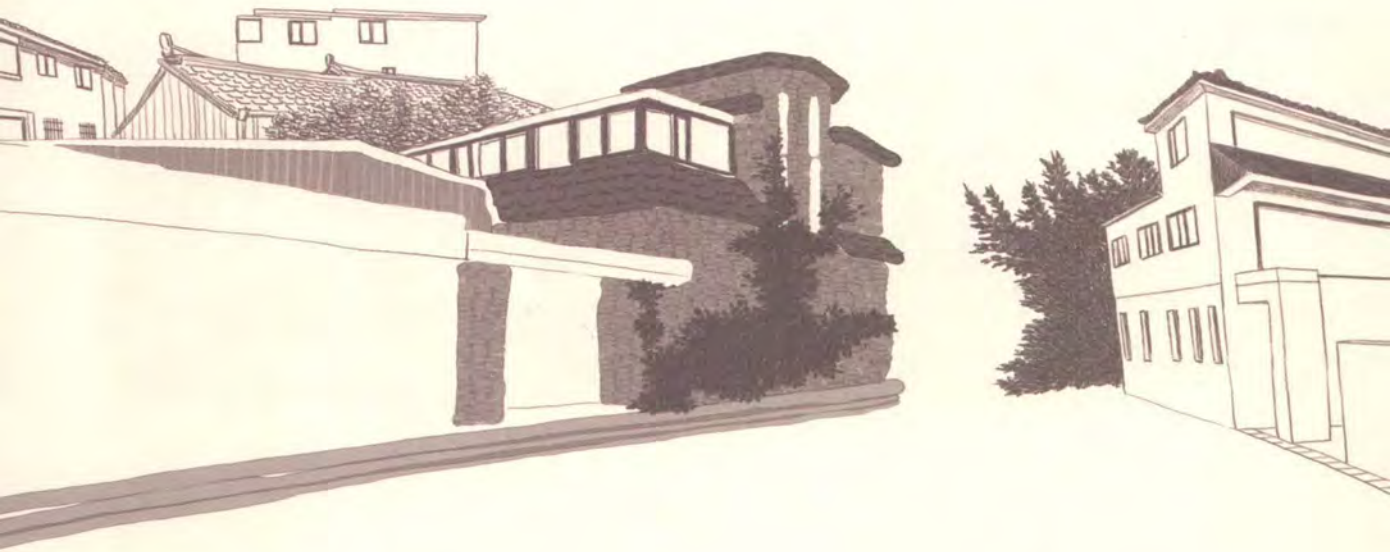
제팻 스튜디오의 '제팻'은 동화 '피노키오'에서 가져온 이름이다. 제페토 할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이 죽은 나무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무 인형 피노키오를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제팻 스튜디오는 그렇게 되고 싶다. 모든 사업에는 홍보가 필요하다. 마을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마을 기업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제팻 스튜디오는 마을 기업을 위한 디자인 마을기업이 되고 싶다. 홍보 책자를 만들어 주고, 기업의 CI를 제작해주고 마을 기업 간의 소식을 서로에게 전해주고, 마을 기업에서 필요한 모든 디자인을 해 주고 싶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인정을 가지고 마을 기업을 디자인 해주고 싶다. 마을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소식지를 발행하고, 그렇게 제팻 스튜디오가 애쓰는 일들은 지역 안에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로를 돕는 일은 기업들이 살아가는 '숨'이 될 것이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에게 생명의 씨앗을 넣어 준 것처럼 제팻 스튜디오는 마을 기업들에게 숨 한 조각 넣어주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디자인하고 있다.



글: 박은주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1. 28



46

재택맘들을 위한 정리 수납 코디네이터 자격증 2급 과정과
방문 돌봄 활동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내 마을 기업들의 생산품 판매를 위한 유통 사업을 한다.



좋은터

주소 | 군포시 산본로 339 보람타워 513호
전화 | 070-7517-6754



워킹맘과 재택맘이 모두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좋은터

나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될 때

일하는 엄마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를 돌보는 일이다. 퇴근할 때까지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만나는 엄마와 자녀는 지쳐있다. 엄마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자녀에게 갖는 죄책감을 덜 수 없다. 누군가 집에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원하게 된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숙제를 해놓고 저녁을 먹고 목욕을 마친 말간 얼굴로 아이가 웃으며 맞아 준다면, 꼭 껴안고 오늘 하루 재미있었니? 라고 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터는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생겨난 사업이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설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좋은터가 아닐까? 사업을 구상한 권연순 씨가 대표가 되고, 좋은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주가 되어 좋은터는 주식회사로 출발했다. 좋은터는 개소행사인 '마을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 강연을 기획하고 지자체에 행사를 알리는 것을 계기로 마을 기업에 참여하게 되고 지원도 받았다. 그런 지원들이 마중물이 되어 '좋은터'의 첫 사업 '엄마 친구네'가 시작되었다.

학교를 마치면 엄마친구네로 가는 아이들

'엄마친구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에 개설되어 있는 좋은터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다. 좋은터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홈페이지를 둘러보는 일반 회원이 될 수도 있고, 돌봄을 이용하는 소비자이기도 하고, 다른 자녀를 돌보며 수입을 올리는 좋은터의 근로자이기도 하다.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집에서 일하는 엄마(이하 재택맘)는 돌봄이 가능한 시간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기록해 놓는다.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이하 워킹맘)는 원



회원 소모임 활동



지자체 행사에 참여한 '좋은터' 부스

하는 시간과 재택맘의 시간이 맞는 경우를 찾아 돌봄 예약을 하게 된다.

좋은터는 워킹맘에게 시간당 정해진 돌봄비를 받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재택맘에게 지급한다.

'좋은터'를 알리기 위해 지자체 행사마다 모두 참여한 덕분에 회원수는 점차 늘어나고 회원들 중 '엄마친구네'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났다. 하지만 모든 것이 처음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방학을 맞이한 재택맘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여행을 가느라 워킹맘의 아이를 돌볼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터는 방문돌봄도 하게 되었다. 자녀를 다 키우고 시간이 많아진 엄마들이 재택맘으로서 방문 돌봄 활동가가 되었다.

돌봄을 부탁하게 되는 워킹맘도 아이를 돌보게 되는 재택맘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다. 워킹맘도 재택맘도 1회 교육은 필수이며 방문 돌봄을 위해서는 15시간 돌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돌봄에 대한 마음이 같지 않으면 사

람과의 관계에서, 더욱이 예민해 질 수밖에 없는 자녀에 대한 문제에서 편안해 질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친구가 집으로 와주고, 초등저학년들은 학교가 끝나면 엄마친구네로 간다. 엄마 친구는 멀리 살지 않는다. 익숙하고 편안하다. 함께 저녁을 먹고 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재택맘과 워킹맘의 만남, 마을기업과 공공기관의 만남

재택맘과 워킹맘으로 이루어진 회원들은 종종 소모임을 갖는다. 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과 내가 돌보는 아이의 엄마는 함께 관심 있는 것들을 나눈다. 천연샴푸를 만들기도 하고, 영어동화 읽어주는 모임을 갖기도 하며, 정보를 나누고 신뢰를 쌓는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그 밑바닥에 진심어린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돌봄네트워크 활동은 2014년, 지역내에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빠하고만 사는 '부자가정' 돕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위



회원소모임활동2

해 비영리단체 '좋은터를 만드는 사람들'을 결성했다. '엄마친구네'에 이어 '좋은터'는 재택맘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정리정돈협회와 협약을 맺고 수납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좋은터'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일 또한 마을기업으로써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 마을마다 '좋은터'가 있다

'좋은터'는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정관에 기업이익의 70%를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환원에 쓰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2014년 6월 8명의 회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창업 당시 출자

한 대주주의 주식 보유를 50% 이하로 줄였다. 언젠가 모든 주식을 회원들에게 양도하게 되면 '좋은터'는 협동조합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 곳은 어디에나 있고, 엄마친구는 부족하다. 누군가 어느 지역에서건 '엄마친구네' 사업을 하고 싶다면 '좋은터'는 적극 도울 것이다. 다만 '좋은터'의 마음가짐, '좋은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군포시에서 시작된 '좋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엄마친구네'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엄마친구네'가 필요한 지역의 공동육아모임 엄마들이 좋은터를 찾고 있다. 생각과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재택맘 돌봄교육



재택맘 돌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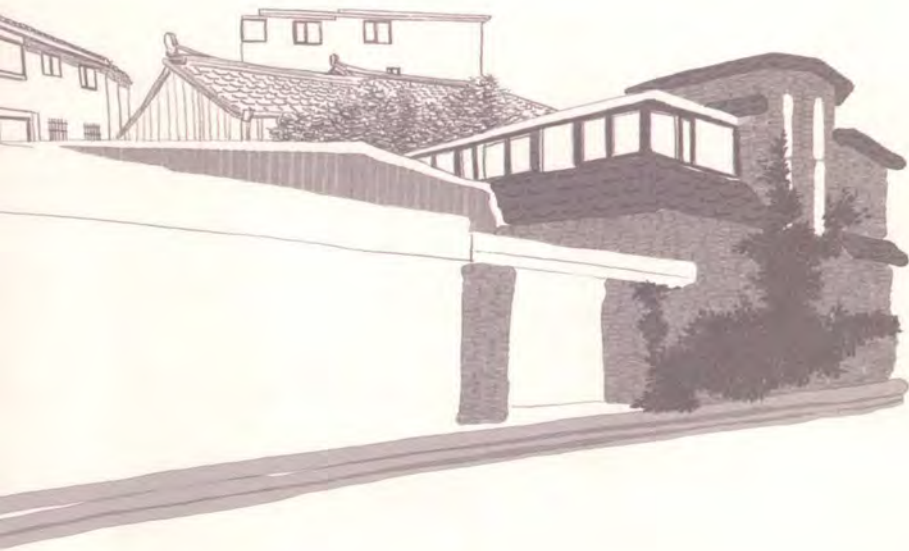


수납 코디네이터 교육

일, 그리고 실천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하는 길이다. 전국 곳곳에 '좋은터'를 만들고 엄마친구들이 내 아이를 돌봐주는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다.



글: 박은주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19



47

성남시 수정구 주민들의 신용 협동조합.
금융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교육사업과
지역사회공동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주민신탁

주소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주민신탁행복빌딩 101호
전화 | 031-755-4968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된다

주민신협

1997년 IMF가 터졌고 우리나라는 공황 상태가 되었다

속속들이 도산하는 기업들이 줄을 섰고 종합주가지수는 400선 아래로 붕괴되었다. 가계 부채를 감당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집값의 붕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했고, 이도 저도 못할 시에는 집을 반값에 팔거나 세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한마디로 나라가 도산을 한 것이고, 금융계에도 찬바람이 몰아쳤다.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준미달 금융업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120개 이상의 금융업들이 몰살하게 된다. 주변 마을금고도 문을 닫았다. 당황한 사람들은 넣어둔 돈을 회수하려고 줄을 섰다. 이럴 때마다 '주민신협'은 곳곳하게 버텼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 달라고 조합원들을 설득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일일이 조합원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회유했다. 그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출자금도 다시 늘어났다. 고통스러웠던 IMF 때도, 2003년 찬바람이 불 때도, 크고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서로 버텼다. 그리고 단단해졌다. 2015년 2월 6일, 오늘은 35차 '주민신협 정기총회'가 있는 날이다.

SINCE 1979

1979년 주민교회를 중심으로 47인의 조합원으로 '주민교회신협'이 만들어졌다. 출자금 47,800원. 조합원들이 천 원씩을 출자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당시의 천 원이라는 돈은 현재의 화폐가치로 만 원쯤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지금이나 그때나 큰돈은 아니지만 가난한 교인들에게는 맘을 먹어야 하는 돈이다.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모아 '주민교회신협'은 만들어졌고, 교인들의 활동은 점차 교인들만이 아닌 지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지역사람들과 같이하는 경제운동이야말로 '진정한 사회공동체이자



“ 지역사람들과 같이하는 경제운동이야말로 '진정한 사회공동체이자 협동조합의 정신'이라 판단했기에 '주민교회신협'이 아닌 지역으로의 '주민신협'이라는 이름으로 수정구 태평동에 자리를 잡게 된다. ”

협동조합의 정신'이라 판단했기에 '주민교회신협'이 아닌 지역으로의 '주민신협'이라는 이름으로 수정구 태평동에 자리를 잡게 된다.

5만원으로 주인의 권리를 누려라!

출자금 5만원을 내면 주민신협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 돈이면 '주민신협'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반면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 그중의 대표적인 부분은 해마다 지급되는 배당이다. 배당은 직접적으로 조합원에게 할당되는 금융적인 부분과 조합원의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통합한다. 2014년의 배당률은 3.3%의 직접배당

과 0.91%의 간접배당(복지배당)으로 실배당률 4.21%이다.

복지배당은 참으로 매력적이다. 조합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생활문화적인 부분이 그러하다. 150평가량의 공간을 제공하여 그곳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제 1기 경제교실



나는카페

먼저 조합원들을 위한 생활프로그램의 진행이다. 공간이 넓다보니 주민생활관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실버댄스, 노래교실, 요가 같은 생활체육의 활용도가 높다. 참여자가 많다보니 반을 나누고 시간도 나눠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이다. 여행도 간다. 버스는 '주민신협'에서 준비한다. 여행의 경비는 개인의 부담이지만 같은 비용으로 훨씬 나은 패키지여행을 즐길 수 있다. 2주에 한 번씩 등산도 가고 등산이 힘든 조합원들을 위한 온천체험, 둘레길 걷기 같은 테마여행도 간다. 뿐만 아니다. 2013년에 개관한 '성남 시작은도서관'에서는 청소년과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책사랑모임' '영어회화' '바람개비스쿨'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린이 장터행사'를 통해 협동조합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도 한다.

이곳에서 쌓인 친분은 조합원들의 친목과 의리를 다진다. 서로가 주최자이고 참가자인 것이다. 스스로 반장을 뽑고 충무를 뽑아 회비를 걷

고, 감사비를 지급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비한다. 강요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잘 운영된다.

주민신협 행복빌딩

35년차의 '주민신협'은 태평동본점을 시작하여 수진점과 신흥점 등의 두 곳의 분점을 둘 정도로 성장했다. 태평동에 위치한 '주민신협'본점은 건평이 1500평가량의 5층 건물이다. 소유주는 '주민신협'. 입주업체들은 다양한 협동조합들이다. 다른 곳에서 힘들게 운영되는 협동조합들을 모아서 이곳에 입주시킨 것인데, 세를 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인큐베이팅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들의 입주조건은 다양하다. 조건부로 운영되는 이 공간들은 당연 다른 곳보다 세가 싸거나 없는 곳도 있다. 이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 '주민신협'의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의료생활 협동조합, 초록사과인형극단, 주민생활협, 나는카페, 태평동락 관리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들이 모여 있다.

'나는카페'는 '주민신협'의 1층 로비에 위치한다. 장애우 3명과 이를 돕는 조합원 1명으로 구성된 "나는카페"는 로비를 지나 신협으로 들어가는 동안의 향기를 담당한다. '주민신협'을 나올 쯤 아메리카노 한잔을 주문하게 된다.

'태평동락 관리협동조합'은 건물관리 협동조합으로 건물관리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다. 이곳은 '주민신협'에서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신협본점의 건물관리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곳을 거점으로 저렴한 비용과 높은 수준의 건물관리로 사회에 환원할 사업계획을 꿈꾼다.

'주민신협'의 주차관리아저씨는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는 자부심 가득한 도도한 눈빛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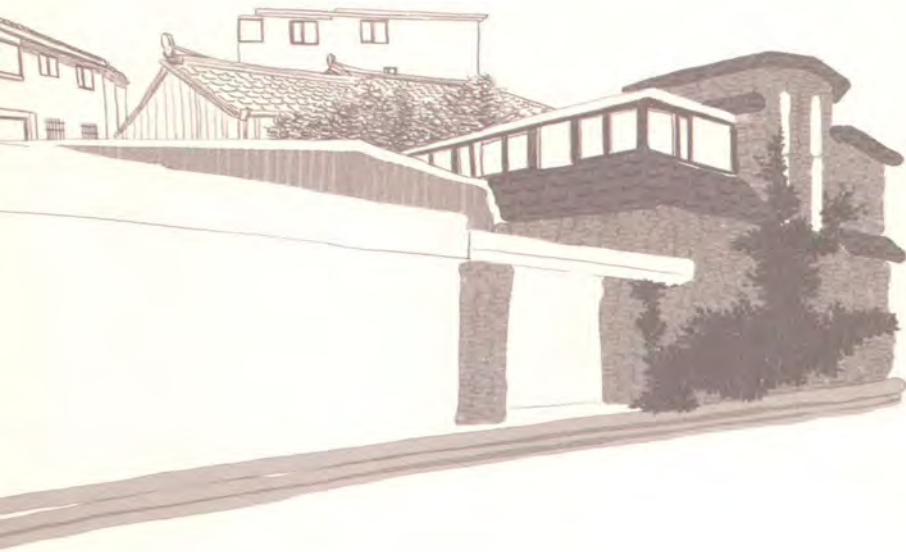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된다

아이가 태어난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 '주민신협'에서 출산축하금이 지원된다. 아이는 잘 자라 학교에 간다. 점심시간이 되면 엄마들공동체가 만든 맛나고 깔끔한 영양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장학금을 받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픔을 참을 필요는 없다. 동네에 있는 의료생협에 가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결혼을 할 때쯤 '주민신협'의 5층에 위치한 야외 결혼식장에서 나만의 셀프결혼식을 올린다. 아이가 생기고 집 장만을 할 때는 '주민신협'에서 부족한 자금은 대출을 받아 천천히 갚아나갈 예정이다.



글: 이진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4



48

아파트 관리 사무소 2층의 유휴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고, 마을 주민들의 재능을 이용해 강좌를 열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참새방앗간

주소 | 시흥시 정왕산길로 139번길 시화 삼성 아파트 관리동 2층
전화 | 031-497-6191



참새방앗간의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참새방앗간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한다

1996년 완공된 시화 삼성아파트는 15년이 지나자 아파트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비용이 필요했다.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서로 부딪히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 소장, 부녀회 회장 등이 모여 고민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게 문제는 해결되었다.

문제가 발생하고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껏 모르고 지내왔던 이웃들과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일이 일상에 활력이 된다는 것, 작은 기쁨이 된다는 것이다. 소중한 깨달음을 이번 일로 끝낼 수는 없었다. 2012년 1회 시화 삼성 아파트 주민들의 노래자랑 대회가 열렸다. 마을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어렵게 가까워진 주민들 간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바람에서 비롯된 행사였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의 행사였다. 외부의 도움 없이 오롯이 아파트 주민들이 준비하고 만든 행사였다. 행사는 생각보다도 더 기쁘고 활기차고 보람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었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는 없을까?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아파트 관리소 건물 2층은 오랫동안 빈 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곳을 어떻게 활용할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주민 대표회, 노인회, 부녀회, 관리소에서는 각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모여서 의논했다.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어린 자녀들도 열심히 드나들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작은 도서관'이었다.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책사대회



맹공이 작은 도서관

세계 곳곳의 작은 도서관들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은 방문해 보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생겨난 곳이 작은 도서관 '참새방앗간'이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공부

방앗간을 들르지 않고 지나는 참새는 없다. 마을 주민들이 참새라면 작은 도서관은 방앗간이며, 도서관을 고민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주민 자원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 관리소 소장, 아파트 대표회 회원들, 재능을 나누는 강사, 도서관을 청소하고 단장하는 주민들)은 곳간을 지키는 곳간지기이다.

방앗간은 참새들에게 행복한 공간이다.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이야기 나눌 공간이 있으며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도 한다. 아기 참새들에게는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책이 있고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있으며 엄마들이 만들어 주는 먹을거리도 있다.

만나다 보면 이야기 나누게 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고, 새로운 생각들은 일을 만들어낸다. 주민들은 서로의 재능을 알게 되고 나누는 방법을 고민한다. 젊은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육아를 실천한다.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을 안에서 해결하려 노력하고, 안되면 외부 강사라도 초청해서 배운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실천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런 공부와 고민들이 '참새방앗간'이 생긴 이후로 여러 활동들을 만들어냈다. '참새방앗간'에서는 많은 강좌가 열린다. '참새방앗간'을 첫 걸음으로 시작해 마을 주민들은 텃밭을 분양받아 함께 농사도 짓는다. 아파트에 노후된 공간이 있으면 힘을 모아 고쳐나간다.

'참새방앗간'의 곳간지기들은 일 년에 한 번 입주민들을 위한 '한마음 페스티벌' 축제를 연다. 축제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강좌에서 재능을 배



덧밭을 분양받은 마을 주민들



참새방앗간 공부

운 주민들의 실력 뽑내기도 있고, 첫밭자국을 떼게 해준 노래자랑대회도 있다.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노인회 회원인 어르신들도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아파트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

마중물이 되어주는 공공기관의 지원

도서관을 만들기로 결정할 때에도, 여러 강좌를 열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에도 비용에 관한 고민이 있었다. 주민들을 위한 일이지만 모든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게 할 수는 없었다.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일에도 찬성할 수 없었다.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무엇이 먼저인지 잊게 되고 자칫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깊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대표들은 오랫동안 의논하고 오랫동안 고민한다. 많은 의견을 나누고 공부한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고 잘

실행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된 일들에 있어서는 힘을 합쳐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한다.

오랜 의논과 많은 의견은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 정보는 하고자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받게 된 지원금은 작은 도서관 만들기와 강좌열기, 여러 행사들의 마중물이 되었다.

시흥시에서 진행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단지로 선정되어 받게 된 지원금으로 지금의 작은 도서관 '참새방앗간'이 만들어졌다. 지원금으로는 최소한의 기술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쓰이고 주민들의 노력과 재능기부로 도서관이 완공되었다. 시흥시 보건소에서 진행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단지로 선정되어 받게 된 지원금은, 필요하지만 무료로 할 수 없는 강좌들의 강사 인건비로 쓰였다. 시흥중앙도서관에서 하는 '마을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에도



아나바다장터

신청해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장, 책상, 컴퓨터등과 책 대여 권을 지원 받았다. 지원금들은 마중물이 된다. 필요한 비용의 최소한의 부분을 채워주고, 나머지를 주민들이 모여 완성해간다. 공동체란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그런 삶을 도와주는 일은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이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마을 공동체에게 마중물은 중요하다. 그렇게 시작된 마을 공동체는 이웃마을에게 손을 내민다.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았으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 커다란 연대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더 넓고 편안해진 작은 도서관 - 따복과 함께

관리소 건물 2층은 '참세방앗간'과 아파트 대표자 회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대표자 회의 공간은 누군가 상주해 있는 곳이 아니었고, 도서관 공간은 여러 강좌가 열리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 공간지기들은 오랫동안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서관과 대표자 회의 공간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기로 했다. 도



아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수영장

서관을 좀 더 넓고 편안하게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다. 어떻게 만들어 갈지, 어떤 모양이 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했다.

그리고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의 마을 주민 제안 사업에 참여했다. 마을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한 지원금이 나왔고, 지원금으로 꼭 필요한 재료를 구입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의 인건비로도 사용했다. 그 외 대부분의 일들은 모두 주민들이 함께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편안하고 안전한 '참새방앗간'이 재탄생했다. 도서관의 천정에는 조명이 많다. 구석에서 책을 보는 아이들에게도

조명은 비춰진다. 아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주민 모두가 노력하고 참여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에 더욱 소중하다.

문제 발생으로부터 시작된 시화 삼성 아파트 주민들의 협력은 아파트도 얼마든지 마을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아파트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협력보다는 다툼이 많게 된다. 각이 뾰족한 사각형의 건물 안에 칸칸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는 삭막한 개인을 지우고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안겨준다.

세대 간 갈등을 줄여주고, 이웃을 돌아보게 한



책 축제행사에 참여



시흥시의 희망마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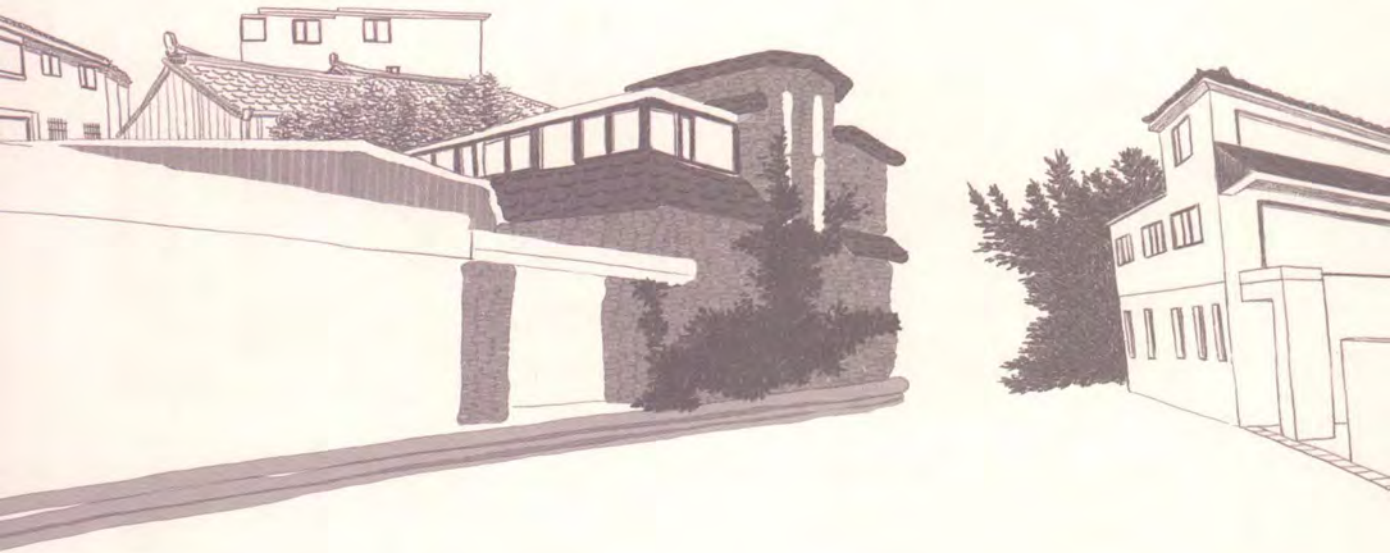


새롭게 단장한 '참새 방앗간'

다. 엄마 손을 잡고 작은 도서관 '참새방앗간'을 이용한 아이들은, 옛 마을 공동체와는 빛깔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글: 박은주
(경기도 다북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16



49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기존 마을에 살고 계시던 어르신들의 옛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존에 성공한 마을이 있다.



칠보산 마을

주소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402-17
전화 | 010-4214-8470



수원 칠보산 공동체 마을 이야기

칠보산 마을

기존의 마을이 도시화가 되며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는 주택부족, 지가상승, 교통문제, 환경오염, 각종 범죄, 인간소외 현상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 중 하나는 기존 주민들과 이주 주민들 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 상황이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기존 마을에 살고 계시던 어르신들의 옛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존에 성공한 마을이 있다. 수원 칠보산 마을이 바로 그곳이다.

공동육아를 통해 공동체로 거듭나다

칠보산 마을은 성미산 마을이 화두로 등장했던 1990년대 중반,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2000년 칠보산 마을에서도 마을에 기여를 하고 공동육아의 필요성을 느낀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면서 시작됐다.

2001년에 '사이좋은 어린이집'이 문을 열고 이곳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성장하며 어린이집만으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걸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 다음 해인 2002년에는 '사이좋은 방과후'를, 2005년에는 대안학교인 '자유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함께 교육시켰다. 칠보산 마을은 '다 같이 아이를 키우자'는 부모들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직접 교사를 선발하고, 교육 과정을 의논했다. 우리의 전통문화도 알려주고 싶었고, 자연을 벗 삼아 자유롭게 뛰노는 방법도 가르치고 싶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사는 방법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그 방법을 논의하다 보니 부모들이 공동체의 삶을 배우게 되었다. 아이가 한 뼘씩 성장할수록 부모들도 건강한 삶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 교육공동체들이 기틀을 잡고, 아이들도 중고등학생이 되자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진 초창기 부모들이 교육을 벗



도토리교실 작품들

어나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2008년 초 창기 부모들이 모여 모임을 만들며, 그때부터 교육공동체의 틀을 벗어나 사회적 공동체들이 하나 둘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의 소통구 '마을신문'

공동체가 늘어나며 마을 공동체 간의 소통의 매체로 마을신문을 창간해 마을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기자학교'도 열어 참여의 기회도 확대했다. 주민기자학교를 열면서 마을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을의 당면과제를 고민하는 마을 언론이 되기도 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확산되고 공동체 조직원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마을 활동가로 활동이 활발해지자 마을 활동가들을 괴롭힌 것은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 상황이었다.

처음엔 마을활동이 무엇인지 몰라 가만히 있던 기존 주민들이 마을 활동가들에게 반발심을 갖

게 된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마을 활동가들이 예산을 타먹기 위해, 혹은 재개발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 마을을 헤집고 다닌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기존 주민들과 유입된 주민들의 갈등을 풀기 위해 마을기자들이 마을신문에 실을 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기존 주민들(주로 어르신들)을 만나 마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갈등은 점차 해소되었다. 마을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쌓여만 갔던 오해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 둘씩 해소되고, 마을에 오래 살았던 어른들의 옛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이사 온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 더욱 깊은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구도심, 구상권 회복 프로젝트

그 무렵 한창 서수원이 개발되면서 마을은 택지



자유학교



봇물장터

개발로 들쭉였고, 대형마트를 앞세워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자 칠보상인들이 구도심, 구상권으로 전략해 어려움에 처했다. 마을신문에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리자, 공동체들이 함께 머리를 모았고 구상권에 주민문화공간을 만들자는 대책이 나왔다.

그 대책으로 구상권에 '칠보문화놀이터'를 만들었다. 구상권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주민들도 계속 구상권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다.

칠보문화놀이터는 365일, 24시간 주민 공간이 돼 다양한 동아리 활동부터 모임장소, 강의실로 활용되고 지난해부터는 구도심을 연구하는 '마을연구소'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칠보 마을 거리 축제 '칠보 봇물장터'

전통문화 교육을 위해 공동체 초창기부터 매년 '한가위'와 '정월대보름' 행사를 해왔다. 각각의 공동체 대표들과 실무진을 선발해 축제를 함께 준비하며 '다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고 공동체 구성원들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참여해 의식의 범위가 넓어졌다.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는 '차 없는 날'로 정해 거리축제가 열리고 있다. 수원시 생태교통과 공모사업에 칠보상우회, 칠보상인협동조합, 금호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칠보산마을연구소, 칠보문화놀이터, 칠보산마을신문이 중심이 된 '칠보 봇물 장터 추진위원회'가 옴모, 당선돼 진행하게 된 칠보 봇물 장터이다. 축제 기간 동안 손수건 황토 천연염색, 천연 비누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칠보산마을연구소는 칠보 아고라 진행과 '칠보 꽃밥상'에서는 몸에 좋은 유기농 음식을 준비한다.

건강한 먹을거리 교육

'흙, 사람, 따뜻한 관계 맺음' 반찬가게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지금도 농사를 짓는 칠보지역의 특성을 살린 칠보산마을 건강한 먹을거리 공동체 '칠보꽃밥상' 반찬가게가 가장 최근에 문을 열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



칠보 꽃밥상



자유학교 김장축제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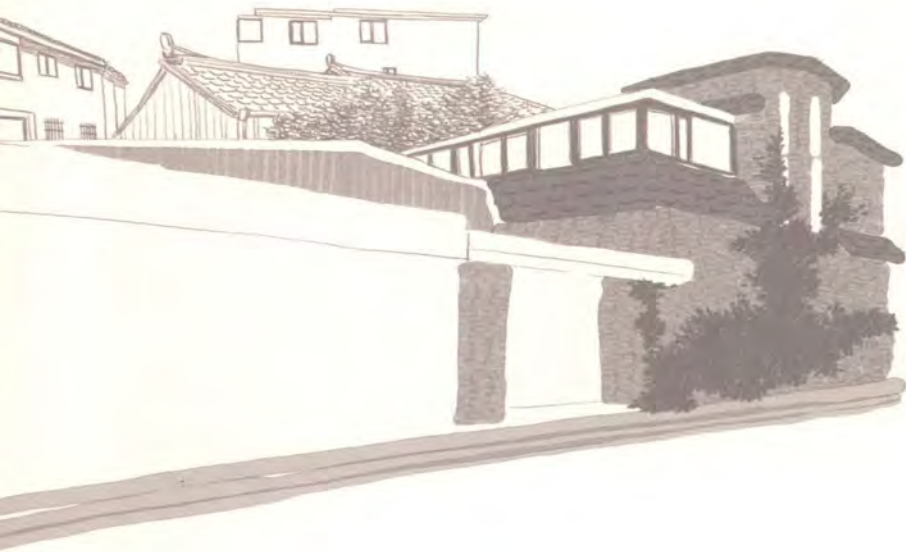
한 교육은 그만큼 중요한 방향성 때문이다. '칠보꽃밥상'은 친환경과 로컬푸드 반찬가게로 건강한 농민, 건강한 흙, 건강한 아이들, 건강한 관계 그리고 건강한 경제를 추구하며 친환경 밥상 나눔 공동체다. 생협 식자재, 얼굴 있는 로컬푸드로 믿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맛있는 반찬, 안전한 도시락, 특별한 일품요리, 현미 채식, 이유식 등 건강한 맞춤식을 제공한다. 또한 '흙, 사람, 따뜻한 관계 맺음'이다. 마을 눈과 발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으로 건강한 흙과 건강한 이웃을 만난다. 장 담그기, 칠보 자연초 효소 만들기, 공동 장독대, 텃밭 밭 짓는 운영, 고마운 밭 지렁이와 논 물벼룩 살리기, 시농제와 가을걷이 등의 활동을 한다. 이웃의 재능이 마을기업이 되고 마을기업을 통해 꿈을 키우고 이익은 지역에 환원한다. 텃밭에서 남은

작물을 나누고, 로컬푸드 이용으로 환경을 살리고, 요리 재능이 소박한 용돈이 되고, 재밌는 일자리로 맛있는 마을기업을 만든다.

현재 칠보산 마을 속 공동체는 10여 개에 이른다. 칠보산 마을의 시초가 된 공동 육아 협동조합 '사이좋은 어린이집'과 '사이좋은 방과후', 대안학교인 '자유학교' 등 교육공동체를 비롯해 도토리교실, 한살림지역모임, 청소년 공부방, 마을신문, 꽃밥상, 마을연구소 등 문화공동체들이 연합해 마을주민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글: 시경숙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10



50

콩나물신문은 부천 지역의
서민들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담으며
열린 편집과 취재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콩나물신문 협동조합

주소 | 부천시 오정구 수도로 69 (삼정동)
전화 | 032-672-7472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콩나물신문 협동조합

속닥속닥... 소근거림의 시작

현재 종이 신문은 예전에 비하여 구독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이에 따른 사람들의 바뀐 일상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으로 인해서이다. 그런데 문화부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에 따르면 일반신문과 인터넷 신문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신문에 기재되는 광고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역신문에도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신문사들이 미세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다수 서민들이 주류가 되는 지역신문은 다양한 이야기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식을 알 수 있으며, 지역의 서민들의 목소리도 꼼꼼하게 전해주고 있다. 콩나물신문사협동조합은 부천 지역 최초의 협동조합 형태로 탄생된 신문사이다. 콩나물신문사협동조합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신문사를 표방하며 다양한 서민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기를 희망하며 다양한 소재들을 담아가고 있는 언론협동조합이다. 현재 콩나물신문은 부천의 이곳저곳에 신문을 배부하고 배치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자세히 보아야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일반 중앙지는 멋지고 근사한 이름을 가지고 사회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콩나물신문은 콩나물 시루에 뽀뽀이 들어선 모습이 콩나물 시루 같은 부천의 모습을 연상시켜 만들어진 이름이다. 즉, 부천지역사람들의 일상과 밀착된 이름이고, 구체적인 이름을 쓰면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일상 그리고 현실에 주어진 문제들, 고민해 보아야 할 여러 갈등 등을 담고 있는 콩나물 신문은 부천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2주에 한 번씩 모아서 담아낸다. 신문의 내용은



오산 이사장

부천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부천과 관련된 사람이나 관련된 이야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부천이라는 한 공간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기에 콩나물신문은 부천과 관계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신문 만들기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어요

콩나물신문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에 대한 붐이 일어나던 당시 오정동에 위치한 담쟁이 문화원에서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탄생되었다. 콩나물신문은 먼 이웃과 함께 하고 모든 다양함을 존중하여, 상식이 통하는 믿음직한 신문과 즐겁고 행복한 신문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3년 7월 모임을 시작으로 총 22차례의 모임 이후 11월 16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준비모임 기간 동안에는 지역신문과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각자가 꿈꾸는 지역신문을 가꾸어 가는 과정과 지역신문에 거는 모습 등 다양한 신문 만들기에 대해

여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하였다. 콩나물 신문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종이신문 및 인터넷 신문 발행과 관련한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신문의 발행 및 판매, 신문의 밑바탕을 넓히기 위한 각종 기획사업, 신문운영에 필요한 각종 조사 연구사업을 한다. 둘째,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지역 안 협동조합 네트워크 만들기, 지역소모임 운영, 조합원과 시민을 위한 교육, 문화, 사회사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공공단체가 맡기 사업, 조합원이 요구하여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한다.



콩나물 신문사 전경



콩나물신문 준비 3호



한효석 담쟁이 문화원장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열린 편집회의

일반 신문사의 경우 각자 맡은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다. 그러나 콩나물신문은 조합원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콩나물신문사에 대한 열정은 조합원이나 이사 그리고 기자까지 누구나 열정으로 가득하다. 조합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일인다역의 역할을 즐겁게 소화한다. 편집장도 조합원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며 기사도 조합원이 쓴다. 편집장의 임기는 3개월로 돌아가며 책임을 맡는데 이는 한 사람만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는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은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기자 또한 기사거리가 있는 조합원이면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신문제작과정을 살펴보면 편집장 중심으로 기획회의를 열고 여기서

기사방향이나 내용이 정해진다. 이후 각 기사에 대해 조합원이 서로 취재 및 기사작성의 역할을 맡는다. 그렇게 해서 기사가 만들어지면 회의를 한 후 가편집안을 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게 된 후 결정을 하여 신문이 완성된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퍼가세요

광고에 의하여 신문사가 운영되는 형국임에도 콩나물신문사협동조합은 광고보다는 독자확보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광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광고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홍보비의 비중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대신 조합원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광고에 관한 이야기는 콩나물신문사협동조합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콩나물신문 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 발췌

콩나물신문의 광고는 편집하다 빈 공간이 나오면 광고를 넣는다. 주로 조합원 업체에 대한 광고가 많다. 이는 편하고 빠른 길임을 알면서도 협동조합의 정신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신문의 내용도 중앙지와 다르게 필요한 기사가 있으면 누구나 퍼갈 수 있게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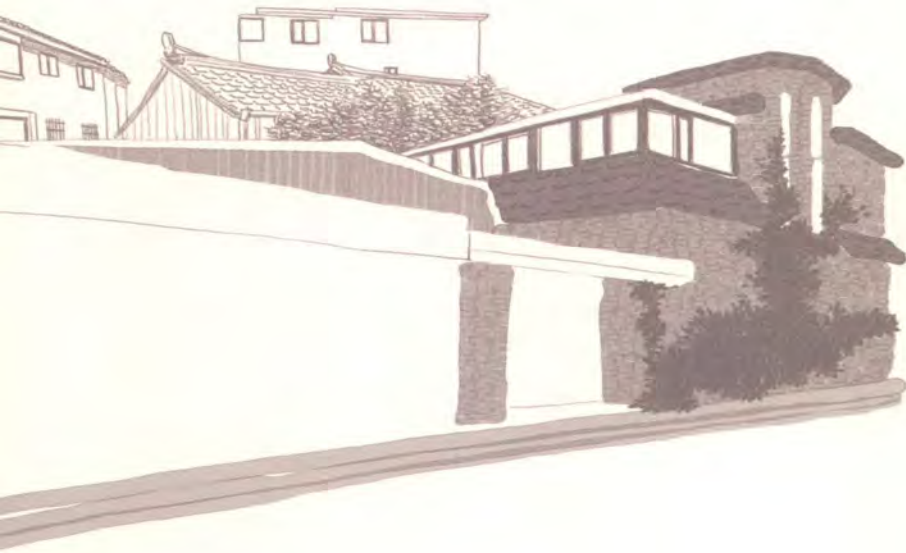
무생물을 생물로 태동시킨 책임감을 위하여

협동조합은 목적과 조직을 꾸리는 방식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조직과 다르다. 현재 협동조합

지역신문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함부로 휘두를 수 없다. 1인 1표 사람중심의 의사결정구조이기에 기사 편집권을 특정 이익 단체나 특정한 1인이 가질 수 없다. 콩나물신문사협동조합은 신문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이들에게 일정의 일자리 제공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하여 조합원의 증가와 구독자 증가에 힘을 쏟고 있다.



글: 김선희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14



51

토마토농사가 생업인 평화마을은
토마토농사를 기반으로 각종 농사체험과
주말농장 등을 기반으로 마을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마을단위 협동조합이다.



퇴촌토마토평화마을

주소 |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299-2번지
전화 | 031-761-7166



토마토가 익어가는

퇴촌토마토평화마을

퇴촌면 정지리에 살다

퇴촌평화마을은 참 시골이다. 이곳에서 몇 십 년 또는 기 백년을 자리 잡은 토착민들은 씨족사회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보수적인 집단이다. 이곳에 새로이 정착하기 위해 찾아온 이주민들은 배타적인 그들의 모습에 움츠러들고 두려워진다. 마을사람들 6명을 기반으로 “퇴촌토마토평화마을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이주민들이 낯 자리는 없었다. 혹자는 몇 십 년이 지나도 그들과 어우러지지 않는 것이라 했다. 그들과의 소통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퇴촌토마토평화마을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토착민들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조직을 이끌어갈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추진력 있는 젊은 에너지였다. 젊은 이주민들 또한 이들을 도와 퇴촌평화마을에 정착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보수적인 조합원들에게는 이주민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합원 중 마을이장의 주선으로 두 명의 젊은 이주민이 “퇴촌토마토평화마을협동조합”의 실무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퇴촌토마토평화마을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은 그들이 담당한다. 그들은 “퇴촌토마토평화마을협동조합”의 손과 발이 되어 분주히 일한다. 묵묵히 그리고 천천히 퇴촌평화마을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함박눈이 퇴촌면 정지리를 하얗게 덮어버렸다. 갑작스럽게 내린 눈은 마을을 이도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차도 다닐 수 없고 지붕마다 하얀 솜뭉치들이 한가득 내려앉았다. 눈을 쓸어 길을 만들고 주변정리를 해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대로가 되어 버린다. 이런 날은 차라리 아랫목에 가만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게 제격이다. 이를 뒤로



눈내리는 퇴촌평화마을

다가온 “컨츄리마켓” 행사만 아니라면 느긋하게 지금을 즐길 수 있겠지만 오늘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함박눈이다. 눈이 쌓인다고 해도 행사는 진행할 것이다. 오늘까지 15개 팀이 참가신청을 했고, 그들은 눈이 온다면 “이것 또한 경험이다”라는 생각으로 행사에 참여할 의지를 밝혔다. 행사 당일은 따뜻한 햇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본다.

컨츄리마켓으로 오세요!

“퇴촌토마토평화마을협동조합”은 매월 1,3주에 마을상품들을 직거래하는 “컨츄리마켓”을 개최한다. 벌써 6회째를 맞고 있는 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수공예품과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이다. 셀러 모집은 광주지역 사람들로 한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퇴촌면 사람들로만 구성하였으나 상품의 다양성이나 지역주민과의 소



컨츄리마켓의 여러풍경들

통이란 점에서 대상을 광주지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지역민들의 직거래를 통한 홍보와 자립을 위한 이유이기도 하다.

보통 25~30팀 가량이 참여하게 되는 이 행사는, 1만원의 참가비를 “퇴촌토마토평화마을협동조합”에 기부하고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하는 팀만큼이나 물품도 매우 다양하다.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은 물론이고 도자기, 빵, 쿨트소품들, 소이캔들, 손뜨게모자, 허브차, 코바늘 케이프, 이것저것 다채롭다. 한쪽에서는 간단한 먹거리도 판매한다.

여기서 판매되는 빵은 일품이다.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컨츄리마켓”에서 빵을 구입 후 재 주문을 하는 것이다.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 만든 것들인데 이웃과 나눠 먹다보니 맛있다는 입소문이 났고, 행사 중에 제일 먼저 매진되는 품목이 되었다. 이곳에서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약을 하거나 택배로 받기를 원한다.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광주시내에 있는 커피숍에 빵을 납품하게도 되었다.

퇴촌마을은 도자기로도 유명하다. 이곳에서 3대째 도자기를 굽는 도예가는 자신이 직접 만든 도자기들을 가지고 “컨츄리마켓”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다.

“퇴촌토마토평화마을협동조합”은 여기서 그들의 미래를 본다. 지금은 “행사”라 명하고 2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특별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자리를 잡고 “퇴촌 평화마을”하면 “컨츄리마켓”하고 연상되는 랜드마크로 성장시킬 꿈을 꾸고 있다.



컨츄리마켓의 여러풍경들

“ 퇴촌토마토평화마을협동조합은 여기서 그들의 미래를 본다. 지금은 “행사”라 명하고 2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특별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자리를 잡고 “퇴촌 평화마을”하면 “컨츄리 마켓”하고 연상되는 랜드마크로 성장시킬 꿈을 꾸고 있다. ”

열심히 일한 그대, 마셔라!

토마토가 주요 농작물인 “퇴촌토마토평화마을협동조합”은 토마토관련 사업이 많다. 인분을 이용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직거래를 하는가하면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이루어진다.

“토마토따기”부터 시작하여 토마토를 이용한 토마토주스, 토마토빙수, 파스타, 피자 만들기 같은 다양한 요리로 이어지는 “토마토체험”도 있다. 공중파방송에 홍보가 된 후 문의가 많이 오는 “토마토체험”은 예약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가족단위나 학급단위로 나눠서 하게 된다.

주말농장도 운영한다. 서울 근교라는 이점도 있어서 분양은 늘 조기 마감된다. 연 초에 주말농장 분양광고 후 1년 계약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텃밭에는 주인이 원하는 작물을 심고 “퇴촌토마토평화마을협동조합”은 이들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한다. 물을 준다든가 약간의 벌초, 또는 작물이 쓰러지지 않게 부목을 대주는 그런 것들 쯤이다.

“토마토체험”중에는 재미있는 코스가 있다. 농장에서 수확한 토마토를 이용해 주스를 만들어 보려한다. 깨끗이 씻은 토마토를 믹서에 넣고 난 후, 여기서 부터가 재미있다. 전기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가발전!! 믹서 옆에는 자가발전용 자전거가 우뚝 서있고, 사람이 올라타 열심히 페달을 밟아 믹서를 돌려야만 맛있는 주스를 먹을 수 있다.

아빠는 4살배기 어린 딸을 위해 자전거에 올라



토마토 체험중

앉아 열심히 페달을 밟는다. 아빠의 머릿속은 온통 어린 딸에게 맛있는 주스를 먹이리라는 생각뿐이다. 엄마의 뜨거운 응원속에 아빠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10여분이 지날 쯤, 주스 한 잔이 만들어 졌다. 어느 때 보다도 달콤하고 맛있는 주스다. 아이에게 먹이는 아빠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하다. 4살의 아이도 아빠의 사랑이 담긴 이 맛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전기를 이용해야하는 체험들은 모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열심히 일한 당신은 먹을 자격이 있다.

“스머들다”라는 것은….

“컨츄리 마켓”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손님이 세워둔 차를 가게 앞에서 빨리 치우라고 행사장 밖의 토마토 가게주인은 성화다. 냉담한 시선에 당황스럽고 난감하지만 치울 수밖에 없다.

아마도 “컨츄리 마켓”에서 토마토를 판매하기 때문일 것이다. 토마토 가게주인이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마을을 위한 행사라는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위협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짧은 생각이었다. 다음 행사부터는 토마토 판매는 하지 않을 거라 약속하고 행사에 필요한 먹거리를 부탁한다. 탐탁지 않은 토마토가게주인은 딱 잘라 거절한다. 다시 부탁하고 더욱 겸손한 태도로 한 번 더 부탁해 본다. 먹거리 담당은 토마토가게주인이 해주기로 하고 물론 토마토도 그곳에서 판매하게 된다.

다음 행사에 토마토가게 앞에 또 손님이 차를 세운다. 당황스러운 순간 토마토가게 주인은 자신의 캐노피를 치워주고 자리를 마련해 준다. “컨츄리 마켓” 행사가 다수의 마을행사로 번져가는 순간이다. 곁을 내준다는 것, 마을 안에 속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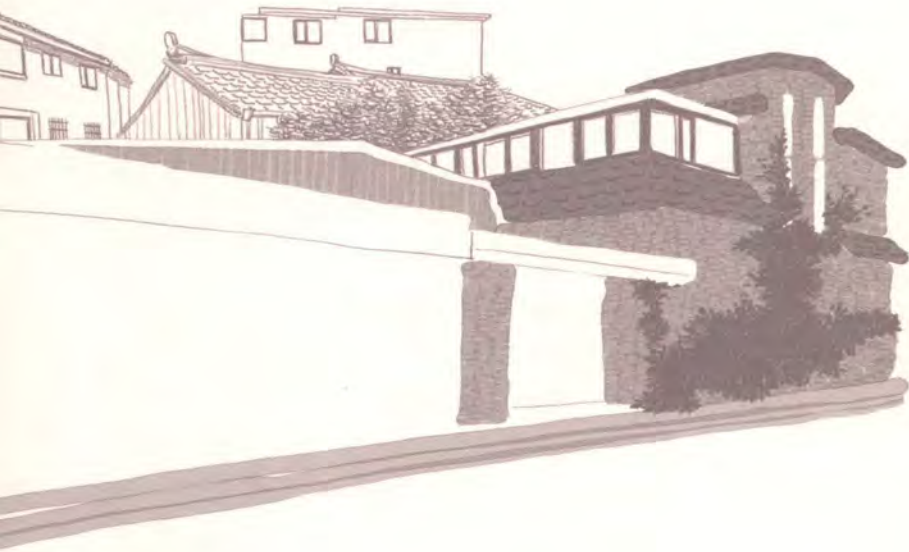
마을 공동체 “퇴촌토마토마을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마을 속으로 다가가볼 것이다. “절대 안된다”는 것은 없다. 한걸음씩 스머들 듯 조금씩 그들에게로 다가갈 것이다.



글: 이진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16



52

파주시 운정2동부녀회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세대 간의 간격을 줄이고
우리문화 배움과 나눔 장터를 진행했다.



파주 운정2동부녀회

주소 | 파주시 가온로 67 해솔마을 5단지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배움과 나눔 장터

파주 운정2동부녀회

운정2동은

파주시 운정2동은 운정신도시 개발로 인해 대부분 2000년을 전후해 입주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및 입주자 대표 선출과정에서 적지 않은 주민갈등을 겪는 성장통을 앓았다. 다행히도 성장통을 통해 주민들은 나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갖게 되었고 부녀회는 그 중간에서 독거어르신 및 소외계층 쌀·김치 나눔봉사, 바자회, 어르신 경로잔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매월 청소 및 정화활동 등을 펼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광복70주년을 맞아 올 8월 14일에는 중앙공원 분수대에서 태극기 타투스티커를 붙여주고 선착순 100명에게 시원한 물과 모닝빵 샌드위치를 나눠 주는 행사도 진행했다.

파복 새싹활동에 참여하다

운정2동부녀회는 파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새싹활동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발 빠르게 준비해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비로 320만원을 받았다. 자부담은 사업비의 10%인 32만원이었다.

부녀회는 아파트 단지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들이 전통음식문화계승을 통해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EM비누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했다. 새싹사업은 해솔마을1단지 9개동 668세대, 5단지 25개동 1390세대, 3단지 16개동 1274세대, 6단지 17개동 1525세대, 11단지



코바늘뜨기 강좌 수업

12개동 1165세대, 산내마을 3단지 15개동 865 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주민과 함께하는 코바늘뜨기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코바늘뜨기 강좌를 해솔마을1단지 두산위브 채움도서관 등에서 4회 열었다. 손뜨개가 익숙한 어르신들은 신이 나서 젊은이들에게 손뜨개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하고 젊은 세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코바늘로 손뜨개를 배우고 익히며 신나게 놀았다.

전통음식으로 세대 간 소통을 나누다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기 위해 두 번

째로 기획한 것이 전통음식문화 계승 프로그램으로 해솔마을6단지 커뮤니티룸 등에서 3회 진행했다. 찹쌀고추장을 함께 담그고 옛기름으로 전통식혜를 만들어 나누어 먹었다. 각 아파트 노인정에서 진행한 찹쌀고추장 담그기와 전통식혜 만들기는 그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큰 호응을 얻었다. 옛기름에 물을 부어 주무르고 졸이는 등... 전통고추장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또한, 어르신들과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고 나온 청소년 등 3대는 세대 간 간격을 넘어 스스럼없이 식혜를 함께 만들어 마시며 즐거워했다.



음식문화 계승 세대간 소통 프로그램



주민과 함께 하는 에코 비누 강좌



주인과 함께 하는 에코 비누 강좌 현수막

EM비누로 환경을 지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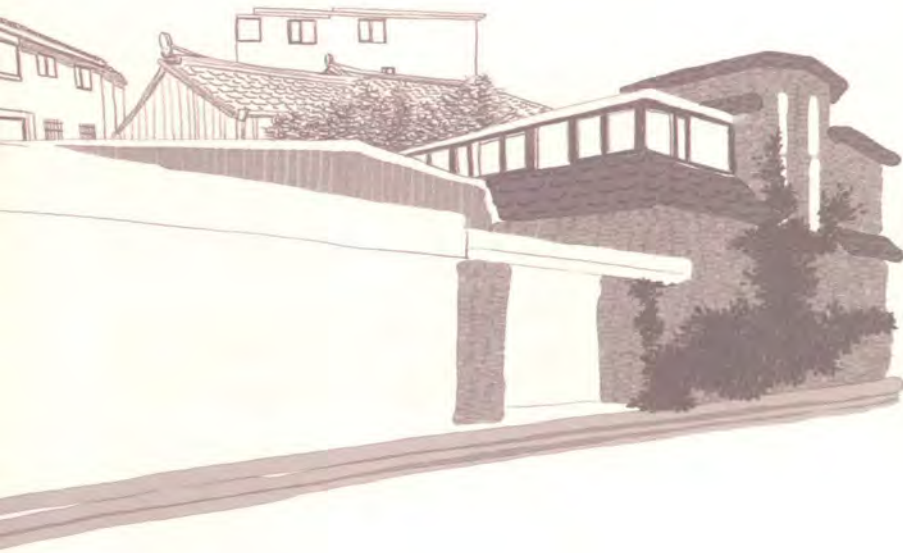
유해첨가물과 심각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연과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 EM비누 만들기는 산내마을3단지 노인정 등에서 3회 진행했다. 사업비가 부족해 재능기부로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마을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았다.

부녀회, 사회적경제를 넘보다

새싹활동은 운정2동 6개 마을에서 강좌가 골고루 이루어졌으며 200여 명이 참여했다. 주민 간의 소통과 세대 간의 소통은 물론 부녀회 활동에 호의적인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인원이 늘었다는 것도 큰 성과이다. 이를 계기로 아파트 주민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해 동아리방을 활성화하고 동아리방에서 활동하며 얻어진 공예품과 금년 새싹활동에서 큰 인기를 얻은 찹쌀고추장과 전통식혜, 손 뜨개등도 상품화해 한 자리에 모아 판매하고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의 착한 사회적경제를 꿈꾸고 있다.



글: 정필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29



53

독일어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들에게 독일어 강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독일문화원 내 독일학 연구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평택홈볼트학회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88 (광고홍재도서관)
전화 | 031-228-4639



Willkommen : 환영합니다

평택훙볼트학회(수원 독일어 연구회)

훙볼트 학회는? 아하!

유명 자동차 브랜드 BMW,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향이자 자동차산업 강국으로 불리는 나라는? 바로 독일이다. 이런 독일이 강세를 보이는 산업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바로 기계, 화학 산업이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종류 또한 독일의 주력산업과 비슷하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와 독일의 산업기술은 보완관계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과 독일의 전기자동차 제작기술 그리고 독일의 LED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LED 응용기술이 있다. 이러한 독일의 기술들을 선보이고 주민들을 위한 무료 독일어학당을 열자고 뜻을 모은 이들이 있는데 바로 평택 훙볼트학회다. 이들은 독일어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문화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민들을 위한 독일어학당

대학에서 독일어 관련 학과를 전공한 훙볼트 학회원들이 2014년 평택 장당도서관에서 시작하게 된 무료 독일어학당. 주한 독일문화원에 협조를 구했고, 문화원측은 독일 도서와 독일어 교재를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받은 독일 도서로 도서관 내부에 홍보 부스를 꾸렸고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1년여의 기간 동안 진행된 장당도서관에서의 교육은 성공리에 끝나쳤고, 현재는 수원 광고 홍제도서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학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명에 달하는 많은 이들이 문의하고 찾아왔다.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 공무원, 기업체 연구원, 교사, 개신교 목사, 아나운서까지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의 수강생들이 있었다. (제2외국어로서 조금은 생소한 독일어라 80년도 초반 해도 철학, 문학,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주로 독일어를 배웠지만, 요즘은 학창시절



독일어학당 홍보 부스



독일어 수업 진행 모습

독일어 공부의 향수를 느끼고자 하는 중장년층, 해외축구 팬, 음악이나 기계공학 전공 학생들이 여행 혹은 독일 유학을 위해 공부한다고 한다)

어려운 어학이지만 꾸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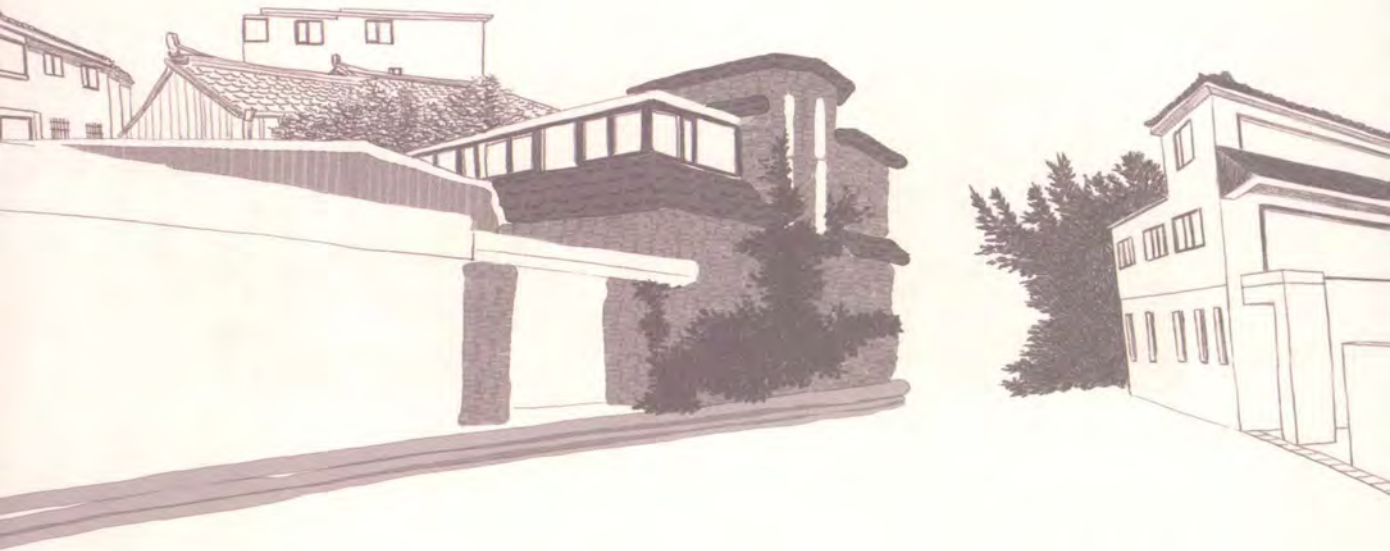
이렇게 다양하고도 많은 수강생이 찾아와 처음에 20명으로 시작하는 수업이지만 2달이 지나면 절반의 학생들이 포기했는데 이유는 독일어 습득의 난이도와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꾸준히 따라와 준 수강생들이 있었고, 흠볼트 학회의 강사들도 이에 힘입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위해 진도를 조정해가며 수업 방식을 연구하고 개선해나갔다. 독일의 시(詩) 배우기, 독일어 가곡을 따라 부르는 수업 등을 추가해 수강생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업이기에 믿음이 가서인지 수강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찾아와 바빠졌지만 흠볼트 학회원들은 수업을 사회와의 자기소통 계기로 삼고 기쁜 마음으로 재능기부를 했다고 한다.

흠볼트 학회의 앞으로 계획은

흠볼트 학회는 어학당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자동차 홍보에 힘쓰고 있는 수원시의 협조를 구해 기후대기과와 교통행정과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 교통공원과 수원 기후 변화 체험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안전 교육, 전기자동차 시스템 원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체험을 통해 수학의 이해를 돕는 독일의 교육부에서 만든 기자재 '손에 잡히는 수학'을 주한 독일문화원에서 지원받아 광고 홍재도서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광고 종합사회복지관과 광고도서관을 기반 삼아 독일문화원 내 연구센터 규모 정도의 독일학에 대한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한다.



글: 운영욱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2. 3



54

전통 장담그기, 짚공예 등 어르신들의 장점을 살린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자원인 비둘기낭 폭포 등
자연관광상품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있다.



포천비둘기낭
정보화마을

주소 |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25
전화 | 031-536-9668



산속에 작은 마을 비둘기낭

포천비둘기낭정보화마을

산속에 작은 마을 비둘기낭

비둘기가 집을 짓고 살던 낭떠러지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비둘기낭폭포,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작은 길을 따라 굽이굽이 들어오면 넓은 길가 옆에 작은 마을회관이 눈에 들어온다.

“비둘기낭 정보화 마을회관” 옛 건물의 모습으로 빗 바랜 페인트가 눈에 들어온다. 2층으로 올라가보니 밖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여져 있고 많은 상장과 프로그램진행 사진들이 많이 놓여있다.

마을 총 가구 수는 91가구. 그중 주말만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50가구가 현지인들이다. 현지인 대부분이 연령층이 높고 마을의 주 소득원이 농산물이다. 도시와 가까운 마을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농사지으신 작물을 소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마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신청했다. 어르신들의 손맛을 느끼고 외부에서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는 전통 장 담그기 체험프로그램과 전통 짚 풀 공예체험, 마을에서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 따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체험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컴퓨터를 배워야 했고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마을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이론교육부터 실습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현재 마을에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사용 하시고 간단한 문서작성도 가능하다. 마을회관에는 언제든 오셔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많은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 마을 주



민 40가구에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다. 마을 회관에 나오지 않고도 각 가정에서 홈페이지접속, 회원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 활동도 지역과 지역이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둘기낭 협동조합을 만든다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오다가 포천시에서 8,000만원을 지원받아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개인이 진행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마을 주민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였고 마을에 특색을 살려 주민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함께 진행하는 전통 장 담그기, 전통 짚공예 등 어르신들의 장점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들이 체험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도 가깝고 봄에 전통 장 담그기 체험

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장을 만들고 직접 담은 장은 이곳에서 여름, 가을까지 숙성을 시켜서 늦가을에 가져가거나 택배로 보내준다.

장 담그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조합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농작물이고 수확의 대부분들이 소비되며 모자라는 것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니 고객의 만족도는 높다.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맛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으며, 체험신청자의 대부분이 도시인이라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전통 장 담그기 체험은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체험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홍보 및 고객 관리 등 사후 관리에도 조합원 모두가 함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연 관광지로 홍보하다

비둘기낭 마을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있다. 높지 않은 작은 산들이 마을을 앞, 뒤로 안고 있는 모습이다. 비둘기낭에 제일 인기 관광지는

바로 비둘기낭 폭포.

TV 드라마 촬영지로 홍보가 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주변에 한탄강이 있어서 주말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관광객이 많이 찾게 되면서 포천시에서는 도로도 넓히고 비둘기낭 입구에 캠핑장도 마련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은 비둘기낭 입구에 있으며 시에서 만들고 관리를 하므로 매우 저렴하다.

한탄강 래프팅이나 비둘기낭 단체관광객들이 올 경우 단체를 받을 만한 식당이 없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 마을에 생활관을 지어주었다. 이곳에서는 시골밥상을 운영한다. 단체 관광객이 와도 이제는 시내로 가지 않고 마을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로 시골밥상을 운영하니 관광객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마을 앞산에서 채취하는 산나물따기체험,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전통 장 담그기 체험, 마을에 있는 관광지 비둘기낭폭포등 비둘기낭 정보화 마을은 자연 관광상품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새로운 관광지-지질공원

비둘기낭폭포 관광, 전통 장 담그기 체험, 전통 짚공예 체험, 산나물 따기 체험 등 모든 프로그램은 당일치기 체험 프로그램이다. 체험 프로그램이 끝나면 체험객들은 마을을 떠난다. 마을에서는 관광객을 더 오래 마을에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관광 후 체험프로그램과 먹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관광과 체험, 그리고 먹거리와 1박을 하고 갈 수 있는 캠핑장. 비둘기낭 마을에서는 주변 마을인 교동 장독대마을과 함께 지질공원 협약을 맺으면서 먹거리와 캠핑, 지질공원과 비둘기낭 폭포, 체험과 먹거리, 둘레길 그리고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을 함께하는 다양한 관광코스를 운영예정이다.

지질공원은 수도권에서 1호이며 비둘기낭의 지질학적 보존의 의미도 높다. 비둘기낭의 볼거리와 지질학적인 의미를 해설사의 도움으로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었다.

2014년 포천시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현재 6명의 문화 체험가, 천문, 지질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다양한 활동(한탄강주변 문화체험, 비둘기낭폭포, 지질공원 해설, 둘레길)를 시작하였



다. 비둘기낭 폭포에서 주변 둘레길 코스까지 해설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체험학습관에서 함께하는 전통 체험 즐기기

2014년 체험관 공사를 하였다. 기존 마을회관은 체험 학습등을 하기에는 너무 좁았다. 체험관을 짓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회관은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게 민박을 받고 있다. 처음 체험관 공사를 끝내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주방이 체험관과 떨어져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2015년 3천만원을 신청해서 체험관 중앙을 터서 개선공사를 하였고 현재는 일하시는 분들과 체험을 오시는 분들이 모두 만족하는 공간이 되었다.

현재 체험 학습관 에서는 전통 짚공예체험, 전

통 주 담그기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는 짚공예는 체험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옛날에 많이 썼던 짚으로 만들 바구니, 계란꾸러미, 인형 등이 인기가 많으며 넓은 체험학습관이 생겨서 더 많은 체험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체험이 끝나면 이 곳에서 식사도 함께 한다. 음식 재료도 이곳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한다. 체험관 보수 공사가 끝나고 후 음식을 만들어주는 어르신들은 이동거리가 짧아져서 많이 편리해 졌고 식사를 하는 체험객도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글: 오옥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1. 23



55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책을 읽는 즐거움과 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에게 책속의 멋진 세상을 여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함께 행복한 꿈을 꾸는 엄마들과 지역의 문화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른들이 모여 만든 모임.



하남동화만들기모임

주소 |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시립도서관 1층)



애들아~, 그림동화책 같이 볼래!

하남동화만들기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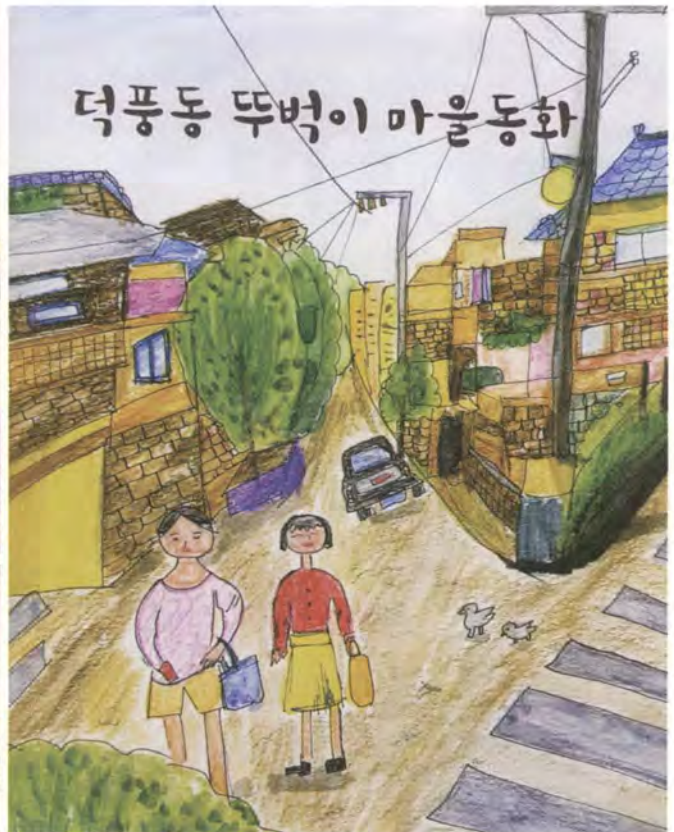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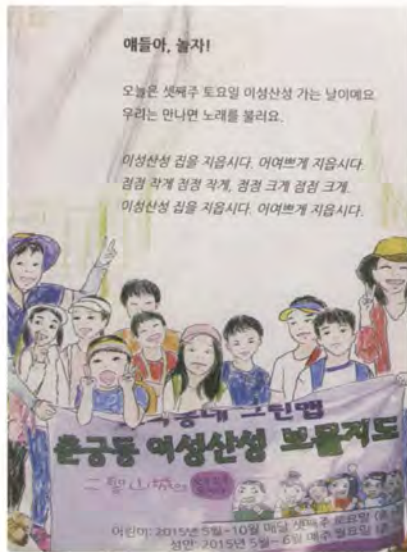
동화가 좋아 동화 속에 들어간 사람들

도서관에 가면 아이들에게 맛깔나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 세상으로 꼭 빠져들게 하는 엄마들의 책 읽어주는 모습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은 꿈을 꾸게 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엄마들이 하남에도 있다. 15년 전 도서관을 드나들다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강좌를 통해 그림책과 책읽기를 좋아하는, 뜻이 통하는 엄마들이 '하남 동화 읽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어느새 아이들이 멋진 청소년들이 되는 동안에도 꾸준한 모임으로 자리 잡아 오면서 자연스럽게 동화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고, 우리 동네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고 싶다는 창작의 세계로 자연스레 발을 들여놓았다.

지역의 이야기를 그리는 첫걸음

유명 작가들이 만든 그림동화책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넘어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즈음 하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세밀화도감 등을 펴낸 강성주 화백으로부터 그림동화책을 직접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처음엔 무슨 일이든 시작하려면 막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도 쉽게 넘을 수 있듯이 지역의 관심 있는 성인들이 함께 모여 '하남동화만들기 모임'이 새로이 결성되었다.

매마침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어 이에 응모하여 선정되어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맘껏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덕풍동 두벽이 마을동화

우리 동네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파북공동체 공모사업이 2015년 6월부터 시작되었지만 당시 맹위를 떨치던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라는 커다란 틀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관찰을 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일상 속의 내용을 관찰하기 위해 동네 구석구석을 두벽 두벽 걸어 다니며 꼼꼼히 돌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동네 곳곳의 모습과 평소 느끼지 못했던 전경들을 눈에 담으며, 같은 장소를 관찰하더라도 각자가 보는 시선에서 개성 있게 그리고 싶은 주제들을 선정해나갔다.



두벽이 동네관찰

“나는 우리 동네 문들을 관찰해서 그려보고 싶어요.”

“난 우리 동네 식물들을 살펴볼래요.”

“난 마을지도를 그려보고 싶어”

“난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추억의 동네를 그려봐야지.”

“우리 동네에도 마을 벽화가 있었네! 벽화를 소재로 해도 좋겠어.”

“이성산성에 가서 보물지도도 그려봐야겠는 걸.”



강성주 화백의 그림강의



밑그림 그리기

그리고 각자가 정한 주제에 맞게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찍었다. 사진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기 위한 필수자료인 셈이다. 그렇게 4개월의 꾸준한 관찰과 자료 조사가 이어졌다. 때로는 무더운 날씨에 오르막 길을 올라 골목과 골목을 관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메르스 여파로 함께 모여 이동하는 일들도 조심스럽기도 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실내에서 그동안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사진과 내용을 챙겨 회의를 나누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밑그림과 이야기를 서툰 솜씨로 완성해 갔지만 책으로 펴내기 위해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다. 다행히 하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그림책을 출판한 경험이 많은 강성주 화백의 그림책을 만드는 기초 교육(4차시)과 좀 더 보강이 필요해 재능기부로 4차시 교육이 추가로 진행돼 총 8차시



교육을 받았다.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된 그림동화를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서는 편집이 중요했는데, 다행히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실무 경력이 많은 장향금 간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편집을 마칠 수 있었다.

“어, 여기가 어디더라?”

“그림 속 이 사람 혹시 바로 나?”

마침내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탄생한 그림동화책 ‘덕풍동 뚜벅이 마을 동화’. 각자의 개성에 따라 선정된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한데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동화를 학교와 유치원, 관공서, 박물관, 도서관 등에 비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덕풍동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초등학교 책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마을동화를 들려주고 한 권씩 나눠주기도 했다. 그 사이 그림동화를 접한 사람들이 신기한 눈빛을 보내며 화답해 주기 시작했다. 그림동화책을 받은 아이들은 “어, 여기 우리 동네 아네요?”라고 물어봐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라며 놀라워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여기 그림 속 이 사람 혹시 나 아닌가요?”, “언제 내가 그림책 속에 카메라로 출현했었지요? 하하하!” 등의 반응이었다.

이렇게 ‘덕풍동 뚜벅이 마을 동화’는 ‘나’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는 그림동화책이 되어갔다.



우리 동네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많아! 들어 볼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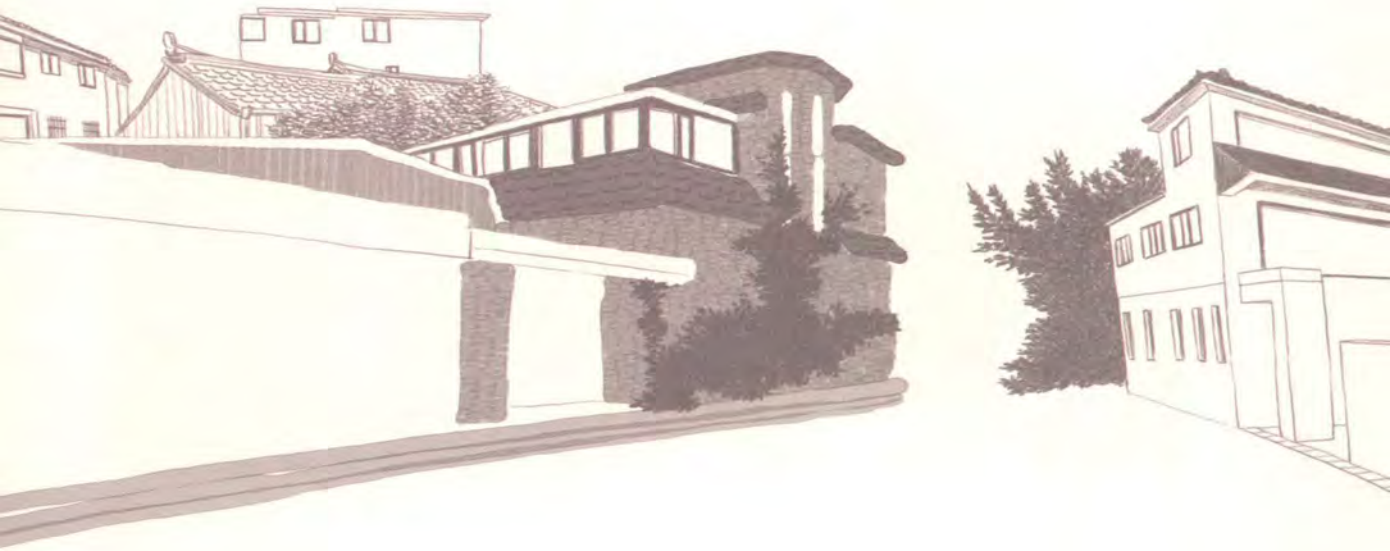
'덕풍동 뚜벅이 마을동화'를 만든 경험을 나눠 줄 준비에 들어간 이들은 하남시의 '이성산성' 이야기를 들려줄 다른 동아리를 지원할 생각이 다. 또한 하남 북페스티벌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꾸준히 만날 예정이며, 청소년분과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엄마들처럼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즐겁게 토론해가는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하남에 가면 동네 골목마다 많은 이야기가 곳곳에 숨어 있다. 마을동화책을 들고 책장을 넘겨가며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는 마음으로 골목골목을 다녀보는 재미를 느껴보는 것이 어떨까?

'어머 이 곳이 그림동화책 속에 있던 바로 그 곳이네!' 감탄도 해가며 말이다. 그리고 그 감탄에서 나아가 건강한 에너지를 만들어 다양한 곳에서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손광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2. 2



56

모든 생명을 함께 살려 나간다는
정신을 가지고 여러 사회활동과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

주소 |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0
전화 | 031-383-1414



함께 살리는 생명 세상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

한살림운동

1986년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사회운동 활동을 하고 있던 박재일 한살림 전회장은 무농약 쌀과 잡곡 참기름, 유정란을 가지고 서울로 왔다. 서울의 제기동에 쌀가게 '한살림 농산'을 열고 판매하면서 한살림 운동은 시작되었다. 한살림은 모든 생명을 함께 살린다는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늘 낮은 자세로 생명을 모시고 살라'는 가르침이 기틀이 되어 한살림 운동이 시작되었다. 한살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넓혀 나감으로써 우리 이웃과 자연 만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보살피는 운동이다.

한살림 매장이 하나씩 늘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한살림 운동을 실천해 나가고 한살림 정신의 영역을 넓혀나간다는 의미이다.

1988년 한살림 공동체 소비자 협동조합과 한살림 생산자 협의회를 창립했다. 처음부터 협동조합으로 시작하고 생산자와 함께 한 이유도 한살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한살림은 한살림 모임을 만들고 한살림 정신을 선포하면서 생명의 세계관을 전파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한살림 정신으로 한살림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한살림은 소비자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도 끊임없이 사회운동을 해 나간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하고, '바른 농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흙살림 연구소'를 열고 '수입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 농민 연대모임'을 발족하고 '모심과 살림 연구소'를 창립한다. 그리고 청주에서 시작된 지역 한살림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은 경남, 강릉, 원주의 소비자협동조합이 한살림으로 들어오면서 활동영역이 확대된다.



한살림 교육위원회

2002년 한살림 사업 연합이 창립된다. 서울 제기동의 쌀가게에서 시작한 한살림 소비자 협동조합은 수도권의 각 지역으로 분화되면서 2015년 현재 지역 한살림과 함께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8년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 창립

1997년 한살림 군포지역 모임을 시작으로 산본에 한살림 매장이 오픈되었다. 조합원이 늘어 나면서 한살림 산본 매장을 중심으로 2005년 한살림 군포지부가 창립되었다. 지부 창립 후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활동과 소모임이 많아진다. 귀농본부와 연계해서 한살림 텃밭 강좌를 시작하고 한살림 지역 모임을 체계적으로 정례화 한다. 조합원 자주 활동 공모 모임을 만들고, 조합원과 생산자와의 교류도 시작한다.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2006년부터는 광역지부체제로 활동을 개시한다. 중학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생협 학교, 일본 생협과 교류하면서 한살림의 지역 분화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 2007년 경기남부 생협 분화추진위를 결성하고 일 년 동안 창립 준비를 한다. 2008년 한살림 과천 생협과 통합, 한살림 경기 남부 생협을 창립한다.



한살림 마을 모임 모습들1



한살림 마을 모임 모습들2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 조합원은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남부지역인 과천, 군포, 안양, 수원, 의왕, 시흥, 안산시 지역에 살고 있거나 해당지역에 직장이 있어야 한다. 일정금액의 출자금과 가입비를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한살림은 조합원이 주인인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으로 운영된다. 출자금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밀거름이 되며, 조합원 계좌에 쌓이게 되고 탈퇴 시 배당금과 함께 돌려받게 된다.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에서는 조합원 가입시 가입교육을 매장별로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한다. 한살림 사상과 경기남부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는다. 한살림의 물품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한살림의 물품을 소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리는 것이다. 우리농산물을 소비해야하는 이유와 어떻게 모든 생명을 살려나가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조합원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의 활동가는

한살림 경기남부에는 조직 활동가와 매장 활동가가 있다. 매장 활동가는 생협 매장에서 활동한다. 물품을 구매하러 오는 조합원들과 만나고 물품을 안내하며 판매하는 모든 일을 한다. 한 달 기준 정해진 시간을 활동하며 시간은 매장별로 매장 책임자와 의논하여 결정한다. 시간에 따른 보수를 받으며 조합원으로 또 활동가로 한살림 정신을 나누고 한살림 운동에 참여한다.

조직 활동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농산물 위원회, 가공품 위원회, 식품안전 위원회, 지역물품 위원회, 교육운영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농산물 위원회에서는 1차 농산물 생산계획 및 가격, 출하시기에 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생산지 교류와 점검활동을 한다. 가공품 위원회에서는 가공품들의 물품개



한살림 마을 모임 모습들3



한살림 교육위원회

선, 물품개발, 모니터링 활동, 가공산지 탐방 등을 한다. 식품안전 위원회에서는 지구와 건강을 살리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해 생산자와 함께 고민하고 교육한다.

지역물품위원회에서는 가까운 먹을거리, 소농, 토종 종자 등을 찾아내고 개발하며 심의하는데 모든 전 과정에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남부의 기본 교육을 수행하며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기획, 심의한다.

실무자와 이사진, 조합원과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함께 한살림 운동을 펼쳐나가는 중심에 활동가들이 있으며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은 이러한 조직운영에 가치를 두고 있다.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 매장에는 어떤 물품들이

한살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며 생명을 살리는 농수산품을 판매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모든 물품들은

한살림 정신을 담고 있다. 한살림 연합이 만들어지고 물류센터가 생기면서 한살림 생산자 연합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한살림연합 물류센터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에서는 가까운 지역의 소농이나 토종생산물들을 찾아보고 공급받기 위한 노력 또한 꾸준히 하고 있다.

문화 환경이 바뀌면서 생협에서도 가공품들이



농산물위원회의 우리쌀 소비 촉진 운동



GMO를 반대하는 여러 조직과 연합하고 참여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낸다



한살림 세월호 관련 소식지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살림은 1차 농산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생산자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 가공품을 공급받더라도 가공품은 생산지의 물품을 이용해 생산지 안에서 가공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 매장의 물품 할인은 특별하다. 매출을 위한 할인 행사가 아니다. 생산품이 많아져서 판매가 다 되지 않을 때, 할인을 한다. 생산자를 위해서도 소비자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다 소비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가공품들도 간혹 할인판매될 때가 있다. 공장을 세우고 생산량을 계획하고 공급된 물품이 판매가 저조할 때 공장이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인한다. 생협의 조합원들은 한 매장에만 가입하지 않는다. 여러

곳의 생협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각 생협들을 비교하고 더 이익이 되는 곳으로 찾아다니기도 한다. 그런 일들은 때때로 생협끼리 경쟁하도록 만든다. 생협끼리 가격경쟁을 하는 것은 모두를 죽게 만드는 일이며 조합원들의 생협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은 생각한다.

또한 파복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경기도의 모든 생협들이 모여 서로 의논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지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의 한살림 운동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의 각 지역매장이나 지점에는 조합원들이 살고 있는 마을마다 햇살모임이 있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한살림 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자주사업공모를 하고 모임을 지원한다. 연합차원에서 한살림은 소비자연합과 생산자연합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모아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생산자의 생산품이 전년 대비 60%를 넘지 못할 때 80%를 생산한 것 만큼의 매출을 지원해 준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살림의 물품 가격보다 시장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면 한살림 소비자조합원들을 위해 한살림 물품의 가격을 낮추는데 기금이 사용된다.

2015년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GMO 반대 운동을 목표로 잡고 실천 방안의 하나로 토종종자 보존운동을 펼치고 있다.

토종종자를 이용한 물품들에는 한살림에서 인증한 마크가 붙는다.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의 남은 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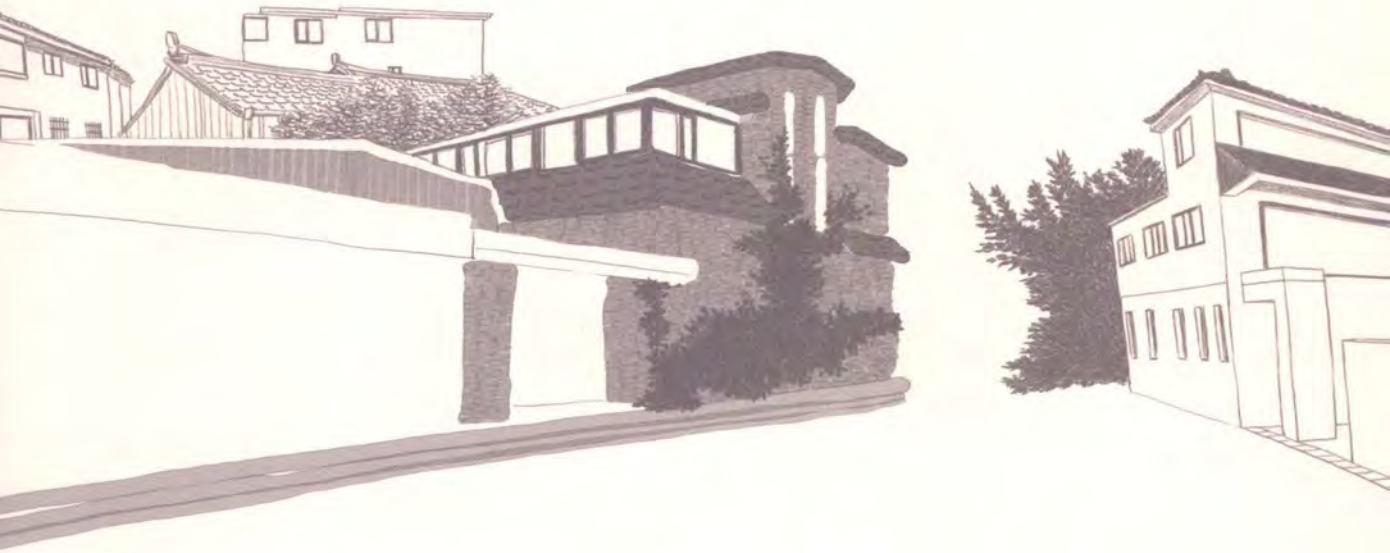
전국의 소비자 중 생협의 조합원은 약 10%이다. 많은 생협을 중복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을 감안한다면 약 7% 내외가 될 것이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생협을 모른다는 말이다.

한살림을 알리고 조합원이 되도록 설득하는 일. 그것은 한살림 정신을 퍼뜨리고 한살림 운동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살림의 물품이 가장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한살림의 물품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처음부터 한살림이 지켜온 이 정신을 어떻게 더 많이 알리고 함께 공유하며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지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한다.



글: 박은주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1. 19



57

학교안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 조성과
학생과 주변 상가들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신대 꿈틀거리

주소 | 오산시 한신대길 137 (한신대학교)



한신대 꿈의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 동아리

한신대 꿈틀거리

한신대학교라는 이정표가 눈에 띄고 한참을 왕복2차선 외판 길을 달리다보면 40개 정도의 아기자기한 상가들이 모여 있는 작은 사거리가 나온다. 도로변에 나란히 서있는 모습 이 사뭇 시골마을 한곳을 지나는 것 같기도 해서 정겹다.

좀 더 오르막길을 따라가면 비로소 한신대학교 정문이다.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지만 학생 들은 이곳을 어떻게 오가나 라는 생각이 문득 스친다. 걸어서 인근 시내로는 못나갈 정도 의 거리이고, 학교 안에서 웬만한 것은 해결해야할 것만 같다. 중심가까지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좀 멀리 있다.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은 학교 아래 상가들이 전부이다.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지만 그 령다할 이벤트는 없다. 학교 안도 마찬가지이다. 마땅히 쉬거나 여유를 즐길만한 공간이 없으니, 재미없는 학교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다.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시간 맞춰서 버스에 오른다. 수업이 끝나고 난 후의 학교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회색벽들만 우두커니 외롭다.

2014년 5월, 꿈틀거리다

'학교가 재미없어서 머물고 싶지 않다고 불평만하지 말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문화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야. 도전해 보도록!' 수업 중 푹 던진 오교수의 한마디는 몇몇 학생들을 꿈틀거리게 한다. 그리고 뜻 이 같은 친구들이 모였다. 어차피 다녀야할 4년이라면 즐겁게 다녀볼 생각이다.

대학가마다 그들만의 문화를 담은 특색있는 거리들이 있다. 홍대의 '로데오 거리'를 비롯

“ 학교가 재미없어서 머물고 싶지 않다고 불평만하지 말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



한신대전경과 주변상가 모습

하여 단국대의 보전동 ‘문화의 거리’가 있고 한양대는 대학동 ‘명문거리’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신대학교 양산동에 학생들의 꿈을 담은 꿈의 거리를 만들어 볼 것이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찾아와서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 것이다. 2014년 7명의 학생이 모여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작은 움직임, 꿈틀대다, 꿈을 담은 거리, 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 동아리명도 ‘꿈틀거리’로 정했다.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리라.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꿈틀거리’의 나아갈 바를 정할 생각이다.

학교에 바라는 바와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다양한 불만거리가 터져 나왔다. 타 대학들에 비해 학교주변의 대학가가 너무 좁다, 학교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 40개 정도의 상가에서 문화적인 부분들을 모두 영유할 수 없다. 상인회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상가들과의 소통이 안된다, 불친절하다, 학교에 머물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도 부족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동아리들, 낡은 간판, 낡은 벽도 보기 싫고, 손질 안된 정원과 쓰레기장 부족한 쉼터 등등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의 복지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렇게 불만이 많다니 ... 동기는 충분해 졌다.



교육 모습



'마을 교육프로그램' 홍보포스터 붙이는 중

소통,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 불만사항을 종합하고 걸러내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볼 것이다. 따복공동체의 '마을특성별 맞춤형 교육 공모지원사업'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다.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다. 자신들의 뜻을 격식에 맞춰 강력하게 어필하고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지원을 받았으니 실행할 일만 남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시작된다.

상인들은 가게운영 외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학생들이 상가에 관심이 없듯이 상가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아무 때나 문을 닫고, 무표정함은 불친절함으로 보이기 일쑤다. 그들에겐 서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관심이 있어야 상호 소통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통의 중요성과 마을 특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그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전문인이 나서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6주간의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으러 거리로 나섰다.

직접 부친 따끈따끈한 부침개를 들고 상가를 방문해 인사를 한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우리의 거리를 활기찬 곳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설명을 해보지만 '똥소리하는거냐'는 표정에 땀이 난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다시 눈에 힘을 주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 마을을 좀 더 활기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바쁘시더라도 1주일 후에 있을 '마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한다. 40곳을 모두 방문하여 '꿈틀거리'의 뜻을 전달하였다. 1주일 후 8명의 상가 사람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 한신대학교의 강의실을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6주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과 상가사람과의 소통의 중요성과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전문마을 강사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점점 사람들은 늘어났고 교육이 끝날 무렵에는 38개 점포가 그들을 대변하고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상인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2015년 9월 16일 상인회가 구성되었다.

변화라는 것은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서로 같이

상인회가 구성되었다는 것만으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하지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바뀌었다. 학생을 대하는 눈빛이 따뜻해졌고 소속감이 생겼다. 함부로 문을 닫지도 않는다. 이전 '상인회'리는 마을 공동체 속의 한 사람인 것이다.

학생들도 조금씩 다가간다. 상인회에 가입된 38개의 점포에게 학생들이 부르는 애칭으로 된 직접 만든 나무 명패를 제작하여 전달하는가 하면, '꿈틀거리 활동 사진전'을 상인회와 함께 개최하여 단골가게나 거리를 멋스럽게 담아낸 학우에게 그에 따른 포상을 한다. '3만원 맥주교환권' '2만원 문화상품권' 같은 것들이다. 사진들은 액자에 담겨 사진의 주인공에게 전달되고 인테리어의 일부가 된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걸려있는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신다는 것은 웬지 모를 주인의식을 발현시킨다. 사진이 걸려있는 이상 이 집에 올 수 밖에 없다.

노후된 학교담벼락의 벽화작업을 하기로 한다. 학교 내 그림 동아리 '몽땅연필'에게 도와 달라 하니 선뜻 응해준다. 몇몇 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선정하고 벽화를 그리기로 하고, 예쁘게 포장된 벽 앞에는 학생들이 나무를 주문해서 푹푹푹 만든 핸드메이드 벤치를 놓기로 한다. 하얗게 벽을 정리 후, 그림을 그려 넣고, 실 수 있는 의자를 놓으니 그럴듯하다. 학생들은 우연히 지나다가 '이렇게 괜찮은 곳이 있었나'하며 한번쯤 쉬어 갈 것이다. '꿈틀거리'의 움직임



학교의 노후된 벽과 방치되어 지저분한 모습

에 학교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 무관심했던 학교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꿈틀거리’ 회의 중에 프리마켓 행사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다할 재미가 없는 학교 생활에 학우들과 상인들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해보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이나 중고 물품판매, 핸드페이팅, 캘리그라피, 타투그리기 같은 체험행사도 진행하고, 상인들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푸드트럭은 상인회에서 준비를 하기로 하고 프리마켓의 지원자들을 모집하게 된다. 두 달에 걸쳐 세일러를 모집하고 준비했지만 홍보가 역부족이었다. 제1회 프리마켓행사

가 그럭저럭 마무리되고, 제2회 프리마켓 행사는 학교축제와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회와 힘을 합쳐 지금까지와는 다른 학교축제를 해보자는 의견을 모았고, 성공적이었다. 또한 걸음을 앞으로 나간 것이다.

별이 빛나는 밤의 옥상테라스

8월의 찌는 듯한 더위에 7시가 되었는데도 해는 중천이다. 이런 날에는 바람이 솔솔 부는 학교옥상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이 제격이다. 다른 때 같으면 곧바로 귀가했겠지만 오늘은 ‘꿈틀거리’에서 운영하는 학교옥상 칵테일 바에 가볼 생각이다. 무상으로 시원한 맥주와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테이블 여러 개와 의자가 놓여있고, 학우들은 간단한 음료를 즐기며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벽화작업 후 깨끗해진 벽과 함께 작업한 학생들

“ 2014년 '꿈틀거리' 1기가 구성되고, 다음은 2기가 열심히 그들의 뜻을 실천하였다. 2016년 3기가 뒤를 이을 차례이다. 한신대 학우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세요. '꿈틀거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끄러운 매미소리도 오늘은 음악처럼 느껴진다. 시원한 바람이 간혹 불어오고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무수한 별들이 빛을 발한다. 이만한 분위기의 카페테라스가 있을 수 있을까? 학교에서 거의 하루를 보내는데도, 머물고 있는 이 시간이 즐겁고 아쉽다. '꿈틀거리'의 노력으로 학교와 주변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상인회가 구성되고, 교수,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학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각자의 대표를 만들고 서로의 소통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예산 배분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활동지원을 약속했다.



글: 이진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2. 23



58

위생쓰레기 매립장과 건축 폐기물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나 해바라기 재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바라기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다.



해바라기 마을

주소 |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113-5 (무왕1리 마을회관)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해바라기 마을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해바라기 마을'

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한 무왕리 해바라기 마을은 따복공동체의 모델 중 하나이다. 무왕리 마을은 10여 년 전 40여 가구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76가구 15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 맨 윗자락에 위생쓰레기 매립장과 건축 폐기물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혐오시설을 해바라기 재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바라기 마을 만들기 시작했다.

농사만 짓던 주민들은 해바라기 마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욕심을 가지고 했다가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차곡차곡 했어요. 농사만 짓던 우리들이 공모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보겠다고 밤잠 못자고 열심히 모여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선정이 되어 영광스럽고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가 되었어요. “무왕리 해바라기마을 위원장 김기남 씨의 설명이다.

2014년, 해바라기 작목반 11농가가 1만5천평에 식재하여 1평당 1.5kg의 씨앗을 수확하였다. 그로 인해 2천5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게 되었고, 그 씨앗은 제주도 해바라기 영농법인에 전량 구매 하였다. 올 해는 20농가가 3만5천평에 식재 확대를 하였고, 7월 ~ 9월까지 '해바라기 축제'를 개최하여 1000여명의 관광객과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관조성에 힘쓰고 있다. “해바라기는 12일 정도 만개해서 지고 있지만 우리마을은 인력이 부족해서 한번에 재배와 수확이 어려워요. 각 농가의 상황에 맞춰 심고 있는데 그 때문에 7월부터 8월말까지 해바라기를 계속 볼 수가 있지요.”



양평 무왕리 해바라기 마을 전경



해바라기마을 농산물 판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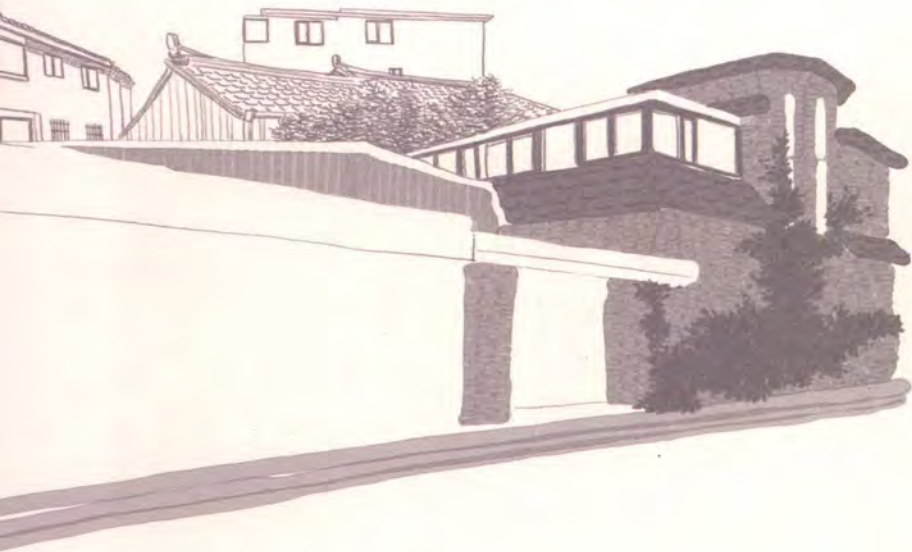
마을 예술가 및 지역센터 아이들의
해바라기 그림 전시관

이곳의 볼거리는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설치된 해바라기 그림과 재능기부를 통한 담장벽화 그리기, 마을 주민들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현수막 제작으로 마을 안길에 부착해 이색거리를 만들었다. 또한 이 마을로 귀촌한 미술가와 조각가, 도예가들의 작품 등이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이들과 유대관계를 통해 예술가의 전시실과 작품실도 관광코스가 되었다.

무왕리 해바라기 마을은 마을자원이 별로 없는 실정이며, 혐오시설의 입지로 침출수가 내려와 도랑에 발을 담구며 놀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해바라기와 함께 마을에 필요없는 것들까지 자원으로 만드는 노력을 통해, 매립장을 견학코스로 만들어 학생들의 배움터인 자원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라 한다.



글: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2015. 7. 28



59

해피트리(Heppy Tree)는 연천군의 유일한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취약계층과 함께 떡, 빵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한 공동체이다.



해피트리

주소 |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45-34
전화 | 031-835-0879



지역과 함께

해피트리

행복한 나무가 심어지다

연천군의 관문인 청산면 초성리 학담은 초성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기도 하고, 옛날 어떤 사람의 선대 모를 다른 곳에 옮기는데 학이 나와 학담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연천군은 휴전선 32km와 접한 경기도의 최북단 지역으로 전면적이 군사시설 보호 구역 등 각종규제로 지역개발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은 상업 및 교육, 문화시설의 침체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2010년 가을, 을씨년스럽기만하던 조용하고 작은 마을에 공동체를 이룬 세 가족이 이주를 한다. 이들에게 "왜 이곳이었느냐고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냥 학담으로 오고 싶었으니까 온 것이다" 그렇게 그들만의 공동체 생활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연천군의 유일한 사회적 기업으로 자라나다

해피트리의 시작은 김용택 목사가 학담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 세 가정으로 시작한 공동체는 현재 아홉 가정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공동체 가족 중에는 탈북 새터민도 있다. 해피트리는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동 및 청소년, 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해피트리는 연천군의 유일한 사회적 기업으로 행복 나눔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다양한 먹거리 사업을 통한 활력증진사업으로 빵을 생산하는 해피트리에서는 새터민과 다문화가정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우리밀과 직접 재배한 자색고구마 등 건강한 재료를 사



행복한 떡방앗간에서 만든 떡

용하여 빵, 쿠키 및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빵을 만드는 재료는 공동체에서 직접 재배한 자색고구마, 한국에서 재배한 밀, 직접 키운 닭이 낳은 달걀 등을 이용한다. 공동 농사를 통해 공동체 식구들이 먹는 것은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감자나 고구마 등은 판매도 하고 있다.

보통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은 15%로 낮은 편이다. 해피트리기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것은 유치원, 어린이집, 군부대 외에도 창업 이후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물류비용의 절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연천군이라는 지역적 한계에서 빵을 소비할 수 있는 수요가 없기에 지역을 벗어난 먼 거리에 있는 업체를 유치해도 납품을 위한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면 이익이 생기지 않겠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지역 내 버스회사가 지원하며 해피트리는 유지될 수 있었다.

행복한 떡 방앗간에서는 떡을 생산하여 지역 군부대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군 장병들의 간식으로 일반 떡이, 군 장병들의 생일에는 떡 케이크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듯 빵과 떡을 한번에 만들어 낼 수 있는 해

피트리의 시스템은 고객의 욕구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

한편 빵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교나 단체를 대상으로 빵 만들기 체험을 하는 해피스쿨은 제과제빵체험교실로 해피스쿨을 운영하는데 약 1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대 40명 내외에서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제과제빵체험교실 참가자들은 빵만들기를 통한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기도 하거니와, 참가자들에게는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카페 행복한 나무는 농촌마을에 사랑방 역할을 하는 마을카페로서 마을 사람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카페 안에는 베이커리 외에도 떡, 커피, 차 등 음료, 도서 대여, 야나바다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 안에서 판매되는 빵은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주기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한부모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하여 50%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할인행사가 가능한 이유는 해피베이커리에서 빵을 직접 제조하기에 가능할 수 있



카페 내부

다. 카페에서는 해피베이커리에서 만든 제품과 각종 커피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식사로 할 수 있는 정통수제등심 돈까스, 날치알덮밥 등을 착한 가격에 판매하기도 한다.

문화공유를 위한 밴드 '초성' 성장하다

마을밴드의 시작은 2012년 경기도의 서로돌봄마을 사업공모에 채택된 이후부터이다. 행복한 마을 학교의 아이들로 구성된 마을밴드인 “초성(初聲)”은 주민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문화를 공유하기 위하여 연천군 관내를 넘나들며 음악을 통한 힐링이나 휴식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멋진 음악과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심신을 달래주고 있다. 특히나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요양 시설 등에서도 무료공연을 통해 준비해간 빵도 제공하고 있다. 1년에 한번은 정기공연을 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있다. 밴드의 단원들은 저마다 가진 재능을 바탕으로 밴드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과 소외된 지역을 방문하여 음악을 매개로 한 지역봉사를 하고 있다.

행복한 마을학교 놀이터가 만들어지다

행복한 마을학교는 해피하우스에 거주하는 공동체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홈스쿨링 학교이다. 공동체가 구성되어 이주한 초기부터 시작한 사업의 하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행복한 마을학교의 운영이다. 공동체 자녀와 지역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요양시설로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피트리 카페에서 북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해피트리 가족들이 머무는 해피하우스와 행복한 마을학교가 위치해 있는 공간이다. 약 900평 정도의 크기에 학교와 주거공간이 있으며 학교 앞에 위치한 건물이 바로 행복한 마을학교 놀이터이다.

지난 해에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공간지원 사업으로 행복한 마을학교 놀이터를 만들었다. 행복한 마을학교 놀이터는 공동체 아이들과 해피트리의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행복한 마을학교 놀이터 안에는 체육관과 어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트램폴린(방방이)'이 있다. 해피트리 가족들은 점심 식사 시간이나 퇴근 후에 건강증진을 위하



초성(퍼스트사운드)의 연주 모습



트램폴린에서 뛰어노는 유아들

여 체육관을 이용한다. 40평 크기의 하우스 한 동으로 바닥은 인조잔디를 깔았으며, 헬스, 배드민턴, 탁구, 기구를 통한 테니스를 할 수 있다. 평일에는 공동체 아이들의 체육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체육관 이용률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트램폴린(방방이)의 이용은 연천군 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유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화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12월에는 체육관에서 지역환원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축제를 마을밴드 '초성'이 주체가 되어 약 2시간의 공연과 음식, 케이크 등을 제공하였다. 행복한 마을학교 놀이터는 체육관이지만 다용도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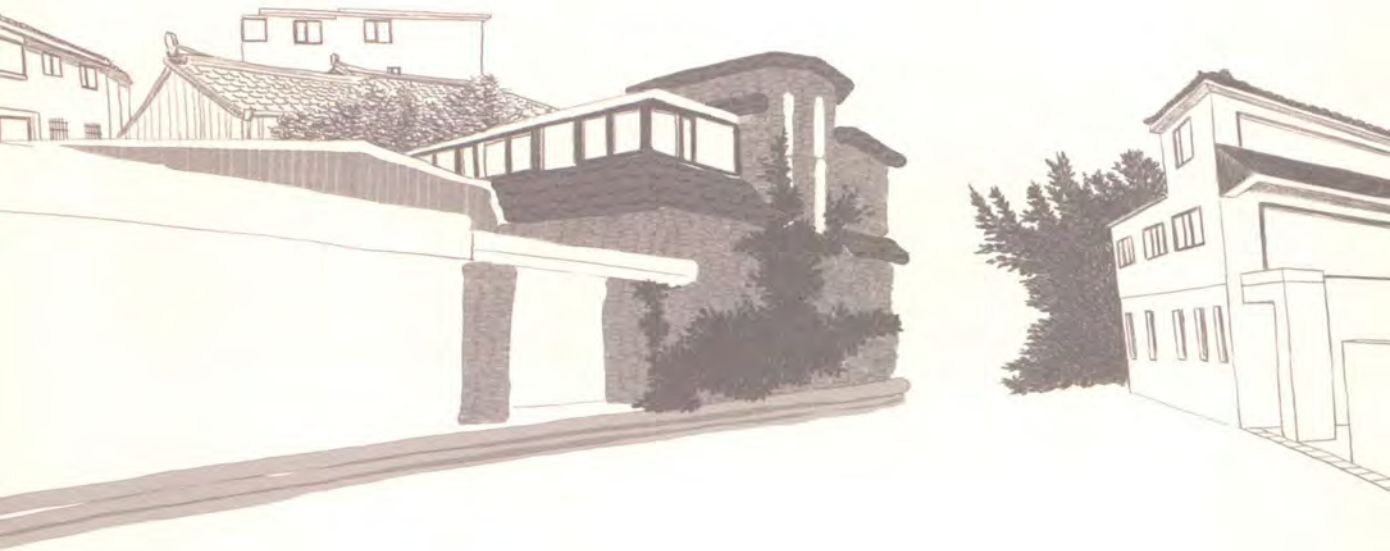
청년과 함께 행복한 마을생활을 꿈꾸다

해피트리가 학담에 들어 온 이후 지역에는 청년들이 보이고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조그마하나 기업을 움직이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에 변화를 주었다. 해피트리는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갖춘 사

회적 기업으로서의 자긍심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공동체를 꿈꾼다. 함께 평등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하는 마을 생활을 위하여 앞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예컨대 외부로 나갔던 청년들이 지역 안으로 돌아왔을 때 지역 안에서 꿈을 갖고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청년들이 꿈을 갖고 지역의 리더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해답을 사회적 경제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카페를 사랑방으로 열어 두고 청년이 가진 생각과 재능을 공유하고 친교할 수 있는 모임, 일자리를 모색할 수 있는 모임,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청년문화를 지속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해피트리는 오늘도 마을 주민들이 서로 행복해질 수 있고 소외계층이 서로 힘을 보태 자립할 수 있는 해피빌리지를 꿈꾸고 있다.



글: 김선희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1. 12



60

행궁동 생태교통마을 안에 위치하고
사회적 공동체 활동가들의 마케팅과 판매를 돕고
여러 단체들과 협업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행궁동 사랑방

주소 |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 47 (화성옥 별채)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재정비된 곳

행궁동 사랑방

수원시 행궁동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재정비된 곳이다. 2013년 국제생태교통축제를 계기로 수원화성의 옛 모습을 복원하고, 지구의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곳으로 좀 더 걷고 좀 더 천천히 가보자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곳이다. 구역별로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행궁동 사랑방'이 있는 이곳도 공예가들을 위한 공방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곳이다. 도자기 공방, 가죽공예, 베이커리, 한지공예 등의 다양한 공예샵들이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다.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작품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길 바란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인지 오전 9시쯤의 행궁동 마을길은 한적하다. 배자저고리를 갖춰 입은 땡기머리아씨가 유유히 걷는다 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오묘하게 다른 시공간에 와 있는 기분이다.

'화성옥'이라 부르고 '행궁동 사랑방'이 되었다.

마을의 초입에서 조금 올라가면 '화성옥'이라는 한정식집이 보인다. '행궁동 사랑방'을 찾아 왔으나 화성옥이 '행궁동 사랑방'이라는 거다. 순간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하지만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다. '화성옥'의 조대표는 '행궁동 사랑방'의 대표이기도 하다. '화성옥'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해 '행궁동 사랑방'에 앞마당을 내어준 것이다. '행궁동 사랑방'은 '일인미디어 연합과' '청년창업제작소(협동조합)', 그리고 행궁동 마을 만들기사업에 관심있는 마을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공동 공간이자, 임의단체조직이다. 따로 내걸린 간판도 없고 사무실도 없다. 20평 남짓한 마당에 놓여 있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이들의 사무실이고 가게인 것이다. '행궁동 사랑방' 사람들을 만나려면 '화성옥'으로 가야한다.



도자기 이야기 내부모습



요술마켓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겨자빛 테이블보가 테이블을 감싸고 그 위에는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놓여 있다. 석고 방향제와 직접 담아 만든 감식초, 소금, 천연비누, 말린 꽃차 등등 두서없이 여러 종류의 물건들이 뒤섞여 있지만 손수 포장을 한 듯 정성스럽고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오늘은 유난히도 날씨가 추워서 유리문 하나 없이 오픈되어 있는 그들의 가게는 아무리 난로를 피워도 춥기만 하다. 다른 계절은 괜찮겠지만 겨울만은 혹독하다. 하지만 그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화성옥 앞마당의 한 칸은 청년창업팀인 문강정과 문꼬치(문어구이)를 판매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요술마켓'이 열리고 있다. 둘 다 '행궁동 사랑방'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다.

가게의 안쪽에서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이 테이블을 응시하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몇 가지의 손으로 만든 듯한 천연비누와 캔들이 놓여있고 테이블 너머의 누군가는 신중한 모습으로 이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마주

앉은 여성의 모습도 매우 진지한 모습이다. 이 여성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의 주인이다. 상대방의 그녀는 요리조리 물건들을 살피고 냄새도 맡아보고 두들겨 보기도 한다. 그리고는 질문을 시작한다.

“순수한 핸드메이드 제품인가요? 사회적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자등록증은 있으신가요? 우리의 정기모임에 한 달에 한번은 나오실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즐겁게 성실히 일할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아, 그러시구나.....” 한참을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내더니 결정했다는 듯 조용히 웃으며 “요술마켓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제서야 상대방 여성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이제부터 그녀는 '행궁동 사랑방'에서 운영하는 '요술마켓'에서 그녀가 만든 천연비누와 캔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창업팀 문강정과 문고치

마음이 맞다면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요술마켓’은 ‘요리조리 술술 풀리는 마켓’이라는 의미로 판매하는 물건들에게 행운을 실어 잘 되게 한다는 뜻이다. ‘요술마켓’에 들어오고 싶다면 누구든지 이곳을 두드릴 수 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다른 지역사람이라도 괜찮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 공동체가 무엇인가, 사회적 공동체라는 것,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자기 철학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 통한다면 그들은 이곳에서 재미나게 놀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술마켓’에 입점을 하게 되면 ‘행궁동 사랑방’은 각자의 포지션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공동체가 된 이상 ‘행궁동 사랑방’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힘을 발휘한다. ‘요술마켓’에서 판매가 진행되지만 홍보는 ‘일인미디어 연합’이 맡는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SNS를 적극 활용한다. 이래봐도 팔로우가 2만 명에 가깝다. ‘행궁동 사랑방’에서 검증되고 판매되는 물건들은 빠른 속도로 알려지게 되고 소문을 듣고 주문을 하거나 행궁동을 찾아오게 된다.

‘행궁동 골목장’으로 생기를 더하다

‘행궁동 사랑방’은 행궁동이 지금보다 더 생기를 바란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의 유명세와는 다르게, 이곳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일까라는 질문에 홍보가 안돼서 라고도 하고 점집(무속인)이 분위기에 맞지 않게 너무 많아 서라는 푸념도 있다. 거리가 너무 조용하고 침체되어 있다고도 한다. ‘행궁동 사랑방’은 이를 적극 반영한다. 그리고 고민을 시작한다. 예너지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보자 라는 마을의 목표가 생겼다.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행궁동 골목장’을 계획



화성읍



마을회의

중이다.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와의 협업으로 마을장을 상시적으로 운영해보자라는 계획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플라마켓임을 공모해서 먹거리며 공방 골목답게 체험부스를 마련해서 공예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장터답게 풍물패 공연도 해보자는 거다. 행궁동은 맛집도 많다. 장터에 먹거리가 빠질 수는 없다. 맛집이 많다는 것은 큰 도움일 것이다. '행궁동 사랑방'은 협업팀인 '청년 IT 개발팀'의 도움을 받아 행궁동 맛지도 어플을 만들었다. 어플로 맛집도 알리고 일인미디어들의 도움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행궁동 골목장'을 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따뜻한 봄이 오면 '행궁동 골목장'이 주기적으로 열릴 것이다.

정조대왕의 꿈을 담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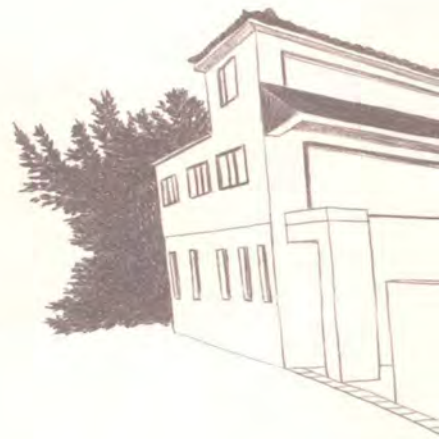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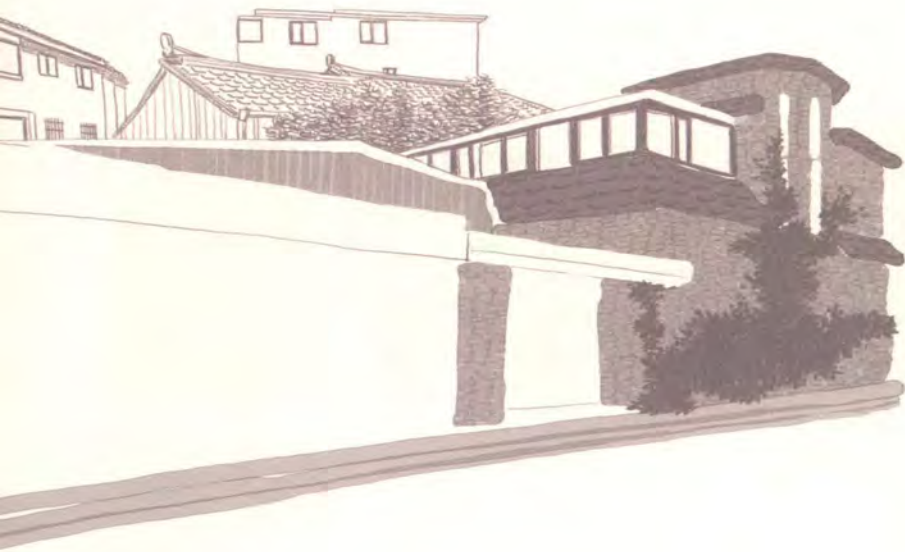
'행궁동 사랑방'을 중심으로 마을사람들은 점점 마을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한정식 '오색'의 장

사장은 자신의 가게를 마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낮에는 밥과 차를, 밤에는 술도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한다.

도자기공방 '도자이야기'의 신대표는 공방의 한 걸을 스텝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물론 공짜다. 어려운 이웃이 이곳을 필요로 한다면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내어 줄 것이다. 이들은 조금씩 자신의 걸을 내어주고 하나가 되어간다. 수원 화성이 300년 전 정조대왕의 미완의 신도시라면 그의 뜻을 받들어 이곳에 활기를 더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생각이다. 점점 더 행궁동은 따뜻해지고 있다.



글: 이진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2. 17



61

정자동 느티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행복마을 추억제작소

주소 |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66 정자2동주민센터 2층
(한솔도서놀이터)



느티마을의 문화사랑방

행복마을 추억제작소

함께하는 생생교육

토요일 아침 창경궁 앞, 20명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엄마선생님들과 모여있다. 엄마들은 역사탐방 선생님이로 하루동안 아이들과 우리의 역사를 공부할 것이다. 이 시간은 정자동 행복마을 추억제작소에서 진행되는 역사탐방 시간으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생생교육을 해보자는 뜻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지켜야할 규칙들을 얘기해주고 질서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앞서가는 문화해설사 선생님이 창경궁의 역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엄마들은 수첩에 메모를 하고 사진도 찍는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책으로 익혔던 역사를 역사의 현장에서 이야기로 전해 들으니 너무나도 생생하다. 아이들은 이 좋은 기억을 잊지 않을 것이다. 행복마을 추억제작소에서 벌써 5년째 하고 있는 일이다. 행복마을 추억제작소는 두 명의 공동대표가 이끌어 나가고 있다. 엄마들로 구성된 자원 봉사자들 5명, 이들은 언제나 행복마을 추억제작소의 프로그램 활동에 동참하는 고정 멤버들이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마을 추억제작소를 홍보해줄 70여 명의 SNS활동 멤버들이 있다. 이들은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진행과 행사홍보활동을 한다. 행복마을 추억제작소의 행사가 빨리 알려지는 것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들 덕분이다. SNS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관련된 홈페이지 등에 빠르게 글을 올린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다

지역활동으로 나름 유명해지면서 청소년수련관, 복지관에서 수업 요청이 들어온다. 행복마을 추억제작소의 구성원이 다양한 관계로 능력자들이 많다. 대표를 비롯해서 구성원들



역사탐방

은 미술, 전래놀이, 역사, 문화해설사, 스토리텔링, 탭댄스, 방과후선생님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못 하는 게 없다. 대부분이 엄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 케어는 기본이다.

요청하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있다. 이들은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 학교에 파견되어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이 종강이 되면 수강생들은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한다. 행복마을 추억제작소는 종강 이후의 동아리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역사탐방동아리가 만들어졌고, 15명의 회원들이 역사탐방을 신문으로 제작하였다. 전래놀이학습동아리는 마을축제 때 전래놀이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탭댄스 동아리는 아이, 어른 포함 11명이 무대공연을 선보였다.



동아리 활동과 수업들

200만원을 2000만원처럼!

-“정보톡 힐링톡”프로젝트

“정보톡 힐링톡”은 행복마을 추억제작소에서 2014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우수동아리사업에 선정된 후 진행한 24차시 프로젝트이다. 정자동 보통사람들이 원하는 톡,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힐링이야기라는 의미의 동아리사업으로 200만원을 지원받아 6개월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정보톡 힐링톡의 24차시의 프로그램의 주제를 “지역명사 스토리텔링”이라고 설정하고 우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나눔을 실천하면서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이들을 초대해서 마을사람들에게 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고 체험도 해보자라는 의도이다.

19명의 강사들이 섭외되었다. 분당FM라디오 진행자,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세탁소 사장님, 대한학교선생님, 비누공예선생님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구성은 하였으나, 강사비는 5만원... 쉽지않았다. 설득하고 부탁하고 전화를 여러통... 찾



동아리 활동과 수업들1



동아리 활동과 수업들2

아가고 다시 찾아가고... 행복마을 추억제작소의 뜻을 아는 그들은 고맙게도 응해주었다. 수업장소는 정자동청소년수련관, 시간은 매주 토요일 12시~2시, 대상은 정자동 주민 누구나... 이렇게 “지역명사 스토리텔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분당FM라디오관계자와의 특 시간에는 라디오 진행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PD가 되어서 방송원고 작성방법도 배워보고 자기가 쓴 원고로 DJ가 되어보기도 하였다. 흔하지 않는 수업에 참가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강사는 열의를 다해 답해준다. 그들의 열정으로 교실이 뜨거워진다.

비누공예수업도 있었는데 수업 공지 후 삼시간에 마감되었다. 무려 35명이 참여 신청을 한 것이다. 후로도 계속 참여 신청이 들어왔지만 사실상 다음을 약속하게 되었다. 좁은 강의실에 모여 옹기종기 35명이라는 수강생들이 모여 강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실습에 임할 준비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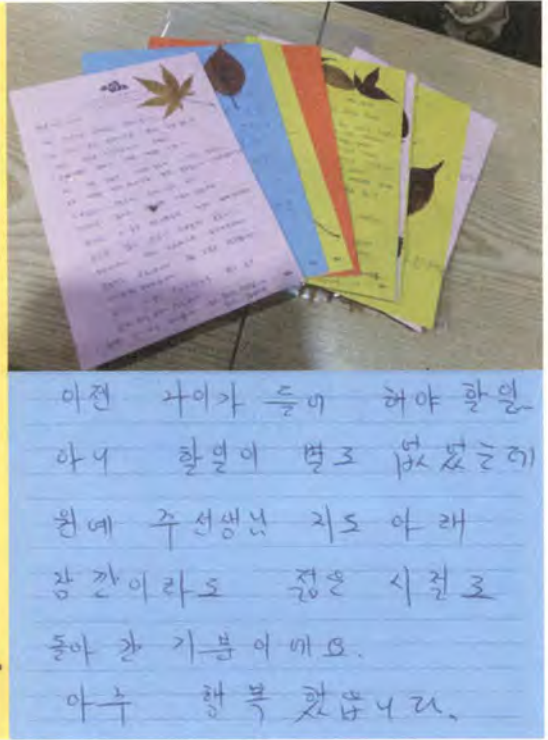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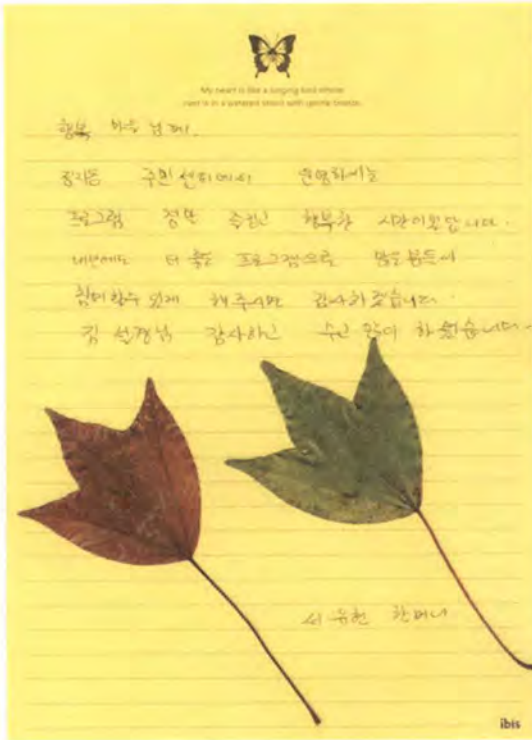
다. 배우는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이다. 이렇게 2014년 8월, “지역명사 스토리텔링”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났다.

협동조합 <행복창작>이 되기까지

2013년 8월에 성남시가 사회적기업 창업보육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기회였다. 긍정적인 거점 공간이 없는 당시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행복마을 추억제작소는 강한 창업의지를 보였고 선택되었다.

정자동 킨스타워 21층 창업보육센터에 행복마을 추억제작소의 사무실이 꾸러졌다. 이곳은 10개의 새내기 창업팀이 모여서 공동으로 공간을 쓰는 구조이다. 같은 공간을 사용하다보니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평생교육 지원”이라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2014년 12월에 이들은 교육협동조합 “행복창작”을 만들게 되었다. 행복마을 추억제작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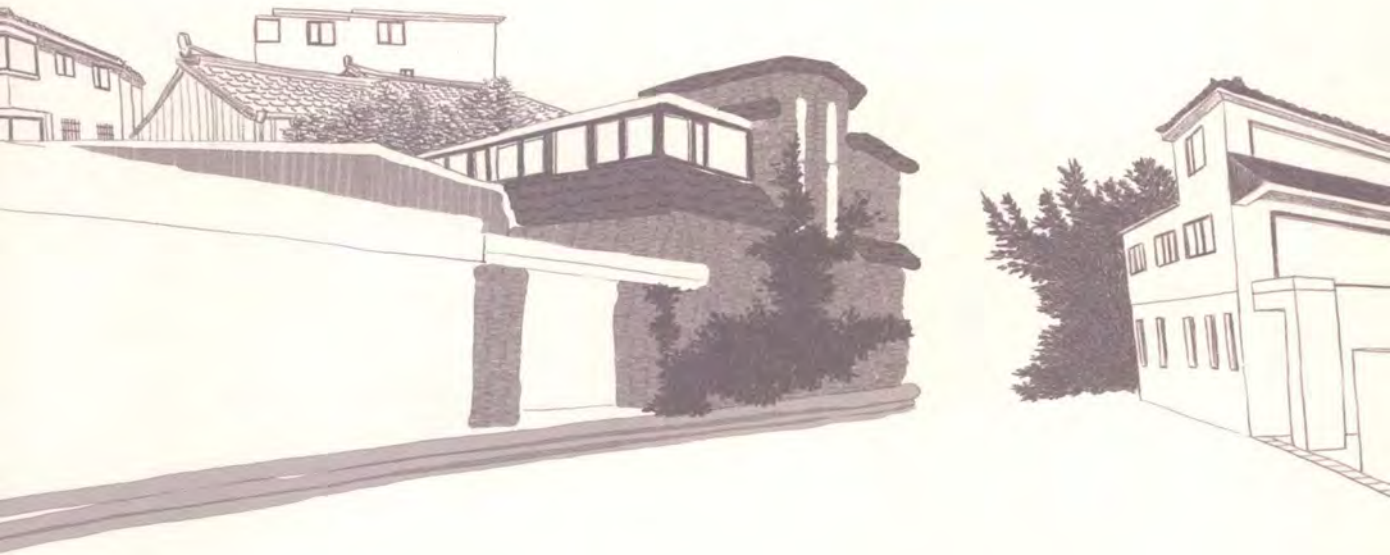
행복마을 추억제작소에 보내온 감사의 마음들

모체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일은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다. 행복마을 추억제작소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가족과 같이하는 역사 탐방, 아이들이 운영하는 벼룩시장, 초등학교와 청소년 수련관 돌봄교실, 체험활동, 마을사람들이 선생님이로 활동할 수 있게 교육기관에 연결해 주는 일..이런것들 말이다. 소소하지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행복마을 추억제작소"는 이것들을 통틀어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평생교육과 마을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중간매개체라고 부른다. 5년동안 그 허브역할을 자처했고 잘해왔다.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시련이 오지 않는 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금처럼... 일 것이다.



글: 이진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5. 12. 11



62

화성시의 유일한 생태관광협동조합으로
시화호 생태관광을 시작으로
생태해설사, 지역주민들, 생산자가
모여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

주소 |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607-1
전화 | 031-355-8664



사람과 마을을 잇는 소통여행

생태관광협동조합

생태관광, 그것이 알고 싶다

생태관광은 관광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고유문화와 역사유적의 보전,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대한 관찰과 학습, 관광지역과 사업체의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 관광객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동 등을 포괄하는 관광이다. 생태관광은 자연경관을 관찰하고 야외에서 간단한 휴양을 하며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의 문화와 자연, 유적을 보호하며, 지역주민들에게도 관광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 녹색관광, 자연관광 등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생태관광협동조합이 탄생하다

화성시는 전국 최초 공정여행 시티투어를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탄소여행으로 충효예향의 도시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홍보하며, 탄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회용품 사용자제, 1시간 이상 걷기, 지역 농어촌 체험을 통해 지역과 교류하고 전통시장, 로컬푸드직매장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티투어는 다섯 가지 테마 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공통알 화석산지-우음도/ 형도 시화호 생태투어를 생태관광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에서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곳은 이곳 생태관광협동조합이 유일하다. 생태관광협동조합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이 꾸러지기 이전부터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생태해설사들은 2006년 화성의제에서 실시한 생태교육을 통해 생태관광해설사가 되어 시화호를 중심으로 생태해설을 하고 있



생태관광조합원 단합대회 - 국화도

었으며, 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 활동가로서 삶을 살고 있었다. 또한 생산자인 농민들도 지역 주민으로서 농사를 업으로 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화성시의 생태해설사는 2005년 화성의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역에서 생태해설 교육을 통해 시작되었다. 특히 지역자원을 잘 알고 있는 우음도 주민에 의하여 지역자원의 홍보와 생태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화성의제의 역할은 매우 컸다.

생태해설사들은 시화호 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음도 주민이 지키고 싶어 했던 지역 전통문화인 당제(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를 알게 되었고, 생태해설사들 또한 우음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키고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지역의 농민들은 화성시 송산면의 포도, 블루베리, 고구마 등 지역농작물을 농촌체험과 연계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했다.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개별적이 아닌 네트워크를 통한 법인을 만들고 생태관광이라는 구현을 통해 사업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함께 2012년 협동조합 관련교육을 받은 후 발기인을 모으고 총회를 통해 2013년에 협동조합으로 출발하였다. 즉 이미 다른 활동을 통해서 지역활동을 하고 있던 지역에



사무실 입구에 놓여있는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명패



비봉습지 청소년 수련활동

대한 애정이 큰 사람들이 협동조합으로 만나게 되었고, 더욱 체계화된 사업을 통해 더 큰 사업들을 해내기 위하여 뭉치게 된 것이다. 협동조합구성원은 화성시민으로 생태해설사, 지역주민들, 생산자(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은 현재 56명으로 생태해설사 20명, 생산자(농민) 10명, 나머지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에는 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이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생태관광, 지역을 살리다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에서는 생태관광, 생태교육,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하고 있다. 처음 생태관광협동조합에서 시작한 사업은 시화호 생태관광이었으나, 현재는 화성시 전역에 대한

생태관광으로 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생태관광은 공룡알 화석산지 - 우음도/ 형도 시화호 생태투어를 통해 1억년 전의 공룡이 살던 과거로의 여행이라는 테마로 생태관광을 진행하고 있다. 생태관광에서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기본적인 코스는 제시하되, 구성원의 구성에 따른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는 화성시의 내고장 창의체험 활동으로 시화호 상류 남측 간척지인 비봉습지공원의 해설사 위탁을 받아 운영하였다. 생태교육은 아이들의 참여가 많으며, 화성 공룡알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14호)에서도 생태해설사의 스토리가 있는 해설을 제공받고 있다. 2015년 비봉습지공원과 화성 공룡알 화석산지를 다

년간 참가자는 약 2,500명 정도이다.

생태관광, 소통을 위한 여행이다

흔히 생태관광은 관광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유적지, 보존이 양호한 생태지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은 이러한 개념적 틀에서 벗어나 관광과 교육을 세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태관광에 생태교육을 포함하지 않고 별개로 보고 있다. 생태교육의 진행 일반 관광업체는 생태관광이나 생태체험에서 인원의 규제를 두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생태관광협동조합은 인원의 규제를 두고 있는데 1일 60명을 넘지 않으며, 한 장소에서 1일 1학급 진행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해설사가 1인이 담당하는 학생도 15명으로 한 학급당 2명이 배치되고 있다. 이렇게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학생수가 20명을 넘게 되는 경우 집중력이 흩어지게 되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내용도 여행의 일부분으로 체험과 해설을 이끄는 사람들과의 소통, 여행 온 사람 간의 소통,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지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린다”하여 붙여진 우음도는 시화호 개발 이후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잦다. 우음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매력은 우음도의 전통과 역사를 경험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과 무엇보다

도 우음도 주민들의 소박한 마음이다. 우음도의 여행객들은 우음도 주민들이 재배하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 내는 토속음식과 함께 우음도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 소통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생태관광투어, 주민과 함께 하다

생태관광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생태관광이 지역과 주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특성으로 지역주민은 생태관광조합원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이자 생산자이자, 농민들인 조합원은 농산물 체험과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생태관광협동조합원으로서 협동과 이익을 함께 나누고 있다.

생태관광협동조합의 생태체험은 한 곳에 투입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단체객의 경우 한 단체 이상 받지 않는다. 체험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생산자 조합원들과 갖은 상호소통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농민이 원하는 가격을 제공하기에 협동조합 이용객만 참여가 가능할 수 있었으며, 이 외 활동은 농민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 생태관광협동조합의 소규모 체험은 참여한 블로거들을 통해 좋은 체험으로 이어져 홍보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잠재고객을 양산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지역의 특산품인 포도체험은 포도밭을 통째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처음 생태관광을 접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공룡알 화석지 여행

은 걷는 코스가 많아 힘들어 하는 것이다. 생태관광초기에는 여행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관광객들과 함께 여행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전달해 주며, 여행객들이 지치지 않고 즐기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거나, 자연환경을 그대로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느낄 수 있도록 여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직접 여행을 만들어가는 여행 문화를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스스로 자연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자연에서 바람소리를 들어보거나, 자연에서 누워보기 등 여행객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태관광, 차별화로 발전하다

생태관광협동조합은 화성시 시티투어와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 시티투어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관광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생태관광협동조합은 시화호에코투어를 출시하며 관광객들의 싸늘한 반응에서 화성시 시티투



습지 모니터링



비봉습지

어와의 가격과의 경쟁력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생태관광협동조합은 관광객들의 가격과 만족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여행으로 문화관광해설사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화성시 공정여행에서도 관광객들의 반응이 가장 좋은 여행이 공룡투어라고 한다. 화성시가 주최한 팸투어 참가자들의 반응은 블로그를 통해 입소문이 나며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켰다. 팸투어를 통해 생태관광협동조합의 서비스를 경험했던 교사, 기업체의 참가자에 의하여 공룡투어 코스만큼은 생태관광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소문으로 성공의 길로 들어서며 딜레마도 해결할 수 있었다.

생태관광, 미래가 보인다

생태관광협동조합의 역할은 관광객들이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느끼는 여행을 통해 지역주민을 만나고 알고 지역스토리를 알게 될 때 관광객 스스로 여행이 지역을 바꿀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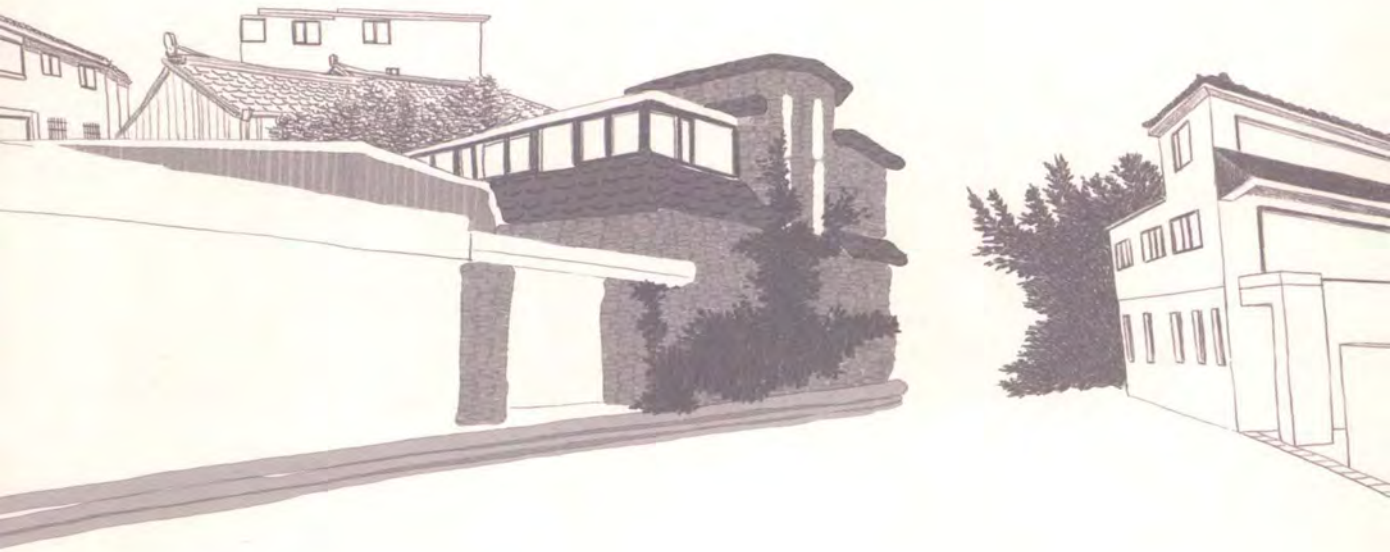
는 믿음으로 '다음 여행에서는 더 나은 여행을 바꾸어 놓는 역할'을 돕는 조력자라 할 것이다. 생태관광협동조합은 2016년에 화성시 시티투어와는 다른 차별적이고 고차원적인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기행으로 답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 화성별난여행은 버라이어티여행으로 이용자 스스로 여행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원의 일자리 창출과 적정조합원수의 유지를 위하여, 조합원의 수를 늘리되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나 생산자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생태관광은 지속가능관광으로 관광객의 보람과 지역의 경제적 이익까지를 보장하는 것이 최종목표라 할 것이다.



글: 김선희
(경기도 따북공동체지원센터 사례조사원)
2016. 1. 27





사례조사원 후기

손광순 · 정필원 · 김선희 · 이진아 · 안은성
박은주 · 윤영욱 · 심수연 · 오옥분 · 시경숙



사람들이 사는 곳은 지역이 다르건 피부색이 다르건 모두 같다. 다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것이 더 나은가는 없다. 만약 '나는 이걸 좋아' '저건 싫어' 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얼마나 힘겨울까. 이번 사례조사를 통해서 각 마을공동체의 이야기 마다 사연이 있고, 노력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우리가 현대문명을 살아가며 저 멀리 멀어졌던 아름다운 마실문화를 살리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기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은 멀리 있지 않음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다.

손광순



오늘도 현장에서 무한 사명감으로 열과 성을 다해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존경하는 활동가들이여! 이곳에 소개된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계속 발전하고 부족한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 주민들은 행복하고 마을은 어제보다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따복이여 지속가능하라!

정필원



마을 안의 숨겨진 보물찾기는 흥미진진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마을살이는 그대가 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김선희





서둘러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주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사례집이 나온다고 하니 뿌듯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쓴 글들이 표현이 부족해 그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한편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례지를 돌아다니면서 나와 다른 삶의 방식에 덤덤하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글을 쓰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공부도 하면서 새롭게 배우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버릴 줄 아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 동안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아



다른 마을, 다른 공동체들은 어떻게 모임을 시작했을까,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어떤 즐거운 일들을 작당하고 있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까.. 나 역시 마을에서 뛰고 지지며 활동하는 사람이다보니 다른 마을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무엇보다 만나고 싶었다. 결과적으론, 만나길 잘했다. 마을 곳곳에서 마을공동체의 작은 씨앗을 소중히 가꾸어 가는 사람들의 열정과 고민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으니까. 최대한 들은대로 전달하려고 애썼지만 전문가의 글이 아니다보니 허술한 구석도 많다. 부족하지만 경기도의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 실린 이야기를 읽고 각 마을의 생생한 호흡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안은성





나무들이 베어져 자본이 되는 동안에도
한쪽에서 열심히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가 아닌 모두의 주머니를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는 일은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따뜻하게 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흔쾌히 이야기
나눠주신 제가 만난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박은주



사레조사차 방문한 현장에는 한명 한명의 전문가들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재능을 나누어 주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고, 각자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가 있기까지
구성원들의 얼마나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지,
또 우리 주변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영욱



가족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김포나누리합주단은
계절별로 피는 꽃같이 아름다운 봉사단체를 보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을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해맑은 웃음이 질풍노도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의 분위기였다.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에서
행복을 느꼈다.

심수연





지역에서 공동체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할 일들도 몇 사람들의 열의와 추진력,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행되고 큰 결실을 얻고 있었다.

마을 공동체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힘들었던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 앞으로 이런건 또 시작해보겠다는 다짐 등,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그 곳이 마을공동체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주는 사례조사원 활동은 보람과 즐거움이 함께한다.

오옥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나로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례조사원 활동을 하게 되었다. 공동체 활동을 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적지 않은 시간을 개인이나 공동으로 뭉쳐서 뜻을 같이 하며 만들기까지의 서로에게 배려하고 타협하며 함께하는 모습에 존경스러웠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요즘 세상에 공공의 이익으로 마을과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며 힘든 일도 있겠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본다. 나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분들께 당신들이 있어 세상은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시경숙



에필로그



사례집이 나오기 까지

이번 사례집은 지역에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묵묵히 또는 치열하게 실천해온 활동가와 그들이 이루어낸 보석같은 공동체들을 힘담는데까지 소개하고자 만들어졌다. 또한 이 사례집을 통해 마을과 사회적경제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하는 용기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집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고민을 정리하여 사례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사례찾기 - 경기도는 넓다.

넓고 넓은 경기도에서 공동체 사례를 찾는 것은 그야말로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다. 더욱이 공동체의 개념도 취미모임에서 부터 지역사회까지 방대하기 때문에 대상을 좁히는 작업이 필요했다.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따복의 미션인 ‘마을공동체운동과 사회적 경제의 융합’에 맞게 사례도 ‘마을과 사회적경제가 함께 동행’하는 사례로 대상을 정했다.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동행’사례로 대상을 정했지만 고민이 많았다.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동행사례는 없다는 사람부터 단순히 우수사례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에게 추천받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례를 추천해주었다. 평택에서 포천까지.. 도서관 모임에서 부터 사회적기업까지 참으로 다양한 사례지 40곳이 추천되었다. 이렇게 추천받은 곳과 함께 관련 단체 즉 각 시와 군, 마



사례조사원 모임

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그리고 부문별 협의회 등에게 별도로 추천을 부탁했다. 그밖에 따복사업으로 172개 주민제안 사업 중 상담원들이 추천한 사례, 따복지원센터의 협동화 사업 참여 단체 등을 합해서 총 80여개의 사례가 모였다. 전국 광역자치 단체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고 서울에 17배나 넓은 경기도에서 80여곳의 사례를 추천받는 것 자체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서라도 한발 한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로 사례조사를 시작하였다.

사례조사원 모집- 경기도의 중심은???!!!

사례조사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조사원을 모집하고 훈련하여 사례지를 직접 방문해서 조

사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사례조사를 할 때 정성과 애정이 훨씬 더 많이 담길 뿐 아니라 사례조사활동가도 발굴되고 성장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먼저 사례조사원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자격은 마을과 사회적경제에서 활동한 경력 2년 이상인 활동가 혹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조사원을 훈련하고 사례지를 직접 찾아가고 사례집을 발간해야 했지만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가 6월에 오픈하였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였다. 따라서 사례조사원 워크숍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 가 없어서 경기도 전역에서 한꺼번에 모일 수 있 서울 한복판에서 워크숍을 진행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각지에서 모인 총 22명과 함께 첫 사례조사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사례 조사원 워크숍을 진행하며— 이게 다야?

워크숍은 이번 사업의 파트너인 황상윤(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정책실장)님이 주로 맡아서 진행했다. 참가자 중에는 정해진 보고서 양식에 맞춰 보고서만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사례보고서가 일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인터뷰 방식도 있지만 인터뷰 방식은 단체나 공동체의 대표에게 초점이 쏠리기 쉽고 또 조사원의 관점이 다각적으로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야기 형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그에 맞는 훈련으로 5분 스피치 연습을 진행했다. 한명의 발표자가 자신의 활동 이야기를 5분 동안 이야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글로 표현한다. 그 표현한 것을 서로 나누고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을 2-3번 걸치면서 이야기 형식의 조사보고서가 무엇인지 조금씩 감을 잡을 수 있었다. 한편 사례조사의 실체를 체험하기 위해서 직접 사례지 방문도 하였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이라 어쩔 수 없이 서울 사례를 탐방했는데 3조로 나누어 '성대골', '창신동', '성미산'을 방문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사례조사시 예상되는 어려움', '조사원의 자세'등을 가지고 브레인 라이팅을 하였다. 조사시 예상되는 어려움에는 '문전박대', '보고서작성', '집과 먼 곳을 조사'등이 나왔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더 필요했지만 시간상 오프라인 모임을



사례조사원 워크숍

기약했다. 많은 문제를 뒤로 하며 짧은 사례조사원 워크숍을 마무리 했다. 실무자도 조사원도 이게 다야? 하는 아쉬움과 불안함이 있었다.

예행연습 - 글을 통과시켜야 한다.

본격적인 사례조사를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예행연습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사례조사 보고서는 버려야 한다'는 충고 때문이었다. 우선 사례조사원들이 각자 사례지를 정해서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었다. 1명 혹은 2명씩 짝을 지어서 익숙한 공동체를 정해서 사례조사를 했다. 다행히 조사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경험이 있어 사례지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관문이 있었다. 바로 사례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검토를 받는 과정이었고 그 역할은 사업파트너인 황상윤님이 담당하여 주었다.

막상 조사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인터뷰 형식, 프로그램 체험기, 탐방기 등 다양각색의 형식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사례조사원 워크숍 때 이야기 형식의 보고서라고 했어도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던 것이다. 형식을 통일하

고 초점을 사람에서 공동체에게 맞추고 전하는 바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써야 했다. 글이 통과될 때 까지 말이다. 조사원 마다 역량과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조사원은 2-3번 만에 통과되었지만 어떤 조사원은 6번 이상 수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생끝에 낙이 온다고 했을까? 처음에 낸 보고서와 몇 번의 수정작업을 걸쳐 나온 보고서는 확연히 달랐다. 글들이 너무 좋아지고 지역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감동과 애정이 녹아 있었다. 사례조사 나갈 곳과 약속을 하고 다녀와서 글을 쓰고 사진을 받고.. 그 글이 몇번의 수정 요청을 통해 고쳐지는 순탄치 않은 과정으로 시간이 한정 없이 흘러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한명씩 한명씩 사례조사 보고서가 완성되고 발전하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이었다.

본격적인 사례조사 - 나타나는 문제들

사례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다양한 사례와 만날수록 다양한 문제가 생겨났다. 그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 본다.

1) 파주에서 용인까지 경기도는 넓다

우연히 사례조사원이 북부에 사는 사람이 많았다. 남부는 불과 3명, 북부는 6명이었다. 하지만 사례는 또 남쪽이 많았다. 이 이상한 불균형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일단 북부에 조사원에게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파주에 사는 사례조사

원은 용인까지 와야 했다. 이것은 남북 뿐 아니라 동서도 심각했다. 양평, 가평 등 동쪽의 사례조사도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신규 조사원 워크숍은 경기도 동쪽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2) 전지적 작가시점이 뭐야?

사례조사 보고서를 처음 쓸 때는 사례조사원이 관점이 들어가기 쉽다. 나는 어떻게 했다던지.. 어떻게 느꼈다던지.. 하지만 그럴 경우 읽은 이로 하여금 사례지에 촛점을 맞추게 하기 보다는 조사원의 행동과 말에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사례조사보고서는 3인칭 관점으로 쓰기로 했다. 이른바 '전지적 작가관점'. 하지만 초등학교때 어렴풋이 배운 기억밖에 없는 터라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야 할 정도였다 "애들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니?"

3)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룰 것인가?

사례조사를 하다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다. 이런 공동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물론 사례조사원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만 부각하면 마치 실패사례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실패, 성공이라고 구분 지을 수 도 없는 공동체의 현실도 문제려니와 일단 이번 사례집은 이것을 보고 나도 공동체운동에 동참해 볼까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에 공동체의 어려움을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어려움을 알

려서 도움을 주고 싶은 조사원의 마음으로 어려운 점은 자꾸 부각되고 간간한 수정 요청은 계속되었다. 결국 여러 번의 논의 끝에 공동체의 어려움은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함께 신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공동체의 어려운점이나 문제점은 좀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우리에게 역량이 생기면 진행하기로 하였다.

4) 공동체 대표이야기는 어디까지

사례조사원이 조사를 나가면 만나는 사람은 그 사례지의 대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표와 인터뷰 하다보면 대표가 고생한 이야기며 대표가 꿈꾸는 것 등을 중심에 두기 쉽다. 하지만 공동체 활동에서 리더가 중요하지만 한 두 사람의 수고와 고생만으로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조사보고서에서 대표의 이야기는 자제하기로 했지만 인지상정인지라 잘 지켜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는 대표의 이야기는 다 빼기로 하는 극약 처방을 하기도 했다.

5) 쓸게 없다

시간적인 부족함과 자료 부족 그리고 실무진의 경험 부족으로 사전조사가 철저하지 못한 채 사례조사원이 파견되었다. 따라서 막상 사례지에 나가보니 쓸 이야기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곳은 정말 조사원들에게 미안하기만 할뿐... 또 한번은 사례지 주소를 물어 물어 갔더니 방금 사례조사를 마친 곳이었다. 한 건물에 여러 공동체가 동지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또 인터뷰 할 때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있다. 한예로 어떤 사례지는 2시간동안 설교 아닌 설교만 듣고 온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례조사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하고 간간한 수정과정을 거치므로 쓸게 없는 곳은 허탕만 친 꼴이된다.

6) 인터뷰를 거절하는 곳

사례지의 상황에 따라 인터뷰를 거절하는 곳도 많았다. 심지어 사례조사 보고서가 블로그(따복넷)에 실린 후에야 비로서 글을 신지 말아달라는 연락이 왔다. 어떤 경우는 만나기로 한 1-2시간 전에 못하겠다는 연락도 온다. 실제로 올해 최대 폭설이 내린 날 산골짜기에 있는 사례지와 인터뷰 하러 가던 중에 1시간 전에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다. 그날따라 조사원의 차도 고장이 나서 하루종일 눈속에서 고생고생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거절하는 곳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심해졌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우 연말결산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어떤 공동체는 처음에는 방문을 거절하였다가 조사원의 2-3번의 방문 시도에 결국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7) 사례조사원 모임

이렇듯 힘든 과정 속에서 조사원 모임은 많은 힘을 되었다. 모임속에서 서로 어려웠던 점을 나누고 사례보고서에 못다한 사례지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었다. 또한 모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졌다. 글의 구조 잡는 법, 인터



사례조사원 워크샵

부 방식하는 법 등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즉석에서 후속교육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중에서도 제주도에서 진행한 2박3일의 워크샵은 조사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서로 단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더욱이 보고서 통과과정에서 쌓였던 스트레스와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이후에는 사례조사원 모임을 2달에 한번으로 정례화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례집이 나왔다. 앞서 말한대로 80여곳의 추천 사례중에서 중복된 곳, 사례지의 사정상 취재가 어려운 곳 등을 제하고 총 61여곳의 사례지를 사례조사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몇 번의 수정과정을 거쳐 작성한 글들이다.

이글들은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먼저 네이버 블로그 "따복넷"에 게재되어 여러사람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 사례집이 나오기까지 가장 많이 애써준 사람은 사례조사원들이다. 적은 활동비에도 불구하고 먼곳도 마다않고 사례지를 직접 찾아다녔으며 간간한 수정요청을 다 견디어 내었다. 사례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사례지를 다녀오고 사진을 받고 글로 정리하는 작업은 보기와는 다른 고되고도 지난한 과정이다.

또한 사업파트너인 황상윤님의 노고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보고서를 통과 시켜 달라는 다양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준을 고수하였기에 조사원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원 모임에도 항상 같이 하여 서로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었다. 사례지를 점검하고, 글을 독촉하고 받은 글을 정리해서 네이버에 올리고 무엇보다도 조사원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사례조사팀의 실무자들의 수고와 전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주고 기다려 준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식구들 그리고 따복공동체 지원단이 있었기에 이 사례집이 나올 수 있었다.

이번 사례집은 마을과 사회적경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기초 작업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작업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보다 심층적인 사례집이 나와 따복공동체 운동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색인

가평군

가평읍내 3,4리 청년회 6

고양시

고양·파주아이쿱생협 26

두레협동조합 94

원당신협 232

위캔센터 238

과천시

과천품앗이 32

광주시

퇴촌토마토평화마을 316

구리시

오뚜기 마을 214

군포시

대야미마을 협동조합 64

인생나자 작업장 260

좋은터 284

김포시

영농조합법인 김포농식품가공 206

동두천시

광암동 기지촌 상처, 치유, 공감 프로젝트 38

더불어꿈 70

부천시

달나라토끼 협동조합 58

제팻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278

콩나물신문 협동조합 310

성남시

꿈너비작은도서관 44

되살림가게웃는나무&북카페,물푸레작은도서관 88

주민신협 290

행복마을 추억제작소 380

수원시

더페이퍼 82

솔대노리 협동조합 132

칠보산 마을 304

한신대 꿈틀거리 356

행궁동 사랑방 374

시흥시

참새방앗간 296

안산시

감골주민회 12

문화세상고리 118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168

울타리넘어 226

안성시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 176

안양시

바른두레생협	126
안민사랑등지	162
안양실버포럼	184
연현마을문화예술연구소	200
한살림 경기남부 생협	348

양주시

느티나무	52
아이꿈터 장난감도서관	150
양주꿈의학교	190

양평군

뚝단지 마을	106
에버그린에버블루 협동조합	196
해바라기 마을	364

연천군

해피트리	368
------	-----

오산시

잔다리 마을공동체	266
-----------	-----

용인시

고기교회	20
마을in, 멈추go!	112
아홉색갈 농부	156

의왕시

숲속옹달샘 작은도서관	138
-------------	-----

의정부시

두루누리 어깨동무	100
우리동네 협동조합	200
의정부협동조합	250

이천시

이천F4	256
------	-----

파주시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	144
윤곡영농조합	244
전나무골 사람들	272
파주 운정2동부녀회	324

평택시

평택홈볼트학회	330
---------	-----

포천시

포천비둘기낭정보화마을	334
-------------	-----

하남시

하남동화만들기모임	340
-----------	-----

화성시

더불어 숲 페어라이프	76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	386

발행일 2016년 2월
발행인 권운혁
발행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본부 :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7, 2층 (신곡동, 씨티 메디타운)
T. 031-852-2299
남부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3층)
T. 031-271-2299
www.ddabok.or.kr

디자인 및 제작 (주)더페이퍼 031-225-8199

※이 책은 디자인의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주)더페이퍼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제2015-109호 고용노동부 인증)

경기도의
따뜻한 미래
따복공동체가
열어갑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례모음

따뜻한 사람들의 복된 이야기

